연구보고 20-R06-2

청년 사회 · 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기초분석보고서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보고 20-R06-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V

- 기초분석보고서

저 자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

연 구 진 연구책임자_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연보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배정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_ 배진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bstract

국문초록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조사 시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전국 17개 시·도의 만18-34세 일반국민이다. 목표 표본 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한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최종 조사 결과 총 3,520표본이 수집되었다.

본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조사도구 및 방법, 실사 환경 상의 문제점 진단, 신규 문항 반응을 확인하고 본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5월 7일부터 18일까지 예비조사를 진행 하였다. 본 조사는 조사원이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 대상자와 접촉, 대면하여 면접하는 1:1 가구방문 개별면접 기법으로 수행되었으며, 가구 방문 시 조사대상 연령대 가구원이 부재중일 경우에 한하여 일부 가구원 유치 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조사는 2020년 7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약 8주(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조사 중단 기간 제외)간 실시되었다.

본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에서는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여 500개의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였다. 표본추출은 층화2단추출법을 적용하였는데,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 및 만 18-34세 청년이다. 각 층에서 배정된 표본 조사구 수만큼을 조사구 내의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따라 추출하였고, 이 조사의 표본가구로 선정된 경우에 적격 조사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본고는 이와 같이 수집된 데이터를 기초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차 례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Ⅴ

– 기초분석보고서

연구보고 20-R06-2

Ⅰ.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 3
2. 조사 내용 ····· 5
3. 조사 절차 ····· 11
4. 조사 일정 ····· 14
5. 무응답 현황 ····· 15
6. 표본설계 및 가중치 ····· 26

Ⅱ.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표

1.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응답자 분포 ····· 43
2.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 44

부록

1.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항목 ····· 507
2.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주요항목 상대표준편차 ····· 513
3.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 ····· 517
4.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지침서 ····· 560
5.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응답자 안내서 ··· 630

표 목차

표 Ⅰ-1.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4
표 Ⅰ-2. 2020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항목 ····· 5
표 Ⅰ-3. 조사 일정 ····· 14
표 Ⅰ-4. 항목 무응답 ····· 15
표 Ⅰ-5. 모집단 현황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 27
표 Ⅰ-6. 만 18-34세 성인의 시도 및 연령대별 분포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 27
표 Ⅰ-7. 서울시 권역별 해당 구 현황 ····· 28
표 Ⅰ-8. 경기도 권역별 해당 시군 현황 ····· 28
표 Ⅰ-9. 층화 방법 ····· 29
표 Ⅰ-10. 세부 층별 모집단 조사구 현황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 29
표 Ⅰ-11. 주요 조사변수에 대한 설계효과(design effect) 현황 ····· 31
표 Ⅰ-12. 각 권역별 표본배분 현황 ····· 31
표 Ⅰ-13. 각 권역별 모비율 추정에 대한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 예상 ····· 31
표 Ⅰ-14. 시도별 표본 조사구 수 ····· 32
표 Ⅰ-15. 세부 층별 표본 조사구 현황 ····· 33
표 Ⅰ-16. 지역별 가구당 평균 조사대상자 수 현황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 34
표 Ⅰ-17. 시도 및 연령별 모집단 분포: 남자(장래인구추계, 2020년도) ····· 37
표 Ⅰ-18. 시도 및 연령별 모집단 분포: 여자(장래인구추계, 2020년도) ····· 37
표 Ⅱ-1.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연도별 추이 ····· 44
표 Ⅱ-1-1.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 45

표 Ⅱ-2. 원가정으로부터 독립 필요성 및 적정 독립시기 연도별 추이 46
표 Ⅱ-2-1. 원가정으로부터 독립 필요성 및 적정 독립시기 ····· 47
표 Ⅱ-3.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연도별 추이 ····· 48
표 Ⅱ-3-1.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 49
표 Ⅱ-4. 자녀를 가질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 연도별 추이 50
표 Ⅱ-4-1. 자녀를 가질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 ····· 51
표 Ⅱ-5-1.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1순위(상위 5위) 53
표 Ⅱ-5-2.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1+2+3순위(상위 5위) 54
표 Ⅱ-6. 결혼 경험 연도별 추이 ····· 55
표 Ⅱ-6-1. 결혼 경험 여부 ····· 56
표 Ⅱ-7. 결혼 준비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 57
표 Ⅱ-7-1. 결혼 준비 경험 여부 ····· 58
표 Ⅱ-8. 결혼 준비 시 망설인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 59
표 Ⅱ-8-1. 결혼 준비 시 망설인 경험 여부 ····· 60
표 Ⅱ-9. 결혼을 망설인 이유 연도별 추이 ····· 61
표 Ⅱ-9-1. 결혼을 망설인 이유 ····· 62
표 Ⅱ-10. 맞벌이 여부 연도별 추이 ····· 63
표 Ⅱ-10-1. 맞벌이 여부 ····· 64
표 Ⅱ-11. 현재 자녀 존재 유무 연도별 추이 ····· 65
표 Ⅱ-11-1. 현재 자녀 존재 유무 ····· 66
표 Ⅱ-12.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연도별 추이 ····· 67
표 Ⅱ-12-1.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 68
표 Ⅱ-13-1. 자녀를 추가로 가질 의향이 없는 이유 ····· 70
표 Ⅱ-14. 2025년 출산율 전망 연도별 추이 ····· 71
표 Ⅱ-14-1. 2025년 출산율 전망 ····· 72
표 Ⅱ-15.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연도별 추이 ····· 73
표 Ⅱ-15-1.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 74
표 Ⅱ-16.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연도별 추이 ····· 75
표 Ⅱ-16-1.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 76
표 Ⅱ-17. 2025년 입시경쟁 전망 연도별 추이 ····· 77
표 Ⅱ-17-1. 2025년 입시경쟁 전망 ····· 78
표 Ⅱ-18.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연도별 추이 ····· 79
표 Ⅱ-18-1.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 80

표 Ⅱ-19.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 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연도별 추이 ····· 81
표 Ⅱ-19-1.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 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 82
표 Ⅱ-20.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 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연도별 추이 ····· 83
표 Ⅱ-20-1.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 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 84
표 Ⅱ-21. 대학(교) 진학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 85
표 Ⅱ-21-1. 대학(교) 진학 경험 여부 ····· 86
표 Ⅱ-22. 대학 전공 계열 연도별 추이 ····· 87
표 Ⅱ-22-1. 대학 전공 계열 ····· 88
표 Ⅱ-22-2. 대학 전공 계열 (한국표준교육분류 적용) ····· 89
표 Ⅱ-23-1. 등록금 마련 주된 방법 ····· 90
표 Ⅱ-24-1. 총 학자금 대출 금액 ····· 91
표 Ⅱ-25-1. 학자금 대출 상환 가능 기간 ····· 92
표 Ⅱ-26.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연도별 추이 ····· 93
표 Ⅱ-26-1.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 94
표 Ⅱ-27. 졸업 유예 이유 연도별 추이 ····· 95
표 Ⅱ-27-1. 졸업 유예 이유 ····· 96
표 Ⅱ-28. 대학 교육 만족도_1) 나는 대학 교육에 만족한다 연도별 추이 ····· 97
표 Ⅱ-28-1. 대학교육 만족도_1) 나는 대학교육에 만족한다 ····· 98
표 Ⅱ-29. 대학 교육 만족도_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도별 추이 ····· 99
표 Ⅱ-29-1. 대학교육 만족도_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100
표 Ⅱ-30. 대학 교육 만족도_ 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도별 추이 ····· 101
표 Ⅱ-30-1. 대학교육 만족도_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102
표 Ⅱ-31. 대학 교육 만족도_ 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가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연도별 추이

103
표 Ⅱ-31-1. 대학교육 만족도_ 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104
표 Ⅱ-32. 향후 대학원 진학 의향 연도별 추이 ····· 105
표 Ⅱ-32-1. 향후 대학원 진학 의향 ····· 106
표 Ⅱ-33-1. 현재 학위 과정 ····· 107
표 Ⅱ-34-1. 현재 대학원 재학 상태 ····· 108
표 Ⅱ-35. 대학 미진학 사유 연도별 추이 ····· 109
표 Ⅱ-35-1. 대학 미진학 사유 ····· 110
표 Ⅱ-36. 향후 대학 진학 의향 연도별 추이 ····· 111
표 Ⅱ-36-1. 향후 대학 진학 의향 ····· 112
표 Ⅱ-37. 고등학교 재학 경험 연도별 추이 ····· 113
표 Ⅱ-37-1. 고등학교 재학 경험 ····· 113
표 Ⅱ-38. 재학 고교 유형 연도별 추이 ····· 114
표 Ⅱ-38-1. 재학 고교 유형 ····· 115
표 Ⅱ-39.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 1)진로, 직업 취업 상담 연도별 추이 ····· 116
표 Ⅱ-39-1.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 1)진로, 직업 취업 상담 ····· 117
표 Ⅱ-40.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 2)진로와 직업 수업 연도별 추이 ····· 118
표 Ⅱ-40-1.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 2)진로와 직업 수업 ····· 119
표 Ⅱ-41.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 3)진로 직업 체험 연도별 추이 ····· 120
표 Ⅱ-41-1.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 3)진로, 직업 체험 ····· 121
표 Ⅱ-42.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

4)학과, 전공 체험 연도별 추이 ····· 122
표 Ⅱ-42-1.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 4)학과, 전공 체험 ····· 123
표 Ⅱ-43.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 5)진로, 직업 특강·강의 및 설명회·박람회 참석 연도별 추이 ····· 124
표 Ⅱ-43-1.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 5)진로, 직업 특강·강의 및 설명회·박람회 참석 ····· 125
표 Ⅱ-44.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 6)취업처 연계 연도별 추이 ····· 126
표 Ⅱ-44-1.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 6)취업처 연계 ····· 127
표 Ⅱ-45. 취업준비 여부 연도별 추이 ····· 128
표 Ⅱ-45-1. 취업준비 여부 ····· 129
표 Ⅱ-46. 취업 준비 경험_1)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통학을 통한 교육이나 훈련 연도별 추이 ····· 130
표 Ⅱ-46-1. 취업 준비 경험_1)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통학을 통한 교육이나 훈련 ····· 131
표 Ⅱ-47. 취업 준비 경험_2)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 연도별 추이 ····· 132
표 Ⅱ-47-1. 취업 준비 경험_2)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 ····· 133
표 Ⅱ-48. 취업 준비 경험_3)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토익, 토플 등 준비 연도별 추이 ····· 134
표 Ⅱ-48-1. 취업 준비 경험_3)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토익, 토플 등 준비 ····· 135
표 Ⅱ-49. 취업 준비 경험_4)해외 연수, 어학연수 경험 연도별 추이 ····· 136
표 Ⅱ-49-1. 취업 준비 경험_4)해외 연수, 어학 연수 경험 ····· 137
표 Ⅱ-50. 취업 준비 경험_5)면접 훈련 연도별 추이 ····· 138

표 Ⅱ-50-1. 취업 준비 경험_5)면접 훈련 ····· 139
표 Ⅱ-51. 취업 준비 경험_6)자소서 작성 훈련 연도별 추이 ····· 140
표 Ⅱ-51-1. 취업 준비 경험_6)자소서 작성 훈련 ····· 141
표 Ⅱ-52. 취업 준비 경험_7)취업전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 연도별 추이 ····· 142
표 Ⅱ-52-1. 취업 준비 경험_7)취업전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 ····· 143
표 Ⅱ-53. 취업 준비 경험_8)현장실습 경험 연도별 추이 ····· 144
표 Ⅱ-53-1. 취업 준비 경험_8)현장실습 경험 ····· 145
표 Ⅱ-54. 취업 준비 경험_9)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연도별 추이 ····· 146
표 Ⅱ-54-1. 취업 준비 경험_9)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 147
표 Ⅱ-55. 취업 준비 경험_10)인턴 경험 연도별 추이 ····· 148
표 Ⅱ-55-1. 취업 준비 경험_10)인턴 경험 ····· 149
표 Ⅱ-56. 취업 준비 경험_11)봉사활동 경험 연도별 추이 ····· 150
표 Ⅱ-56-1. 취업 준비 경험_11)봉사활동 경험 ····· 151
표 Ⅱ-57. 취업 준비 경험_12)동아리, 스터디 활동 경험 연도별 추이 ····· 152
표 Ⅱ-57-1. 취업 준비 경험_12)동아리, 스터디 활동 경험 ····· 153
표 Ⅱ-58.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 1)학교 연도별 추이 ····· 154
표 Ⅱ-58-1.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 1)학교 ····· 155
표 Ⅱ-59.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 2)공공기관 연도별 추이 ····· 156
표 Ⅱ-59-1.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 2)공공기관 ····· 157
표 Ⅱ-60.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 3)사설기관 연도별 추이 ····· 158
표 Ⅱ-60-1.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 3)사설기관 ····· 159
표 Ⅱ-61.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 4)부모님이나 친인척 연도별 추이 ····· 160
표 Ⅱ-61-1.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 4)부모님이나 친인척 ····· 161
표 Ⅱ-62.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

5)친구, 선후배 연도별 추이 ····· 162
표 Ⅱ-62-1.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
5)친구, 선후배 ····· 163
표 Ⅱ-63. 주체별 도움 내용_1)학교 연도별 추이 ····· 164
표 Ⅱ-63-1. 주체별 도움 내용_1)학교 ····· 165
표 Ⅱ-64. 주체별 도움 내용_2)공공기관 연도별 추이 ····· 166
표 Ⅱ-64-1. 주체별 도움 내용_2)공공기관 ····· 167
표 Ⅱ-65. 주체별 도움 내용_3)사설기관 연도별 추이 ····· 168
표 Ⅱ-65-1. 주체별 도움 내용_3)사설기관 ····· 169
표 Ⅱ-66. 주체별 도움 내용_4)부모님이나 친인척 연도별 추이 170
표 Ⅱ-66-1. 주체별 도움 내용_4)부모님이나 친인척 ····· 171
표 Ⅱ-67. 주체별 도움 내용_5)친구, 선후배 연도별 추이 ····· 172
표 Ⅱ-67-1. 주체별 도움 내용_5)친구, 선후배 ····· 173
표 Ⅱ-68. 사설기관 이용 시 월평균 지불 비용 연도별 추이 ···· 174
표 Ⅱ-68-1. 사설기관 이용 시 월평균 지불 비용 ····· 175
표 Ⅱ-69. 사설기관을 제외한 취업준비 월평균 지불 비용 연도별 추이176
표 Ⅱ-69-1. 사설기관을 제외한 취업준비 월평균 지불 비용 ····· 177
표 Ⅱ-70. 취업준비를 위한 하루 평균 투자 시간 연도별 추이 · 178
표 Ⅱ-70-1. 취업준비를 위한 하루 평균 투자 시간 ····· 179
표 Ⅱ-71.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 180
표 Ⅱ-71-1.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 181
표 Ⅱ-72.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연도별 추이 ····· 182
표 Ⅱ-72-1.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 183
표 Ⅱ-73-1. 교육 대책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분야 ····· 185
표 Ⅱ-74.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연도별 추이 ····· 186
표 Ⅱ-74-1.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 187
표 Ⅱ-75. 적정 최저 임금 연도별 추이 ····· 188
표 Ⅱ-75-1. 2020년 적정 최저 임금 ····· 189
표 Ⅱ-76. 한 달 생활비 정도 및 한 달 생활비 중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연도별 추이 ····· 190
표 Ⅱ-76-1. 한 달 생활비 정도 및 한 달 생활비 중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 191
표 Ⅱ-77. 갚아야 할 채무 여부 연도별 추이 ····· 192

표 Ⅱ-77-1. 갚아야 할 채무 여부 ····· 193
표 Ⅱ-78. 채무 발생 이유 연도별 추이 ····· 194
표 Ⅱ-78-1. 채무 발생 이유 ····· 195
표 Ⅱ-79. 채무 발생 기관 연도별 추이 ····· 196
표 Ⅱ-79-1. 채무 발생 기관 ····· 197
표 Ⅱ-80.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연도별 추이 ····· 198
표 Ⅱ-80-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199
표 Ⅱ-8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연도별 추이 ····· 200
표 Ⅱ-81-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 201
표 Ⅱ-82.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연도별 추이 ····· 202
표 Ⅱ-82-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203
표 Ⅱ-83.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연도별 추이 ····· 204
표 Ⅱ-83-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 205
표 Ⅱ-84.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연도별 추이 ····· 206
표 Ⅱ-84-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 207
표 Ⅱ-85.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연도별 추이 ····· 208
표 Ⅱ-85-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209
표 Ⅱ-86.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연도별 추이 ····· 210
표 Ⅱ-86-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211
표 Ⅱ-87.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연도별 추이 ····· 212
표 Ⅱ-87-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213
표 Ⅱ-88.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연도별 추이 ····· 214
표 Ⅱ-88-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 215
표 Ⅱ-89.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연도별 추이 ····· 216
표 Ⅱ-89-1.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 217
표 Ⅱ-90.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2) 우리사회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연도별 추이 ····· 218
표 Ⅱ-90-1.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2) 우리사회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 219
표 Ⅱ-91.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3)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연도별 추이 · 220
표 Ⅱ-91-1.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3)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 221
표 Ⅱ-92.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4) 기성세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연도별 추이 · 222
표 Ⅱ-92-1.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4) 기성세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 223
표 Ⅱ-93.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5)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도별 추이 ····· 224
표 Ⅱ-93-1.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5)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225

표 Ⅱ-94.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6)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도별 추이 ····· 226
표 Ⅱ-94-1.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6)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227
표 Ⅱ-95. 중소기업 취업 의향 연도별 추이 ····· 228
표 Ⅱ-95-1. 중소기업 취업 의향 ····· 229
표 Ⅱ-96.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연도별 추이 ····· 230
표 Ⅱ-96-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 231
표 Ⅱ-97.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 232
표 Ⅱ-97-1.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 233
표 Ⅱ-98.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연도별 추이 ····· 234
표 Ⅱ-98-1.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 235
표 Ⅱ-99.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연도별 추이 ····· 236
표 Ⅱ-99-1.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237
표 Ⅱ-100.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연도별 추이 ····· 238
표 Ⅱ-100-1.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239
표 Ⅱ-101-1. 청년 중소기업 일자리 선호도 개선을 위한 우선적 개선사항 ····· 241
표 Ⅱ-102.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연도별 추이 ····· 242
표 Ⅱ-102-1.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 243
표 Ⅱ-103.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 244
표 Ⅱ-103-1.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 245
표 Ⅱ-104. 지난 주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 연도별 추이 ·· 246
표 Ⅱ-104-1. 지난 주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 ····· 247
표 Ⅱ-105. 지난 주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 (2020년 상위5위) 연도별 추이 ····· 248
표 Ⅱ-105-1. 지난 주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상위5위) ·· 249
표 Ⅱ-106. 교육, 취업을 하지 않는 상태 지속 기간 연도별 추이 ····· 250

표 Ⅱ-106-1. 교육, 취업을 하지 않는 상태 지속 기간 ····· 251
표 Ⅱ-107. 구직 활동 기간 ····· 252
표 Ⅱ-107-1. 구직 활동 기간 ····· 253
표 Ⅱ-108.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연도별 추이 ····· 254
표 Ⅱ-108-1.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 255
표 Ⅱ-109.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 연도별 추이 ····· 256
표 Ⅱ-109-1.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 ····· 257
표 Ⅱ-110. 근로 형태(임금근로자) 연도별 추이 ····· 258
표 Ⅱ-110-1. 근로 형태(임금근로자) ····· 259
표 Ⅱ-111. 근로 형태(비임금근로자) 연도별 추이 ····· 260
표 Ⅱ-111-1. 근로 형태(비임금근로자) ····· 261
표 Ⅱ-112. 일하는 곳 연도별 추이 ····· 262
표 Ⅱ-112-1. 일하는 곳 ····· 263
표 Ⅱ-113.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 연도별 추이 ····· 264
표 Ⅱ-113-1.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 ····· 265
표 Ⅱ-114. 현재 일자리 근속년수 연도별 추이 ····· 266
표 Ⅱ-114-1. 현재 일자리 근속년수 ····· 267
표 Ⅱ-115-1. 교육 수준 대비 직무 수준 ····· 269
표 Ⅱ-116-1. 기술 수준 대비 직무 수준 ····· 271
표 Ⅱ-117-1. 전공과 일치 여부 ····· 273
표 Ⅱ-118.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및 희망 월 평균 소득 연도별 추이 ····· 274
표 Ⅱ-118-1.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 275
표 Ⅱ-119.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및 희망 주당 노동시간 연도별 추이 ····· 276
표 Ⅱ-119-1.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및 희망 주당 노동시간 ····· 277
표 Ⅱ-120. 추가 노동 가능 여부 연도별 추이 ····· 278
표 Ⅱ-120-1. 추가 노동 가능 여부 ····· 279
표 Ⅱ-121. 추가 노동을 위한 구직활동 여부 연도별 추이 ····· 280
표 Ⅱ-121-1. 추가 노동을 위한 구직활동 여부 ····· 281
표 Ⅱ-122.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연도별 추이 ····· 282
표 Ⅱ-122-1.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 283
표 Ⅱ-123. 이직 의향 연도별 추이 ····· 284
표 Ⅱ-123-1. 이직 의향 ····· 285
표 Ⅱ-124. 이직 희망 사유 연도별 추이 ····· 286

표 Ⅱ-124-1. 이직 희망 사유 ····· 287
표 Ⅱ-125.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 288
표 Ⅱ-125-1.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경험 여부 ····· 289
표 Ⅱ-126. 정부 추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인지 및 참여의향 연도별 추이 ····· 290
표 Ⅱ-126-1. 정부 추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인지 및 참여의향 ··· 291
표 Ⅱ-127-1.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도 ·· 293
표 Ⅱ-128-1.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경험 여부 ····· 295
표 Ⅱ-129-1.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인지 및 참여의향 ····· 297
표 Ⅱ-130-1.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 299
표 Ⅱ-131-1.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참여 경험 여부 ····· 301
표 Ⅱ-132-1.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인지 및 참여의향 ····· 303
표 Ⅱ-133-1.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 305
표 Ⅱ-134-1. 이전 취업 경험 ····· 306
표 Ⅱ-135-1. 최근 그만둔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 307
표 Ⅱ-136-1. 이전 직장의 채용 과정 공정성 ····· 308
표 Ⅱ-137. 취업 후 퇴사 및 해고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 309
표 Ⅱ-137-1. 취업 후 퇴사 및 해고 경험 여부 ····· 310
표 Ⅱ-138-1. 가장 최근 그만둔 일자리 시기 ····· 311
표 Ⅱ-139-1.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의 종사상 지위 ····· 312
표 Ⅱ-140-1.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의 고용형태-임금근로자 ····· 313
표 Ⅱ-141-1.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의 고용형태-비임금근로자 ····· 314
표 Ⅱ-142-1.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의 근로시간 유형 ····· 315
표 Ⅱ-143-1.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의 유형 ····· 317
표 Ⅱ-144-1.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의 종사자 수 ····· 318
표 Ⅱ-145-1.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의 근속년수 ····· 319
표 Ⅱ-146-1.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 및 월 소득 ····· 320
표 Ⅱ-147-1.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 교육 수준 대비 직무 수준 ····· 321
표 Ⅱ-148-1.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 기술 수준 대비

직무 수준 ····· 322
표 Ⅱ-149-1.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 업무내용과 전공의 일치 여부 ····· 323
표 Ⅱ-150-1. 가장 최근 그만둔 일자리 횟수 ····· 324
표 Ⅱ-151-1. 가장 최근 그만둔 일자리의 자의적 퇴사 여부 ····· 325
표 Ⅱ-152-1. 가장 최근 그만둔 일자리의 자의적 퇴사 이유 ····· 327
표 Ⅱ-153-1. 가장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후 가장 어려웠던 점 ····· 328
표 Ⅱ-154. 실업급여 인지 여부 연도별 추이 ····· 329
표 Ⅱ-154-1. 실업급여 인지 여부 ····· 330
표 Ⅱ-155. 실업급여 수급 여부 연도별 추이 ····· 331
표 Ⅱ-155-1. 실업급여 수급 여부 ····· 332
표 Ⅱ-156. 실업급여 미수급 이유 연도별 추이 ····· 333
표 Ⅱ-156-1. 실업급여 미수급 이유 ····· 334
표 Ⅱ-157-1. 직장 내 괴롭힘_1)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떠넘겼다 ····· 335
표 Ⅱ-158-1. 직장 내 괴롭힘_2)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나에게 소리치거나 화를 내거나 모욕적인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 336
표 Ⅱ-159-1. 직장 내 괴롭힘_3) 고용주, 직장상사가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암묵적, 직접적으로 강요하였다 ····· 337
표 Ⅱ-160-1. 직장 내 괴롭힘_4)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였다 ····· 338
표 Ⅱ-161-1. 직장 내 괴롭힘_5) 교육·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 대우 등에서 나를 다른 동료들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였다 ····· 339
표 Ⅱ-162-1. 직장 내 괴롭힘_6)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요구할 수 없도록 암묵적,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내 요구를 무시하였다 ····· 340
표 Ⅱ-163-1. 직장 내 괴롭힘_7)나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행동을 했다 ····· 341
표 Ⅱ-164-1. 직장 내 괴롭힘_8)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업무 외의 대화나 식사, 모임 등에서 나를 조직적으로 제외하였다 ····· 342

표 Ⅱ-165-1. 산업 안전_9) 회사로부터 업무수행 중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인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혹은 교육을 받았다 ····· 343
표 Ⅱ-166-1. 산업 안전_10) 나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근로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다 ····· 344
표 Ⅱ-167-1. 산업 안전_11) 업무수행 중 업무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다친 적이 있다 ····· 345
표 Ⅱ-168-1. 산업 안전_12) 산업재해보험 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 346
표 Ⅱ-169-1.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정책 또는 절차 여부 ····· 347
표 Ⅱ-170-1. 직장 내 괴롭힘 전담 담당자 및 창구 여부 ····· 348
표 Ⅱ-171-1.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처리 절차의 적절성 ····· 349
표 Ⅱ-172-1. 직장에서의 본인의 영향력_1) 나의 업무 내용이나 방법 350
표 Ⅱ-173-1. 직장에서의 본인의 영향력_2) 나의 업무일정 ····· 351
표 Ⅱ-174-1. 직장에서의 본인의 영향력_3) 내가 속한 팀의 업무 목표 ·· 352
표 Ⅱ-175-1. 직장에서의 본인의 영향력_4) 내가 속한 팀에 필요한 훈련 · 353
표 Ⅱ-176-1. 직장에서의 본인의 영향력_5) 함께 일할 신입사원의 채용 · 354
표 Ⅱ-177-1. 직장에서의 본인의 영향력_6) 나의 임금 인상 ····· 355
표 Ⅱ-178-1. 직장에서의 본인의 영향력_7) 나의 복리후생 ····· 356
표 Ⅱ-179-1. 직장에서의 본인의 영향력_8)사업장의 산업안전 기준의 설정 혹은 관리 ····· 357
표 Ⅱ-180-1. 직장 내 조직 혹은 제도 설치 여부_1) 노동조합 ····· 358
표 Ⅱ-181-1. 직장 내 조직 혹은 제도 설치 여부_2) 노사협의회 ··· 359
표 Ⅱ-182-1. 직장 내 조직 혹은 제도 설치 여부_3) 업무 관련 제안제도 ····· 360
표 Ⅱ-183-1. 직장 내 조직 혹은 제도 설치 여부_ 4) 조직적응 프로그램 ····· 361
표 Ⅱ-184.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연도별 추이 ····· 362
표 Ⅱ-184-1.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 363
표 Ⅱ-185.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에 대한 생각 연도별 추이 ·· 364
표 Ⅱ-185-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에 대한 생각 ····· 365
표 Ⅱ-186-1. 내 명의의 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 366
표 Ⅱ-187-1. 내 명의의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367
표 Ⅱ-188. 현재 집 값 수준에 대한 생각 연도별 추이 ····· 368
표 Ⅱ-188-1. 현재 집 값 수준에 대한 생각 ····· 369
표 Ⅱ-189. 부모님 도움 없이 집 마련에 대한 생각 연도별 추이 ·· 370

표 Ⅱ-189-1. 부모님 도움 없이 집 마련에 대한 생각 ····· 371
표 Ⅱ-190. 공동주거 경험 여부 및 향후 거주 의향 연도별 추이 ··· 372
표 Ⅱ-190-1. 공동주거 경험 여부 및 향후 거주 의향 ····· 373
표 Ⅱ-191. 부모 동거 여부 연도별 추이 ····· 374
표 Ⅱ-191-1. 부모 동거 여부 ····· 375
표 Ⅱ-192. 미혼 독립 거주 여부 연도별 추이 ····· 376
표 Ⅱ-192-1. 미혼 독립 거주 여부 ····· 377
표 Ⅱ-193. 주거 형태 연도별 추이 ····· 378
표 Ⅱ-193-1. 주거 형태 ····· 379
표 Ⅱ-194-1. 현재 거주지 주택의 점유형태 ····· 380
표 Ⅱ-195-1. 주거 비용 마련 방법 ····· 381
표 Ⅱ-196-1. 월세 마련 방법 ····· 382
표 Ⅱ-197-1.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선택 이유-1순위 ····· 384
표 Ⅱ-197-2.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선택 이유-1+2+3순위 ····· 385
표 Ⅱ-198-1. 집의 의미-1순위 ····· 387
표 Ⅱ-198-2. 집의 의미-1+2+3순위 ····· 388
표 Ⅱ-199-1. 향후 주거 마련 시 중요사항-1순위 ····· 389
표 Ⅱ-199-2. 향후 주거 마련 시 중요사항-1+2+3순위 ····· 390
표 Ⅱ-200-1. 청년 주거 정책 인지도 ····· 391
표 Ⅱ-201-1. 가장 시급한 청년 주거 정책 ····· 392
표 Ⅱ-202.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연도별 추이 ····· 393
표 Ⅱ-202-1.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 394
표 Ⅱ-203.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연도별 추이 ····· 395
표 Ⅱ-203-1.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 396
표 Ⅱ-204. 건강검진 수검 여부 연도별 추이 ····· 397
표 Ⅱ-204-1. 건강검진 수검 여부 ····· 397
표 Ⅱ-205.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 연도별 추이 ····· 398
표 Ⅱ-205-1.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 ····· 399
표 Ⅱ-206.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연도별 추이 ·· 400
표 Ⅱ-206-1.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 401
표 Ⅱ-207.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1)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연도별 추이 ····· 402
표 Ⅱ-207-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1)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 403
표 Ⅱ-208.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2)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연도별 추이 ····· 404
표 Ⅱ-208-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2)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 405
표 Ⅱ-209.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3)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연도별 추이 ····· 406
표 Ⅱ-209-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3)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 407
표 Ⅱ-210.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4)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연도별 추이 ····· 408
표 Ⅱ-210-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4)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 409
표 Ⅱ-21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연도별 추이 ····· 410
표 Ⅱ-211-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5)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 411
표 Ⅱ-212.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 1)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연도별 추이 ····· 412
표 Ⅱ-212-1.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 1)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 412
표 Ⅱ-213.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 2)비교적 잘 지냈다 연도별 추이 ····· 413
표 Ⅱ-213-1.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 2)비교적 잘 지냈다 ····· 413
표 Ⅱ-214.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 3)상당히 우울했다 연도별 추이 ····· 414
표 Ⅱ-214-1.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 3)상당히 우울했다 ····· 414
표 Ⅱ-215.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 4)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연도별 추이 ····· 415
표 Ⅱ-215-1.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 4)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 415
표 Ⅱ-216.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 5)잠을 설쳤다 연도별 추이 ····· 416
표 Ⅱ-216-1.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5)잠을 설쳤다 ····· 416
표 Ⅱ-217.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6)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연도별 추이 ····· 417
표 Ⅱ-217-1.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6)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 417
표 Ⅱ-218.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7)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연도별 추이 ····· 418
표 Ⅱ-218-1.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7)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 418
표 Ⅱ-219.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8)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연도별 추이 ····· 419
표 Ⅱ-219-1.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8)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 419
표 Ⅱ-220.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9)마음이 슬펐다 연도별 추이 ····· 420
표 Ⅱ-220-1.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9)마음이 슬펐다 ··· 420
표 Ⅱ-221.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10)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연도별 추이 ····· 421
표 Ⅱ-221-1.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10)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 421
표 Ⅱ-222.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11)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연도별 추이 ····· 422
표 Ⅱ-222-1.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11)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연도별 추이 ····· 422
표 Ⅱ-223. 규칙적인 운동 여부 연도별 추이 ····· 423
표 Ⅱ-223-1. 규칙적인 운동 여부 ····· 424
표 Ⅱ-224. 규칙적인 운동 빈도 연도별 추이 ····· 425
표 Ⅱ-224-1. 규칙적인 운동 빈도 ····· 426
표 Ⅱ-225.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연도별 추이 ····· 427
표 Ⅱ-225-1.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 428
표 Ⅱ-226. 성형수술 경험 연도별 추이 ····· 429
표 Ⅱ-226-1. 성형수술 경험 ····· 430
표 Ⅱ-227. 성형수술 목적 연도별 추이 ····· 431
표 Ⅱ-227-1. 성형수술 목적 ····· 432
표 Ⅱ-228.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연도별 추이 ····· 433
표 Ⅱ-228-1.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 434
표 Ⅱ-229-1. 건강관련 정책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부분 ···· 435

표 Ⅱ-230. 선호하는 가치_1) 일 중시 VS 여가 중시 연도별 추이 ····· 436
표 Ⅱ-230-1. 선호하는 가치_1) 일 중시 VS 여가 중시 ····· 437
표 Ⅱ-231. 선호하는 가치_2) 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연도별 추이 ··· 438
표 Ⅱ-231-1. 선호하는 가치_2) 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 439
표 Ⅱ-232. 선호하는 가치_3) 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연도별 추이 ····· 440
표 Ⅱ-232-1. 선호하는 가치_3) 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 441
표 Ⅱ-233. 선호하는 가치_4) 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연도별 추이 ····· 442
표 Ⅱ-233-1. 선호하는 가치_4) 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 443
표 Ⅱ-234.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연도별 추이 ····· 444
표 Ⅱ-234-1.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 445
표 Ⅱ-235.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연도별 추이 ···· 446
표 Ⅱ-235-1.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 447
표 Ⅱ-236.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존재 여부 연도별 추이 ····· 448
표 Ⅱ-236-1.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존재 여부 ····· 449
표 Ⅱ-237. 평소 외출 정도 연도별 추이 ····· 450
표 Ⅱ-237-1. 평소 외출 정도 ····· 451
표 Ⅱ-238.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연도별 추이 ·· 452
표 Ⅱ-238-1.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 453
표 Ⅱ-239.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연도별 추이 ····· 454
표 Ⅱ-239-1.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 455
표 Ⅱ-240.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점심기준) 연도별 추이 ····· 456
표 Ⅱ-240-1.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점심기준) ····· 457
표 Ⅱ-241.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저녁기준) 연도별 추이 ····· 458
표 Ⅱ-241-1.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저녁기준) ····· 459
표 Ⅱ-242.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연도별 추이 ····· 460
표 Ⅱ-242-1.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 461
표 Ⅱ-243.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연도별 추이 ····· 462
표 Ⅱ-243-1.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 463
표 Ⅱ-244.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연도별 추이 ····· 464
표 Ⅱ-244-1.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 465
표 Ⅱ-245. 노인에 대한 생각_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연도별 추이 ····· 466
표 Ⅱ-245-1. 노인에 대한 생각_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 467
표 Ⅱ-246. 노인에 대한 생각_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연도별 추이 ····· 468
표 Ⅱ-246-1. 노인에 대한 생각_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 469
표 Ⅱ-247. 노인에 대한 생각_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연도별 추이 ····· 470
표 Ⅱ-247-1. 노인에 대한 생각_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 471
표 Ⅱ-248. 노인에 대한 생각_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연도별 추이 ····· 472
표 Ⅱ-248-1. 노인에 대한 생각_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 473
표 Ⅱ-249. 사회·정치 관련 참여 경험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연도별 추이 ····· 474
표 Ⅱ-249-1. 사회·정치 관련 참여 경험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 475
표 Ⅱ-250. 사회·정치 관련 참여 경험_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연도별 추이 ····· 476
표 Ⅱ-250-1. 사회·정치 관련 참여 경험_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 477
표 Ⅱ-251. 사회·정치 관련 참여 경험_3)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 연도별 추이 ····· 478
표 Ⅱ-251-1. 사회·정치 관련 참여 경험_3)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 ····· 479

표 Ⅱ-252. 사회·정치 관련 참여 경험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연도별 추이 ····· 480
표 Ⅱ-252-1. 사회·정치 관련 참여 경험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 481
표 Ⅱ-253. 사회·정치 관련 참여 경험_5) 항의 전화하기 연도별 추이 ····· 482
표 Ⅱ-253-1. 사회·정치 관련 참여 경험_5) 항의 전화하기 ····· 483
표 Ⅱ-254. 사회·정치 관련 참여 의향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연도별 추이 ····· 484
표 Ⅱ-254-1. 사회·정치 관련 참여 의향_1)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 485
표 Ⅱ-255. 사회·정치 관련 참여 의향_2)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부착 연도별 추이 ····· 486
표 Ⅱ-255-1. 사회·정치 관련 참여 의향_2)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부착 ····· 487
표 Ⅱ-256. 사회·정치 관련 참여 의향_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연도별 추이 ····· 488
표 Ⅱ-256-1. 사회·정치 관련 참여 의향_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 489
표 Ⅱ-257. 사회·정치 관련 참여 의향_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연도별 추이 ····· 490
표 Ⅱ-257-1. 사회·정치 관련 참여 의향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 491
표 Ⅱ-258. 사회·정치 관련 참여 의향_5) 항의 전화하기 연도별 추이 ····· 492
표 Ⅱ-258-1. 사회·정치 관련 참여 의향_5) 항의 전화하기 ····· 493
표 Ⅱ-259.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연도별 추이 ····· 494
표 Ⅱ-259-1.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495
표 Ⅱ-260.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연도별 추이 ····· 496
표 Ⅱ-260-1.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 497
표 Ⅱ-261.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도별 추이 ····· 498
표 Ⅱ-261-1.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499
표 Ⅱ-262. 청년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1순위 연도별 추이 ····· 500
표 Ⅱ-262-1. 청년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1순위(상위 5위) ····· 501
표 Ⅱ-262-2. 청년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1+2+3순위(상위 5위) ····· 502
표 Ⅱ-263-1.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1순위(상위 5위) ····· 503
표 Ⅱ-263-2.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1+2+3순위(상위 5위) ····· 504
표 부록-1.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항목 ····· 507
표 부록-2.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주요항목 상대표준편차 ····· 513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2. 조사 내용
3. 조사 절차
4. 조사 일정
5. 무응답 현황
6. 표본설계 및 가중치

1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조사 시점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 만18-34세 일반국민이다. 2019년 이전까지의 조사는 만15-39세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2020년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 상 청년 연령인 19-34세 및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투표 가능 연령 변동(기존 만19세 이상→개정 만18세 이상) 등을 고려하여, 2020년 조사대상 연령은 조사기준일(2020년 6월 1일) 기준 18-34세로 변경되었다. 표본 규모는 2019년과 동일한 3,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청년층 조사의 연속성 및 중요성을 반영하고 보다 정확한 결과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최종 조사 결과 총 3,520표본이 수집 되었으며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Ⅰ-1〉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가 1,855명(52.7%), 여자가 1,665명(47.3%)이었고 연령별로는 만18-19세 477명(13.6%), 만20-24세 1,095명(31.1%), 만25-29세 1,050명(29.8%), 만30-34세 898명(25.5%)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가 676명(19.2%), 인천, 경기 거주자가 824명(23.4%), 대전, 충청, 세종, 강원 거주자가 549명(15.6%), 광주, 전라, 제주 거주자가 468명(13.3%), 부산, 울산, 경남 거주자가 555명(15.8%)이었으며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 거주자가 448명(12.7%)이었다. 최종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1,098명(31.2%), 대학생 및 대학원 재학 중이 898명(25.5%)이었고, 대졸 이상인 경우가 1,524명(43.3%)이었다. 마지막으로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가 2,194명(62.3%)이었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았지만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응답자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응답자가 1,326명(37.7%)으로 조사 되었다.

표 Ⅰ-1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
전체		3,520	100.0
성별	남자	1,855	52.7
	여자	1,665	47.3
연령	만 18~19세	477	13.6
	만 20~24세	1,095	31.1
	만 25~29세	1,050	29.8
	만 30~34세	898	25.5
지역	서울	676	19.2
	인천/경기	824	23.4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15.6
	광주/전라/제주	468	13.3
	부산/울산/경남	555	15.8
	대구/경북	448	12.7
학력	고졸이하	1,098	31.2
	대학생/대학원생	898	25.5
	대졸이상	1,524	43.3
주거형태	동거	2,194	62.3
	비동거/독립	1,326	37.7

2. 조사 내용

표 Ⅰ-2 2020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항목

조사내용		문항번호	신규문항 여부
1. 인구와 가족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문1	
	원가정으로부터 독립 필요성 및 적정 독립 시기	문2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문3	
	자녀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	문4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양육 대책	문5	
	결혼 여부	문6	
	결혼 준비 경험 여부	문7	
	결혼 준비 시 망설인 경험	문7-1	
	결혼을 망설인 이유	문7-2	
	맞벌이 유무	문8	
	현재 자녀 존재 유무	문9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문10	
	2025년 출산율 전망	문11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문12	
	해위이주를 고려한 이유	문12-1	
2. 교육과 훈련	2025년 입시경쟁 전망	문13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	문14(1)~(3)	
	대학(교) 진학 경험 여부	문15	
	대학(교) 유형, 소재지, 전공계열, 졸업여부, 학년, 입학 및 졸업연월	문15(1)~(7)	
	대학 등록금을 마련한 방법	문16	신규
	학자금 대출 금액	문16-1	신규
	학자금 대출 상환 예상 시기	문16-2	신규
	졸업 요건 이수 후 유예 경험	문17	
	졸업 유예 위해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문18	
	졸업 유예 사유 및 미이수 사유	문19	
	대학교육 만족도	문20	
	향후 대학원 진학 의향	문21	

조사내용		문항번호	신규문항 여부
	대학원 학위과정	문21-1	신규
	대학원 재학상태	문21-2	
	대학 미진학 사유	문22	
	향후 대학 진학 의향	문23	
	고등학교 재학 경험	문24	
	고등학교 유형	문24-1	
	고등학교 재학 시 학교로부터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 제공 경험	문24-2	
	제공받은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문24-2-1	
	취업 준비 여부	문25	
	취업 준비 기간	문25-1	
	취업 준비 방법별 경험 여부	문26	
	취업 준비 지원 대상별 도움 여부	문27	
	취업 준비 지원 대상별 도움 정도	문27-1	
	취업 준비 지원 대상별 도움 내용	문27-2	
	도움을 받은 사설기관 월 이용 비용	문27-3	
	사설기관 외 취업준비 관련 월 이용 비용	문27-4	
	평일 기준 취업 준비 투자 시간	문27-5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문28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문29	
	향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교육 대책	문30	신규
3. 경제와 고용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문31	
	2021년 적정 최저 임금	문32	
	한달 본인 생활비(용돈) 정도	문33	
	한달 본인 생활비(용돈)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문33-1	
	갚아야 할 채무 여부	문34	
	채무 발생 사유	문34-1	
	대출을 받은 기관	문34-2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	문35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	문36	

조사내용		문항번호	신규문항 여부
	중소기업 취업 의향	문37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문37-1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문38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문39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문39-1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문39-2	
	중소기업 일자리 선호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점	문39-3	신규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문40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문41	
	지난주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	문42	
	항목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해당 여부	문43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중 가장 주된 이유	문43-1	
	학업,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 지속 기간	문44	
	구직활동을 한 기간	문45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문46	
	현재 본인의 월 평균 소득	문47(1)	
	본인이 원하는 월 평균 소득	문47(2)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문47(3)	
	지난주 더 많은 일 및 시간을 할 수 있는 직장 내에서 업무 가능 여부	문47-3-1	
	지난 4주 내 현재 일을 더 찾아보거나 다른 일(직장)을 찾아본 경험 여부	문47-3-2	
	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	문47(4)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문48	
	이직 의향	문49	
	이직 희망 사유	문49-1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경험 여부	문50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작)년도	문50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인지 및 참여 의향	문51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구직활동에 도움을 준 정도	문52	신규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경험 여부	문53	신규

조사내용		문항번호	신규문항 여부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시작)년도	문53	신규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인지 및 참여 의향	문54	신규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가 안정적 직장생활에 도움을 준 정도	문55	신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경험 여부	문56	신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인지 및 참여 의향	문57	신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구직활동에 도움을 준 정도	문58	신규
	이전 취업 경험	문59	신규
	이전 직정 채용 과정의 공정성	문60	신규
	취업 후 퇴사 및 해고 경험 여부	문61	
	가장 최근 일자리를 그만 둔 시기	문61-1	신규
	가장 최근 그만 둔 일은 몇 번째 일자리인지 여부	문61-2	신규
	가장 최근 그만 둔 일은 스스로 원해서 그만둔 것인지 여부	문61-3	신규
	(가장 최근 그만둔 일 기준) 그만둔 이유	문61-4	신규
	(가장 최근 그만둔 일 기준) 그만 둔 후 가장 어려웠던 점	문61-5	신규
	실업급여 인지 여부	문62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63	
	실업급여 미수급 이유	문63-1	
	직장내 괴롭힘 및 산업안전 관련 경험	문64	신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 및 대응 절차 유무	문65	신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고충처리 담당자 또는 담당 창구 유무	문66	신규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 또는 고충 처리 절차의 작동 여부	문67	신규
	직정 내 업무 관련 결정에 참여 또는 영향력 행사 여부	문68	신규
	직장 내 노사협의, 업무제안, 조직적응 제도 유무	문69	신규
4. 주거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문70	
	자가 소유에 대한 필요성	문71	
	자가 소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문71-1	신규

조사내용		문항번호	신규문항 여부
	자가 소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문71-2	신규
	지금의 집 값 수준에 대한 적정성	문72	
	부모 도움 없이 내 집 마련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1]	문73	
	공동주거 경험 여부	문74	
	공동주거 거주 의향	문75	
	부모 동거 여부	문76	
	미혼 혼자 거주 여부	문77	
	현재 주거 형태	문78	
	현재 거주 주택의 점유형태	문78-1	신규
	주거비용(주택구입비, 전세금) 마련 주체	문79	신규
	월세비용 마련 주체	문80	신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선택한 이유	문81	신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의 의미	문82	신규
	향후 주거 마련에 있어서 가장 고려하는 사항	문83	신규
	청년 주거 정책 관련 인지	문84(1)~(4)	신규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청년 주거 정책	문85	신규
5. 건강	주관적인 신체건강에 대한 인식	문86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문87	
	건강검진 수검 여부	문88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	문89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문90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	문91(1)~(5)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	문92(1)~(11)	
	규칙적인 운동 여부	문93	
	규칙적인 운동 빈도	문93-1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문94	
	성형수술 경험	문95	
	성형수술 목적	문95-1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문95-2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건강관련 정책	문96	신규

조사내용		문항번호	신규문항 여부
6. 가치관	가치 항목별 선호도	문97(1)~(4)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문98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문99	
7. 관계 및 참여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유무 및 수	문100	
	평소 외출 정도	문101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문101-1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문101-2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점심 기준)	문102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저녁 기준)	문103	
	기성세대 및 노인에 대한 생각	문104(1)~(7)	
	사회·정치 문제 의견 표명 행동별 참여 경험	문105(1)~(5)	
	사회·정치 문제 의견 표명 행동별 참여 의향	문106(1)~(5)	
	정치적 효능감	문107(1)~(3)	
	청년들의 사회·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문108	
	청년들에게 정책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	문109	신규

1) 2019년 이전년도까지는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의 부정문 형태로 질문하였으나 2020년도 조사 시에는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긍정문 형태로 질문함

3. 조사 절차

1) 예비조사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조사 설계 및 실사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 되었다. 본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조사도구, 조사방법, 응답자 반응, 실사 환경 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비하기 위해 5월 7일부터 18일까지 예비조사를 진행 하였다. 예비조사는 종이설문을 활용한 1:1 개별면접법(Face to Face Interview) 으로 진행한 후 이어서 문항 소요시간 및 난이도,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 등 조사 내용과 조사 진행 관련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해 간단한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는데 이는 본 조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예비조사 표본은 본조사 대상자와 동일한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총 50부[2]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조사표의 난이도나 설문 자체의 불편함 정도는 높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평균 30분 정도 소요되는 터라 약간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응답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문항으로는 취업성공패키지, 내일채움공제 등 지원 제도 및 직장 내 괴롭힘, 산업안전 관련 제도 등 각종 제도의 내용이 어렵고 지문이 많이 응답하기 어렵다는 의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령 대상이 아닐 때 참여의향을 응답하는 방법 등 문항 내 기준이 애매하여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의견, 개인소득이나 본인 및 가족학력, 성형 등 민감한 내용에 답변하기 불편하다는 의견, 입력 로직에 따라 자동으로 이동되는 TAPI 설문과는 달리 종이 설문 진행 시 일자리 여부 등을 응답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이동해야 하는데 현재

2) 총 50부 설문은 성별, 연령대, 취업 여부, 혼인 여부를 고려 하여 성별로는 남성 25부, 여성 25부, 연령대별로는 18-29세 25명, 30대 20명, 취업 여부별로는 경활자 25명, 비경활자 25명, 혼인 여부별로는 기혼자 25명, 미혼자 25명으로 각각 구성하여 진행 하였다.

설문 구조 상 문항이 떨어져 있어 쉽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되었다.

예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조사 시 각종 청년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 및 예시문을 추가하고 조사지침서 내용을 보충하였으며, 특히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조사 항목의 경우 면접원이 현장에서 추가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이전 문항 값에 따라 응답을 해야 하는 문항의 경우 연관 문항끼리 인접해 있을 수 있도록 종이설문 구조를 수정하여 실제 조사 시 활용하였으며, 이동 로직 및 연계 문항 관련 인쇄물 작성 후 현장에서 활용하였다.

이상의 예비조사를 통해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조사표의 신뢰도와 타당도, 조사 문항과 사용된 용어의 난이도와 편집 가독성, 대략적인 조사 응답 시간과 그 외 조사 진행 관련 전반에 걸친 예상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본 조사에 반영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조사원이 조사구 내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1:1로 조사 대상자와 접촉, 대면하여 태블릿PC 내 사전 구현된 설문을 통해 면접을 진행하는 태블릿 PC를 활용한 가구방문 개별면접 기법(TAPI, Tablet pc Aided Personal Interview)으로 수행되었으며, 가구 방문 시 조사대상 연령대 가구원이 부재중일 경우에 한하여 해당 대상자만 종이설문을 활용한 유치 조사를 병행하였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조사원칙, 조사표 내용 및 응답 방법, 조사 진행 방식 등 조사원에 의한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 투입 예정 조사원 전원에 대한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2020년 6월 16~19일, 총 4일에 걸쳐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서울 지역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해당 집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조사원에 대한 추가 집체 교육을 6월 24, 25, 29일, 3일 간 서울, 대전, 부산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집체 교육 외에 중도 포기 인원을 대체할 조사원이나

진행이 미흡한 지역에 투입할 추가 조사원을 대상으로 한 수시교육도 실사 기간 동안 추가로 실시되었다. 교육은 사전에 연구진이 작성한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조사지침서〉에 따라 조사 배경 및 목적, 적격 가구 확인, 진행 절차별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조사개요 파트, 설문 유형 구분 및 문항별 의미, 용어 정의, 보기문항 내용을 설명하는 조사표 작성방법 파트, 주요 조사 도구인 태블릿PC를 활용하여 가구 정보 입력, 조사 화면 접속 및 진행을 교육, 실습 해보는 TAPI 프로그램 교육 파트, 마지막으로 교육한 내용에 대해 면접원들이 이해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내용 테스트 등 4개 파트에 걸쳐 약 3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실제 조사가 수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 방문하여 조사 취지와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조사 수락을 요청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도심 지역의 경우 아파트 관리소, 읍면 지역의 경우 동·반장, 이장 등에게 협조를 구하기도 하였다. 이후 해당 가구 내에 본 조사대상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는지, 있다면 성별과 연령대별로 몇 명이 거주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재택 중인 가구원에 대해 다시 각각 조사 협조를 구한 후 태블릿PC를 활용한 개별면접 조사를 진행 하였다. 만약 적격 연령대 가구원 중 방문 당시에 부재중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재방문 일정을 정하고 다시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유치를 희망할 경우 조사표 인쇄물 및 조사 가이드를 유치한 후 다음 회수 일정을 정하도록 하였다. 개별면접을 마친 후, 또는 유치한 조사표를 회수한 후 조사원은 빠진 문항은 없는지, 논리구조 상 잘못된 응답이 없는지 등을 현장에서 육안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직접 수정을 요청 하였다. 모든 조사 대상 가구원에 대해 조사표가 이상 없이 완결되면 조사대상 가구 및 가구원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4. 조사 일정

본 조사를 수행하기까지의 상세한 일정은 다음 〈표 Ⅰ-3〉과 같다. 본 조사는 2020년 7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되었다. 금년도 조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8월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3주간 일시 중단된 후 재개되었으며 해당 기간을 제외하면 총 8주간 진행되었다.

표 Ⅰ-3 조사 일정

추진 업무 내용	일시	비고
표본설계	~ 2020. 05. 06.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반영
예비 조사	2020. 05. 07. ~ 2020. 05. 18.	총 50부 조사 완료
변경승인 진행	2020. 04. 21. ~ 2020. 06. 25.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제402004호
조사방법(TAPI) 프로그램 개발	2020. 05. 13. ~ 2019. 06. 10.	설문, 인터뷰어, 매니저 개발
실사 준비	2020. 06. 01. ~ 2020. 06. 12.	교육자료 준비, 조사원 선발, 명부 수령, 조사물품 배포
조사원 교육	2020. 06. 16. ~ 2020. 06. 19.	총 5개 지점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조사표 최종 확정	2020. 06. 24.	
본조사 진행	2020. 07. 06. ~ 2020. 09. 18.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 08. 22. ~ 09. 13. 기간동안 본조사 일시 중단 후 재개
자료입력 및 보완	2020. 09. 21. ~ 2020. 09. 27.	
데이터 클리닝 및 데이터 검수	2020. 09. 28. ~ 2020. 10. 30.	2020. 10. 14. 연구진 방문 데이터 검수 실시

5. 무응답 현황

조사항목 중 일부 항목에 응답하지 않은 항목 무응답 현황은 〈표 Ⅰ-4〉와 같다. 항목 무응답은 문47 (1) 현재 본인의 월 평균 소득 항목에서 4 케이스 발생하였으며 해당 문항 내 전체 응답자 대비 무응답 비율은 0.2%로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별도의 무응답 대체 없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Ⅰ-4 항목 무응답

(단위: 명, %)

문 항 내 용 (응답자 기준)	응답자	무응답자(%)
문1.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3,520	0 (0.0)
문2. 원 가정으로부터 독립 필요성 및 적정 독립시기	3,520	0 (0.0)
문3.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3,520	0 (0.0)
문4. 자녀를 가질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	3,520	0 (0.0)
문5.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양육 정책	3,520	0 (0.0)
문6. 결혼 여부	3,520	0 (0.0)
문7. 결혼 준비 경험 여부	3,520	0 (0.0)
문7-1. 결혼 준비 시 망설인 경험	597	0 (0.0)
문7-2. 결혼을 망설인 이유	167	0 (0.0)
문8. 맞벌이 여부	591	0 (0.0)
문9. 현재 자녀 존재 유무	3,520	0 (0.0)
문10.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3,520	0 (0.0)
문10-1. 자녀를 추가로 가질 의향이 없는 이유	1,174	0 (0.0)
문11. 2025년 출산율 전망	3,520	0 (0.0)
문12.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3,520	0 (0.0)
문12-1.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663	0 (0.0)
문13. 2025년 입시경쟁 전망	3,520	0 (0.0)
문14.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3,520	0 (0.0)
문14.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3,520	0 (0.0)

문14.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3,520	0 (0.0)
문15. 대학(교) 진학 경험 여부	3,520	0 (0.0)
문15-1. 대학(교) 유형, 소재지, 전공계열, 입학년월, 졸업여부	2,595	0 (0.0)
문16. 대학 등록금을 마련한 방법	2,595	0 (0.0)
문16-1. 학자금 대출 금액	220	0 (0.0)
문16-2. 학자금 대출 상환 예상 시기	220	0 (0.0)
문17. 졸업 유예 경험	2,595	0 (0.0)
문18.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2,595	0 (0.0)
문19. 졸업 유예 및 필요 요건 미이수 이유	253	0 (0.0)
문20. 대학교육 만족도_1) 나는 대학교육에 만족한다	2,595	0 (0.0)
문20. 대학교육 만족도_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595	0 (0.0)
문20. 대학교육 만족도_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595	0 (0.0)
문20. 대학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2,595	0 (0.0)
문21. 향후 대학원 진학 의향	2,595	0 (0.0)
문21-1. 대학원 학위과정	59	0 (0.0)
문21-1. 대학원 재학상태	59	0 (0.0)
문22. 대학 미진학 사유	925	0 (0.0)
문23. 향후 대학 진학 의향	925	0 (0.0)
문24. 고등학교 재학 경험	3,520	0 (0.0)
문24-1. 고등학교 유형	3,493	0 (0.0)
문24-2.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험_ 1) 진로, 직업, 취업 상담	3,493	0 (0.0)
문24-2.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험_ 2) 진로와 직업 수업	3,493	0 (0.0)
문24-2.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험_ 3) 진로, 직업 체험(현장 견학, 현장 직업체험, 직업실무체험, 캠프 등)	3,493	0 (0.0)
문24-2.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험_ 4) 학과, 전공 체험(대학교 방문, 학과 및 전공 체험 등)	3,493	0 (0.0)

문24-2.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험_5) 진로, 직업 특강·강의 및 설명회·박람회 참석	3,493	0 (0.0)
문24-2.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험_6) 취업처 연계	3,493	0 (0.0)
문24-2-1. 제공받은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_1) 진로, 직업, 취업 상담	2,348	0 (0.0)
문24-2-1. 제공받은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_2) 진로와 직업 수업	1,620	0 (0.0)
문24-2-1. 제공받은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_3) 진로, 직업 체험 (현장 견학, 현장 직업체험, 직업실무체험, 캠프 등)	1,182	0 (0.0)
문24-2-1. 제공받은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_4) 학과, 전공 체험 (대학교 방문, 학과 및 전공 체험 등)	1,309	0 (0.0)
문24-2-1. 제공받은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_5) 진로, 직업 특강·강의 및 설명회·박람회 참석	1,287	0 (0.0)
문24-2-1. 제공받은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_6) 취업처 연계	540	0 (0.0)
문25. 취업 준비 여부	3,520	0 (0.0)
문25-1. 취업 준비 기간	338	0 (0.0)
문26. 취업 준비별 경험 여부_1)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통학을 통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338	0 (0.0)
문26. 취업 준비별 경험 여부_2) 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338	0 (0.0)
문26. 취업 준비별 경험 여부_3) 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토익, 토플 등 준비(인터넷 포함)	338	0 (0.0)
문26. 취업 준비별 경험 여부_4) 해외 연수, 어학 연수 경험	338	0 (0.0)
문26. 취업 준비별 경험 여부_5) 면접 훈련(인터넷 포함)	338	0 (0.0)
문26. 취업 준비별 경험 여부_6) 자소서 작성 훈련(인터넷 포함)	338	0 (0.0)
문26. 취업 준비별 경험 여부_7) 취업전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	338	0 (0.0)
문26. 취업 준비별 경험 여부_8) 현장실습 경험	338	0 (0.0)
문26. 취업 준비별 경험 여부_9)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338	0 (0.0)
문26. 취업 준비별 경험 여부_10) 인턴 경험	338	0 (0.0)
문26. 취업 준비별 경험 여부_11) 봉사활동 경험	338	0 (0.0)
문26. 취업 준비별 경험 여부_12) 동아리, 스터디 활동 경험	338	0 (0.0)
문26. 취업 준비별 경험 여부_13) 기타	2	0 (0.0)
문27. 취업 준비 관련 도움을 받은 곳_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338	0 (0.0)

문27. 취업 준비 관련 도움을 받은 곳_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338	0 (0.0)
문27. 취업 준비 관련 도움을 받은 곳_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338	0 (0.0)
문27. 취업 준비 관련 도움을 받은 곳_4) 부모님이나 친인척	338	0 (0.0)
문27. 취업 준비 관련 도움을 받은 곳_5) 친구, 선후배	338	0 (0.0)
문27. 취업 준비 관련 도움을 받은 곳_6) 기타	-	-
문27-1. 도움을 받은 대상별 도움 정도_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147	0 (0.0)
문27-1. 도움을 받은 대상별 도움 정도_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67	0 (0.0)
문27-1. 도움을 받은 대상별 도움 정도_3) 사설기관(사설확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143	0 (0.0)
문27-1. 도움을 받은 대상별 도움 정도_4) 부모님이나 친인척	101	0 (0.0)
문27-1. 도움을 받은 대상별 도움 정도_5) 친구, 선후배	187	0 (0.0)
문27-1. 도움을 받은 대상별 도움 정도_6) 기타	-	-
문27-2. 주체별 도움을 받은 내용_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147	0 (0.0)
문27-2. 주체별 도움을 받은 내용_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67	0 (0.0)
문27-2. 주체별 도움을 받은 내용_3) 사설기관(사설확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143	0 (0.0)
문27-2. 주체별 도움을 받은 내용_4) 부모님이나 친인척	101	0 (0.0)
문27-2. 주체별 도움을 받은 내용_5) 친구, 선후배	187	0 (0.0)
문27-2. 주체별 도움을 받은 내용_6) 기타	-	0 (0.0)
문27-3. 사설기관 이용 비용	143	0 (0.0)
문27-4. 사설기관 외 이용 비용	338	0 (0.0)
문27-5. 취업준비 투자 시간	338	0 (0.0)
문28.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3,520	0 (0.0)
문29.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3,520	0 (0.0)
문30. 향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교육 대책	3,520	0 (0.0)
문31.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3,520	0 (0.0)

문32. 2021년 적정 최저 임금	3,520	0 (0.0)
문33. 한 달 생활비 정도	3,520	0 (0.0)
문33-1. 한 달 생활비 중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3,520	0 (0.0)
문34. 갚아야 할 채무 여부	3,520	0 (0.0)
문34-1. 채무 발생 이유	560	0 (0.0)
문34-2. 채무 대상 기관	560	0 (0.0)
문35.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3,520	0 (0.0)
문35.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3,520	0 (0.0)
문35.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3,520	0 (0.0)
문35.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3,520	0 (0.0)
문35.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3,520	0 (0.0)
문35.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3,520	0 (0.0)
문35.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3,520	0 (0.0)
문35.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3,520	0 (0.0)
문35.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3,520	0 (0.0)
문36.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3,520	0 (0.0)
문36.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2) 우리사회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3,520	0 (0.0)
문36.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3)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3,520	0 (0.0)
문36.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4) 기성세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3,520	0 (0.0)
문36.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5)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520	0 (0.0)

문36.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6)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520	0 (0.0)
문37. 중소기업 취업 의향	3,520	0 (0.0)
문37-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1,273	0 (0.0)
문38.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3,520	0 (0.0)
문39.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3,520	0 (0.0)
문39-1.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3,520	0 (0.0)
문39-2.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3,520	0 (0.0)
문39-3. 중소기업 일자리 선호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점	3,520	0 (0.0)
문40.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3,520	0 (0.0)
문41.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1,358	0 (0.0)
문42. 지난 주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	28	0 (0.0)
문43.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1,171	0 (0.0)
문43-1.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중 가장 주된 이유	1,171	0 (0.0)
문44. 교육,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 지속 기간	458	0 (0.0)
문45. 구직활동 지속 기간	180	0 (0.0)
문46.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2,162	0 (0.0)
문47. 근로 조건_1) 현재 본인의 월 평균 소득	2,162	0 (0.0)
문47. 근로 조건_2) 본인이 원하는 월 평균 소득	2,162	0 (0.0)
문47. 근로 조건_3)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2,162	0 (0.0)
문47. 근로 조건_3-1) 업무 추가, 업무시간 추가 부여 시 근로 가능 여부	314	0 (0.0)
문47. 근로 조건_3-2) 지난 4주간 더 많은 일을 위해 일을 찾아본 경험 여부	314	0 (0.0)
문47. 근로 조건_4) 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	2,162	4 (0.2)
문48.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2,162	0 (0.0)
문49. 이직 의향	2,162	0 (0.0)
문49-1. 이직 희망 사유	477	0 (0.0)
문50.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경험 여부	3,520	0 (0.0)

문51.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인지 및 참여 의향	3,325	0 (0.0)
문52.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구직활동에 도움을 준 정도	195	0 (0.0)
문53.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경험 여부	3,520	0 (0.0)
문54.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인지 및 참여 의향	3,416	0 (0.0)
문55.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가 안정적 직장생활에 도움을 준 정도	104	0 (0.0)
문56.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경험 여부	3,520	0 (0.0)
문57.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인지 및 참여 의향	3,413	0 (0.0)
문58.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구직활동에 도움을 준 정도	107	0 (0.0)
문59. 이전 취업 경험	3,520	0 (0.0)
문60. 이전 직장 채용 과정의 공정성	1,556	0 (0.0)
문61. 취업 후 퇴사 또는 해고 경험	1,677	0 (0.0)
문61-1. 가장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시기	1,148	0 (0.0)
문61-2. 가장 최근 그만 둔 일은 몇 번째 일자리인지 여부	1,148	0 (0.0)
문61-3. 가장 최근 그만 둔 일은 스스로 원해서 그만둔 것인지 여부	1,148	0 (0.0)
문61-4. (가장 최근 그만둔 일 기준) 그만둔 이유	1,015	0 (0.0)
문61-5. (가장 최근 그만둔 일 기준) 그만 둔 후 가장 어려웠던 점	1,148	0 (0.0)
문62. 실업급여 인지 여부	1,148	0 (0.0)
문63. 실업급여 수급 여부	885	0 (0.0)
문63-1. 실업급여 미수급 이유	660	0 (0.0)
문64. 직장내 괴롭힘 및 산업안전 관련 경험	1,031	0 (0.0)
문65.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 및 대응 절차 유무	1,031	0 (0.0)
문66.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고충처리 담당자 또는 담당 창구 유무	1,031	0 (0.0)
문67.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 또는 고충 처리 절차의 작동 여부	1,031	0 (0.0)
문68. 직정 내 업무 관련 결정에 참여 또는 영향력 행사 여부_1) 나의 업무 내용이나 방법	1,031	0 (0.0)
문68. 직정 내 업무 관련 결정에 참여 또는 영향력 행사 여부_2) 나의 업무일정	1,031	0 (0.0)
문68. 직정 내 업무 관련 결정에 참여 또는 영향력 행사 여부_3) 내가 속한 팀의 업무 목표	1,031	0 (0.0)

문68. 직정 내 업무 관련 결정에 참여 또는 영향력 행사 여부_4) 내가 속한 팀에 필요한 훈련	1,031	0 (0.0)
문68. 직정 내 업무 관련 결정에 참여 또는 영향력 행사 여부_5) 함께 일할 신입사원의 채용	1,031	0 (0.0)
문68. 직정 내 업무 관련 결정에 참여 또는 영향력 행사 여부_6) 나의 임금 인상	1,031	0 (0.0)
문68. 직정 내 업무 관련 결정에 참여 또는 영향력 행사 여부_7) 나의 복리후생	1,031	0 (0.0)
문68. 직정 내 업무 관련 결정에 참여 또는 영향력 행사 여부_8) 사업장의 산업안전 기준의 설정 혹은 관리	1,031	0 (0.0)
문69. 직장 내 제도_1) 노동조합	1,031	0 (0.0)
문69. 직장 내 제도_2) 노사협의회	934	0 (0.0)
문69. 직장 내 제도_3) 업무 관련 제안제도	1,031	0 (0.0)
문69. 직장 내 제도_4) 조직적응 프로그램	1,031	0 (0.0)
문70.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3,520	0 (0.0)
문71. 자가 소유에 대한 필요성	3,520	0 (0.0)
문71-1. 자가 소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462	0 (0.0)
문71-2. 자가 소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2,397	0 (0.0)
문72. 지금의 집 값 수준에 대한 적정성	3,520	0 (0.0)
문73. 부모 도움 없이 내 집 마련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	3,520	0 (0.0)
문74. 공동주거 경험 여부	3,520	0 (0.0)
문75. 공동주거 거주 의향	3,520	0 (0.0)
문76. 부모 동거 여부	3,520	0 (0.0)
문77. 미혼 독립 거주 여부	1,326	0 (0.0)
문78. 현재 주거 형태	1,326	0 (0.0)
문78-1. 현재 거주 주택의 점유형태	1,326	0 (0.0)
문79. 주거비용(주택구입비, 전세금) 마련 주체	1,326	0 (0.0)
문80. 월세비용 마련 주체	1,222	0 (0.0)
문8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선택한 이유	579	0 (0.0)
문82.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의 의미	1,326	0 (0.0)
문83. 향후 주거 마련에 있어서 가장 고려하는 사항	1,326	0 (0.0)
문84. 청년 주거 정책 관련 인지_1) 청년 주택공급 정책	1,326	0 (0.0)

문84. 청년 주거 정책 관련 인지_2)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1,326	0 (0.0)
문84. 청년 주거 정책 관련 인지_3) 청년 주거환경 개선 정책	1,326	0 (0.0)
문84. 청년 주거 정책 관련 인지_4)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정책	1,326	0 (0.0)
문85.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청년 주거 정책	1,326	0 (0.0)
문86.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3,520	0 (0.0)
문87. 주관적인 체형 평가	3,520	0 (0.0)
문88. 건강검진 수검 여부	3,520	0 (0.0)
문89.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	3,520	0 (0.0)
문90.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612	0 (0.0)
문9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3,520	0 (0.0)
문9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3,520	0 (0.0)
문9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3,520	0 (0.0)
문9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3,520	0 (0.0)
문9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3,520	0 (0.0)
문92. 주관적인 감정_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3,520	0 (0.0)
문92. 주관적인 감정_2) 비교적 잘 지냈다	3,520	0 (0.0)
문92. 주관적인 감정_3) 상당히 우울했다	3,520	0 (0.0)
문92. 주관적인 감정_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3,520	0 (0.0)
문92. 주관적인 감정_5)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3,520	0 (0.0)
문92. 주관적인 감정_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3,520	0 (0.0)
문92. 주관적인 감정_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3,520	0 (0.0)
문92. 주관적인 감정_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3,520	0 (0.0)
문92. 주관적인 감정_9) 마음이 슬펐다	3,520	0 (0.0)
문92. 주관적인 감정_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3,520	0 (0.0)
문92. 주관적인 감정_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3,520	0 (0.0)
문93. 규칙적인 운동 여부	3,520	0 (0.0)
문93-1. 규칙적인 운동 빈도	1,204	0 (0.0)
문94.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3,520	0 (0.0)

문95. 성형수술 경험	3,520	0 (0.0)
문95-1. 성형수술 목적	407	0 (0.0)
문95-2.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380	0 (0.0)
문96.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건강관련 정책	3,520	0 (0.0)
문97. 선호하는 가치_1) 일 중시 VS 여가 중시	3,520	0 (0.0)
문97. 선호하는 가치_2) 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3,520	0 (0.0)
문97. 선호하는 가치_3) 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3,520	0 (0.0)
문97. 선호하는 가치_4) 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3,520	0 (0.0)
문98.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3,520	0 (0.0)
문99.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3,520	0 (0.0)
문100.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존재 여부 및 수	3,520	0 (0.0)
문101. 평소 외출 정도	3,520	0 (0.0)
문101-1. 현재 상태 지속 기간	161	0 (0.0)
문101-2. 현재 상태가 된 계기	161	0 (0.0)
문102. 지난 주 점심기준 혼자 밥을 먹은 경험 및 횟수	3,520	0 (0.0)
문103. 지난 주 저녁기준 혼자 술을 먹은 경험 및 횟수	3,520	0 (0.0)
문104.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3,520	0 (0.0)
문104.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3,520	0 (0.0)
문104.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3,520	0 (0.0)
문104. 노인에 대한 생각_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3,520	0 (0.0)
문104. 노인에 대한 생각_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3,520	0 (0.0)
문104. 노인에 대한 생각_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3,520	0 (0.0)
문104. 노인에 대한 생각_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3,520	0 (0.0)
문105. 사회, 정치 문제 의견 제시 방법별 참여 경험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3,520	0 (0.0)
문105. 사회, 정치 문제 의견 제시 방법별 참여 경험_2)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부착	3,520	0 (0.0)
문105. 사회, 정치 문제 의견 제시 방법별 참여 경험_3) (온·오프라인) 서명에 참여하기	3,520	0 (0.0)

문105. 사회, 정치 문제 의견 제시 방법별 참여 경험_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3,520	0 (0.0)
문105. 사회, 정치 문제 의견 제시 방법별 참여 경험_ 5) 항의 전화하기	3,520	0 (0.0)
문106. 사회, 정치 문제 관련 향후 의견 표명 의향_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3,520	0 (0.0)
문106. 사회, 정치 문제 관련 향후 의견 표명 의향_ 2)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부착	3,520	0 (0.0)
문106. 사회, 정치 문제 관련 향후 의견 표명 의향_ 3) (온·오프라인) 서명에 참여하기	3,520	0 (0.0)
문106. 사회, 정치 문제 관련 향후 의견 표명 의향_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3,520	0 (0.0)
문106. 사회, 정치 문제 관련 향후 의견 표명 의향_ 5) 항의 전화하기	3,520	0 (0.0)
문107.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520	0 (0.0)
문107.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3,520	0 (0.0)
문107.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520	0 (0.0)
문108. 청년들의 사회·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3,520	0 (0.0)
문109. 청년들에게 정책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	3,520	0 (0.0)

6. 표본설계 및 가중치[3)]

1) 모집단 분석

이 조사의 개념상 규정된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의 만 18세부터 34세 이하 가구원이다.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은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상의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조사구 내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4세 이하의 가구원이다.

〈표 Ⅰ-5〉는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모집단 현황이다. 모집단 내 전체 일반가구는 19,979,188호[4)]이며,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와 서울시는 각각 전체 일반가구의 23.8%와 19.2%를 차지하고, 전체 조사대상(만 18세부터 34세 이하의 가구원) 10,844,847명 중 경기와 서울이 각각 25.3%, 21.3%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 경남 순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Ⅰ-6〉은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중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 만 18세부터 34세 이하의 성인의 시도 및 연령대별 분포이다.

2020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위한 표본설계는 2018년[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리스트를 표본추출에 활용하였다.

---

3) 이 절은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본 조사의 표본설계를 담당한 이기재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집필하였다. 본 조사는 통계청 조사구 방식의 가구조사로 설계 되었으므로 표본설계 내용의 전문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전문을 게재하였다.

4)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중 가구형태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가구형태가 '집단가구(비혈연)', '집단시설가구', '외국인가구' 등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5)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표본설계 진행 당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표본추출틀은 2018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리스트였다.

표 Ⅰ-5 모집단 현황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가구 수	열%	만18-34세 성인	열%
전국	19,979,188	100.0%	10,844,847	100.0%
서울	3,839,766	19.2%	2,307,056	21.3%
부산	1,363,608	6.8%	704,331	6.5%
대구	957,516	4.8%	515,045	4.7%
인천	1,094,749	5.5%	631,265	5.8%
광주	578,559	2.9%	335,537	3.1%
대전	602,175	3.0%	365,221	3.4%
울산	431,391	2.2%	239,331	2.2%
세종	119,029	0.6%	66,579	0.6%
경기	4,751,497	23.8%	2,746,438	25.3%
강원	628,484	3.1%	294,778	2.7%
충북	640,978	3.2%	334,887	3.1%
충남	851,124	4.3%	435,075	4.0%
전북	732,980	3.7%	347,383	3.2%
전남	737,406	3.7%	293,373	2.7%
경북	1,094,534	5.5%	490,528	4.5%
경남	1,306,394	6.5%	616,124	5.7%
제주	248,998	1.2%	121,896	1.1%

표 Ⅰ-6 만 18-34세 성인의 시도 및 연령대별 분포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단위: 명)

구분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합계
전국		2,891,577	3,355,986	3,164,039	3,216,057	16,532,031
서울		486,459	661,569	735,323	727,683	3,388,666
광역시	부산	180,155	231,153	209,493	200,554	1,071,235
	대구	146,783	170,185	148,739	140,523	783,144
	인천	161,436	190,964	192,289	191,132	971,284
	광주	101,208	114,650	91,856	91,459	514,548
	대전	99,918	124,742	104,070	97,389	541,458
	울산	67,201	73,591	71,788	74,938	381,662
	세종	15,631	17,536	15,724	20,674	98,281
도 지역	경기	735,505	810,977	796,839	824,632	4,209,877
	강원	89,224	103,149	81,027	76,594	446,452
	충북	95,873	112,596	90,676	92,156	501,725
	충남	126,640	138,349	117,722	128,521	668,304
	전북	113,587	122,021	92,330	91,748	536,311
	전남	100,754	93,977	76,918	86,282	469,641
	경북	147,319	161,828	134,837	143,193	763,845
	경남	186,796	191,438	171,338	192,691	994,544
	제주	37,088	37,261	33,070	35,888	191,054

2) 층화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표본설계에서는 7개 특별 · 광역시와 9개 도 지역으로 1차로 층화하고, 9개 도 지역에 대해서는 동부와 읍 · 면부로 세부 층화하였다. 이 조사의 1차 추출단위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와 가구 내 18세-34세 가구원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는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크고, 지역적으로 넓어 표본의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4개 권역 (북동, 남동, 남서, 북서), 경기도는 3개 권역(북부, 중부, 남부)으로 세부 층화하였다. 〈표 Ⅰ-7〉과 〈표 Ⅰ-8〉은 각각 서울시와 경기도의 권역별 구분 현황을 정리한 자료이다.

표 Ⅰ-7 서울시 권역별 해당 구 현황

권역	해당 지역
북서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북동부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남서부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남동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표 Ⅰ-8 경기도 권역별 해당 시군 현황

권역	해당 지역
북부	가평군, 남양주시, 양평군,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중부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광명시, 의왕시, 안양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시흥시, 김포시, 하남시, 광주시, 의정부시
남부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안성시,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

이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대상으로 하는 층화는 행정구역에 따라 구성한 33개 1차 층을 구성하였다. 이후 서울, 광역시 및 11개 도 지역(동) 층에 대해서는 아파트 조사구와 일반 조사구로 나누어 세부 층화하였

고, 읍·면 지역에서 세부 층화는 따로 없었다. 〈표 Ⅰ-9〉는 표본설계의 층화 방법을 정리한 것이고 〈표 Ⅰ-10〉은 각각 층별 조사구 수를 정리한 결과이다.

표 Ⅰ-9 층화 방법

구분	지역	1차 층화	2차 층화	층 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서울, 7대 광역시	서울(4), 광역시(7)	아파트, 일반조사구	22
	도 지역	11개 지역(동부)	아파트, 일반조사구	22
		11개 도 지역(읍·면부)	-	11

표 Ⅰ-10 세부 층별 모집단 조사구 현황(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단위: 개)

행정구역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전 국	137,957	132,816	70,536	341,309
서울-북서	3,660	7,748	0	11,408
서울-북동	7,981	11,936	0	19,917
서울-남서	7,481	12,670	0	20,151
서울-남동	6,235	6,482	0	12,717
부산	11,989	11,220	0	23,209
대구	8,084	7,479	0	15,563
인천	9,224	8,699	0	17,923
광주	5,766	3,641	0	9,407
대전	4,959	4,518	0	9,477
울산	4,022	3,180	0	7,202
세종	1,372	566	0	1,938
경기-북부	2,940	1,362	5,891	10,193
경기-중부	17,136	14,643	1,796	33,575
경기-남부	14,152	11,936	5,688	31,776
강원	3,510	2,791	6,126	12,427
충북	3,435	2,624	5,777	11,836
충남	3,707	2,624	8,726	15,057
전북	4,923	3,642	5,369	13,934
전남	3,264	2,098	8,623	13,985
경북	5,126	4,626	11,812	21,564
경남	7,792	6,230	9,581	23,603
제주	1,199	2,101	1,147	4,447

3) 표본크기 결정 및 표본배분

본 조사의 목표 표본크기는 만 18-34세의 청년층 3,500명을 전국에서 표집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가구 한 가구당 해당 연령대의 가구원 수는 0.54명으로 약 6,900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해당 연령대 가구원을 모두 조사할 경우 3,500명의 목표 표본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본설계에서는 각 표본 조사구에서 약 7명의 청년층 대상자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표본설계에 의해서 추출되는 1차 추출단위인 표본조사구 수는 500개이다. 단, 해당 연령대의 경우 낮은 재택률로 인해 조사대상 면접이 어렵고, 특히 읍·면지역의 해당 연령대 가구원 수가 가구원 당 0.42명으로 동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표집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본설계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6개 권역[6] 단위로 청년층의 사회·경제실태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정도(precision)를 갖는 통계를 생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권역에 대해서 일정 크기 이상의 표본이 배분되어야 한다.

통계작성 단위인 6개 권역별 표본 조사구의 배분은 층별 조사대상자 수에 비례배분법, 제곱비례배분법, 우선할당비례배분법 등을 비교하여 결정하였다. 표본설계에 사용된 최종 배분법은 각 통계작성 단위별 가구 수에 대한 제곱근비례배분법을 최종방안으로 하였다. 이 배분법을 적용하면 권역별 추정결과의 통계적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표 Ⅰ-11〉은 2019년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얻은 주요 조사항목 추정에 대한 설계효과 현황이다. 이 조사의 설계효과 값은 약 2.03~4.36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한 본 조사의 목표 허용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2.9%p(설계효과 3.17을 적용한 결과임)이다.

---

6) 서울 / 경기·인천 /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 광주·전남·전북·제주 / 부산·울산·경남 / 대구·경북

표 Ⅰ-11 주요 조사변수에 대한 설계효과(design effect) 현황

행정구역	2019년도 조사 현황		
	추정값	95% 오차의 한계	설계효과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q7)	39.4%	2.6%	2.03
중소기업 취업 의향(q33)	63.9%	3.0%	3.13
친한 친구가 있는지 여부(q74)	92.1%	2.0%	4.36
평균	-	-	3.17
중위수	-	-	3.13

표 Ⅰ-12 각 권역별 표본배분 현황

시도	모집단	표본배분 현황		
		비례배분	제곱근 비례배분	권역별 우선할당(20) 후 비례배분
전국	10,844,847	500	500	500
서울	2,307,056	106	96	101
경기·인천	3,377,703	156	117	138
대전·세종·충청·강원	1,496,540	69	78	72
광주·전라·제주	1,098,189	51	66	59
부산·울산·경남	1,559,786	72	79	75
대구·경북	1,005,573	46	64	55

표 Ⅰ-13 각 권역별 모비율 추정에 대한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7] 예상

시도	모집단 가구 수	새로운 표본설계	
		표본크기	오차의 한계
전국	10,844,847	3,500	3.0%p
서울	2,307,056	672	6.9%p
경기·인천	3,377,703	819	6.2%p
대전·세종·충청·강원	1,496,540	546	7.6%p
광주·전라·제주	1,098,189	462	8.3%p
부산·울산·경남	1,559,786	553	7.6%p
대구·경북	1,005,573	448	8.4%p

7) 오차의 한계는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e design)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으로 단순임의추출법을 가정하여 산출한 경우와 비교하여 큰 값을 갖게 된다.

각 권역에서 시도별 표본배분은 조사대상자 수(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비례하는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표 Ⅰ-14 시도별 표본 조사구 수

시도	만 18-34세 성인	열%	표본 조사구 수
전국	10,844,847	100.0%	500
서울	2,307,056	21.3%	96
부산	704,331	6.5%	36
대구	515,045	4.7%	33
인천	631,265	5.8%	22
광주	335,537	3.1%	20
대전	365,221	3.4%	19
울산	239,331	2.2%	12
세종	66,579	0.6%	4
경기	2,746,438	25.3%	95
강원	294,778	2.7%	15
충북	334,887	3.1%	17
충남	435,075	4.0%	23
전북	347,383	3.2%	21
전남	293,373	2.7%	18
경북	490,528	4.5%	31
경남	616,124	5.7%	31
제주	121,896	1.1%	7

표 Ⅰ-15 세부 층별 표본 조사구 현황

행정구역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전 국	205	199	96	500
서울-북서	5	12	0	17
서울-북동	12	18	0	30
서울-남서	11	19	0	30
서울-남동	9	10	0	19
부산	19	17	0	36
대구	17	16	0	33
인천	11	11	0	22
광주	12	8	0	20
대전	10	9	0	19
울산	7	5	0	12
세종	3	1	0	4
경기-북부	4	2	7	13
경기-중부	22	18	2	42
경기-남부	18	15	7	40
강원	4	3	8	15
충북	5	4	8	17
충남	6	4	13	23
전북	7	6	8	21
전남	4	3	11	18
경북	7	7	17	31
경남	10	8	13	31
제주	2	3	2	7

4) 표본 조사구 및 표본 가구 추출

본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에서는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여 500개의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였다. 표본추출은 층화2단집락추출법을 적용하였으며,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 및 만 18-34세 청년이다. 각 층에서 배정된 표본 조사구 수만큼을 조사구 내의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따라 추출하였고, 이 조사의 표본가구로 선정된 경우에 적격 조사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지역별 표본가구당 조사대상자 수의 평균을 고려하여 표본조사구에서 추출되는 가구수를 결정하였다. 2018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동 지역에서 가구당 평균 조사대상자는 0.57명이고, 읍면 지역에서는 0.42명이다. 이에 따라 표본조사구에서 목표표본크기인 7명의 청년층을 조사하기 위해서 각 동부의 표본조사구에서는 13가구, 읍면부의 표본조사구에서는 17가구의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표 Ⅰ-16 지역별 가구당 평균 조사대상자 수 현황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지역 구분	만 18-34세 인구	일반 가구 수	가구당 평균 조사대상자 수	응답자 수(예상)		
				표본 조사구	조사 가구 수	응답자 수 (예상)[8]
전국	10,844,847	19,979,188	0.54	500	6,884	3,690
동 지역	9,230,687	16,117,258	0.57	404	5,252	3,008
읍면 지역	1,614,160	3,861,930	0.42	96	1,632	682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의 조사구를 활용할 때 조사구 전체가 철거, 재건축 등의 사유로 조사불능인 경우에는 예비표본에서 대체하도록 하였다.

8) 일부 조사대상자의 응답 거부,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무응답으로 최종 응답자 수는 약 3,5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됨.

5) 가중치 산정

통계조사에서 가중치 부여는 표본추출에 따른 추출률의 차이와 응답률 및 모집단에 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맞춤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 통계분석 과정에서 가중치를 무시하고 분석한 추정치는 심각한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의 가중치는 ㉠ 설계가중치 산정, ㉡ 무응답에 대한 조정, ㉢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조정 등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산정된다. 이 조사의 최종 가중치는 지역, 조사구별 추출률과 무응답율의 차이를 반영한 후 모집단 정보에 대한 사후층화를 통해서 얻어졌다. 가중치 조정단계에서 이용하는 모집단 정보는 2020년 기준의 「인구추계」 결과이고, 각 표본조사구의 추출확률은 표본조사구의 크기 척도(measure of size)인 조사구 내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p_{1hi} = n_h \frac{S_{hi}}{S_h}$$

여기서, n_h : 층 h의 표본 조사구 수

S_{hi} : 층 h의 i번째 조사구에 대한 크기의 측도(조사구 내 가구 수)

$S_h = \sum_{i=1}^{N_h} S_h$: 층 h의 모집단 총 가구 수(크기의 측도 총합)

원칙적으로 각 표본 조사구에서는 12가구 또는 15가구씩을 표본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m_{hi} = 12$ (또는 15)이다. $S_{hi} \approx M_{hi}$를 가정할 수 있는 경우(표본추출틀 상의 조사구 내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에 차이가 작은 경우)에 각 층에서 설계가중치는 해당 층 내에서 일정한 값이 되어 설계가중치 $= \dfrac{S_h}{n_h \times m_{hi}}$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각 지역 내 층에서 표본 가구들은 모두 동일한 설계가중치를 갖게 된다.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표본추출틀의 조사구 내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에 차이가 있어 각 층 내에서 설계가중치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값을 갖게 된다.

무응답 조정은 표본 조사구별로 진행되며, 무응답 조정계수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하였다.

$$\text{무응답 조정계수1} = \frac{m_{hi}}{r_{hi}}$$

가구 내 무응답 조정은 각 표본 가구에서 전체 조사대상 가구원 수와 응답 가구원 수의 비(比)로 계산한다.

$$\text{무응답 조정계수2} = \frac{\text{해당 표본 가구의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원 수}}{\text{응답 가구원 수}}$$

벤치마킹 조정은 최신 모집단 정보인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 시도별 성 및 연령대별 추계인구를 이용하였다. 벤치마킹 조정은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유사하게 맞춤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권역별(6)×연령대(5)×성별(2) 정보를 이용한 사후층화 조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권역별, 성별, 연령별 사후층화 조정계수를 계산하여 모집단과 조사 표본간의 분포 차이를 보정하였으며. 〈표 Ⅰ-17〉과 〈표 Ⅰ-18〉는 각 시도별 성 및 연령대별 추계인구 결과이다.

종합적으로 최종 가중치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하였다.

최종 가중치= 가구 가중치×무응답 조정1×무응답 조정2×벤치마킹 조정계수

표 Ⅰ-17 시도 및 연령별 모집단 분포: 남자(장래인구추계, 2020년도)

시도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합계
전국	577,935	1,752,129	1,951,603	1,758,425	6,040,092
서울	94,153	309,849	409,139	368,134	1,181,275
부산	34,320	114,192	121,497	99,495	369,504
대구	28,794	85,565	87,659	75,651	277,669
인천	32,278	97,038	113,820	104,159	347,295
광주	19,447	58,105	56,663	46,137	180,352
대전	18,469	63,257	66,888	50,677	199,291
울산	13,886	39,059	41,402	40,110	134,457
세종	3,504	10,811	12,125	12,647	39,087
경기	152,432	435,135	517,989	490,057	1,595,613
강원	17,720	56,136	52,263	41,065	167,184
충북	18,539	61,080	65,418	53,414	198,451
충남	24,648	77,295	83,464	77,556	262,963
전북	22,293	66,419	57,702	46,531	192,945
전남	21,002	56,884	47,785	43,637	169,308
경북	29,742	91,990	88,507	80,204	290,443
경남	38,675	107,524	107,430	108,932	362,561
제주	8,033	21,790	21,852	20,019	71,694

표 Ⅰ-18 시도 및 연령별 모집단 분포: 여자(장래인구추계, 2020년도)

시도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합계
전국	531,012	1,582,407	1,685,646	1,561,193	5,360,258
서울	92,314	349,092	433,806	369,898	1,245,110
부산	31,510	108,481	106,090	91,621	337,702
대구	25,820	75,666	73,371	64,654	239,511
인천	30,079	87,169	101,158	92,763	311,169
광주	17,957	54,714	50,828	42,401	165,900
대전	16,704	59,968	54,231	43,968	174,871
울산	11,846	26,854	31,621	32,339	102,660
세종	3,488	10,056	10,321	12,876	36,741
경기	141,159	386,689	436,626	426,609	1,391,083
강원	15,658	43,952	37,713	34,726	132,049
충북	16,896	51,989	45,790	43,216	157,891
충남	22,240	69,187	60,458	60,339	212,224
전북	20,198	53,747	46,301	41,458	161,704
전남	18,544	38,388	36,139	38,258	131,329
경북	25,600	70,864	61,569	61,958	219,991
경남	33,789	77,911	80,498	85,611	277,809
제주	7,210	17,680	19,126	18,498	62,514

(6) 모수 추정 및 추정량의 분산

① 용어 정의

○ y_{hijk}: 관찰값 (각 문항에 대한 응답)

h: 층 번호, i: 조사구 번호, j: 가구 번호, k: 가구 내 개인 번호

○ w_{hijk}: 표본 가중치로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 사후층화 조정 등을 통해서 산출

② 모평균에 대한 추정

전체 및 지역 특성별 구분에서 모평균과 모비율은 가중치를 이용한 추정량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관찰값 y_{hijk}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으로 계산된다.

$$\bar{y} = \frac{\left(\sum_{h=1}^{L}\sum_{i=1}^{n_h}\sum_{j=1}^{m_{hi}}\sum_{k=1}^{l_{hij}} w_{hijk}\, y_{hijk}\right)}{w_{....}} \text{: 모평균 추정치}$$

- L: 층 수, n_h: 조사구 수, m_{hi}: 조사구 내 표본가구 수, l_{hij}: 조사 가구 내 응답자 수
- $w... = \sum_{h=1}^{L}\sum_{i=1}^{n_h}\sum_{j=1}^{m_{hi}}\sum_{k=1}^{l_{hij}} w_{hijk}$: 표본 가중치의 합계

③ 모비율에 대한 추정

관찰값 y_{hijk}가 0 또는 1의 값을 갖는 변수인 경우,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 형태로 계산된다.

$$\hat{p} = \frac{\left(\sum_{h=1}^{L}\sum_{i=1}^{n_h}\sum_{j=1}^{m_{hi}}\sum_{k=1}^{l_{hij}} w_{hijk}\, y_{hijk}\right)}{w_{....}}$$: 모비율 추정치

- L: 층 수, n_h: 조사구 수, m_{hi}: 조사구 내 표본가구 수,
  l_{hij}: 조사 가구 내 응답자 수
- $w... = \sum_{h=1}^{L}\sum_{i=1}^{n_h}\sum_{j=1}^{m_{hi}}\sum_{k=1}^{l_{hij}} w_{hijk}$: 표본 가중치의 합계

④ 추정량의 분산

모평균(또는 모비율) 추정량에 대해서 층화와 2단 집락추출 등의 표본설계를 반영한 추정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var(\bar{y}) = \sum_{h=1}^{L} \frac{n_h(1-f_h)}{n_h - 1} \sum_{i=1}^{n_h} (e_{hi.} - \bar{e}_{h..})^2$$

여기서, L은 층의 수, n_h는 층 h에서의 1차추출단위(PSU)인 조사구 수, m_{hi}는 층 h내 i번째 표본조사구의 가구 수,

$f_h = n_h / N_h$, $e_{hi.} = \left(\sum_{j=1}^{m_{hi}}\sum_{k=1}^{l_{hik}} w_{hijk}(y_{hijk} - \bar{y})\right) / w_{....}$, $\bar{e}_{h..} = \left(\sum_{i=1}^{n_h} e_{hi.}\right) / n_h$이다.

모평균 및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 표준오차: $s.e(\bar{y}) = \sqrt{var(\bar{y})}$,
- 상대표준오차: $rse(\bar{y}) = \frac{s.e(\bar{y})}{\bar{y}} \times 100(\%)$,
- 오차의 한계: $1.96 \times \sqrt{var(\bar{y})}$

제2장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표

1.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응답자 분포
2.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표

1.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응답자 분포

구분		가중 전		가중 후	
		사례 수	%	사례 수	%
전체		3,520	100.0	11,400,350	100.0
성별	남자	1,855	52.7	6,040,092	53.0
	여자	1,665	47.3	5,360,258	47.0
연령	만18~19세	477	13.6	1,108,947	9.7
	만20~24세	1,095	31.1	3,334,536	29.2
	만25~29세	1,050	29.8	3,637,249	31.9
	만30~34세	898	25.5	3,319,618	29.1
지역	서울	676	19.2	2,426,385	21.3
	인천/경기	824	23.4	3,645,160	32.0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15.6	1,580,752	13.9
	광주/전라/제주	468	13.3	1,135,746	10.0
	부산/울산/경남	555	15.8	1,584,693	13.9
	대구/경북	448	12.7	1,027,614	9.0
학력	고졸이하	1,098	31.2	3,383,626	29.7
	대학/대학원 재학	898	25.5	2,641,709	23.2
	대졸이상	1,524	43.3	5,375,015	47.1
주거형태	동거	2,194	62.3	7,281,311	63.9
	비동거/독립	1,326	37.7	4,119,039	36.1

2.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청년들은 아동으로 생각하는 연령을 상한 11.2세, 하한 4.2세, 청소년 연령을 상한 18.6세, 하한 12.4세, 청년 연령을 상한 32.3세, 하한 19.6세로 규정하였으며, 전년과 비교했을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아동과 청소년, 청년 하한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연령을 낮게 규정하는데 비해 청년 상한 연령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 아동으로 생각하는 연령이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청년 상한 연령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남

표 II-1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연도별 추이

(단위: 명, 세)

구분	사례수	아동 연령		청소년 연령		청년 연령	
		하한(평균)	상한(평균)	하한(평균)	상한(평균)	하한(평균)	상한(평균)
2016	2,534	5.2	11.5	12.6	18.4	19.3	29.5
2017	2,714	4.5	11.2	12.2	18.4	19.4	31.2
2018	3,133	4.8	11.3	12.8	18.8	19.8	31.4
2019	3,530	4.2	10.9	12.4	18.4	19.5	32.3
2020	3,520	4.2	11.2	12.4	18.6	19.6	32.3

표 II-1-1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단위: 명, 세)

구분		사례수	아동 연령		청소년 연령		청년 연령	
			하한(평균)	상한(평균)	하한(평균)	상한(평균)	하한(평균)	상한(평균)
전체		3,520	4.2	11.2	12.4	18.6	19.6	32.3
성별	남자	1,855	4.2	11.2	12.4	18.5	19.6	32.2
	여자	1,665	4.2	11.2	12.5	18.6	19.6	32.4
연령	만18~19세	477	4.2	11.3	12.5	18.7	19.7	31.6
	만20~24세	1,095	4.3	11.3	12.5	18.6	19.7	31.8
	만25~29세	1,050	4.2	11.2	12.4	18.5	19.6	32.5
	만30~34세	898	4.2	11.2	12.4	18.5	19.5	32.8
지역	서울	676	4.5	11.1	12.6	18.5	19.5	32.6
	인천/경기	824	4.2	11.4	12.6	18.6	19.6	32.2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4.0	10.8	11.9	18.5	19.6	32.8
	광주/전라/제주	468	4.1	11.3	12.5	18.3	19.3	32.0
	부산/울산/경남	555	4.2	11.2	12.3	19.0	20.0	31.9
	대구/경북	448	4.4	11.6	12.6	18.4	19.4	32.2
학력	고졸이하	1,098	4.2	11.2	12.5	18.5	19.6	31.7
	대학/대학원 재학	898	4.3	11.3	12.6	18.6	19.7	32.1
	대졸이상	1,524	4.2	11.2	12.4	18.6	19.6	32.8
주거형태	동거	2,194	4.3	11.3	12.5	18.6	19.6	32.3
	비동거/독립	1,326	4.1	11.1	12.3	18.5	19.5	32.4

2) 원 가정으로부터 분가 독립

○ 청년들에게 원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적정 분가 독립 연령을 물어본 결과,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 48.4%로 2019년 52.4% 대비 4.0%p 하락하였고 적정 독립 연령은 평균 26.1세로 2019년 25.6세에 비해 0.5세 증가함

○ 성별로는 남자(51.5%)가 여자(44.9%)보다 ‘독립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42.0%), 대구/경북(43.1%)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독립해야 한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남

표 Ⅱ-2 원가정으로부터 독립 필요성 및 적정 독립시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독립해야 함		독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	독립할 필요 없음
		%	평균(세)		
2016	2,534	52.4	26.2	44.2	3.5
2017	2,714	58.9	25.4	36.4	4.7
2018	3,133	46.9	27.9	47.1	6.0
2019	3,530	52.4	25.6	43.8	3.8
2020	3,520	48.4	26.1	47.3	4.3

표 II-2-1 원가정으로부터 독립 필요성 및 적정 독립시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독립해야 함		독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	독립할 필요 없음
			%	평균(세)		
전체		3,520	48.4	26.1	47.3	4.3
성별	남자	1,855	51.5	26.3	44.5	4.0
	여자	1,665	44.9	25.8	50.4	4.7
연령	만 18~19세	477	48.1	25.1	46.8	5.1
	만 20~24세	1,095	48.3	25.6	47.7	4.0
	만 25~29세	1,050	48.2	26.4	47.2	4.6
	만 30~34세	898	48.7	26.7	47.2	4.1
지역	서울	676	42.0	26.8	53.2	4.8
	인천/경기	824	47.1	26.6	46.5	6.4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56.3	24.3	41.8	1.8
	광주/전라/제주	468	46.8	25.9	47.4	5.8
	부산/울산/경남	555	57.6	26.6	41.3	1.0
	대구/경북	448	43.1	25.7	53.4	3.4
학력	고졸이하	1,098	51.4	25.2	44.5	4.1
	대학/대학원 재학	898	48.2	26.2	47.4	4.5
	대졸이상	1,524	46.5	26.7	49.0	4.4
주거형태	동거	2,194	44.4	26.7	50.9	4.7
	비동거/독립	1,326	55.4	25.4	40.9	3.7

3) 결혼의 필요성

○ 청년들에게 결혼의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연령에 대해 물어본 결과, ‘결혼해야 한다’는 의견이 42.0%로 2019년 45.8% 대비 3.8%p 하락하였고, 적정 결혼 평균 연령은 30.7세로 2019년 30.4세 대비 소폭(0.3세) 증가함

○ 성별로는 ‘결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남자(47.1%)가 여자(36.3%)보다 높음

○ 연령별로는 만18~19세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의견이 41.0%로 가장 낮은 가운데, ‘결혼할 필요 없음’의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의견이 47.1%로 다른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대졸이상에서 39.2%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표 Ⅱ-3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결혼해야 함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	결혼할 필요 없음
		%	평균(세)		
2016	2,534	56.0	30.1	40.1	4.0
2017	2,714	53.9	30.2	40.7	5.3
2018	3,133	42.9	30.9	49.3	7.8
2019	3,530	45.8	30.4	47.9	6.2
2020	3,520	42.0	30.7	51.8	6.2

표 Ⅱ-3-1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결혼해야 함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	결혼할 필요 없음
			%	평균(세)		
전체		3,520	42.0	30.7	51.8	6.2
성별	남자	1,855	47.1	31.1	48.2	4.7
	여자	1,665	36.3	30.1	55.9	7.8
연령	만 18~19세	477	41.0	30.1	51.2	7.8
	만 20~24세	1,095	41.8	30.3	51.5	6.7
	만 25~29세	1,050	42.4	31.0	51.2	6.4
	만 30~34세	898	42.2	30.9	52.9	4.9
지역	서울	676	38.4	31.2	56.2	5.4
	인천/경기	824	42.0	30.4	50.6	7.4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41.0	30.3	53.9	5.1
	광주/전라/제주	468	46.5	30.3	46.6	6.9
	부산/울산/경남	555	47.4	30.9	48.7	3.9
	대구/경북	448	39.1	30.9	52.9	7.9
학력	고졸이하	1,098	47.1	30.2	48.5	4.4
	대학/대학원 재학	898	41.2	30.7	50.5	8.3
	대졸이상	1,524	39.2	31.0	54.5	6.2
주거형태	동거	2,194	38.9	31.0	54.0	7.1
	비동거/독립	1,326	47.5	30.3	47.9	4.5

4) 자녀를 가질 필요성

○ 청년들에게 자녀의 필요성 및 자녀 출산 적정 연령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은 41.8%로 2019년 46.1% 대비 4.3%p 하락하였고, 적정 자녀 출산 평균 연령은 32.0세로 2019년(31.8세) 대비 소폭(0.2세) 증가함

○ 성별로는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남자(46.2%)가 여자(36.9%)보다 높음

○ 연령별로는 만30~34세에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44.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48.1%로 다른 지역 대비 높고, 적정 자녀 출산 평균 연령은 서울이 32.5세로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에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47.4%로 다른 학력에 비해 높고, 대학/대학원 재학이 39.2%로 상대적으로 낮음

표 II-4 자녀를 가질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자녀를 가져야 함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음	자녀를 가질 필요 없음
		%	평균(세)		
2016	2,534	54.0	31.2	42.4	3.6
2017	2,714	54.1	31.3	41.4	4.5
2018	3,133	44.0	32.0	48.5	7.6
2019	3,530	46.1	31.8	47.6	6.3
2020	3,520	41.8	32.0	51.9	6.3

표 II-4-1 자녀를 가질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자녀를 가져야 함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음	자녀를 가질 필요 없음
			%	평균(세)		
전체		3,520	41.8	32.0	51.9	6.3
성별	남자	1,855	46.2	32.4	49.0	4.8
	여자	1,665	36.9	31.4	55.1	8.0
연령	만 18~19세	477	37.0	31.8	55.1	7.9
	만 20~24세	1,095	41.6	31.6	52.5	5.9
	만 25~29세	1,050	40.8	32.2	51.8	7.4
	만 30~34세	898	44.8	32.1	50.3	4.9
지역	서울	676	38.2	32.5	55.7	6.1
	인천/경기	824	42.2	31.7	50.7	7.1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38.9	31.7	54.5	6.6
	광주/전라/제주	468	46.8	31.7	47.3	6.0
	부산/울산/경남	555	48.1	32.3	48.5	3.4
	대구/경북	448	38.0	32.0	53.6	8.4
학력	고졸이하	1,098	47.4	31.6	46.9	5.7
	대학/대학원 재학	898	39.2	32.2	53.9	6.9
	대졸이상	1,524	39.6	32.2	54.0	6.4
주거형태	동거	2,194	37.7	32.3	55.2	7.1
	비동거/독립	1,326	49.1	31.6	46.0	4.9

5)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양육 대책

○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양육 대책 1순위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가 1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13.3%), '출산 휴가 장려 및 출산 휴가 급여 보장'(11.9%) 등의 순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가, 여자는 남자 대비 '육아 휴직 장려 및 육아 휴직 급여 확대', '배우자 육아 참여 확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17.3%),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는 '출산 휴가 장려 및 출산 휴가 급여 보장'(15.1%),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19.0%)가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에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가 16.5%로 가장 높고, 대학/대학원 재학에서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16.1%), 대졸이상에서 '출산 휴가 장려 및 출산 휴가 급여 보장'(12.3%) 정책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음

표 Ⅱ-5-1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1순위(상위 5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출산 휴가 장려 및 출산 휴가 급여 보장	육아 휴직 장려 및 육아 휴직 급여 확대	출산 장려금 확대
전체		3,520	13.7	13.3	11.9	10.4	8.8
성별	남자	1,855	14.1	15.4	11.7	9.3	8.9
	여자	1,665	13.3	10.9	12.1	11.6	8.6
연령	만 18~19세	477	17.6	14.3	12.3	10.3	10.3
	만 20~24세	1,095	12.3	15.7	11.5	10.6	9.7
	만 25~29세	1,050	14.7	13.5	12.1	10.1	8.9
	만 30~34세	898	12.7	10.2	11.8	10.5	7.1
지역	서울	676	11.6	15.0	11.5	11.6	10.1
	인천/경기	824	14.2	11.2	12.0	10.8	9.3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17.3	15.6	12.4	9.9	7.7
	광주/전라/제주	468	9.6	14.5	15.1	12.4	8.6
	부산/울산/경남	555	16.1	8.4	11.3	8.2	7.0
	대구/경북	448	12.3	19.0	8.6	7.7	8.0
학력	고졸이하	1,098	16.5	14.4	11.6	7.1	9.5
	대학/대학원 재학	898	13.2	16.1	11.4	10.9	10.0
	대졸이상	1,524	12.2	11.2	12.3	12.2	7.7
주거형태	동거	2,194	13.1	14.1	12.3	10.6	8.9
	비동거/독립	1,326	14.8	11.8	11.1	9.9	8.6

표 Ⅱ-5-2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1+2+3순위(상위 5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육아 휴직 장려 및 육아 휴직 급여 확대	출산 휴가 장려 및 출산 휴가 급여 보장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배우자 육아 참여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확산)
전체		3,520	34.8	34.3	33.4	28.1	27.0
성별	남자	1,855	37.3	32.1	34.1	27.6	24.0
	여자	1,665	31.9	36.7	32.7	28.7	30.3
연령	만 18~19세	477	37.2	29.9	31.7	32.0	31.8
	만 20~24세	1,095	38.4	36.9	33.2	28.8	27.7
	만 25~29세	1,050	33.1	34.1	34.7	27.7	27.0
	만 30~34세	898	32.2	33.4	32.8	26.6	24.6
지역	서울	676	37.3	39.5	32.9	22.9	28.8
	인천/경기	824	31.9	34.6	34.7	28.4	26.5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40.4	30.1	35.9	37.2	24.8
	광주/전라/제주	468	32.7	37.2	31.8	25.2	30.1
	부산/울산/경남	555	26.6	30.6	33.4	29.8	24.5
	대구/경북	448	45.5	29.8	28.0	26.0	27.8
학력	고졸이하	1,098	35.5	29.0	34.3	31.6	25.0
	대학/대학원 재학	898	39.1	37.5	31.9	26.1	28.8
	대졸이상	1,524	32.3	36.1	33.6	26.9	27.3
주거형태	동거	2,194	35.1	35.6	34.1	26.7	28.9
	비동거/독립	1,326	34.2	32.0	32.2	30.7	23.4

6) 결혼 경험

○ 청년들에게 결혼 경험을 조사한 결과, 20.4%가 경험이 '있다'(배우자 있음 20.2%+사별·이혼 0.2%)고 응답함

○ 성별로는 여자(27.0%, 배우자 있음 26.8%+사별·이혼 0.2%)가 남자(14.7%, 배우자 있음 14.4%+사별·이혼 0.3%)보다 결혼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결혼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서울 지역(15.3%, 배우자 있음 15.1%+사별·이혼 0.2%)에서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에서 결혼 경험이 '있다'(27.2%, 배우자 있음 27.0%+사별·이혼 0.2%)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음

표 II-6 결혼 경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결혼하지 않음
2019	2,948	42.6	0.8	56.6
2020	3,520	20.2	0.2	79.6

* 주: 2019년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020년 조사대상 연령(만18~34세) 전체 응답

표 II-6-1 결혼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결혼하지 않음
전체		3,520	20.2	0.2	79.6
성별	남자	1,855	14.4	0.3	85.4
	여자	1,665	26.8	0.2	73.1
연령	만 18~19세	477	0.2	0.0	99.8
	만 20~24세	1,095	2.9	0.0	97.0
	만 25~29세	1,050	15.6	0.3	84.1
	만 30~34세	898	49.4	0.3	50.3
지역	서울	676	15.1	0.2	84.8
	인천/경기	824	22.5	0.2	77.3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24.1	0.3	75.5
	광주/전라/제주	468	21.3	0.1	78.5
	부산/울산/경남	555	20.5	0.2	79.2
	대구/경북	448	16.6	0.1	83.3
학력	고졸이하	1,098	22.9	0.4	76.7
	대학/대학원 재학	898	2.9	0.1	97.1
	대졸이상	1,524	27.0	0.2	72.8
주거형태	동거	2,194	1.0	0.1	98.9
	비동거/독립	1,326	54.2	0.4	45.4

7) 결혼 준비 경험

○ 청년들 중 결혼 준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1%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자(25.9%)가 남자(14.9%)보다 결혼 준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결혼 준비 경험이 '있다'는 비율도 높음

○ 지역별로 보면 서울(14.7%)과 대구/경북(15.9%) 지역의 결혼 준비 경험 '있다' 응답 비율이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음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에서 결혼 준비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26.7%로 고졸이하(23.0%)에 비해 높음

표 II-7 결혼 준비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있다	없다
2016	2,192	42.0	58.0
2017	2,321	44.3	55.7
2018	2,641	39.4	60.6
2019	2,948	44.5	55.5
2020	3,520	20.1	79.9

* 주: 2016~2019년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020년 조사대상 연령(만18~34세) 전체 응답

표 II-7-1 결혼 준비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3,520	20.1	79.9
성별	남자	1,855	14.9	85.1
	여자	1,665	25.9	74.1
연령	만18~19세	477	0.3	99.7
	만20~24세	1,095	2.6	97.4
	만25~29세	1,050	16.5	83.5
	만30~34세	898	48.3	51.7
지역	서울	676	14.7	85.3
	인천/경기	824	22.3	77.7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24.4	75.6
	광주/전라/제주	468	21.3	78.7
	부산/울산/경남	555	20.8	79.2
	대구/경북	448	15.9	84.1
학력	고졸이하	1,098	23.0	77.0
	대학/대학원 재학	898	3.0	97.0
	대졸이상	1,524	26.7	73.3
주거형태	동거	2,194	2.1	97.9
	비동거/독립	1,326	51.9	48.1

8) 결혼 준비 시 망설인 경험

○ 결혼 준비 경험이 있는 청년들에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망설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예(망설인 적이 있다)'라는 응답이 27.7%로, 2019년 30.5% 대비 2.8%p 하락함

○ 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예(망설인 적이 있다)'라는 응답이 32.5%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대학/대학원 재학(32.8%)인 경우 결혼을 망설인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음

○ 주거형태별로는 부모 동거 중인 청년에게서 '예(망설인 적이 있다)'라는 응답이 54.2%로 비동거/독립(25.8%) 청년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표 II-8 결혼 준비 시 망설인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6	920	41.4	52.3
2017	1,011	31.2	68.8
2018	1,020	32.9	67.1
2019	1,213	30.5	69.5
2020	597	27.7	72.3

* 주 1)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
2) 2016년에는 '결혼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인 경험 유무'로 질문하여 응답 받은 결과이며 2017년부터는 망설인 이유를 포괄하여 '결혼을 망설인 경험 유무'로 응답 받은 결과임
(2016년 조사에는 '결혼비용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가 보기문항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응답 비율은 6.8%였음(본 표에 미제시함))

표 Ⅱ-8-1 결혼 준비 시 망설인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597	27.7	72.3
성별	남자	213	26.4	73.6
	여자	384	28.5	71.5
연령	만 18~19세	2	54.3	45.7
	만 20~24세	25	22.0	78.0
	만 25~29세	160	32.9	67.1
	만 30~34세	410	26.0	74.0
지역	서울	85	26.4	73.6
	인천/경기	171	30.6	69.4
	대전/충청/세종/강원	105	27.7	72.3
	광주/전라/제주	82	15.8	84.2
	부산/울산/경남	98	32.5	67.5
	대구/경북	56	23.9	76.1
학력	고졸이하	199	24.5	75.5
	대학/대학원 재학	20	32.8	67.2
	대졸이상	378	29.1	70.9
주거형태	동거	42	54.2	45.8
	비동거/독립	555	25.8	74.2

* 주: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

9) 결혼을 망설인 이유

○ 결혼을 망설인 경험이 있는 청년들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결혼비용 때문에’라는 응답이 51.4%로 가장 높고, 매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다음으로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13.9%),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12.9%) 등의 순임

○ 성별로는 남자는 여자에 비해 ‘결혼비용 때문에’, ‘불안전한 직장 때문에’ 결혼을 망설인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여자는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지역(65.3%),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52.3%)에서 ‘결혼비용 때문에’ 망설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서울(23.4%), 광주/전라/제주(25.5%) 지역에서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Ⅱ-9 결혼을 망설인 이유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결혼비용 때문에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기타
2017	308	46.4	12.5	18.8	13.7	7.5	1.1
2018	353	65.8	9.1	9.2	9.1	6.3	0.6
2019	341	53.2	8.6	16.4	11.8	8.5	1.5
2020	167	51.4	13.9	12.9	12.3	9.5	-

* 주: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망설인 적이 있는 사람만 응답

표 II-9-1 결혼을 망설인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결혼비용 때문에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전체		167	51.4	13.9	12.9	12.3	9.5
성별	남자	57	64.4	6.9	10.4	7.0	11.3
	여자	110	43.6	18.1	14.4	15.5	8.4
연령	만 18~19세	1	0.0	0.0	100.0	0.0	0.0
	만 20~24세	8	38.1	10.4	26.3	0.0	25.1
	만 25~29세	57	45.3	17.6	7.7	16.4	13.0
	만 30~34세	101	55.2	12.3	14.3	11.0	7.2
지역	서울	22	39.6	23.4	9.2	20.1	7.7
	경기/인천	56	65.3	10.9	14.5	3.7	5.6
	대전/충청/세종/강원	29	62.1	11.1	5.7	11.9	9.3
	광주/전라/제주	12	52.3	25.5	4.8	4.3	13.2
	부산/울산/경남	32	26.3	14.5	21.6	19.7	17.8
	대구/경북	16	30.8	4.9	14.8	37.0	12.4
학력	고졸이하	51	46.0	25.4	10.2	9.3	9.1
	대학/대학원 재학	7	41.7	11.4	14.9	5.9	26.1
	대졸이상	109	54.5	8.8	14.0	14.1	8.6
주거형태	동거	23	49.6	13.1	19.7	11.1	6.5
	비동거/독립	144	51.7	14.0	11.9	12.5	9.9

* 주: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망설인 적이 있는 사람만 응답

10) 맞벌이 여부

○ 현재 배우자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벌이 여부를 물어 본 결과, 52.0%가 맞벌이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19년 46.6% 대비 5.4%p 상승함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48.0%), 대전/충청/세종/강원(49.6%), 광주/전라/제주(50.5%) 지역이 다른 지역 대비 맞벌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의 맞벌이 비율이 55.6%로 고졸이하(44.5%)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10 맞벌이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맞벌이)	아니오(외벌이)
2016	853	47.7	52.3
2017	969	49.9	49.5
2018	1,046	61.6	38.4
2019	1,157	46.6	53.4
2020	591	52.0	48.0

* 주 1)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응답
2) 2017년 응답 결과에 모름/무응답 0.6%가 있음(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10-1 맞벌이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맞벌이)	아니오(외벌이)
전체		591	52.0	48.0
성별	남자	198	51.5	48.5
	여자	393	52.4	47.6
연령	만 18~19세	1	0.0	100.0
	만 20~24세	29	56.4	43.6
	만 25~29세	148	52.8	47.2
	만 30~34세	413	51.6	48.4
지역	서울	86	57.0	43.0
	인천/경기	166	48.0	52.0
	대전/충청/세종/강원	103	49.6	50.4
	광주/전라/제주	83	50.5	49.5
	부산/울산/경남	94	57.8	42.2
	대구/경북	59	57.5	42.5
학력	고졸이하	198	44.5	55.5
	대학/대학원 재학	17	61.1	38.9
	대졸이상	376	55.6	44.4
주거형태	동거	18	44.3	55.7
	비동거/독립	573	52.3	47.7

* 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응답

11) 현재 자녀 존재 여부

○ 현재 자녀가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13.5%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평균 자녀수는 1.5명으로 조사됨

○ 성별로는 여자(18.7%)가 남자(8.8%)보다 자녀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가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9.2%)과 대구/경북(10.6%)에서 자녀가 있다는 비율이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고,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17.4%)은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대졸이상(17.5%)에서 자녀가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11 현재 자녀 존재 유무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	평균(명)	
2016	2,192	31.7	1.6	68.3
2017	2,321	35.6	1.7	64.4
2018	2,641	28.3	1.5	71.7
2019	2,948	35.4	1.6	64.6
2020	3,520	13.5	1.5	86.5

* 주: 2016~2019년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020년 조사대상 연령(만18~34세) 전체 응답

표 Ⅱ-11-1 현재 자녀 존재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	평균(명)	
전체		3,520	13.5	1.5	86.5
성별	남자	1,855	8.8	1.5	91.2
	여자	1,665	18.7	1.5	81.3
연령	만18~19세	477	0.0	-	100.0
	만20~24세	1,095	2.3	1.3	97.7
	만25~29세	1,050	9.5	1.5	90.5
	만30~34세	898	33.6	1.4	66.4
지역	서울	676	9.2	1.3	90.8
	인천/경기	824	15.2	1.4	84.8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17.4	1.6	82.6
	광주/전라/제주	468	14.0	1.5	86.0
	부산/울산/경남	555	13.5	1.5	86.5
	대구/경북	448	10.6	1.2	89.4
학력	고졸이하	1,098	16.1	1.5	83.9
	대학/대학원 재학	898	1.9	1.7	98.1
	대졸이상	1,524	17.5	1.4	82.5
주거형태	동거	2,194	0.8	1.5	99.2
	비동거/독립	1,326	35.9	1.5	64.1

12)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자녀를 가질 의향)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6.0%가 가질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72.9%)가 여자(58.2%)보다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가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이 70.1%로 다른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 72.2%로 다른 지역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일하게 70%대의 응답률을 보임

○ 학력별로 대학생/대학원 재학(70.1%)에서 자녀를 가질 의향이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부모 동거(69.8%)가 비동거/독립(59.3%)보다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2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6	2,192	59.5	40.5
2017	2,321	55.8	44.2
2018	2,641	56.2	43.8
2019	2,948	47.6	52.4
2020	3,520	66.0	34.0

* 주: 2016~2019년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020년 조사대상 연령(만18~34세) 전체 응답

표 II-12-1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520	66.0	34.0
성별	남자	1,855	72.9	27.1
	여자	1,665	58.2	41.8
연령	만18~19세	477	65.7	34.3
	만20~24세	1,095	70.1	29.9
	만25~29세	1,050	70.1	29.9
	만30~34세	898	57.5	42.5
지역	서울	676	69.4	30.6
	인천/경기	824	62.9	37.1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66.7	33.3
	광주/전라/제주	468	69.8	30.2
	부산/울산/경남	555	60.4	39.6
	대구/경북	448	72.2	27.8
학력	고졸이하	1,098	63.9	36.1
	대학/대학원 재학	898	70.1	29.9
	대졸이상	1,524	65.3	34.7
주거형태	동거	2,194	69.8	30.2
	비동거/독립	1,326	59.3	40.7

13) 자녀를 추가로 가질 의향이 없는 이유

○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라는 응답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녀가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22.0%), ‘이미 계획한 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12.3%) 등의 순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54.2%)라는 응답이, 여자는 남자에 비해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때문에’(12.1%)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의 경우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때문에’(11.3%)라는 응답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고, 광주/전라/제주 지역은 ‘맞벌이로 인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15.9%) 응답이 다른 지역대비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고졸이하에서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자녀를 추가로 가질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50.2%로 가장 높음

표 Ⅱ-13-1 자녀를 추가로 가질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자녀가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계획한 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맞벌이로 인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때문에	불임, 난임 등 임신의 어려움 때문에	기타
전체		1,174	44.3	22.0	12.3	11.0	8.1	0.4	2.0
성별	남자	475	54.2	21.0	11.3	10.2	2.6	0.0	0.7
	여자	699	37.0	22.7	13.0	11.6	12.1	0.7	2.9
연령	만 18~19세	157	45.5	33.9	1.2	6.3	10.4	0.0	2.7
	만 20~24세	319	52.0	24.5	1.6	8.7	8.3	1.5	3.3
	만 25~29세	305	43.0	26.2	8.7	12.5	7.0	0.0	2.5
	만 30~34세	393	39.4	13.8	25.5	12.7	8.1	0.0	0.5
지역	서울	213	45.7	21.2	9.5	11.7	11.3	0.0	0.5
	인천/경기	310	42.4	22.5	11.8	11.6	7.9	0.7	3.0
	대전/충청/세종/강원	175	47.3	23.7	15.0	7.9	4.5	0.0	1.6
	광주/전라/제주	137	33.2	20.8	17.6	15.9	6.4	1.5	4.6
	부산/울산/경남	210	48.6	19.5	12.9	8.6	9.0	0.0	1.5
	대구/경북	129	47.2	25.3	8.7	11.4	7.3	0.0	0.0
학력	고졸이하	377	50.2	20.6	16.0	8.3	2.6	0.7	1.7
	대학/대학원 재학	269	42.8	28.5	2.8	9.1	11.7	0.9	4.3
	대졸이상	528	41.0	20.2	13.9	13.6	10.2	0.0	1.2
주거형태	동거	663	49.4	28.7	0.9	9.3	8.3	0.7	2.6
	비동거/독립	511	37.5	13.3	27.1	13.2	7.8	0.0	1.2

* 주: 추가로 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는 응답자

14) 2025년 출산율 전망

○ 현재와 비교 했을 때 2025년의 출산율 변화에 대해,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는 응답이 75.6%로 가장 높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8~19세에서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는 전망이 72.2%로 다른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낮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7.1%), ‘출산율이 유지될 것이다’(35.0%)는 응답이 다른 지역 대비 높고,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은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88.7%)는 응답이 다른 지역 대비 높음

표 II-14 2025년 출산율 전망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출산율이 유지될 것이다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
2016	2,534	5.9	21.2	72.9
2017	2,321	4.6	18.3	77.1
2018	2,641	3.1	28.7	68.2
2019	2,948	1.6	17.9	80.5
2020	3,520	2.0	22.4	75.6

* 주: 2016~2019년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020년 조사대상 연령(만18~34세) 전체 응답

표 Ⅱ-14-1 2025년 출산율 전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출산율이 유지될 것이다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
전체		3,520	2.0	22.4	75.6
성별	남자	1,855	2.1	22.4	75.5
	여자	1,665	1.9	22.4	75.7
연령	만18~19세	477	4.3	23.6	72.2
	만20~24세	1,095	1.9	22.1	75.9
	만25~29세	1,050	2.4	22.1	75.5
	만30~34세	898	0.9	22.6	76.5
지역	서울	676	2.7	27.2	70.0
	인천/경기	824	0.9	21.4	77.7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0.3	11.1	88.7
	광주/전라/제주	468	2.0	23.9	74.2
	부산/울산/경남	555	1.9	19.3	78.7
	대구/경북	448	7.1	35.0	57.8
학력	고졸이하	1,098	2.4	22.3	75.3
	대학/대학원 재학	898	2.5	23.5	74.0
	대졸이상	1,524	1.5	22.0	76.5
주거형태	동거	2,194	2.2	22.7	75.0
	비동거/독립	1,326	1.6	21.8	76.6

15) 해외 이주 고려 경험

○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은 19.8%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자(21.7%)가 남자(18.1%)보다 해외 이주에 대해 더 많이 고려함

○ 연령대별로 보면 만20~24세에서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이 22.1%로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27.6%), 대전/충청/세종/강원(23.6%) 지역에서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에서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4.5%로 다른 학력 대비 상대적으로 낮음

표 II-15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있다	없다
2016	2,534	22.2	77.7
2017	2,714	36.0	64.0
2018	3,133	14.1	85.9
2019	3,530	28.8	71.2
2020	3,520	19.8	80.2

표 II-15-1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3,520	19.8	80.2
성별	남자	1,855	18.1	81.9
	여자	1,665	21.7	78.3
연령	만18~19세	477	17.2	82.8
	만20~24세	1,095	22.1	77.9
	만25~29세	1,050	19.0	81.0
	만30~34세	898	19.1	80.9
지역	서울	676	27.6	72.4
	인천/경기	824	18.6	81.4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23.6	76.4
	광주/전라/제주	468	13.8	86.2
	부산/울산/경남	555	16.3	83.7
	대구/경북	448	11.2	88.8
학력	고졸이하	1,098	14.5	85.5
	대학/대학원 재학	898	24.4	75.6
	대졸이상	1,524	20.8	79.2
주거형태	동거	2,194	18.7	81.3
	비동거/독립	1,326	21.6	78.4

16) 해외 이주 고려 이유

○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다는 청년을 대상으로 고려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24.4%), '자기 계발을 위해서'(15.7%) 등의 순으로, 2019년 대비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 '자기 계발을 위해서'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보았다는 응답은 상승한 반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응답은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해외 이주를 고려 해 보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자기 계발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라는 응답이 높음

표 II-16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자기 계발을 위해서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취업이 어려워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빈부 격차가 커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안보가 불안해서	기타
2016	564	12.8	18.5	27.8	12.6	6.8	8.4	7.8	2.5	1.7	1.2
2017	943	11.2	18.7	34.3	13.4	5.5	7.9	3.7	2.1	2.0	1.0
2018	411	15.5	26.2	23.0	10.5	8.7	8.4	4.1	1.1	2.3	0.2
2019	935	9.5	17.8	30.9	14.2	5.3	10.9	3.9	4.4	0.9	2.3
2020	663	15.7	24.4	26.5	9.5	5.6	6.2	4.9	4.6	1.6	1.0

* 주: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Ⅱ-16-1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자기계발을 위해서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취업이 어려워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빈부 격차가 커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안보가 불안해서	기타
전체		663	15.7	24.4	26.5	9.5	5.6	6.2	4.9	4.6	1.6	1.0
성별	남자	317	16.4	25.0	27.2	7.1	5.3	5.4	6.4	5.2	1.9	0.2
	여자	346	15.1	23.9	25.9	11.7	5.8	6.9	3.4	4.0	1.4	1.8
연령	만18~19세	81	25.2	23.8	25.2	7.0	4.0	2.4	2.9	6.3	2.4	0.9
	만20~24세	213	23.5	28.9	22.7	8.2	7.5	2.7	2.6	0.3	2.9	0.7
	만25~29세	196	13.8	19.1	32.3	9.1	5.2	7.2	4.5	5.9	0.8	2.0
	만30~34세	173	5.9	25.2	25.1	12.0	4.1	10.3	8.4	7.7	0.9	0.3
지역	서울	173	14.8	28.4	26.4	9.8	3.1	3.7	5.3	5.0	1.4	2.0
	인천/경기	157	23.0	21.4	20.6	5.0	7.8	9.4	5.8	4.0	2.1	0.8
	대전/충청/세종/강원	130	8.5	23.3	33.3	9.8	6.0	4.4	5.3	7.9	0.8	0.6
	광주/전라/제주	62	14.9	24.8	26.2	15.4	1.9	8.4	3.8	0.0	4.6	0.0
	부산/울산/경남	93	13.7	17.6	36.1	12.5	7.8	5.2	0.9	4.2	1.2	0.7
	대구/경북	48	7.0	37.3	19.4	17.7	5.2	6.8	4.9	1.7	0.0	0.0
학력	고졸이하	151	13.6	19.9	24.2	11.1	6.4	8.1	8.1	5.3	2.3	1.0
	대학/대학원 재학	200	25.3	25.9	22.1	8.7	7.0	4.1	1.1	2.2	2.5	1.1
	대졸이상	312	11.1	25.5	30.1	9.2	4.4	6.5	5.6	5.7	0.9	0.9
주거형태	동거	390	19.7	26.4	25.5	9.2	6.2	2.4	3.3	3.4	2.4	1.5
	비동거/독립	273	9.6	21.5	28.1	9.8	4.6	12.0	7.3	6.4	0.5	0.2

* 주: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17) 2025년 입시경쟁 전망

○ 우리나라의 입시경쟁이 현재 대비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에 대해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9년 46.9% 대비 2.9%p 하락함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높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는 응답이 50.4%로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에서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46.3%로 가장 높음

표 II-17 2025년 입시경쟁 전망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2016	2,534	28.3	36.2	35.5
2017	2,714	25.3	27.1	47.7
2018	3,133	20.0	38.8	41.2
2019	3,530	19.8	33.3	46.9
2020	3,520	16.7	39.3	44.0

표 II-17-1 2025년 입시경쟁 전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전체		3,520	16.7	39.3	44.0
성별	남자	1,855	16.8	40.3	42.9
	여자	1,665	16.6	38.2	45.3
연령	만18~19세	477	15.8	37.5	46.7
	만20~24세	1,095	14.8	39.5	45.7
	만25~29세	1,050	19.4	38.0	42.5
	만30~34세	898	15.9	41.2	42.9
지역	서울	676	16.5	39.2	44.2
	인천/경기	824	16.6	40.0	43.3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16.3	33.4	50.4
	광주/전라/제주	468	12.9	45.7	41.4
	부산/울산/경남	555	21.6	34.8	43.6
	대구/경북	448	14.6	46.1	39.3
학력	고졸이하	1,098	14.0	39.6	46.3
	대학/대학원 재학	898	17.9	40.8	41.3
	대졸이상	1,524	17.8	38.4	43.9
주거형태	동거	2,194	17.2	39.1	43.7
	비동거/독립	1,326	15.9	39.7	44.4

18)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 우리 사회의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 중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42.7%(그렇다 34.9%+매우 그렇다 7.8%)로 '그렇지 않다' 35.2%(전혀 그렇지 않다 6.7%+그렇지 않다 28.5%)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그렇다'는 응답은 2019년 37.4% 대비 5.3%p 상승하였음

○ 성별로 보면 여자의 '그렇다' 응답이 43.9%(그렇다 36.9%+매우 그렇다 7.0%)로 남자의 '그렇다' 응답 41.8%(그렇다 33.2%+매우 그렇다 8.6%)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만18~19세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50.9%(그렇다 41.0%+매우 그렇다 9.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6.0%(전혀 그렇지 않다 11.5%+그렇지 않다 34.5%)로 다른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표 Ⅱ-18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3.8	22.4	31.1	36.9	5.8
2017	2,714	10.7	33.0	20.5	25.7	10.1
2018	3,133	1.3	12.7	24.7	53.5	7.7
2019	3,530	8.6	34.8	19.2	29.6	7.8
2020	3,520	6.7	28.5	22.0	34.9	7.8

표 II-18-1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520	6.7	28.5	22.0	34.9	7.8
성별	남자	1,855	7.6	29.2	21.4	33.2	8.6
	여자	1,665	5.7	27.7	22.6	36.9	7.0
연령	만 18~19세	477	5.2	24.1	19.9	41.0	9.9
	만 20~24세	1,095	7.3	30.3	21.1	34.0	7.3
	만 25~29세	1,050	7.2	30.2	20.4	33.9	8.4
	만 30~34세	898	6.1	26.5	25.3	35.0	7.1
지역	서울	676	5.1	28.4	16.0	42.0	8.5
	인천/경기	824	6.4	25.7	25.6	35.0	7.3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11.5	34.5	22.0	25.0	7.0
	광주/전라/제주	468	6.9	24.1	19.6	36.3	13.1
	부산/울산/경남	555	6.8	35.6	21.7	29.2	6.7
	대구/경북	448	4.0	23.5	26.4	40.6	5.4
학력	고졸이하	1,098	9.5	41.0	23.3	21.3	5.0
	대학/대학원 재학	898	5.1	21.7	21.2	43.0	9.1
	대졸이상	1,524	5.8	24.0	21.6	39.6	9.0
주거형태	동거	2,194	6.3	27.8	21.9	35.6	8.3
	비동거/독립	1,326	7.4	29.7	22.1	33.7	7.0

19)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70.3%(그렇다 51.4%+매우 그렇다 18.9%)로 ‘그렇지 않다’ 10.8%(전혀 그렇지 않다 1.9%+그렇지 않다 9.0%)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그렇다’는 응답은 2019년 65.7%(그렇다 46.6%+매우 그렇다 19.1%) 대비 4.6%p 상승하였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75.2%(그렇다 52.0%+매우 그렇다 23.2%)로 다른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표 II-19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1.0	8.1	22.9	49.9	18.0
2017	2,714	3.0	11.3	18.9	44.1	22.7
2018	3,133	0.4	4.1	22.0	54.7	18.8
2019	3,530	1.8	11.9	20.5	46.6	19.1
2020	3,520	1.9	9.0	18.8	51.4	18.9

표 Ⅱ-19-1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520	1.9	9.0	18.8	51.4	18.9
성별	남자	1,855	2.1	9.7	18.3	49.8	20.2
	여자	1,665	1.7	8.2	19.4	53.2	17.6
연령	만18~19세	477	1.7	7.8	18.8	52.7	18.9
	만20~24세	1,095	1.9	9.1	20.2	49.2	19.7
	만25~29세	1,050	2.7	10.7	17.1	51.2	18.4
	만30~34세	898	1.1	7.3	19.3	53.4	18.8
지역	서울	676	1.7	6.8	16.3	52.0	23.2
	인천/경기	824	1.4	8.6	20.2	53.1	16.8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2.9	13.1	17.8	51.3	14.8
	광주/전라/제주	468	4.0	9.7	17.2	39.0	30.0
	부산/울산/경남	555	1.8	10.8	19.9	54.0	13.6
	대구/경북	448	0.2	5.6	21.6	53.7	19.0
학력	고졸이하	1,098	3.2	15.8	28.3	40.1	12.7
	대학/대학원 재학	898	0.8	5.5	14.8	55.7	23.2
	대졸이상	1,524	1.6	6.4	14.8	56.4	20.8
주거형태	동거	2,194	1.8	8.0	19.0	52.5	18.7
	비동거/독립	1,326	2.0	10.7	18.4	49.5	19.4

20)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68.7%(그렇다 51.2%+매우 그렇다 17.5%)로 ‘그렇지 않다’ 12.7%(전혀 그렇지 않다 2.5%+그렇지 않다 10.2%)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그렇다’는 응답은 2019년 67.9%(그렇다 47.0%+매우 그렇다 20.9%) 대비 0.8%p 상승하였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74.6%(그렇다 52.4%+매우 그렇다 22.2%)로 다른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에서 ‘그렇다’(53.3%, 그렇다 42.2%+매우 그렇다 11.1%)는 응답이 다른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표 Ⅱ-20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1.3	7.6	22.6	47.5	21.0
2017	2,714	3.7	12.1	17.3	42.8	24.2
2018	3,133	0.4	4.0	20.9	54.9	19.9
2019	3,530	2.1	11.9	18.1	47.0	20.9
2020	3,520	2.5	10.2	18.6	51.2	17.5

표 Ⅱ-20-1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520	2.5	10.2	18.6	51.2	17.5
성별	남자	1,855	2.8	10.3	18.5	50.5	17.9
	여자	1,665	2.2	10.2	18.6	51.9	17.1
연령	만18~19세	477	2.2	8.5	16.9	56.8	15.5
	만20~24세	1,095	2.5	11.7	18.9	50.6	16.3
	만25~29세	1,050	3.7	10.8	19.0	47.5	19.0
	만30~34세	898	1.3	8.8	18.4	53.8	17.8
지역	서울	676	1.9	8.0	15.4	52.4	22.2
	인천/경기	824	2.2	10.7	18.2	54.1	14.8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4.9	12.5	19.5	47.6	15.5
	광주/전라/제주	468	2.8	11.0	20.3	42.3	23.6
	부산/울산/경남	555	2.8	11.3	20.7	51.2	14.0
	대구/경북	448	0.2	8.0	20.7	53.0	18.0
학력	고졸이하	1,098	3.6	18.0	25.1	42.2	11.1
	대학/대학원 재학	898	1.5	6.6	14.0	58.5	19.3
	대졸이상	1,524	2.3	7.1	16.7	53.2	20.7
주거형태	동거	2,194	2.5	9.7	17.7	52.8	17.3
	비동거/독립	1,326	2.5	11.2	20.1	48.3	18.0

21) 대학(교) 진학 경험 여부

○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5.7%로 전년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 진학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8.9%로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I-21 대학(교) 진학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있다	없다
2019	2,948	74.5	25.5
2020	3,520	75.7	24.3

* 주: 2016~2019년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020년 조사대상 연령(만18~34세) 전체 응답

표 II-21-1 대학(교) 진학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3,520	75.7	24.3
성별	남자	1,855	74.8	25.2
	여자	1,665	76.7	23.3
연령	만18~19세	477	50.6	49.4
	만20~24세	1,095	77.2	22.8
	만25~29세	1,050	77.9	22.1
	만30~34세	898	80.2	19.8
지역	서울	676	78.8	21.2
	인천/경기	824	74.6	25.4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68.9	31.1
	광주/전라/제주	468	76.0	24.0
	부산/울산/경남	555	79.5	20.5
	대구/경북	448	76.5	23.5
학력	고졸이하	1,098	18.1	81.9
	대학/대학원 재학	898	100.0	0.0
	대졸이상	1,524	100.0	0.0
주거형태	동거	2,194	76.8	23.2
	비동거/독립	1,326	73.8	26.2

22) 대학 전공 계열

○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공 계열을 물어본 결과, ‘공학계열’이 2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문계열’(17.5%), ‘예체능계열’(13.7%) 등의 순이었음

○ 성별로는 남자는 여자에 비해 ‘공학계열’이 39.6%, 여자는 남자에 비해 ‘인문계열’이 23.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인문계열’(22.5%),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공학계열’(29.5%),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자연계열’(14.0%)이 다른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표 Ⅱ-22 대학 전공 계열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인문계열	사회계열(경상계열 제외)	경상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학계열	교육계열	예체능계열	사관학교, 경찰대	기타
2016	1,455	27.8	12.5	9.5	12.4	21.5	3.9	4.9	7.2	0.0	0.3
2017	1,772	19.4	13.0	8.1	9.4	22.3	6.7	4.4	11.2	0.5	3.2
2018	2,018	28.3	17.2	9.4	14.4	19.6	2.1	3.0	4.7	0.0	1.2
2019	2,196	18.3	11.1	8.6	10.6	25.0	5.6	4.9	12.3	0.5	3.0
2020	2,595	17.5	11.9	8.2	9.7	25.0	6.1	4.2	13.7	0.5	3.2

* 주 1)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 2017년 응답결과에 모름/무응답 1.8%가 있음 (본 표에 미제시함)

표 Ⅱ-22-1 대학 전공 계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인문계열	사회계열(경상계열제외)	경상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학계열	교육계열	예체능계열	사관학교, 경찰대	기타
전체		2,595	17.5	11.9	8.2	9.7	25.0	6.1	4.2	13.7	0.5	3.2
성별	남자	1,341	12.4	10.1	8.8	10.5	39.6	3.5	1.9	10.3	0.8	2.2
	여자	1,254	23.1	13.9	7.5	8.9	8.9	9.1	6.8	17.4	0.1	4.3
연령	만18~19세	238	17.8	11.1	4.2	11.3	20.4	5.6	5.8	17.0	0.8	5.9
	만20~24세	836	16.0	13.3	7.2	8.9	26.3	7.8	3.6	12.8	0.7	3.1
	만25~29세	810	17.2	10.6	9.4	10.2	24.8	6.1	3.8	15.3	0.3	2.3
	만30~34세	711	19.2	12.0	8.6	9.7	24.7	4.6	5.0	12.1	0.3	3.7
지역	서울	521	22.5	13.8	10.2	7.1	20.2	3.8	3.5	15.5	0.2	3.1
	인천/경기	595	17.1	11.9	6.7	9.7	25.2	5.0	5.4	16.1	0.1	2.8
	대전/충청/세종/강원	366	15.3	12.4	8.2	9.6	27.1	6.2	4.5	13.5	0.0	3.2
	광주/전라/제주	351	15.9	13.6	4.7	10.3	23.5	9.7	4.9	9.7	1.0	6.6
	부산/울산/경남	429	18.3	7.9	8.8	11.0	29.5	8.4	1.4	10.5	1.1	3.1
	대구/경북	333	10.2	11.0	10.9	14.0	27.2	8.4	5.3	10.5	1.3	1.1
학력	고졸이하	173	10.4	9.9	8.5	7.8	30.3	6.8	1.8	18.5	1.7	4.3
	대학/대학원 재학	898	17.6	12.5	6.8	9.4	26.2	7.7	3.0	13.3	0.8	2.7
	대졸이상	1,524	18.2	11.8	8.8	10.1	23.8	5.3	5.1	13.3	0.1	3.3
주거형태	동거	1,619	16.9	12.2	8.9	10.0	25.6	6.0	4.0	13.4	0.4	2.7
	비동거/독립	976	18.6	11.3	6.9	9.3	23.8	6.4	4.7	14.2	0.6	4.2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II-22-2 대학 전공 계열 (한국표준교육분류 적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반 프로그램 및 자격/서비스	교육	예술 및 인문학	사회 과학, 언론 및 정보학	경영, 행정 및 법	자연 과학, 수학 및 통계학/농림어업 및 수의학	정보 통신 기술/공학, 제조 및 건설	보건 및 복지
전체		2,595	3.2	4.2	31.2	11.9	8.7	9.7	25.0	6.1
성별	남자	1,341	2.2	1.9	22.7	10.1	9.6	10.5	39.6	3.5
	여자	1,254	4.3	6.8	40.5	13.9	7.6	8.9	8.9	9.1
연령	만 18~19세	238	5.9	5.8	34.8	11.1	5.0	11.3	20.4	5.6
	만 20~24세	836	3.1	3.6	28.8	13.3	7.9	8.9	26.3	7.8
	만 25~29세	810	2.3	3.8	32.5	10.6	9.7	10.2	24.8	6.1
	만 30~34세	711	3.7	5.0	31.3	12.0	8.9	9.7	24.7	4.6
지역	서울	521	3.1	3.5	38.0	13.8	10.4	7.1	20.2	3.8
	인천/경기	595	2.8	5.4	33.2	11.9	6.8	9.7	25.2	5.0
	대전/충청/세종/강원	366	3.2	4.5	28.8	12.4	8.2	9.6	27.1	6.2
	광주/전라/제주	351	6.6	4.9	25.6	13.6	5.7	10.3	23.5	9.7
	부산/울산/경남	429	3.1	1.4	28.8	7.9	9.9	11.0	29.5	8.4
	대구/경북	333	1.1	5.3	20.7	11.0	12.2	14.0	27.2	8.4
학력	고졸이하	173	4.3	1.8	28.9	9.9	10.2	7.8	30.3	6.8
	대학/대학원 재학	898	2.7	3.0	30.9	12.5	7.6	9.4	26.2	7.7
	대졸이상	1,524	3.3	5.1	31.5	11.8	8.9	10.1	23.8	5.3
주거형태	동거	1,619	2.7	4.0	30.3	12.2	9.3	10.0	25.6	6.0
	비동거/독립	976	4.2	4.7	32.8	11.3	7.5	9.3	23.8	6.4

* 주 1)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 한국표준교육분류(교육영역)를 고려하여 응답 결과를 재구성함

23) 등록금 마련 주된 방법

○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주된 방법을 물어본 결과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이 58.5%로 가장 높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자금 대출'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스스로 마련'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 '국가 장학금'(37.7%) 응답이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23-1 등록금 마련 주된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의 지원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스스로 마련	민간 장학금
전체		2,595	58.5	25.7	9.9	4.1	1.8
성별	남자	1,341	56.8	26.5	9.9	4.6	2.2
	여자	1,254	60.3	24.9	10.0	3.5	1.3
연령	만18~19세	238	67.4	28.8	2.6	0.2	1.0
	만20~24세	836	55.8	34.1	5.7	2.4	2.1
	만25~29세	810	54.1	28.4	10.9	5.0	1.7
	만30~34세	711	63.8	14.1	14.5	5.7	1.8
지역	서울	521	64.8	18.3	11.3	3.1	2.4
	인천/경기	595	54.8	24.1	13.4	5.7	1.9
	대전/충청/세종/강원	366	48.5	37.7	8.5	2.9	2.3
	광주/전라/제주	351	58.1	33.2	4.0	3.6	1.1
	부산/울산/경남	429	61.0	26.3	8.0	3.9	0.8
	대구/경북	333	65.8	23.4	6.0	3.4	1.3
학력	고졸이하	173	67.9	13.4	9.9	7.8	1.0
	대학/대학원 재학	898	59.9	29.8	5.6	2.9	1.9
	대졸이상	1,524	56.7	25.1	12.1	4.3	1.8
주거형태	동거	1,619	58.1	28.2	9.1	3.5	1.2
	비동거/독립	976	59.2	21.2	11.5	5.3	2.8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4) 총 학자금 대출 금액

○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마련한 청년을 대상으로 총 학자금 대출 금액을 물어본 결과 약 1,101만 원 정도의 학자금 대출 금액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구간별로 보면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높았으며, '500-1,000만 원 미만'(28.3%), '500만 원 미만'(14.2%)의 순임

표 II-24-1 총 학자금 대출 금액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500만원 미만	500~1,000만원 미만	1,000~1,500만원 미만	1,500~2,000만원 미만	2,000~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전체		220	14.2	28.3	33.3	8.0	12.1	4.2	1,101
성별	남자	112	17.9	24.1	35.4	7.4	12.6	2.7	1,070
	여자	108	10.1	32.9	31.0	8.7	11.6	5.8	1,134
연령	만18~19세	6	68.1	11.2	20.8	0.0	0.0	0.0	472
	만20~24세	40	25.3	39.2	22.2	3.7	8.0	1.5	863
	만25~29세	81	13.6	30.8	36.0	6.1	9.5	4.1	1,073
	만30~34세	93	8.4	22.7	35.8	11.5	16.2	5.4	1,237
지역	서울	55	8.6	37.1	29.9	7.8	12.7	3.9	1,083
	인천/경기	76	16.0	26.1	30.3	10.2	11.9	5.5	1,129
	대전/충청/세종/강원	26	0.0	18.7	54.5	4.2	15.2	7.4	1,383
	광주/전라/제주	12	18.2	29.7	37.6	0.0	14.5	0.0	1,038
	부산/울산/경남	33	16.2	32.1	33.9	7.4	10.4	0.0	948
	대구/경북	18	45.9	14.1	25.4	6.3	6.6	1.7	787
학력	고졸이하	15	31.8	30.4	33.0	0.0	4.8	0.0	704
	대학/대학원 재학	43	33.6	30.3	11.4	0.0	17.9	6.8	1,057
	대졸이상	162	8.1	27.6	38.2	10.6	11.5	4.0	1,148
주거형태	동거	117	13.6	33.0	29.0	7.0	14.0	3.4	1,077
	비동거/독립	103	15.0	21.3	39.5	9.4	9.4	5.4	1,135

* 주: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마련한 경우만 응답

25) 학자금 대출 상환 가능 기간

○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마련한 청년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 가능 기간을 물어본 결과 '이미 상환하였다'는 응답(48.8%)을 제외하고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19.4%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이미 상환'했다는 응답은 남자(44.5%) 보다 여자(53.4%)가 더 높음

○ 주거형태별로 동거(33.0%) 보다 비동거/독립(71.6%)의 경우에 '이미 상환'했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더 높음

표 Ⅱ-25-1 학자금 대출 상환 가능 기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이미 상환	향후 1년 이내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향후 10년 이상
전체		220	48.8	3.5	7.0	19.4	7.4	10.2	3.8
성별	남자	112	44.5	4.2	4.5	26.5	5.6	10.2	4.5
	여자	108	53.4	2.8	9.7	11.6	9.3	10.2	3.0
연령	만18~19세	6	0.0	0.0	22.6	45.4	31.9	0.0	0.0
	만20~24세	40	8.2	2.3	14.1	29.7	17.0	28.7	0.0
	만25~29세	81	37.3	7.7	6.0	27.0	9.0	6.9	6.2
	만30~34세	93	75.2	0.7	4.5	8.4	1.5	6.3	3.4
지역	서울	55	41.3	2.6	4.7	15.6	16.5	16.5	2.9
	인천/경기	76	49.1	3.5	8.3	22.9	2.4	9.5	4.3
	대전/충청/세종/강원	26	63.1	0.0	0.0	11.3	6.7	13.7	5.1
	광주/전라/제주	12	26.4	5.3	4.4	41.6	5.6	0.0	16.7
	부산/울산/경남	33	55.9	6.1	14.6	15.4	5.3	2.7	0.0
	대구/경북	18	53.7	7.1	7.0	18.0	11.1	3.2	0.0
학력	고졸이하	15	36.4	0.0	10.2	21.6	7.0	24.7	0.0
	대학/대학원 재학	43	9.1	0.0	2.2	41.3	25.0	14.5	7.8
	대졸이상	162	58.9	4.6	7.8	14.2	3.4	7.9	3.2
주거형태	동거	117	33.0	5.3	9.8	23.8	10.0	15.2	2.9
	비동거/독립	103	71.6	0.8	3.0	13.0	3.6	3.0	5.0

* 주: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마련한 경우만 응답

26)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청년들에게 졸업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춘(졸업 유예) 경험이 있는 지를 물어본 결과, 8.7%가 졸업 유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019년 9.5% 대비 0.8%p 하락하였음

○ 졸업을 늦추기 위해 필요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경험에 대해서는 4.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019년 4.2% 대비 0.4%p 상승하였음

○ 연령별로는 만25~29세에서 졸업 유예(12.2%)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6.2%) 모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졸업 유예(3.8%)와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1.7%) 경험이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음

표 Ⅱ-26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졸업 유예 경험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2016	1,455	5.3	93.2	2.2	97.7
2017	1,772	14.5	83.0	6.1	93.9
2018	2,018	13.3	86.7	8.0	92.0
2019	2,196	9.5	90.5	4.2	95.8
2020	2,595	8.7	91.3	4.6	95.4

* 주 1)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 2016, 2017년 조사에는 졸업 유예 경험 보기문항으로 '졸업유예 제도가 없었음' 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응답 비율은 2016년 2.2%, 2017년 2.5%였음 (본 표에 미제시함)

표 Ⅱ-26-1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졸업 유예 경험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2,595	8.7	91.3	4.6	95.4
성별	남자	1,341	9.4	90.6	4.8	95.2
	여자	1,254	7.9	92.1	4.4	95.6
연령	만18~19세	238	0.0	100.0	0.0	100.0
	만20~24세	836	4.3	95.7	3.0	97.0
	만25~29세	810	12.2	87.8	6.2	93.8
	만30~34세	711	11.1	88.9	5.4	94.6
지역	서울	521	11.9	88.1	7.6	92.4
	인천/경기	595	6.5	93.5	3.1	96.9
	대전/충청/세종/강원	366	8.2	91.8	4.9	95.1
	광주/전라/제주	351	3.8	96.2	1.7	98.3
	부산/울산/경남	429	11.8	88.2	5.3	94.7
	대구/경북	333	9.7	90.3	4.4	95.6
학력	고졸이하	173	3.0	97.0	3.2	96.8
	대학/대학원 재학	898	3.6	96.4	3.4	96.6
	대졸이상	1,524	11.9	88.1	5.3	94.7
주거형태	동거	1,619	8.9	91.1	4.6	95.4
	비동거/독립	976	8.4	91.6	4.6	95.4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7) 졸업 유예 이유

○ 졸업 유예 또는 요건 미이수 이유로는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7.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20.2%),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15.0%) 등의 순임

○ 2019년 대비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서'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졸업 유예 또는 요건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하락한 반면,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상승하였음

○ 연령별로 보면 만25~29세에서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서' 졸업 유예를 했다는 응답이 50.7%로 타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대학/대학원 재학에서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26.3%), 대졸이상에서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서'(48.9%)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27 졸업 유예 이유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	경제적으로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문화 및 여가생활을 누리기 위해
2019	219	51.0	22.8	13.4	9.6	2.0
2020	253	47.2	15.0	20.2	9.3	4.5

* 주: 2019년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졸업 유예 또는 미이수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표 Ⅱ-27-1 졸업 유예 이유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	경제적으로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문화 및 여가생활을 누리기 위해	기타
전체		253	47.2	15.0	20.2	9.3	4.5	3.8
성별	남자	139	50.0	15.0	22.0	9.0	1.3	2.8
	여자	114	43.3	15.0	17.7	9.8	8.9	5.2
연령	만 20~24세	48	41.6	14.7	28.2	9.0	3.5	3.0
	만 25~29세	116	50.7	15.0	21.1	5.1	5.3	2.7
	만 30~34세	89	45.2	15.2	15.3	14.8	3.9	5.4
지역	서울	77	43.3	14.2	19.9	13.2	6.4	3.1
	인천/경기	42	36.1	22.1	18.2	13.3	6.2	4.1
	대전/충청/세종/강원	35	68.0	8.5	15.8	0.0	4.0	3.9
	광주/전라/제주	14	49.0	23.2	27.8	0.0	0.0	0.0
	부산/울산/경남	52	53.7	11.6	20.4	4.4	3.0	6.9
	대구/경북	33	45.4	13.1	28.0	13.4	0.0	0.0
학력	고졸이하	8	30.8	12.8	11.5	15.2	29.6	0.0
	대학/대학원 재학	46	42.0	17.7	26.3	7.0	0.0	7.0
	대졸이상	199	48.9	14.6	19.2	9.5	4.4	3.3
주거형태	동거	151	48.7	16.6	21.1	7.2	4.1	2.3
	비동거/독립	102	44.3	12.1	18.4	13.3	5.3	6.6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 중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추거나 졸업을 늦추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만 응답

28) 대학 교육 만족도_1) 나는 대학 교육에 만족한다

○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대학 교육에 만족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그렇다)’는 응답이 44.3%(그렇다 41.2%+매우 그렇다 3.1%)로 ‘그렇지 않다’ 17.5%(전혀 그렇지 않다 3.0%+그렇지 않다 14.5%)에 비해 높으며, ‘그렇다’는 만족 비율은 2019년(39.9%) 대비 4.4%p 상승하였음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렇다’는 만족 응답 비율이 낮음

표 II-28 대학 교육 만족도_1) 나는 대학 교육에 만족한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9	2,196	3.0	16.4	40.8	37.9	2.0
2020	2,595	3.0	14.5	38.2	41.2	3.1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Ⅱ-28-1 대학교육 만족도_1) 나는 대학교육에 만족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595	3.0	14.5	38.2	41.2	3.1
성별	남자	1,341	3.5	15.5	37.6	40.2	3.2
	여자	1,254	2.4	13.4	38.9	42.3	3.0
연령	만18~19세	238	0.7	5.8	39.9	47.5	6.1
	만20~24세	836	1.7	14.9	36.6	44.2	2.6
	만25~29세	810	3.5	14.5	39.7	38.7	3.5
	만30~34세	711	4.0	16.0	37.7	39.8	2.5
지역	서울	521	2.3	12.8	41.7	40.6	2.6
	인천/경기	595	3.0	16.9	36.8	39.4	3.9
	대전/충청/세종/강원	366	5.3	15.3	39.2	39.7	0.5
	광주/전라/제주	351	3.2	11.9	36.4	43.7	4.9
	부산/울산/경남	429	2.8	15.1	37.9	43.1	1.1
	대구/경북	333	1.0	11.1	35.9	45.5	6.4
학력	고졸이하	173	7.1	49.9	35.8	7.2	0.0
	대학/대학원 재학	898	1.6	10.5	37.1	47.1	3.7
	대졸이상	1,524	3.1	12.4	39.0	42.3	3.1
주거형태	동거	1,619	2.0	14.4	38.1	42.6	2.9
	비동거/독립	976	4.8	14.7	38.3	38.7	3.5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9) 대학 교육 만족도_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대학 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그렇다)’는 응답이 57.2%(그렇다 48.3%+매우 그렇다 8.9%)로 ‘그렇지 않다’ 13.9%(전혀 그렇지 않다 2.3%+그렇지 않다 11.6%)에 비해 높음

○ ‘그렇다’는 응답은 2019년 50.4%(그렇다 43.3%+매우 그렇다 7.1%) 대비 6.8%p 상승하였음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67.4%(그렇다 55.4%+매우 그렇다 12.0%)로 다른 지역 대비 높음

○ 학력별로는 대학/대학원 재학에서 ‘그렇다’ 응답 비율이 69.4%(그렇다 58.4%+매우 그렇다 11.0%)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29 대학 교육 만족도_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9	2,196	3.3	14.0	32.3	43.3	7.1
2020	2,595	2.3	11.6	28.9	48.3	8.9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Ⅱ-29-1 대학교육 만족도_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595	2.3	11.6	28.9	48.3	8.9
성별	남자	1,341	2.7	11.9	27.7	48.1	9.7
	여자	1,254	1.8	11.3	30.3	48.6	8.1
연령	만18~19세	238	0.3	4.1	16.7	62.5	16.4
	만20~24세	836	1.6	9.4	28.2	51.5	9.3
	만25~29세	810	2.9	13.2	31.2	44.3	8.3
	만30~34세	711	2.6	13.4	29.9	46.5	7.5
지역	서울	521	1.8	9.8	28.9	51.1	8.5
	인천/경기	595	2.1	10.7	29.3	50.5	7.4
	대전/충청/세종/강원	366	2.4	14.5	33.0	45.0	5.0
	광주/전라/제주	351	3.1	12.5	25.5	42.8	16.1
	부산/울산/경남	429	3.6	14.1	31.1	41.8	9.4
	대구/경북	333	0.7	9.7	22.3	55.4	12.0
학력	고졸이하	173	6.0	36.7	40.3	13.8	3.2
	대학/대학원 재학	898	0.5	7.4	22.7	58.4	11.0
	대졸이상	1,524	2.7	10.8	30.7	47.3	8.5
주거형태	동거	1,619	1.6	10.1	29.0	50.4	8.8
	비동거/독립	976	3.5	14.2	28.9	44.4	9.0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30) 대학 교육 만족도_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대학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그렇다)’는 응답이 58.8%(그렇다 49.0%+매우 그렇다 9.8%)로 ‘그렇지 않다’ 12.8%(전혀 그렇지 않다 2.1%+그렇지 않다 10.7%)에 비해 높음

○ ‘도움이 된다(그렇다)’는 응답은 2019년 55.0%(그렇다 46.9%+매우 그렇다 8.1%) 대비 3.8%p 상승하였음

○ 연령별로 만18~19세의 경우 대학교육이 취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78.8%)이 다른 연령 대비 높고, 만25~29세에서 52.6%로 상대적으로 낮음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23.4%) 보다 대졸이상(55.7%)에서 ‘도움이 된다(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30 대학 교육 만족도_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9	2,196	2.0	14.1	29.0	46.9	8.1
2020	2,595	2.1	10.7	28.5	49.0	9.8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Ⅱ-30-1 대학교육 만족도_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595	2.1	10.7	28.5	49.0	9.8
성별	남자	1,341	2.7	11.0	27.7	48.3	10.4
	여자	1,254	1.4	10.4	29.3	49.7	9.2
연령	만18~19세	238	0.0	4.7	16.4	64.7	14.1
	만20~24세	836	1.1	7.6	24.7	55.9	10.7
	만25~29세	810	2.7	13.4	31.2	42.8	9.9
	만30~34세	711	2.8	12.0	31.7	45.6	8.0
지역	서울	521	0.9	11.2	24.9	54.4	8.6
	인천/경기	595	2.0	9.1	30.8	50.2	7.8
	대전/충청/세종/강원	366	2.8	14.3	30.4	45.2	7.3
	광주/전라/제주	351	4.1	9.1	24.1	46.2	16.5
	부산/울산/경남	429	3.1	11.7	32.1	41.8	11.3
	대구/경북	333	0.3	10.1	25.2	51.2	13.2
학력	고졸이하	173	4.0	33.5	39.0	20.8	2.6
	대학/대학원 재학	898	0.4	5.0	21.2	59.7	13.6
	대졸이상	1,524	2.7	10.8	30.8	46.9	8.7
주거형태	동거	1,619	1.5	9.3	28.8	51.0	9.4
	비동거/독립	976	3.2	13.2	27.8	45.3	10.5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31) 대학 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가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내가 선택한 대학의 학과(전공)가 나에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적합하다(그렇다)’는 응답이 53.8%(그렇다 46.8%+매우 그렇다 7.0%)로 ‘적합하지 않다(그렇지 않다)’ 14.1%(전혀 그렇지 않다 2.9%+그렇지 않다 11.2%)에 비해 높으며, 2019년 ‘적합하다(그렇다)’(46.5%) 대비 7.3%p 상승하였음

○ 성별로 보면 여자의 ‘적합하다(그렇다)’ 응답이 55.2%(그렇다 48.0%+매우 그렇다 7.2%)로 남자의 ‘적합하다(그렇다)’ 응답 52.5%(그렇다 45.7%+매우 그렇다 6.8%) 보다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대학/대학원 재학에서 ‘적합하다(그렇다)’ 응답 비율이 63.8%(그렇다 54.9%+매우 그렇다 8.9%)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31 대학 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가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9	2,196	3.1	13.7	36.7	40.5	6.0
2020	2,595	2.9	11.2	32.2	46.8	7.0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II-31-1 대학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595	2.9	11.2	32.2	46.8	7.0
성별	남자	1,341	3.3	12.4	31.7	45.7	6.8
	여자	1,254	2.4	9.8	32.7	48.0	7.2
연령	만18~19세	238	0.0	3.7	27.1	57.1	12.1
	만20~24세	836	2.5	9.7	29.1	50.9	7.8
	만25~29세	810	3.0	11.8	36.6	41.3	7.2
	만30~34세	711	3.6	13.4	31.6	46.5	4.9
지역	서울	521	2.1	9.9	30.2	52.9	4.9
	인천/경기	595	2.3	12.0	31.5	46.7	7.6
	대전/충청/세종/강원	366	4.5	14.1	32.6	42.4	6.3
	광주/전라/제주	351	2.8	10.4	32.3	43.3	11.3
	부산/울산/경남	429	5.2	10.0	35.9	43.1	5.8
	대구/경북	333	0.9	10.0	32.9	48.3	7.9
학력	고졸이하	173	10.1	37.2	36.1	15.4	1.2
	대학/대학원 재학	898	1.1	6.9	28.3	54.9	8.9
	대졸이상	1,524	2.9	10.3	33.6	46.4	6.7
주거형태	동거	1,619	2.1	10.0	33.4	47.4	7.1
	비동거/독립	976	4.3	13.2	29.9	45.7	6.8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32) 향후 대학원 진학 의향

○ 추후 대학원에 진학할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8.4%이며, 이미 '대학원에 진학을 하였다'는 응답은 2.3%로 조사됨

○ 대학원에 진학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2019년 7.3% 대비 1.1%p 상승하였으나 이미 '대학원에 진학하였다'는 응답은 2019년 3.3% 대비 1.0%p 하락하였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대학원 진학 의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4.6%)나 대졸이상(6.6%) 응답자에 비해 현재 재학 상태인 대학/대학원 재학 응답자(12.9%)의 진학 희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32 향후 대학원 진학 의향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있다	없다	대학원에 진학 하였다 (다니고 있거나 졸업)
2019	2,196	7.3	89.4	3.3
2020	2,595	8.4	89.3	2.3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II-32-1 향후 대학원 진학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대학원에 진학 하였다 (다니고 있거나 졸업)
전체		2,595	8.4	89.3	2.3
성별	남자	1,341	8.2	89.8	2.1
	여자	1,254	8.5	88.9	2.6
연령	만 18~19세	238	13.9	86.1	0.0
	만 20~24세	836	11.1	88.5	0.4
	만 25~29세	810	6.6	90.5	2.9
	만 30~34세	711	6.4	89.5	4.0
지역	서울	521	10.2	86.8	3.1
	인천/경기	595	10.2	87.9	1.8
	대전/충청/세종/강원	366	6.6	88.9	4.5
	광주/전라/제주	351	8.9	88.9	2.2
	부산/울산/경남	429	4.4	94.5	1.0
	대구/경북	333	5.6	93.1	1.2
학력	고졸이하	173	4.6	95.4	0.0
	대학/대학원 재학	898	12.9	84.3	2.8
	대졸이상	1,524	6.6	91.1	2.3
주거형태	동거	1,619	8.6	89.8	1.6
	비동거/독립	976	8.0	88.5	3.6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

33) 현재 학위 과정

○ 현재 대학원에 진학한 청년들에게 최종 또는 현재 학위과정을 질문한 결과 '석사과정' 응답이 94.7%로 가장 높았고, '석·박사 통합과정'이라는 응답이 3.1%, '박사과정' 2.2%로 나타남

표 Ⅱ-33-1 현재 학위 과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전체		59	94.7	2.2	3.1
성별	남자	27	88.5	4.8	6.7
	여자	32	100.0	0.0	0.0
연령	만 20~24세	5	100.0	0.0	0.0
	만 25~29세	26	95.1	2.7	2.2
	만 30~34세	28	93.8	2.1	4.1
지역	서울	17	89.5	0.0	10.5
	경기/인천	11	100.0	0.0	0.0
	대전/충청/세종/강원	15	90.9	9.1	0.0
	광주/전라/제주	7	100.0	0.0	0.0
	부산/울산/경남	4	100.0	0.0	0.0
	대구/경북	5	100.0	0.0	0.0
학력	대학/대학원 재학	26	88.5	3.1	8.4
	대졸이상	33	98.3	1.7	0.0
주거형태	동거	23	100.0	0.0	0.0
	비동거/독립	36	90.1	4.1	5.7

* 주: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만 응답

34) 현재 대학원 재학 상태

○ 대학원에서의 현재 재학 상태를 물어본 결과 ‘졸업’이 55.0%로 가장 많았고, ‘재학’이 33.3%, ‘수료’가 8.1%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졸업 비율은 큰 차이 없으나 남자는 ‘재학’ 중(37.0%), 여자는 ‘졸업’ 상태(58.0%)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Ⅱ-34-1 현재 대학원 재학 상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재학	휴학 및 중퇴	수료	졸업
전체		59	33.3	3.6	8.1	55.0
성별	남자	27	37.0	4.4	7.1	51.5
	여자	32	30.2	2.9	9.0	58.0
연령	만 20~24세	5	100.0	0.0	0.0	0.0
	만 25~29세	26	33.4	0.0	12.3	54.3
	만 30~34세	28	26.6	6.6	5.8	60.9
지역	서울	17	43.4	0.0	7.5	49.1
	인천/경기	11	13.6	0.0	15.5	71.0
	대전/충청/세종/강원	15	51.4	6.2	4.5	37.9
	광주/전라/제주	7	0.0	21.7	9.6	68.7
	부산/울산/경남	4	53.6	0.0	0.0	46.4
	대구/경북	5	20.7	0.0	0.0	79.3
학력	대학/대학원 재학	26	90.3	9.7	0.0	0.0
	대졸이상	33	0.0	0.0	12.9	87.1
주거형태	동거	23	23.3	0.0	15.3	61.5
	비동거/독립	36	41.8	6.6	2.0	49.5

* 주: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만 응답

35) 대학 미진학 사유

○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가 37.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24.3%),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14.5%) 등의 순으로 2019년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연령별로는 만20~24세에서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47.2%)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원하는 대학에 진학 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인천 지역에서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42.4%) 광주/전라/제주 지역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31.8%)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35 대학 미진학 사유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고졸 학력을 취득 하지 못해서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기타	모름/ 무응답
2016	737	0.6	31.3	22.6	17.4	24.4	2.8	1.0	-
2017	549	0.7	40.2	9.5	13.0	32.0	3.8	0.8	-
2018	623	1.7	35.8	15.8	18.0	25.9	2.5	0.1	0.1
2019	752	2.2	35.8	13.4	16.8	26.5	4.3	0.9	0.0
2020	925	13.1	37.9	5.8	14.5	24.3	4.4	0.0	0.0

* 주 1) 대학(교) 진학 경험이 없는 경우만 응답
2) 2016~2019년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020년 전체 응답자 중 대학(교) 진학하지 않은 경우 응답

표 II-35-1 대학 미진학 사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고졸 학력을 취득 하지 못해서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 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전체		925	13.1	37.9	5.8	14.5	24.3	4.4
성별	남자	514	14.2	40.2	2.8	15.5	23.2	4.0
	여자	411	11.9	35.0	9.4	13.2	25.6	5.0
연령	만18~19세	239	64.2	13.7	1.3	9.9	6.5	4.4
	만20~24세	259	1.2	47.2	4.3	12.7	28.3	6.4
	만25~29세	240	0.1	42.8	7.9	14.5	30.1	4.6
	만30~34세	187	0.2	41.2	8.6	20.4	27.4	2.1
지역	서울	155	8.0	36.6	8.5	19.2	22.4	5.3
	인천/경기	229	11.7	42.4	4.8	17.7	19.1	4.2
	대전/충청/세종/강원	183	14.1	39.7	4.9	9.6	28.0	3.6
	광주/전라/제주	117	15.8	29.0	6.0	11.2	31.8	6.2
	부산/울산/경남	126	21.2	38.7	5.4	6.8	27.4	0.5
	대구/경북	115	13.8	28.4	5.7	15.9	27.6	8.6
학력	고졸이하	925	13.1	37.9	5.8	14.5	24.3	4.4
주거형태	동거	575	20.9	34.4	4.6	14.3	21.8	4.0
	비동거/독립	350	0.9	43.3	7.7	14.7	28.2	5.2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없는 경우만 응답

36) 향후 대학 진학 의향

○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향후 대학 진학 의사를 물어본 결과 '예(진학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20.9%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22.8%)가 여자(18.5%)보다 향후 대학 진학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진학 의향이 하락하였으며, 만18~19세(74.5%) 대비 만20~24세(13.1%) 및 만25~29세(6.2%), 만30~34세(3.1%)의 진학 의향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28.2%가 대학 진학 의향을 보여 다른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표 Ⅱ-36 향후 대학 진학 의향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6	1,079	36.6	63.4
2017	942	38.4	61.6
2018	1,115	41.3	58.7
2019	1,334	35.5	64.5
2020	925	20.9	79.1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없는 경우만 응답

표 Ⅱ-36-1 향후 대학 진학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925	20.9	79.1
성별	남자	514	22.8	77.2
	여자	411	18.5	81.5
연령	만 18~19세	239	74.5	25.5
	만 20~24세	259	13.1	86.9
	만 25~29세	240	6.2	93.8
	만 30~34세	187	3.1	96.9
지역	서울	155	16.5	83.5
	인천/경기	229	22.2	77.8
	대전/충청/세종/강원	183	19.6	80.4
	광주/전라/제주	117	20.0	80.0
	부산/울산/경남	126	28.2	71.8
	대구/경북	115	18.8	81.2
학력	고졸이하	925	20.9	79.1
주거형태	동거	575	31.4	68.6
	비동거/독립	350	4.4	95.6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없는 경우만 응답

37) 고등학교 재학 경험

○ 고등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99.4%로 조사됨

○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99% 이상이 고등학교 재학 경험률을 보임

표 Ⅱ-37 고등학교 재학 경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9	3,530	96.5	3.5
2020	3,520	99.4	0.6

표 Ⅱ-37-1 고등학교 재학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3,520	99.4	0.6
성별	남자	1,855	99.5	0.5
	여자	1,665	99.4	0.6
연령	만18~19세	477	99.3	0.7
	만20~24세	1,095	99.6	0.4
	만25~29세	1,050	99.4	0.6
	만30~34세	898	99.3	0.7
지역	서울	676	99.3	0.7
	인천/경기	824	99.5	0.5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99.4	0.6
	광주/전라/제주	468	99.4	0.6
	부산/울산/경남	555	99.3	0.7
	대구/경북	448	99.7	0.3
학력	고졸이하	1,098	98.1	1.9
	대학/대학원 재학	898	100.0	0.0
	대졸이상	1,524	100.0	0.0
주거형태	동거	2,194	99.6	0.4
	비동거/독립	1,326	99.0	1.0

38) 재학 고교 유형

○ 다녔던(고등학생의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유형을 물어본 결과, ‘일반고’가 78.7%, ‘특성화고’가 16.5%로 조사됨

○ 성별로 보면 ‘특성화고’의 경우 남자(18.0%)가 여자(14.8%)보다 재학 경험 비율이 높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의 ‘특성화고’ 응답이 21.7%로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특성화고’ 응답이 35.4%로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Ⅱ-38 재학 고교 유형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일반고	자율형고	특성화고	산업 수요 맞춤형고	과학/ 영재고	외국어/ 국제고	예술/ 체육고	기타
2019	3,354	77.8	1.1	18.4	0.8	0.1	0.5	0.8	0.7
2020	3,493	78.7	1.5	16.5	0.5	0.2	0.7	1.2	0.8

* 주: 고등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Ⅱ-38-1 재학 고교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반고	자율형고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	과학/영재고	외국어/국제고	예술/체육고	기타
전체		3,493	78.7	1.5	16.5	0.5	0.2	0.7	1.2	0.8
성별	남자	1,840	77.4	1.6	18.0	0.6	0.2	0.6	1.0	0.7
	여자	1,653	80.2	1.5	14.8	0.4	0.2	0.8	1.3	0.8
연령	만18~19세	474	82.1	2.1	12.0	0.5	0.4	0.7	1.6	0.7
	만20~24세	1,087	76.3	2.2	18.0	0.8	0.3	0.5	0.8	1.3
	만25~29세	1,042	78.4	1.1	16.7	0.5	0.1	1.2	1.4	0.7
	만30~34세	890	80.5	1.2	16.1	0.2	0.1	0.4	1.2	0.3
지역	서울	671	79.7	4.7	10.4	0.2	0.1	2.0	2.0	0.9
	경기/인천	818	78.7	0.5	17.6	0.4	0.3	0.4	1.2	1.0
	대전/충청/세종/강원	544	74.2	0.6	21.7	1.0	0.0	0.7	1.3	0.4
	광주/전라/제주	464	78.7	0.2	18.8	0.8	0.3	0.0	0.4	0.8
	부산/울산/경남	550	79.1	1.5	17.1	0.8	0.0	0.1	0.7	0.6
	대구/경북	446	83.1	0.4	15.3	0.3	0.2	0.2	0.5	0.0
학력	고졸이하	1,071	61.3	0.5	35.4	1.0	0.1	0.2	0.7	0.7
	대학/대학원 재학	898	86.2	2.8	7.0	0.3	0.4	0.8	1.6	0.9
	대졸이상	1,524	85.9	1.5	9.4	0.3	0.1	0.9	1.2	0.7
주거형태	동거	2,186	80.3	1.9	14.7	0.6	0.2	0.5	1.0	0.8
	비동거/독립	1,307	76.0	0.9	19.5	0.4	0.1	1.0	1.5	0.7

* 주: 고등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39)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1)진로, 직업 취업 상담

○ 고등학교 재학 시 학교로부터 진로 및 직업 취업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은 66.6%로 조사됨

○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되었다' 49.4%(그렇다 47.8%+매우 그렇다 1.6%), '도움이 되지 않았다' 9.3%(전혀 그렇지 않다 1.4%+그렇지 않다 7.9%)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제공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높음

○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의 경험률(77.9%)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지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39.2%로 다른 지역 대비 낮은 편임

표 II-39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1)진로, 직업 취업 상담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9	3,354	64.9	1.5	11.0	41.4	43.7	2.4	35.1
2020	3,493	66.6	1.4	7.9	41.2	47.8	1.6	33.4

* 주: 고등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Ⅱ-39-1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1)진로, 직업 취업 상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493	66.6	1.4	7.9	41.2	47.8	1.6	33.4
성별	남자	1,840	65.7	1.5	8.5	40.9	47.5	1.6	34.3
	여자	1,653	67.6	1.2	7.4	41.6	48.2	1.7	32.4
연령	만18~19세	474	73.1	0.3	2.5	40.0	53.1	4.1	26.9
	만20~24세	1,087	70.9	1.5	9.1	42.2	44.8	2.4	29.1
	만25~29세	1,042	66.3	1.8	9.7	40.0	47.6	0.8	33.7
	만30~34세	890	60.4	1.1	6.6	42.1	49.6	0.6	39.6
지역	서울	671	62.3	0.8	8.4	35.3	54.1	1.5	37.7
	인천/경기	818	64.1	2.2	8.2	40.2	46.9	2.6	35.9
	대전/충청/세종/강원	544	77.9	1.0	6.5	53.3	39.0	0.2	22.1
	광주/전라/제주	464	61.5	0.9	10.1	40.4	46.6	2.0	38.5
	부산/울산/경남	550	71.0	2.0	7.7	39.4	49.8	1.1	29.0
	대구/경북	446	67.2	0.0	7.0	40.1	51.1	1.8	32.8
학력	고졸이하	1,071	69.5	1.6	9.8	46.9	39.8	2.0	30.5
	대학/대학원 재학	898	68.0	1.1	6.7	37.5	51.9	2.8	32.0
	대졸이상	1,524	64.2	1.3	7.4	39.4	51.1	0.8	35.8
주거형태	동거	2,186	67.7	1.2	7.4	40.9	48.8	1.7	32.3
	비동거/독립	1,307	64.6	1.6	9.0	41.9	46.0	1.5	35.4

* 주: 고등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40)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2)진로와 직업 수업

○ 고등학교 재학 시 학교로부터 진로와 직업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은 45.4%로 2019년(44.4%) 대비 1.0%p 상승함

○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되었다' 44.5%(그렇다 39.3%+매우 그렇다 5.2%), '도움이 되지 않았다' 9.7%(전혀 그렇지 않다 1.6%+그렇지 않다 8.1%)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낮을수록 제공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만18~19세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51.8%(그렇다 44.7%+매우 그렇다 7.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의 경험률(55.0%)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

표 II-40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2)진로와 직업 수업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9	3,354	44.4	2.1	11.0	44.8	38.7	3.4	55.6
2020	3,493	45.4	1.6	8.1	45.7	39.3	5.2	54.6

* 주: 고등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Ⅱ-40-1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2)진로와 직업 수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493	45.4	1.6	8.1	45.7	39.3	5.2	54.6
성별	남자	1,840	45.0	1.8	8.5	45.9	38.4	5.3	55.0
	여자	1,653	45.8	1.4	7.7	45.5	40.3	5.0	54.2
연령	만18~19세	474	56.6	0.6	3.9	43.7	44.7	7.0	43.4
	만20~24세	1,087	51.2	1.7	9.0	46.4	38.3	4.6	48.8
	만25~29세	1,042	45.1	1.4	9.7	46.1	37.9	4.8	54.9
	만30~34세	890	36.2	2.4	6.9	45.4	39.8	5.5	63.8
지역	서울	671	39.3	2.1	8.6	36.6	49.7	3.0	60.7
	인천/경기	818	48.3	1.6	8.5	48.3	33.5	8.1	51.7
	대전/충청/세종/강원	544	55.0	1.7	7.0	53.0	37.9	0.5	45.0
	광주/전라/제주	464	38.4	1.1	6.8	41.8	44.9	5.4	61.6
	부산/울산/경남	550	46.5	2.3	9.3	50.1	34.8	3.5	53.5
	대구/경북	446	41.0	0.0	7.1	37.3	45.2	10.3	59.0
학력	고졸이하	1,071	51.9	1.5	6.8	53.3	34.4	3.9	48.1
	대학/대학원 재학	898	48.6	0.9	9.3	42.7	41.4	5.7	51.4
	대졸이상	1,524	39.9	2.2	8.5	41.5	42.0	5.9	60.1
주거형태	동거	2,186	46.7	1.2	7.7	45.4	40.0	5.8	53.3
	비동거/독립	1,307	43.1	2.5	8.9	46.5	38.1	4.0	56.9

* 주: 고등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41)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3)진로 직업 체험

○ 고등학교 재학 시 학교로부터 진로 및 직업 체험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은 32.9%로 2019년(30.7%) 대비 2.2%p 상승함

○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되었다' 44.3%(그렇다 38.8%+매우 그렇다 5.5%), '도움이 되지 않았다' 10.0%(전혀 그렇지 않다 2.2%+그렇지 않다 7.8%)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제공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만 18~19세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55.5%(그렇다 46.7%+매우 그렇다 8.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의 경험률(43.4%)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

표 II-41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3)진로 직업 체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9	3,354	30.7	2.9	11.5	42.0	38.4	5.2	69.3
2020	3,493	32.9	2.2	7.8	45.8	38.8	5.5	67.1

* 주: 고등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Ⅱ-41-1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3)진로, 직업 체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493	32.9	2.2	7.8	45.8	38.8	5.5	67.1
성별	남자	1,840	33.4	2.8	9.1	45.8	35.3	6.9	66.6
	여자	1,653	32.2	1.4	6.2	45.7	42.9	3.9	67.8
연령	만18~19세	474	40.0	0.0	2.6	41.8	46.7	8.8	60.0
	만20~24세	1,087	37.0	2.2	7.7	49.8	34.3	6.0	63.0
	만25~29세	1,042	33.4	0.8	8.1	47.4	39.6	4.1	66.6
	만30~34세	890	25.7	5.1	10.0	39.7	40.0	5.2	74.3
지역	서울	671	25.9	3.3	5.7	35.2	47.1	8.7	74.1
	인천/경기	818	33.4	2.1	8.3	46.2	39.0	4.4	66.6
	대전/충청/세종/강원	544	43.4	2.2	6.7	51.6	36.9	2.6	56.6
	광주/전라/제주	464	30.5	1.4	7.7	48.5	38.5	3.9	69.5
	부산/울산/경남	550	37.1	2.5	9.7	49.1	33.0	5.8	62.9
	대구/경북	446	27.2	0.0	8.7	43.3	35.9	12.1	72.8
학력	고졸이하	1,071	40.3	1.8	6.4	49.9	37.7	4.2	59.7
	대학/대학원 재학	898	33.1	0.7	8.0	44.1	40.5	6.7	66.9
	대졸이상	1,524	28.2	3.3	8.8	43.1	38.7	6.0	71.8
주거형태	동거	2,186	33.2	1.4	7.7	45.4	40.1	5.5	66.8
	비동거/독립	1,307	32.4	3.6	7.9	46.6	36.4	5.5	67.6

* 주: 고등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42)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4)학과, 전공 체험

○ 고등학교 재학 시 학교로부터 학과, 전공 체험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은 36.2%로 2019년(31.1%) 대비 5.1%p 상승함

○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되었다' 49.0%(그렇다 43.6%+매우 그렇다 5.4%), '도움이 되지 않았다' 9.8%(전혀 그렇지 않다 2.5%+그렇지 않다 7.3%)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8~19세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60.2%(그렇다 47.9%+매우 그렇다 12.3%)로 타 연령 대비 높게 나타남

표 II-42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4)학과, 전공 체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9	3,354	31.1	2.7	11.2	39.6	41.7	4.8	68.9
2020	3,493	36.2	2.5	7.3	41.3	43.6	5.4	63.8

* 주: 고등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Ⅱ-42-1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4)학과, 전공 체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493	36.2	2.5	7.3	41.3	43.6	5.4	63.8
성별	남자	1,840	35.8	2.5	8.2	43.4	40.7	5.1	64.2
	여자	1,653	36.6	2.5	6.2	38.9	46.8	5.6	63.4
연령	만18~19세	474	39.1	0.0	3.2	36.6	47.9	12.3	60.9
	만20~24세	1,087	41.8	2.6	7.5	42.7	41.4	5.7	58.2
	만25~29세	1,042	36.4	1.6	8.4	42.2	42.8	4.9	63.6
	만30~34세	890	29.3	4.7	7.1	40.0	46.0	2.3	70.7
지역	서울	671	32.0	4.0	5.1	31.5	51.6	7.8	68.0
	인천/경기	818	35.8	2.4	4.7	43.7	42.6	6.6	64.2
	대전/충청/세종/강원	544	41.0	3.2	13.1	49.7	31.6	2.4	59.0
	광주/전라/제주	464	31.5	2.6	2.7	34.6	54.8	5.4	68.5
	부산/울산/경남	550	42.6	1.6	12.3	42.4	40.7	3.0	57.4
	대구/경북	446	35.4	0.0	5.7	42.9	46.0	5.5	64.6
학력	고졸이하	1,071	30.0	1.5	10.9	50.9	30.2	6.5	70.0
	대학/대학원 재학	898	43.7	1.2	5.4	35.8	52.0	5.6	56.3
	대졸이상	1,524	36.3	3.8	6.5	39.6	45.5	4.6	63.7
주거형태	동거	2,186	37.2	1.9	6.3	41.9	44.6	5.3	62.8
	비동거/독립	1,307	34.3	3.7	9.1	40.0	41.8	5.4	65.7

* 주: 고등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43)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5)진로, 직업 특강·강의 및 설명회

○ 고등학교 재학 시 학교로부터 진로, 직업 특강·강의 및 설명회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은 36.8%로 2019년(32.0%) 대비 4.8%p 상승함

○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되었다' 45.6%(그렇다 42.3%+매우 그렇다 3.3%), '도움이 되지 않았다' 10.0%(전혀 그렇지 않다 2.5%+그렇지 않다 7.5%)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경험률(23.0%)이 다른 지역 대비 낮은 편임

표 II-43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5)진로, 직업 특강·강의 및 설명회·박람회 참석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9	3,354	32.0	2.6	10.4	44.9	39.3	2.8	68.0
2020	3,493	36.8	2.5	7.5	44.4	42.3	3.3	63.2

* 주: 고등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Ⅱ-43-1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5)진로, 직업 특강·강의 및 설명회·박람회 참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493	36.8	2.5	7.5	44.4	42.3	3.3	63.2
성별	남자	1,840	35.9	3.1	8.3	42.6	42.5	3.4	64.1
	여자	1,653	37.8	1.8	6.6	46.4	42.0	3.2	62.2
연령	만18~19세	474	41.7	0.3	4.1	43.6	48.2	3.8	58.3
	만20~24세	1,087	43.0	2.6	7.1	44.3	41.6	4.5	57.0
	만25~29세	1,042	36.8	1.4	7.6	46.3	43.2	1.5	63.2
	만30~34세	890	28.8	4.8	9.7	42.4	39.1	4.1	71.2
지역	서울	671	31.9	3.0	7.8	38.0	49.4	1.8	68.1
	인천/경기	818	40.2	2.8	6.3	43.9	42.2	4.8	59.8
	대전/충청/세종/강원	544	42.2	4.0	9.4	54.4	30.8	1.3	57.8
	광주/전라/제주	464	44.9	0.0	5.1	39.1	51.7	4.2	55.1
	부산/울산/경남	550	34.2	2.4	10.1	45.0	38.7	3.7	65.8
	대구/경북	446	23.0	0.0	7.5	50.4	39.6	2.6	77.0
학력	고졸이하	1,071	34.3	2.7	7.8	53.2	33.4	3.0	65.7
	대학/대학원 재학	898	44.1	1.5	5.2	45.5	43.3	4.4	55.9
	대졸이상	1,524	34.7	2.9	8.8	38.4	47.0	2.9	65.3
주거형태	동거	2,186	38.5	1.3	6.0	45.6	43.8	3.2	61.5
	비동거/독립	1,307	33.7	4.8	10.5	41.9	39.1	3.7	66.3

* 주: 고등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44)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6)취업처 연계

○ 고등학교 재학 시 학교로부터 취업처 연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은 15.3%로 2019년(16.8%) 대비 1.5%p 하락함

○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되었다' 39.5%(그렇다 34.4%+매우 그렇다 5.1%), '도움이 되지 않았다' 16.3%(전혀 그렇지 않다 5.7%+그렇지 않다 10.6%)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8~19세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51.1%(그렇다 44.1%+매우 그렇다 7.0%)로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의 경험률(25.3%)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지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33.2%로 다른 지역 대비 낮은 편임

표 Ⅱ-44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6)취업처 연계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9	3,354	16.8	6.5	14.2	44.8	29.4	5.0	83.2
2020	3,493	15.3	5.7	10.6	44.1	34.4	5.1	84.7

* 주: 고등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Ⅱ-44-1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6)취업처 연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493	15.3	5.7	10.6	44.1	34.4	5.1	84.7
성별	남자	1,840	16.2	5.3	11.2	44.4	33.1	6.0	83.8
	여자	1,653	14.3	6.3	9.9	43.8	36.1	4.0	85.7
연령	만18~19세	474	12.1	1.0	10.4	37.4	44.1	7.0	87.9
	만20~24세	1,087	16.7	3.2	9.0	51.6	29.0	7.2	83.3
	만25~29세	1,042	16.7	4.9	14.4	42.8	32.3	5.5	83.3
	만30~34세	890	13.6	11.5	7.4	38.5	41.1	1.5	86.4
지역	서울	671	9.5	13.8	9.4	38.7	37.3	0.8	90.5
	인천/경기	818	15.6	4.8	12.9	36.2	36.3	9.7	84.4
	대전/충청/세종/강원	544	25.3	5.4	8.2	53.2	30.9	2.3	74.7
	광주/전라/제주	464	16.2	2.6	9.7	50.4	31.6	5.8	83.8
	부산/울산/경남	550	18.4	5.1	11.1	46.0	33.2	4.6	81.6
	대구/경북	446	7.4	0.0	9.5	49.1	41.4	0.0	92.6
학력	고졸이하	1,071	25.3	3.3	8.8	47.1	35.0	5.7	74.7
	대학/대학원 재학	898	9.7	4.7	9.2	46.3	33.4	6.3	90.3
	대졸이상	1,524	11.9	9.3	13.5	39.2	34.0	3.9	88.1
주거형태	동거	2,186	14.2	3.1	11.1	45.9	33.4	6.5	85.8
	비동거/독립	1,307	17.4	9.6	9.8	41.4	36.0	3.2	82.6

* 주: 고등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45) 취업 준비 여부

○ 지난주(2020년 5월 25일~5월 31일)에 주로 취업 준비를 하였는지를 물어본 결과, 취업 준비를 주로 '했다'는 응답이 10.3%로, 2019년 8.9% 대비 소폭(1.4%p) 상승함

○ 취업 준비를 한 청년들은 평균 12.0개월 정도 준비를 한 것으로 조사됨

○ 연령별로 만20~24세(14.1%) 및 만25~29세(13.5%)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는 대학/대학원 재학(11.2%) 및 대졸이상(12.7%)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동거(12.9%)의 경우가 비동거/독립(5.6%) 보다 취업 준비를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Ⅱ-45 취업준비 여부 연도별 추이[9)]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평균 (개월)	
2017	2,714	9.3	-	90.7
2018	3,133	7.7	-	92.3
2019	3,530	8.9	11.1	91.1
2020	3,520	10.3	12.0	89.7

9) 취업준비 준비 기간을 묻는 문항은 2019년 신규 문항임

표 Ⅱ-45-1 취업준비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520	10.3	89.7
성별	남자	1,855	10.6	89.4
	여자	1,665	9.9	90.1
연령	만 18~19세	477	3.6	96.4
	만 20~24세	1,095	14.1	85.9
	만 25~29세	1,050	13.5	86.5
	만 30~34세	898	5.1	94.9
지역	서울	676	10.9	89.1
	인천/경기	824	10.0	90.0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9.8	90.2
	광주/전라/제주	468	9.9	90.1
	부산/울산/경남	555	10.2	89.8
	대구/경북	448	11.4	88.6
학력	고졸이하	1,098	5.7	94.3
	대학/대학원 재학	898	11.2	88.8
	대졸이상	1,524	12.7	87.3
주거형태	동거	2,194	12.9	87.1
	비동거/독립	1,326	5.6	94.4

46) 취업 준비 경험_1)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통학을 통한 교육이나 훈련

○ 지난주에 취업준비를 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 준비별 경험 여부를 물어본 결과, 먼저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통학을 통한 교육이나 훈련'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2.2%로 2019년(40.3%) 대비 8.1%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여자(34.5%)가 남자(30.3%)보다 해당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학원, 직업훈련기관 통학을 통한 교육 및 훈련 경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경험 비율이 42.8%로 다른 지역 대비 높음

표 II-46 취업 준비 경험_1)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통학을 통한 교육이나 훈련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9	286	40.3	59.7
2020	338	32.2	67.8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II-46-1 취업 준비 경험_1)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통학을 통한 교육이나 훈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38	32.2	67.8
성별	남자	182	30.3	69.7
	여자	156	34.5	65.5
연령	만18~19세	15	15.4	84.6
	만20~24세	151	28.0	72.0
	만25~29세	131	36.1	63.9
	만30~34세	41	36.6	63.4
지역	서울	67	32.3	67.7
	인천/경기	76	35.5	64.5
	대전/충청/세종/강원	48	21.5	78.5
	광주/전라/제주	46	30.8	69.2
	부산/울산/경남	56	28.1	71.9
	대구/경북	45	42.8	57.2
학력	고졸이하	62	31.1	68.9
	대학/대학원 재학	89	28.1	71.9
	대졸이상	187	34.3	65.7
주거형태	동거	255	33.1	66.9
	비동거/독립	83	28.5	71.5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47) 취업 준비 경험_2)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

○ ‘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1.2%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48.6%) 대비 2.6%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자(53.8%)가 여자(48.0%)보다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만25~29세(59.6%)의 경험 비율이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음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경험 비율이 32.0%로 상대적으로 낮음

표 II-47 취업 준비 경험_2)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9	286	48.6	51.4
2020	338	51.2	48.8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II-47-1 취업 준비 경험_2)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38	51.2	48.8
성별	남자	182	53.8	46.2
	여자	156	48.0	52.0
연령	만18~19세	15	17.1	82.9
	만20~24세	151	49.1	50.9
	만25~29세	131	59.6	40.4
	만30~34세	41	40.6	59.4
지역	서울	67	59.2	40.8
	인천/경기	76	46.7	53.3
	대전/충청/세종/강원	48	56.7	43.3
	광주/전라/제주	46	52.1	47.9
	부산/울산/경남	56	44.5	55.5
	대구/경북	45	47.8	52.2
학력	고졸이하	62	32.0	68.0
	대학/대학원 재학	89	52.9	47.1
	대졸이상	187	55.8	44.2
주거형태	동거	255	56.0	44.0
	비동거/독립	83	31.7	68.3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48) 취업 준비 경험_3)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토익, 토플 등 준비

○ ‘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토익, 토플 등을 준비’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6.2%로 2019년(43.4%) 대비 2.8%p 상승함

○ 성별로 남자(50.3%)가 여자(41.3%) 보다 준비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만25~29세(52.6%)의 경험 비율이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경험 비율이 61.2%로 다른 지역 대비 높음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준비 경험 비율이 12.4%로 상대적으로 낮음

표 Ⅱ-48 취업 준비 경험_3)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토익, 토플 등 준비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9	286	43.4	56.6
2020	338	46.2	53.8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II-48-1 취업 준비 경험_3)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토익, 토플 등 준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38	46.2	53.8
성별	남자	182	50.3	49.7
	여자	156	41.3	58.7
연령	만 18~19세	15	8.1	91.9
	만 20~24세	151	45.3	54.7
	만 25~29세	131	52.6	47.4
	만 30~34세	41	39.1	60.9
지역	서울	67	61.2	38.8
	인천/경기	76	47.4	52.6
	대전/충청/세종/강원	48	38.3	61.7
	광주/전라/제주	46	34.2	65.8
	부산/울산/경남	56	32.0	68.0
	대구/경북	45	50.2	49.8
학력	고졸이하	62	12.4	87.6
	대학/대학원 재학	89	54.2	45.8
	대졸이상	187	52.2	47.8
주거형태	동거	255	48.9	51.1
	비동거/독립	83	35.3	64.7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49) 취업 준비 경험_4)해외 연수, 어학연수 경험

○ ‘해외 연수 및 어학연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0%로 2019년(9.1%) 대비 3.1%p 하락함

○ 연령별로는 만30~34세(11.5%)의 경험 비율이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경험 비율이 11.1%로 다른 지역 대비 높음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경험 비율이 0.8%로 타 학력 대비 낮음

표 II-49 취업 준비 경험_4)해외 연수, 어학연수 경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9	286	9.1	90.9
2020	338	6.0	94.0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II-49-1 취업 준비 경험_4)해외 연수, 어학 연수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38	6.0	94.0
성별	남자	182	5.9	94.1
	여자	156	6.2	93.8
연령	만18~19세	15	0.0	100.0
	만20~24세	151	5.4	94.6
	만25~29세	131	5.2	94.8
	만30~34세	41	11.5	88.5
지역	서울	67	11.1	88.9
	인천/경기	76	7.2	92.8
	대전/충청/세종/강원	48	2.1	97.9
	광주/전라/제주	46	6.8	93.2
	부산/울산/경남	56	1.7	98.3
	대구/경북	45	1.3	98.7
학력	고졸이하	62	0.8	99.2
	대학/대학원 재학	89	3.3	96.7
	대졸이상	187	8.7	91.3
주거형태	동거	255	6.5	93.5
	비동거/독립	83	4.2	95.8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50) 취업 준비 경험_5)면접 훈련

○ ‘면접 훈련’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9%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 30.4%에 비해 9.5%p 하락하였음

○ 연령별로는 만18~19세(7.6%)의 경험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29.4%) 및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29.1%)의 경험 비율이 다른 지역 대비 높음

표 II-50 취업 준비 경험_5)면접 훈련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9	286	30.4	69.6
2020	338	20.9	79.1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II-50-1 취업 준비 경험_5)면접 훈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38	20.9	79.1
성별	남자	182	20.7	79.3
	여자	156	21.1	78.9
연령	만18~19세	15	7.6	92.4
	만20~24세	151	21.6	78.4
	만25~29세	131	20.8	79.2
	만30~34세	41	21.9	78.1
지역	서울	67	16.2	83.8
	인천/경기	76	29.4	70.6
	대전/충청/세종/강원	48	29.1	70.9
	광주/전라/제주	46	11.2	88.8
	부산/울산/경남	56	14.0	86.0
	대구/경북	45	12.3	87.7
학력	고졸이하	62	22.9	77.1
	대학/대학원 재학	89	19.1	80.9
	대졸이상	187	21.0	79.0
주거형태	동거	255	22.2	77.8
	비동거/독립	83	15.3	84.7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51) 취업 준비 경험_6)자소서 작성 훈련

○ ‘자소서 작성 훈련’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3.1%로, 2019년 51.4% 대비 18.3%p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여자(36.2%)가 남자(30.4%)보다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만18~19세(46.7%)의 경험 비율이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40.1%), 인천/경기(42.3%) 등 수도권 지역의 자소서 작성 훈련 경험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임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의 경험 비율이 34.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는 동거(34.1%)가 비동거/독립(29.0%)에 비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51 취업 준비 경험_6)자소서 작성 훈련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9	286	51.4	48.6
2020	338	33.1	66.9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Ⅱ-51-1 취업 준비 경험_6)자소서 작성 훈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38	33.1	66.9
성별	남자	182	30.4	69.6
	여자	156	36.2	63.8
연령	만 18~19세	15	46.7	53.3
	만 20~24세	151	33.1	66.9
	만 25~29세	131	33.4	66.6
	만 30~34세	41	28.7	71.3
지역	서울	67	40.1	59.9
	인천/경기	76	42.3	57.7
	대전/충청/세종/강원	48	31.9	68.1
	광주/전라/제주	46	23.1	76.9
	부산/울산/경남	56	18.5	81.5
	대구/경북	45	19.7	80.3
학력	고졸이하	62	29.8	70.2
	대학/대학원 재학	89	31.7	68.3
	대졸이상	187	34.6	65.4
주거형태	동거	255	34.1	65.9
	비동거/독립	83	29.0	71.0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52) 취업 준비 경험_7)취업전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

○ ‘취업전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0%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 12.5% 대비 7.5%p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여자(6.6%)가 남자(3.6%)보다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 경험 비율이 8.8%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52 취업 준비 경험_7)취업전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9	286	12.5	87.5
2020	338	5.0	95.0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II-52-1 취업 준비 경험_7)취업전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38	5.0	95.0
성별	남자	182	3.6	96.4
	여자	156	6.6	93.4
연령	만18~19세	15	0.0	100.0
	만20~24세	151	6.3	93.7
	만25~29세	131	5.5	94.5
	만30~34세	41	1.2	98.8
지역	서울	67	6.0	94.0
	인천/경기	76	5.7	94.3
	대전/충청/세종/강원	48	8.8	91.2
	광주/전라/제주	46	3.4	96.6
	부산/울산/경남	56	1.2	98.8
	대구/경북	45	2.2	97.8
학력	고졸이하	62	4.9	95.1
	대학/대학원 재학	89	1.0	99.0
	대졸이상	187	6.7	93.3
주거형태	동거	255	4.6	95.4
	비동거/독립	83	6.8	93.2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53) 취업 준비 경험_8)현장실습 경험

○ ‘현장실습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8.5%로 2019년(27.8%) 대비 9.3%p 하락함

○ 연령이 낮을수록 현장실습 경험 응답 비율이 높음

○ 성별로 보면 여자(25.8%)가 남자(12.5%)보다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고졸이하(23.1%)의 현장실습 경험이 대학/대학원 재학(17.2%), 대학이상(17.8%) 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53 취업 준비 경험_8)현장실습 경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9	286	27.8	72.2
2020	338	18.5	81.5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Ⅱ-53-1 취업 준비 경험_8)현장실습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38	18.5	81.5
성별	남자	182	12.5	87.5
	여자	156	25.8	74.2
연령	만18~19세	15	36.4	63.6
	만20~24세	151	22.5	77.5
	만25~29세	131	14.7	85.3
	만30~34세	41	14.6	85.4
지역	서울	67	21.4	78.6
	인천/경기	76	25.2	74.8
	대전/충청/세종/강원	48	15.1	84.9
	광주/전라/제주	46	23.2	76.8
	부산/울산/경남	56	7.8	92.2
	대구/경북	45	6.1	93.9
학력	고졸이하	62	23.1	76.9
	대학/대학원 재학	89	17.2	82.8
	대졸이상	187	17.8	82.2
주거형태	동거	255	17.6	82.4
	비동거/독립	83	22.4	77.6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54) 취업 준비 경험_9)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8.4%로, 2019년 51.3% 대비 2.9%p 하락하였음

○ 연령별로는 만18~19세(59.7%)의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경험이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경험 비율이 30.0%로 다른 지역 대비 낮음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의 경험 비율이 52.1%로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54 취업 준비 경험_9)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9	286	51.3	48.7
2020	338	48.4	51.6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Ⅱ-54-1 취업 준비 경험_9)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38	48.4	51.6
성별	남자	182	48.2	51.8
	여자	156	48.6	51.4
연령	만 18~19세	15	59.7	40.3
	만 20~24세	151	43.8	56.2
	만 25~29세	131	53.1	46.9
	만 30~34세	41	45.1	54.9
지역	서울	67	56.2	43.8
	인천/경기	76	53.2	46.8
	대전/충청/세종/강원	48	45.0	55.0
	광주/전라/제주	46	46.2	53.8
	부산/울산/경남	56	43.2	56.8
	대구/경북	45	30.0	70.0
학력	고졸이하	62	37.8	62.2
	대학/대학원 재학	89	46.8	53.2
	대졸이상	187	52.1	47.9
주거형태	동거	255	49.0	51.0
	비동거/독립	83	46.2	53.8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55) 취업 준비 경험_10)인턴 경험

○ ‘인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1.7%로 조사로 2019년(18.0%) 대비 6.3%p 하락함

○ 연령별로는 만25~29세(15.8%)의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의 경험 비율이 17.3%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의 경험 비율이 15.2%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55 취업 준비 경험_10)인턴 경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9	286	18.0	82.0
2020	338	11.7	88.3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II-55-1 취업 준비 경험_10)인턴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38	11.7	88.3
성별	남자	182	11.3	88.7
	여자	156	12.2	87.8
연령	만18~19세	15	0.0	100.0
	만20~24세	151	10.4	89.6
	만25~29세	131	15.8	84.2
	만30~34세	41	6.5	93.5
지역	서울	67	17.3	82.7
	인천/경기	76	12.0	88.0
	대전/충청/세종/강원	48	12.8	87.2
	광주/전라/제주	46	10.3	89.7
	부산/울산/경남	56	5.8	94.2
	대구/경북	45	6.3	93.7
학력	고졸이하	62	4.0	96.0
	대학/대학원 재학	89	8.6	91.4
	대졸이상	187	15.2	84.8
주거형태	동거	255	11.5	88.5
	비동거/독립	83	12.9	87.1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56) 취업 준비 경험_11)봉사활동 경험

○ ‘봉사활동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8.4%로 2019년(27.8%) 대비 9.4%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자(19.7%)가 여자(16.8%)보다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만25~29세(24.1%)의 경험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의 경험 비율이 8.1%로 다른 지역 대비 낮음

표 Ⅱ-56 취업 준비 경험_11)봉사활동 경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9	286	27.8	72.2
2020	338	18.4	81.6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Ⅱ-56-1 취업 준비 경험_11)봉사활동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38	18.4	81.6
성별	남자	182	19.7	80.3
	여자	156	16.8	83.2
연령	만18~19세	15	15.5	84.5
	만20~24세	151	16.3	83.7
	만25~29세	131	24.1	75.9
	만30~34세	41	8.3	91.7
지역	서울	67	22.5	77.5
	인천/경기	76	16.9	83.1
	대전/충청/세종/강원	48	22.4	77.6
	광주/전라/제주	46	17.8	82.2
	부산/울산/경남	56	8.1	91.9
	대구/경북	45	23.0	77.0
학력	고졸이하	62	12.8	87.2
	대학/대학원 재학	89	19.4	80.6
	대졸이상	187	19.5	80.5
주거형태	동거	255	18.3	81.7
	비동거/독립	83	18.6	81.4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57) 취업 준비 경험_12)동아리, 스터디 활동 경험

○ ‘동아리, 스터디 활동’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0%로 2019년(29.4%) 대비 9.4%p 하락함

○ 성별로는 여자(23.6%)의 경험 비율이 남자(17.0%)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만20~24세(24.4%)의 경험 비율이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 경험 비율이 30.3%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경험 비율이 8.5%로 다른 학력 대비 낮게 나타남

표 II-57 취업 준비 경험_12)동아리, 스터디 활동 경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9	286	29.4	70.6
2020	338	20.0	80.0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II-57-1 취업 준비 경험_12)동아리, 스터디 활동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38	20.0	80.0
성별	남자	182	17.0	83.0
	여자	156	23.6	76.4
연령	만 18~19세	15	8.0	92.0
	만 20~24세	151	24.4	75.6
	만 25~29세	131	20.1	79.9
	만 30~34세	41	10.3	89.7
지역	서울	67	22.8	77.2
	인천/경기	76	20.9	79.1
	대전/충청/세종/강원	48	30.3	69.7
	광주/전라/제주	46	17.2	82.8
	부산/울산/경남	56	8.2	91.8
	대구/경북	45	16.0	84.0
학력	고졸이하	62	8.5	91.5
	대학/대학원 재학	89	26.4	73.6
	대졸이상	187	20.4	79.6
주거형태	동거	255	19.5	80.5
	비동거/독립	83	21.9	78.1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58)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1)학교

○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로부터 취업 준비 관련 도움을 받은 경험 비율은 42.0%이며, 이들의 63.7%는 '도움이 되었다'(그렇다 56.3%+매우 그렇다 7.4%)고 응답함

○ 2019년 대비 학교로부터 취업 준비와 관련된 도움을 받은 경험 비율은 3.6%p 하락한 반면, 받은 도움에 대한 만족 비율은 8.6%p 상승하였음

○ 연령대가 낮을수록, 서울 지역, 대학/대학원에 재학하는 경우 학교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남자, 연령이 낮을수록, 서울 및 경기/인천 지역, 대학/대학원 재학, 동거의 경우 학교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한 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58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1)학교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9	286	45.6	2.9	11.3	30.7	46.4	8.7	54.4
2020	338	42.0	2.4	4.2	29.7	56.3	7.4	58.0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Ⅱ-58-1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1)학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38	42.0	2.4	4.2	29.7	56.3	7.4	58.0
성별	남자	182	40.6	0.0	3.8	25.6	65.5	5.1	59.4
	여자	156	43.8	5.0	4.6	34.3	46.1	10.0	56.2
연령	만18~19세	15	53.3	0.0	0.0	12.2	73.6	14.3	46.7
	만20~24세	151	47.4	1.7	2.4	28.9	56.1	10.9	52.6
	만25~29세	131	41.9	0.0	4.3	29.2	62.0	4.5	58.1
	만30~34세	41	24.8	18.3	14.9	45.4	21.4	0.0	75.2
지역	서울	67	52.8	5.5	3.5	13.5	74.8	2.8	47.2
	인천/경기	76	42.7	0.0	1.6	24.0	63.4	11.0	57.3
	대전/충청/세종/강원	48	33.6	4.4	4.6	62.5	23.7	4.7	66.4
	광주/전라/제주	46	41.1	0.0	12.5	37.8	46.2	3.4	58.9
	부산/울산/경남	56	37.3	0.0	8.5	28.5	54.1	8.9	62.7
	대구/경북	45	34.2	4.0	0.0	57.7	22.5	15.8	65.8
학력	고졸이하	62	24.3	5.0	12.4	20.1	56.1	6.5	75.7
	대학/대학원 재학	89	50.7	1.1	1.6	24.6	62.4	10.3	49.3
	대졸이상	187	43.2	2.6	4.2	33.7	53.4	6.1	56.8
주거형태	동거	255	41.7	0.0	3.0	29.7	59.1	8.1	58.3
	비동거/독립	83	43.3	11.5	8.6	29.5	45.5	4.8	56.7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59)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2)공공기관

○ 공공기관으로부터 취업 준비 관련 도움을 받은 경험 비율은 20.6%이며, 이들의 43.8%는 '도움이 되었다'(그렇다 38.9%+매우 그렇다 4.9%)고 응답함

○ 2019년 대비 공공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 비율이 하락(-9.3%p)하였고 그에 대한 만족도 또한 하락(-8.4%p)하였음

○ 여자, 만30~34세, 광주/전라/제주 지역, 비동거/독립인 경우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여자, 연령이 낮을수록, 부산/울산/경남 지역, 동거인 경우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Ⅱ-59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2)공공기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9	286	29.3	2.1	11.2	34.6	44.5	7.7	70.7
2020	338	20.6	4.6	3.4	48.2	38.9	4.9	79.4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Ⅱ-59-1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2)공공기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38	20.6	4.6	3.4	48.2	38.9	4.9	79.4
성별	남자	182	18.4	0.0	3.2	62.0	28.0	6.8	81.6
	여자	156	23.3	9.0	3.6	35.1	49.4	3.0	76.7
연령	만18~19세	15	23.4	0.0	0.0	17.6	49.9	32.6	76.6
	만20~24세	151	13.1	5.5	0.0	45.9	48.6	0.0	86.9
	만25~29세	131	22.3	0.0	1.8	56.1	40.3	1.8	77.7
	만30~34세	41	36.1	12.6	10.3	41.0	24.9	11.3	63.9
지역	서울	67	24.0	17.5	0.0	30.2	52.2	0.0	76.0
	인천/경기	76	19.7	0.0	3.5	70.5	26.1	0.0	80.3
	대전/충청/세종/강원	48	9.3	0.0	0.0	72.5	27.5	0.0	90.7
	광주/전라/제주	46	31.1	0.0	16.5	24.1	39.3	20.0	68.9
	부산/울산/경남	56	28.6	0.0	0.0	36.0	53.5	10.5	71.4
	대구/경북	45	9.9	0.0	0.0	100.0	0.0	0.0	90.1
학력	고졸이하	62	25.2	0.0	12.0	44.8	37.0	6.3	74.8
	대학/대학원 재학	89	8.9	13.1	0.0	43.0	43.9	0.0	91.1
	대졸이상	187	24.4	4.6	1.5	50.0	38.7	5.3	75.6
주거형태	동거	255	17.5	0.0	1.2	51.1	41.6	6.1	82.5
	비동거/독립	83	33.5	14.3	8.1	42.0	33.2	2.4	66.5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60)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3)사설기관

○ 사설기관으로부터 취업 준비 관련 도움을 받은 경험 비율은 46.6%이며, 이들의 59.0%는 '도움이 되었다'(그렇다 51.8%+매우 그렇다 7.2%)고 응답함

○ 2019년 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비율은 8.1%p 증가하였으나, 받은 도움에 대한 만족도는 0.8%p 하락으로 큰 차이는 없었음

○ 만30~34세, 동거의 경우 사설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여자, 만25~29세, 대졸이상, 비동거/독립인 경우 받은 도움에 대한 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Ⅱ-60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3)사설기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9	286	38.5	4.3	6.3	29.6	53.3	6.5	61.5
2020	338	46.6	2.0	1.7	37.3	51.8	7.2	53.4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II-60-1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3)사설기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38	46.6	2.0	1.7	37.3	51.8	7.2	53.4
성별	남자	182	46.5	0.0	3.1	41.9	47.0	8.0	53.5
	여자	156	46.8	4.5	0.0	31.7	57.7	6.1	53.2
연령	만18~19세	15	29.4	0.0	0.0	43.1	43.3	13.6	70.6
	만20~24세	151	42.0	1.7	1.3	50.3	44.1	2.5	58.0
	만25~29세	131	49.9	0.0	2.7	25.1	61.9	10.3	50.1
	만30~34세	41	54.2	8.4	0.0	40.8	42.9	8.0	45.8
지역	서울	67	50.8	8.3	0.0	26.9	59.5	5.3	49.2
	인천/경기	76	52.7	0.0	3.5	51.3	36.2	9.0	47.3
	대전/충청/세종/강원	48	48.8	0.0	3.4	25.7	70.8	0.0	51.2
	광주/전라/제주	46	31.8	0.0	0.0	35.9	45.3	18.9	68.2
	부산/울산/경남	56	36.4	0.0	0.0	26.9	63.2	9.9	63.6
	대구/경북	45	43.5	0.0	0.0	41.5	53.8	4.7	56.5
학력	고졸이하	62	48.2	0.0	10.0	33.0	54.6	2.4	51.8
	대학/대학원 재학	89	46.3	2.5	0.0	47.2	40.3	10.0	53.7
	대졸이상	187	46.3	2.4	0.0	34.2	56.0	7.3	53.7
주거형태	동거	255	50.2	0.0	2.0	40.8	51.0	6.3	49.8
	비동거/독립	83	31.9	15.0	0.0	14.6	57.4	13.1	68.1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61)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4)부모님이나 친인척

○ 부모님이나 친인척으로부터 취업 준비 관련 도움을 받은 경험 비율은 29.5%이며, 이들의 60.8%는 '도움이 되었다'(그렇다 46.7%+매우 그렇다 14.1%)고 응답함

○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도움을 받은 경험 비율은 3.7%p 하락하였으나, 받은 도움에 대한 만족도는 3.8%p 상승하였음

○ 남자, 부산/울산/경남 및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 동거의 경우 부모님, 친인척의 도움을 받은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남자, 대구/경북, 동거의 경우 받은 도움에 대한 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Ⅱ-61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4)부모님이나 친인척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9	286	33.2	2.3	8.7	32.1	41.9	15.1	66.8
2020	338	29.5	2.2	1.7	35.2	46.7	14.1	70.5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Ⅱ-61-1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4)부모님이나 친인척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38	29.5	2.2	1.7	35.2	46.7	14.1	70.5
성별	남자	182	32.6	0.0	0.0	34.8	51.5	13.7	67.4
	여자	156	25.8	5.6	4.3	36.0	39.3	14.8	74.2
연령	만18~19세	15	36.2	0.0	0.0	35.0	54.4	10.6	63.8
	만20~24세	151	27.7	0.0	1.1	37.5	43.7	17.8	72.3
	만25~29세	131	31.0	0.0	1.3	35.6	51.3	11.8	69.0
	만30~34세	41	28.7	15.8	5.1	28.1	38.3	12.7	71.3
지역	서울	67	31.7	9.2	0.0	43.0	47.8	0.0	68.3
	인천/경기	76	24.8	0.0	2.7	33.7	32.4	31.2	75.2
	대전/충청/세종/강원	48	41.9	0.0	0.0	42.0	50.5	7.5	58.1
	광주/전라/제주	46	26.1	0.0	11.5	19.8	43.6	25.0	73.9
	부산/울산/경남	56	35.1	0.0	0.0	34.7	61.1	4.2	64.9
	대구/경북	45	18.2	0.0	0.0	13.6	56.9	29.6	81.8
학력	고졸이하	62	30.2	0.0	3.4	47.6	35.0	14.0	69.8
	대학/대학원 재학	89	33.9	0.0	0.0	32.0	41.5	26.5	66.1
	대졸이상	187	27.4	4.1	2.1	33.2	53.0	7.7	72.6
주거형태	동거	255	31.2	0.0	1.2	36.0	49.0	13.8	68.8
	비동거/독립	83	22.9	14.5	4.7	30.9	33.9	16.1	77.1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62)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5)친구, 선후배

○ 친구 및 선후배로부터 취업 준비 관련 도움을 받은 경험 비율은 54.2%이며, 이들의 73.4%는 '도움이 되었다'(그렇다 65.5%+매우 그렇다 7.9%)고 응답함

○ 2019년 대비 도움을 받은 경험(+4.8%p) 비율 및 만족(+16.7%p) 비율 모두 상승하였음

○ 20대, 서울 및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 대학/대학원 재학의 경우 친구, 선후배의 도움을 받은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남자, 연령이 높을수록, 인천/경기 지역, 동거의 경우 받은 도움에 대한 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II-62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5)친구, 선후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9	286	49.4	3.3	2.0	38.0	53.3	3.4	50.6
2020	338	54.2	1.2	1.1	24.2	65.5	7.9	45.8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Ⅱ-62-1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5)친구, 선후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38	54.2	1.2	1.1	24.2	65.5	7.9	45.8
성별	남자	182	53.7	0.0	1.1	19.5	72.2	7.2	46.3
	여자	156	54.9	2.6	1.2	29.7	57.7	8.8	45.1
연령	만18~19세	15	19.3	0.0	0.0	56.7	43.3	0.0	80.7
	만20~24세	151	57.6	0.0	0.5	30.1	60.6	8.7	42.4
	만25~29세	131	56.6	0.0	0.7	22.3	67.9	9.1	43.4
	만30~34세	41	45.9	9.9	4.9	7.2	76.1	1.9	54.1
지역	서울	67	69.9	4.2	0.0	20.6	63.1	12.1	30.1
	인천/경기	76	47.2	0.0	0.0	17.8	75.7	6.5	52.8
	대전/충청/세종/강원	48	66.9	0.0	0.0	30.8	69.2	0.0	33.1
	광주/전라/제주	46	42.6	0.0	15.0	14.8	58.8	11.3	57.4
	부산/울산/경남	56	50.4	0.0	0.0	32.6	61.8	5.6	49.6
	대구/경북	45	40.3	0.0	0.0	42.2	42.9	14.9	59.7
학력	고졸이하	62	20.4	0.0	14.8	22.6	54.7	8.0	79.6
	대학/대학원 재학	89	64.2	0.0	0.0	26.2	62.2	11.6	35.8
	대졸이상	187	59.4	1.9	0.3	23.5	68.1	6.2	40.6
주거형태	동거	255	54.3	0.0	0.7	24.5	66.9	8.0	45.7
	비동거/독립	83	54.1	6.1	3.0	23.1	59.9	7.9	45.9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63) 주체별 도움 내용_1)학교

○ 학교로부터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주로 받은 도움은 ‘상담’이 46.7%로 가장 많고, ‘정보제공’(36.4%), ‘일자리 알선’(8.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상담’(55.9%)이, 여자는 ‘정보제공’(44.4%)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에서 ‘상담’(66.9%, 43.4%, 54.7%)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나 만30~34세에서는 ‘정보제공’(75.8%)의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상담’은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61.4%), ‘일자리 알선’은 부산/울산/경남(18.3%)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Ⅱ-63 주체별 도움 내용_1)학교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정보제공	교육/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2019	133	25.1	23.2	41.3	8.6	1.8
2020	147	36.4	7.6	46.7	8.7	0.6

* 주: 취업 준비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가 있는 경우만 응답

표 Ⅱ-63-1 주체별 도움 내용_1)학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정보제공	교육/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전체		147	36.4	7.6	46.7	8.7	0.6
성별	남자	74	29.2	4.4	55.9	10.1	0.3
	여자	73	44.4	11.2	36.5	7.0	0.9
연령	만18~19세	8	8.0	25.2	66.9	0.0	0.0
	만20~24세	75	40.0	7.0	43.4	9.6	0.0
	만25~29세	54	27.3	8.1	54.7	8.5	1.4
	만30~34세	10	75.8	0.0	15.2	9.0	0.0
지역	서울	36	40.7	13.2	42.6	3.4	0.0
	인천/경기	33	32.5	2.8	49.6	13.8	1.4
	대전/충청/세종/강원	18	36.5	2.1	61.4	0.0	0.0
	광주/전라/제주	20	28.9	4.3	58.1	8.6	0.0
	부산/울산/경남	20	43.7	12.6	25.4	18.3	0.0
	대구/경북	20	34.0	10.4	49.7	3.8	2.1
학력	고졸이하	18	21.1	7.9	48.5	22.5	0.0
	대학/대학원 재학	48	37.7	5.6	45.1	11.5	0.0
	대졸이상	81	38.1	8.6	47.3	5.1	1.0
주거형태	동거	113	32.5	7.9	49.8	9.1	0.7
	비동거/독립	34	51.8	6.6	34.6	7.0	0.0

* 주: 취업 준비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가 있는 경우만 응답

64) 주체별 도움 내용_2)공공기관

○ 공공기관으로부터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주로 받은 도움은 '정보제공'이 33.6%로 가장 높고, '상담'(29.9%), '교육훈련'(1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9년에 비해 '정보제공'과 '상담' 응답 비율이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상담' 관련 도움에서 여자(34.2%)는 남자(25.4%) 대비 응답 비율이 높음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에서 '정보제공'(38.2%)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64 주체별 도움 내용_2)공공기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정보제공	교육/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2019	82	24.9	25.4	24.8	16.3	8.6
2020	67	33.6	15.5	29.9	14.8	6.3

* 주: 취업 준비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가 있는 경우만 응답

표 Ⅱ-64-1 주체별 도움 내용_2)공공기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정보제공	교육/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전체		67	33.6	15.5	29.9	14.8	6.3
성별	남자	30	34.3	16.0	25.4	17.5	6.9
	여자	37	32.9	15.0	34.2	12.1	5.7
연령	만18~19세	4	49.9	17.6	32.6	0.0	0.0
	만20~24세	20	17.6	18.1	37.4	18.9	8.1
	만25~29세	29	34.0	11.6	33.7	18.9	1.8
	만30~34세	14	46.6	19.5	15.1	5.3	13.5
지역	서울	14	46.3	21.9	31.8	0.0	0.0
	인천/경기	15	8.0	18.8	44.4	28.8	0.0
	대전/충청/세종/강원	4	77.3	0.0	0.0	22.7	0.0
	광주/전라/제주	15	35.0	8.8	10.5	11.4	34.4
	부산/울산/경남	15	46.6	15.2	23.7	7.5	6.9
	대구/경북	4	11.6	0.0	50.8	37.6	0.0
학력	고졸이하	15	25.7	13.1	38.9	15.6	6.6
	대학/대학원 재학	10	18.2	6.2	64.0	0.0	11.6
	대졸이상	42	38.2	17.6	22.0	16.8	5.4
주거형태	동거	43	31.2	14.5	36.5	12.4	5.5
	비동거/독립	24	38.7	17.6	15.9	19.8	8.0

* 주: 취업 준비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가 있는 경우만 응답

65) 주체별 도움 내용_3)사설기관

○ 사설기관으로부터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주로 받은 도움은 '정보제공'이 39.8%로 가장 높고, '교육/훈련'(37.6%), '상담'(1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정보제공'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모두에서 남자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 연령별로는 만25~29세는 '상담'(16.4%) 응답이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는 '정보제공'(67.4%)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에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교육/훈련'의 응답이 64.9%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임

○ 주거형태별로는 동거인 경우에는 '정보제공'(40.6%)이, 비동거/독립인 경우에는 '교육/훈련'이 42.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65 주체별 도움 내용_3)사설기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정보제공	교육/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2019	112	24.6	47.0	14.4	13.4	0.7
2020	143	39.8	37.6	12.2	9.4	1.1

* 주: 취업 준비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가 있는 경우만 응답

표 Ⅱ-65-1 주체별 도움 내용_3)사설기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정보제공	교육/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전체		143	39.8	37.6	12.2	9.4	1.1
성별	남자	71	29.8	40.9	17.2	11.1	1.1
	여자	72	51.6	33.6	6.3	7.5	1.0
연령	만 18~19세	5	13.6	57.3	0.0	29.1	0.0
	만 20~24세	58	42.8	36.4	10.5	7.4	2.9
	만 25~29세	61	40.9	36.4	16.4	6.3	0.0
	만 30~34세	19	33.5	40.7	6.1	19.6	0.0
지역	서울	33	35.9	30.1	14.5	17.1	2.4
	인천/경기	35	37.4	44.7	7.5	10.4	0.0
	대전/충청/세종/강원	18	67.4	7.5	20.7	4.5	0.0
	광주/전라/제주	17	26.4	39.7	18.0	8.8	7.1
	부산/울산/경남	20	38.0	45.2	16.8	0.0	0.0
	대구/경북	20	29.2	64.9	1.6	4.3	0.0
학력	고졸이하	26	36.2	27.6	15.0	21.2	0.0
	대학/대학원 재학	34	43.5	42.2	10.2	4.1	0.0
	대졸이상	83	39.2	38.5	12.2	8.3	1.8
주거형태	동거	117	40.6	36.9	11.6	9.7	1.2
	비동거/독립	26	34.7	42.0	15.7	7.6	0.0

* 주: 취업 준비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가 있는 경우만 응답

66) 주체별 도움 내용_4)부모님이나 친인척

○ 부모님, 친인척으로부터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주로 받은 도움은 '금전적 지원'이 46.7%로 가장 높고, '상담'(21.3%), '정보제공'(1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조사 결과와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일자리 알선' 응답 비율이 하락하고, '정보제공'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하였음

○ 성별로 보면 '금전적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여자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정보제공'의 경우 만20~24세(28.6%)에서 다른 연령 대비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금전적 지원'은 서울(54.8%), '정보제공'은 광주/전라/제주(36.5%), '상담'은 대전/충청/세종/강원(42.6%)에서 상대적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Ⅱ-66 주체별 도움 내용_4)부모님이나 친인척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정보제공	교육/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2019	97	13.6	1.5	21.4	20.6	42.9
2020	101	17.4	2.7	21.3	11.8	46.7

* 주: 취업 준비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가 있는 경우만 응답

표 Ⅱ-66-1 주체별 도움 내용_4)부모님이나 친인척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정보제공	교육/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전체		101	17.4	2.7	21.3	11.8	46.7
성별	남자	60	12.8	1.1	19.2	11.2	55.7
	여자	41	24.5	5.2	24.5	12.8	33.1
연령	만18~19세	5	0.0	11.3	39.3	23.7	25.7
	만20~24세	40	28.6	4.2	24.0	8.4	34.7
	만25~29세	45	10.9	1.5	21.8	8.7	57.1
	만30~34세	11	12.9	0.0	7.4	27.2	52.5
지역	서울	23	18.6	4.6	19.3	2.7	54.8
	인천/경기	18	13.4	0.0	15.3	30.4	40.9
	대전/충청/세종/강원	19	14.1	8.5	42.6	15.3	19.4
	광주/전라/제주	13	36.5	0.0	13.0	4.7	45.8
	부산/울산/경남	20	22.6	0.0	8.6	0.0	68.8
	대구/경북	8	0.0	0.0	34.8	0.0	65.2
학력	고졸이하	21	18.6	3.8	23.9	24.9	28.9
	대학/대학원 재학	27	18.6	1.6	31.1	2.3	46.3
	대졸이상	53	16.5	2.9	15.3	12.9	52.4
주거형태	동거	80	16.6	3.2	21.3	12.4	46.5
	비동거/독립	21	22.1	0.0	21.6	8.5	47.8

* 주: 취업 준비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가 있는 경우만 응답

67) 주체별 도움 내용_5)친구, 선후배

○ 친구, 선후배로부터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주로 받은 도움은 '정보제공'이 59.3%로 가장 높고, '상담'(27.0%), '일자리 알선'(1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대비 '상담'과 '일자리 알선' 응답은 각각 2.9%p, 7.2%p 하락하였으나 '정보제공' 응답은 9.9%p 상승하였음

○ 친구, 선후배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았다ㅓ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높을 수록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 '정보제공'의 응답이 37.0%로 다른 지역 대비 낮게 나타남

표 Ⅱ-67 주체별 도움 내용_5)친구, 선후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정보제공	교육/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2019	143	49.4	1.0	30.1	19.5
2020	187	59.3	1.5	27.0	12.3

* 주: 취업 준비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가 있는 경우만 응답

표 II-67-1 주체별 도움 내용_5)친구, 선후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정보제공	교육/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전체		187	59.3	1.5	27.0	12.3
성별	남자	102	59.5	0.9	26.7	12.9
	여자	85	59.0	2.2	27.3	11.5
연령	만18~19세	4	22.0	21.3	12.3	44.4
	만20~24세	87	51.6	1.7	35.9	10.7
	만25~29세	76	62.3	1.1	23.0	13.5
	만30~34세	20	78.9	0.0	11.0	10.1
지역	서울	46	67.5	2.6	17.8	12.1
	인천/경기	38	61.4	1.4	31.9	5.3
	대전/충청/세종/강원	30	37.0	0.0	32.6	30.4
	광주/전라/제주	22	76.1	2.3	18.7	2.9
	부산/울산/경남	30	53.4	1.5	32.6	12.5
	대구/경북	21	61.3	0.0	31.2	7.5
학력	고졸이하	17	53.6	2.9	10.8	32.8
	대학/대학원 재학	59	59.5	2.7	36.4	1.4
	대졸이상	111	59.7	0.8	24.1	15.4
주거형태	동거	140	59.5	1.4	27.7	11.4
	비동거/독립	47	58.3	1.9	24.1	15.7

* 주: 취업 준비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가 있는 경우만 응답

68) 사설기관 이용 시 월평균 지불 비용

○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 취업 사이트 등)을 이용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불한 비용을 물어본 결과, 월평균 17만 5천 원으로 조사됨

○ 2019년 월평균 20만 7천 원에 비해 3만 2천 원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18.3만 원)가 여자(16.5만 원)보다 지불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이 월평균 26만 7천 원이라고 응답하여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68 사설기관 이용 시 월평균 지불 비용 연도별 추이

(단위: 명, 만 원)

연도	사례수	월평균 지불 비용(만 원)
2019	112	20.7
2020	143	17.5

* 주: 취업 준비 관련하여 사설기관의 도움을 받은 응답자만

표 Ⅱ-68-1 사설기관 이용 시 월평균 지불 비용

(단위: 명, 만 원)

구분		사례수	월평균 지불 비용(만 원)
전체		143	17.5
성별	남자	71	18.3
	여자	72	16.5
연령	만 18~19세	5	12.8
	만 20~24세	58	17.1
	만 25~29세	61	18.4
	만 30~34세	19	16.8
지역	서울	33	15.8
	인천/경기	35	21.2
	대전/충청/세종/강원	18	8.5
	광주/전라/제주	17	21.1
	부산/울산/경남	20	11.2
	대구/경북	20	26.7
학력	고졸이하	26	11.7
	대학/대학원 재학	34	20.0
	대졸이상	83	18.2
주거형태	동거	117	17.3
	비동거/독립	26	19.0

* 주: 취업 준비 관련하여 사설기관의 도움을 받은 응답자만

69) 사설기관을 제외한 취업준비 월평균 지불 비용

○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설기관 외 시험응시료, 교재 및 도서 구입 등의 취업준비 관련 비용을 물어본 결과, 월평균 15만 8천 원으로 조사 됨

○ 2019년 월평균 지불 비용 14만 9천 원 대비 9천 원 상승하였음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월평균 지불 비용이 상승함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제주 지역이 월평균 지불 비용 23만 1천 원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69 사설기관을 제외한 취업준비 월평균 지불 비용 연도별 추이

(단위: 명, 만 원)

연도	사례수	월평균 지불 비용(만 원)
2019	286	14.9
2020	338	15.8

* 주: 취업 준비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가 있는 경우만 응답

표 II-69-1 사설기관을 제외한 취업준비 월평균 지불 비용

(단위: 명, 만 원)

구분		사례수	월평균 지불 비용(만 원)
전체		338	15.8
성별	남자	182	15.8
	여자	156	15.8
연령	만 18~19세	15	14.7
	만 20~24세	151	15.4
	만 25~29세	131	15.6
	만 30~34세	41	18.0
지역	서울	67	11.6
	인천/경기	76	19.6
	대전/충청/세종/강원	48	10.8
	광주/전라/제주	46	23.1
	부산/울산/경남	56	15.1
	대구/경북	45	14.3
학력	고졸이하	62	18.0
	대학/대학원 재학	89	12.0
	대졸이상	187	16.8
주거형태	동거	255	15.5
	비동거/독립	83	16.9

* 주: 취업 준비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가 있는 경우만 응답

70) 취업준비를 위한 하루 평균 투자 시간

○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평일 1일 기준 취업 준비를 위해 투자한 시간을 물어본 결과 5.2시간으로 조사됨

○ 2019년 일평균 4.5시간 대비 0.7시간 상승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5.5시간)가 여자(4.9시간)에 비해 투자 시간이 많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제주(6.0시간), 부산/울산/경남(6.1시간), 대구/경북(6.0시간) 지역에서 다른 지역 대비 투자 시간이 많음

표 II-70 취업준비를 위한 하루 평균 투자 시간 연도별 추이

(단위: 명, 시간)

연도	사례수	취업준비 투자 시간(시간/1일당)
2019	286	4.5
2020	338	5.2

* 주: 취업 준비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가 있는 경우만 응답

표 II-70-1 취업준비를 위한 하루 평균 투자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사례수	취업준비 투자 시간(시간/1일당)
전체		338	5.2
성별	남자	182	5.5
	여자	156	4.9
연령	만 18~19세	15	3.7
	만 20~24세	151	4.8
	만 25~29세	131	5.7
	만 30~34세	41	5.3
지역	서울	67	5.0
	인천/경기	76	4.8
	대전/충청/세종/강원	48	4.5
	광주/전라/제주	46	6.0
	부산/울산/경남	56	6.1
	대구/경북	45	6.0
학력	고졸이하	62	5.2
	대학/대학원 재학	89	4.4
	대졸이상	187	5.6
주거형태	동거	255	5.4
	비동거/독립	83	4.7

* 주: 취업 준비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가 있는 경우만 응답

71)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 현재까지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19.7%로 2019년 15.4% 대비 4.3%p 상승함

○ 연령별로 보면 만25~29세에서 준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6.5%로 타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28.6%)에서 준비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Ⅱ-71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있다	없다
2016	2,534	15.2	84.8
2017	2,714	17.8	82.2
2018	3,133	12.5	87.5
2019	3,530	15.4	84.6
2020	3,520	19.7	80.3

표 II-71-1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3,520	19.7	80.3
성별	남자	1,855	19.1	80.9
	여자	1,665	20.3	79.7
연령	만18~19세	477	3.7	96.3
	만20~24세	1,095	17.7	82.3
	만25~29세	1,050	26.5	73.5
	만30~34세	898	19.5	80.5
지역	서울	676	20.9	79.1
	인천/경기	824	20.9	79.1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21.8	78.2
	광주/전라/제주	468	17.2	82.8
	부산/울산/경남	555	16.5	83.5
	대구/경북	448	16.4	83.6
학력	고졸이하	1,098	6.7	93.3
	대학/대학원 재학	898	18.1	81.9
	대졸이상	1,524	28.6	71.4
주거형태	동거	2,194	20.6	79.4
	비동거/독립	1,326	18.0	82.0

72) 향후 직업훈련 계획 여부

○ 취업 및 창업 준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인턴 근무 등의 직업 훈련을 향후 받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받을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18.4%로, 2019년 17.7% 대비 0.7%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여자(19.9%)가 남자(17.1%)보다 향후 직업훈련 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만20~24세(24.6%)에서 직업훈련 의향 비율이 타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서울(22.0%), 인천/경기(22.7%)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향후 직업 훈련 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학력별로는 대학/대학원 재학(28.5%)에서 계획 의향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72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6	693	23.1	76.9
2017	2,321	18.6	79.6
2018	2,641	9.5	90.0
2019	2,948	17.7	80.9
2020	3,520	18.4	80.0

* 주 1) 2016~2019년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는 경우만 응답. 2020년 전체 응답
2) 2017년, 2019년, 2020년 조사에는 '이미 받고 있다'가 보기문항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응답 비율은 2017년 1.8%, 2019년 1.4%, 2020년 1.6%였음(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72-1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이미 받고 있다
전체		3,520	18.4	80.0	1.6
성별	남자	1,855	17.1	81.3	1.6
	여자	1,665	19.9	78.4	1.6
연령	만 18~19세	477	22.1	76.5	1.3
	만 20~24세	1,095	24.6	73.7	1.7
	만 25~29세	1,050	16.4	81.8	1.8
	만 30~34세	898	13.1	85.4	1.5
지역	서울	676	22.0	77.0	1.0
	인천/경기	824	22.7	74.9	2.5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15.5	82.4	2.2
	광주/전라/제주	468	15.1	83.7	1.2
	부산/울산/경남	555	13.5	85.0	1.5
	대구/경북	448	10.6	89.2	0.2
학력	고졸이하	1,098	13.2	85.7	1.1
	대학/대학원 재학	898	28.5	70.5	1.0
	대졸이상	1,524	16.7	81.0	2.3
주거형태	동거	2,194	21.0	77.1	1.8
	비동거/독립	1,326	13.7	84.9	1.3

73) 교육대책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분야

○ 교육대책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분야로는 '청년 인재 양성 정책(청년 인재 집중양성, 이공계 미취업자 산업맞춤 연수 등)'이라는 응답이 32.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청년 직업 교육 정책(취업지원센터, 일 학습 병행제 등)'(25.6%), '청년 진로 관련 정책(진로상담, 진로교육 등)'(18.1%) 등의 순임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청년 인재 양성 정책'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학력별로는 대학/대학원 재학에서 '청년 인재 양성 정책' 다음으로 '대학 장학금 지원정책(국가장학금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6%로 타 학력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73-1 교육 대책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분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청년 인재 양성 정책 (청년인재 집중양성, 이공계 미취업자 산업맞춤 연수 등)	청년 직업 교육 정책 (취업지원 센터, 일학습병행제 등)	청년 진로 관련 정책 (진로상담, 진로교육 등)	대학 장학금 지원정책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정책
전체		3,520	32.2	25.6	18.1	15.6	8.6
성별	남자	1,855	34.6	25.8	16.8	15.3	7.5
	여자	1,665	29.4	25.3	19.5	15.9	9.8
연령	만18~19세	477	25.2	18.7	21.8	27.2	7.2
	만20~24세	1,095	31.7	25.5	18.5	17.0	7.3
	만25~29세	1,050	33.4	27.0	18.7	12.4	8.6
	만30~34세	898	33.6	26.5	15.8	13.8	10.3
지역	서울	676	30.3	24.8	21.4	12.4	11.1
	인천/경기	824	31.2	24.2	15.9	19.4	9.3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28.7	27.7	18.6	15.8	9.2
	광주/전라/제주	468	34.5	28.5	17.8	15.0	4.1
	부산/울산/경남	555	36.1	25.1	17.0	14.1	7.8
	대구/경북	448	36.6	26.6	19.5	12.2	5.1
학력	고졸이하	1,098	33.7	28.9	19.4	12.7	5.4
	대학/대학원 재학	898	31.2	18.8	17.3	23.6	9.0
	대졸이상	1,524	31.7	26.9	17.7	13.4	10.3
주거형태	동거	2,194	31.9	25.0	18.7	16.6	7.8
	비동거/독립	1,326	32.7	26.7	17.0	13.7	9.9

74)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으로는 '안정적인 회사'라는 응답이 26.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18.9%),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18.1%) 등의 순이었으며, 2019년 대비 '안정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은',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선호 응답 비율은 상승한 반면, '분위기 좋은', '급여가 높은', '퇴근이 빠른',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선호 응답은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안정적인 회사'(26.7%, 26.4%)를 가장 선호하나, 이외에 남자는 '급여가 높은 회사'(18.8%)를, 여자는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23.7%)를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선호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에서 '안정적인 회사'(28.2%) 다음으로 '급여가 높은 회사'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로, 타 학력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74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분위기 좋은 회사	급여가 높은 회사	유명한 회사	안정적인 회사	퇴근이 빠른 회사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2016	2,534	8.8	18.3	2.9	31.0	2.7	10.5	25.6	-
2017	2,714	9.0	19.5	1.6	31.4	6.9	8.8	22.3	0.3
2018	3,133	5.5	22.2	3.9	30.8	2.4	13.2	11.7	10.3
2019	3,530	8.9	17.0	1.0	25.7	5.0	6.9	19.4	16.0
2020	3,520	7.8	15.6	0.9	26.5	2.6	9.5	18.9	18.1

* 주 1) 2017, 2019, 2020년 응답결과 '기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응답비율은 0.1%였음 (본 표에 미제시함)
2) 보기문항 중 '복지수준이 좋은 회사'는 2017년도부터 추가된 보기문항임

표 II-74-1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분위기 좋은 회사	급여가 높은 회사	유명한 회사	안정적인 회사	퇴근이 빠른 회사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기타
전체		3,520	7.8	15.6	0.9	26.5	2.6	9.5	18.9	18.1	0.1
성별	남자	1,855	8.3	18.8	1.0	26.7	1.8	11.6	18.5	13.1	0.1
	여자	1,665	7.2	11.9	0.8	26.4	3.4	7.2	19.3	23.7	0.0
연령	만18~19세	477	8.7	17.0	2.9	25.4	0.8	9.8	20.1	15.2	0.0
	만20~24세	1,095	8.6	15.6	1.1	25.9	2.2	9.4	20.3	16.8	0.1
	만25~29세	1,050	8.5	17.9	0.4	25.0	3.5	9.1	16.6	18.9	0.1
	만30~34세	898	5.9	12.5	0.7	29.2	2.4	10.1	19.4	19.5	0.1
지역	서울	676	6.9	16.9	1.4	23.1	2.9	9.6	20.2	18.9	0.0
	인천/경기	824	6.3	17.0	1.3	27.0	2.7	11.1	20.0	14.7	0.0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9.0	13.6	0.4	30.2	2.4	8.6	21.1	14.6	0.1
	광주/전라/제주	468	7.0	14.4	0.3	25.9	2.4	6.8	13.6	29.3	0.3
	부산/울산/경남	555	11.6	14.9	0.6	27.9	3.0	7.5	16.2	18.2	0.2
	대구/경북	448	8.1	12.9	0.7	26.1	0.9	11.5	18.3	21.5	0.0
학력	고졸이하	1,098	8.7	20.2	0.9	28.2	2.6	9.0	14.9	15.4	0.2
	대학/대학원 재학	898	7.5	15.1	1.6	24.9	1.7	11.5	21.8	15.8	0.0
	대졸이상	1,524	7.3	12.9	0.6	26.3	3.0	8.9	19.9	21.0	0.0
주거형태	동거	2,194	7.9	15.5	1.2	26.9	2.5	9.6	19.0	17.3	0.0
	비동거/독립	1,326	7.5	15.7	0.5	25.9	2.7	9.4	18.6	19.6	0.2

75) 2021년 적정 최저 임금

○ 시간급 기준으로 2021년 적정 최저 임금에 대해 물어본 결과, 평균 9,346원으로 2019년 응답 평균 9,202원 대비 144원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자(9,348원)와 여자(9,344원)가 각각 적정하다고 응답한 최저 임금 액수에 큰 차이가 없음

○ 연령별로는 만25~29세에서 적정 최저 임금 액수가 9,372원으로 가장 높고 만18~19세에서 9,284원으로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 평균 금액이 9,465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부산/울산/경남 지역 평균 금액은 9,098원으로 가장 낮은 금액으로 조사됨

○ 학력별로는 대학/대학원 재학(9,283원)에서 적정 최저 임금 액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표 II-75 적정 최저 임금 연도별 추이

(단위: 명, 원)

연도	사례수	적정 최저 임금 평균(원)
2016(2017년 임금)	2,534	7,585
2017(2019년 임금)	2,714	8,786
2018(2020년 임금)	3,133	9,235
2019(2020년 임금)	3,530	9,202
2020(2021년 임금)	3,520	9,346

표 II-75-1 2020년 적정 최저 임금

(단위: 명, 원)

구분		사례수	2021년 적정 최저 임금 평균
전체		3,520	9,346
성별	남자	1,855	9,348
	여자	1,665	9,344
연령	만 18~19세	477	9,284
	만 20~24세	1,095	9,316
	만 25~29세	1,050	9,372
	만 30~34세	898	9,369
지역	서울	676	9,273
	인천/경기	824	9,465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9,417
	광주/전라/제주	468	9,380
	부산/울산/경남	555	9,098
	대구/경북	448	9,335
학력	고졸이하	1,098	9,361
	대학/대학원 재학	898	9,283
	대졸이상	1,524	9,368
주거형태	동거	2,194	9,342
	비동거/독립	1,326	9,353

76) 한 달 생활비 정도 및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 청년들의 한 달 생활비는 평균 810,293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19년(791,416원) 대비 약 1만 8천 원 상승한 금액이고, 한 달 생활비 중에서 부모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은 2019년(27.7%) 대비 0.6%p 상승한 28.3%로 조사됨

○ 성별로 보면 남자(824,106원)가 여자(794,727원)보다 높고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도 남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비 금액은 높아지고, 지원받는 비율은 낮아짐

○ 주거형태별로 비동거/독립의 경우 평균 990,665원을 지출하고, 동거의 경우 708,256원을 지출해 비동거/독립이 약 30만 원의 생활비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76 한 달 생활비 정도 및 한 달 생활비 중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연도별 추이

(단위: 명, 원, %)

연도	사례수	한 달 생활비 평균(원)	한 달 생활비 지원 비율(%)
2017	2,714	747,148	26.3
2018	3,133	637,873	31.2
2019	3,530	791,416	27.7
2020	3,520	810,293	28.3

* 주: 학생은 한 달에 지출하는 용돈으로 응답

표 II-76-1 한 달 생활비 정도 및 한 달 생활비 중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수	한 달 생활비 평균 (원)	한 달 생활비 지원 비율 (%)
전체		3,520	810,293	28.3
성별	남자	1,855	824,106	29.3
	여자	1,665	794,727	27.2
연령	만 18~19세	477	493,098	79.2
	만 20~24세	1,095	690,092	45.3
	만 25~29세	1,050	854,361	17.8
	만 30~34세	898	988,710	5.7
지역	서울	676	858,379	26.4
	인천/경기	824	844,438	25.2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761,808	27.4
	광주/전라/제주	468	642,523	34.2
	부산/울산/경남	555	822,360	29.3
	대구/경북	448	817,027	37.3
학력	고졸이하	1,098	853,464	22.2
	대학/대학원 재학	898	615,703	67.3
	대졸이상	1,524	878,752	13.0
주거형태	동거	2,194	708,256	38.2
	비동거/독립	1,326	990,665	10.8

* 주: 학생은 한 달에 지출하는 용돈으로 응답

77) 갚아야 할 채무 여부

○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는 비율은 18.3%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채무 보유 비율 또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 거주자의 경우 23.4%의 채무 보유 비율을 보여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24.4%)의 채무 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보면 비동거/독립(29.7%)이 동거(11.8%)보다 채무 보유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표 II-77 갚아야 할 채무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있다	없다
2016	2,192	20.2	79.8
2017	2,321	27.1	72.9
2018	2,641	25.1	74.9
2019	2,948	27.5	72.5
2020	3,520	18.3	81.7

* 주 1) 2016~2019년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020년 전체 응답
2) 학자금 대출 포함
3) 2016년 응답결과에는 '모름/무응답'이 0.1% 있었음 (본 표에 미제시함)

표 Ⅱ-77-1 갚아야 할 채무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3,520	18.3	81.7
성별	남자	1,855	19.0	81.0
	여자	1,665	17.4	82.6
연령	만 18~19세	477	2.6	97.4
	만 20~24세	1,095	11.0	89.0
	만 25~29세	1,050	20.0	80.0
	만 30~34세	898	28.9	71.1
지역	서울	676	19.4	80.6
	인천/경기	824	23.4	76.6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15.3	84.7
	광주/전라/제주	468	14.6	85.4
	부산/울산/경남	555	15.7	84.3
	대구/경북	448	9.7	90.3
학력	고졸이하	1,098	14.8	85.2
	대학/대학원 재학	898	10.3	89.7
	대졸이상	1,524	24.4	75.6
주거형태	동거	2,194	11.8	88.2
	비동거/독립	1,326	29.7	70.3

* 주: 학자금 대출 포함

78) 채무 발생 이유

○ 채무 발생 이유는 ‘주거비 마련’이 42.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자금 마련’(34.1%), ‘생활비 마련’(12.0%), ‘창업 자금 마련’(7.5%)의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대비 ‘주거비 마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하락하였으나 ‘학자금 마련’, ‘생활비 마련’, ‘창업 자금 마련’의 응답 비율은 상승함

○ 연령별로는 만18~19세의 95.7%가 ‘학자금 마련’ 사유로 채무가 발생한 반면 만30~34세의 경우에는 68.0%가 ‘주거비 마련’을 위해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 상이한 차이가 발견됨

○ 학력별로 보면 대학/대학원 재학은 채무 발생의 원인으로 ‘학자금 마련’(77.8%)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졸이하는 ‘주거비 마련’(53.8%)의 사유가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78 채무 발생 이유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학자금 마련	주거비 마련	생활비 마련	창업 자금 마련	기타
2019	738	21.2	59.6	9.6	6.5	3.1
2020	560	34.1	42.9	12.0	7.5	3.4

* 주 1) 2019년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채무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

표 Ⅱ-78-1 채무 발생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자금 마련	주거비 마련	생활비 마련	창업 자금 마련	기타
전체		560	34.1	42.9	12.0	7.5	3.4
성별	남자	303	35.1	39.7	11.6	8.7	4.9
	여자	257	32.9	46.9	12.4	6.1	1.7
연령	만 18~19세	12	95.7	0.0	4.3	0.0	0.0
	만 20~24세	111	67.2	8.4	12.7	4.3	7.4
	만 25~29세	199	45.8	29.0	16.5	6.2	2.5
	만 30~34세	238	10.6	68.0	8.6	10.1	2.7
지역	서울	113	41.9	39.2	8.9	7.8	2.2
	인천/경기	186	37.1	44.7	11.3	4.3	2.6
	대전/충청/세종/강원	78	21.5	42.1	21.4	4.4	10.6
	광주/전라/제주	60	26.9	39.9	11.1	17.9	4.3
	부산/울산/경남	81	23.3	53.8	13.3	8.8	0.9
	대구/경북	42	41.4	24.8	8.4	21.0	4.4
학력	고졸이하	138	13.8	53.8	15.6	10.3	6.4
	대학/대학원 재학	82	77.8	5.9	14.0	2.3	0.0
	대졸이상	340	32.8	46.4	10.2	7.6	3.0
주거형태	동거	210	68.8	5.2	14.7	7.7	3.6
	비동거/독립	350	9.7	69.4	10.1	7.4	3.3

* 주: 채무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

79) 채무 발생 기관

○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 발생 기관을 물어본 결과 '은행'이 8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19년 대비 '은행'과 '제2금융권', '대부업체' 응답 비율이 모두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9.3%)가 여자(7.1%)보다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은 '제2금융권'(14.8%), '대부업체'(7.1%)의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보면 대졸이상은 '은행'(86.9%), 고졸이하는 '제2금융권'(16.7%)에서 돈을 빌린다는 응답이 다른 학력 대비 높음

표 Ⅱ-79 채무 발생 기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은행	제2금융권	대부업체	기타
2019	738	87.1	8.7	2.5	6.4
2020	560	83.4	8.3	1.7	9.9

* 주 1) 2019년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채무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

표 Ⅱ-79-1 채무 발생 기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은행	제2금융권	대부업체	기타
전체		560	83.4	8.3	1.7	9.9
성별	남자	303	83.4	9.3	0.9	9.6
	여자	257	83.4	7.1	2.8	10.4
연령	만 18~19세	12	84.4	0.0	0.0	15.6
	만 20~24세	111	68.8	9.0	0.7	22.7
	만 25~29세	199	76.7	9.7	2.6	14.8
	만 30~34세	238	94.0	7.3	1.5	1.2
지역	서울	113	88.1	3.0	0.5	8.9
	인천/경기	186	82.7	9.7	1.3	11.4
	대전/충청/세종/강원	78	77.7	14.8	7.1	4.2
	광주/전라/제주	60	81.2	9.9	1.9	9.7
	부산/울산/경남	81	87.1	7.1	0.7	9.0
	대구/경북	42	74.8	5.9	0.0	19.2
학력	고졸이하	138	80.4	16.7	2.6	3.8
	대학/대학원 재학	82	72.0	5.0	0.9	25.5
	대졸이상	340	86.9	5.8	1.6	9.1
주거형태	동거	210	75.6	5.5	1.2	18.8
	비동거/독립	350	88.9	10.3	2.1	3.7

* 주: 채무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

80)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지난 1년간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1.6%로 2019년 1.7% 대비 소폭(0.1%p) 하락하였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높아짐

○ 주거형태를 보면 동거(0.7%)보다 비동거/독립(3.2%)인 경우에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Ⅱ-80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잘 모름
2017	2,714	2.7	86.8	10.5
2018	3,133	0.8	82.9	16.3
2019	3,530	1.7	92.4	5.8
2020	3,520	1.6	93.1	5.3

표 II-80-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잘 모름
전체		3,520	1.6	93.1	5.3
성별	남자	1,855	1.9	93.4	4.7
	여자	1,665	1.3	92.8	5.9
연령	만18~19세	477	0.4	86.6	13.0
	만20~24세	1,095	0.7	92.1	7.2
	만25~29세	1,050	2.2	93.3	4.5
	만30~34세	898	2.3	96.0	1.7
지역	서울	676	0.1	95.2	4.7
	인천/경기	824	2.5	90.7	6.7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1.7	92.3	6.0
	광주/전라/제주	468	2.2	90.6	7.2
	부산/울산/경남	555	2.1	94.2	3.7
	대구/경북	448	0.3	99.1	0.6
학력	고졸이하	1,098	2.3	91.7	6.0
	대학/대학원 재학	898	0.6	91.7	7.7
	대졸이상	1,524	1.7	94.7	3.6
주거형태	동거	2,194	0.7	91.6	7.7
	비동거/독립	1,326	3.2	95.7	1.1

8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 지난 1년간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0.4%로 2019년 0.7% 대비 소폭(0.3%p) 하락하였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1.3%로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Ⅱ-8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잘 모름
2017	2,714	0.8	90.2	8.9
2018	3,133	0.6	85.1	14.4
2019	3,530	0.7	94.5	4.7
2020	3,520	0.4	95.1	4.5

표 Ⅱ-81-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잘 모름
전체		3,520	0.4	95.1	4.5
성별	남자	1,855	0.5	95.3	4.2
	여자	1,665	0.3	94.8	4.8
연령	만 18~19세	477	0.2	89.1	10.7
	만 20~24세	1,095	0.5	93.4	6.1
	만 25~29세	1,050	0.7	94.9	4.5
	만 30~34세	898	0.1	99.1	0.8
지역	서울	676	0.2	95.7	4.0
	인천/경기	824	0.4	94.0	5.5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1.3	93.3	5.4
	광주/전라/제주	468	0.0	93.4	6.6
	부산/울산/경남	555	0.1	97.1	2.7
	대구/경북	448	0.2	99.0	0.9
학력	고졸이하	1,098	0.6	94.6	4.8
	대학/대학원 재학	898	0.6	92.9	6.5
	대졸이상	1,524	0.2	96.5	3.3
주거형태	동거	2,194	0.3	93.0	6.7
	비동거/독립	1,326	0.7	98.8	0.5

82)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지난 1년간 돈이 없어서 집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3.8%로 2019년 4.2% 대비 0.4%p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여자(4.6%)가 남자(3.0%)에 비해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높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4.8%)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응답을 보임

표 Ⅱ-82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7	2,714	7.9	92.1
2018	3,133	10.3	89.7
2019	3,530	4.2	95.8
2020	3,520	3.8	96.2

표 II-82-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520	3.8	96.2
성별	남자	1,855	3.0	97.0
	여자	1,665	4.6	95.4
연령	만18~19세	477	2.2	97.8
	만20~24세	1,095	4.7	95.3
	만25~29세	1,050	4.5	95.5
	만30~34세	898	2.6	97.4
지역	서울	676	3.0	97.0
	인천/경기	824	4.0	96.0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4.1	95.9
	광주/전라/제주	468	3.8	96.2
	부산/울산/경남	555	4.8	95.2
	대구/경북	448	2.4	97.6
학력	고졸이하	1,098	3.5	96.5
	대학/대학원 재학	898	4.3	95.7
	대졸이상	1,524	3.6	96.4
주거형태	동거	2,194	3.5	96.5
	비동거/독립	1,326	4.3	95.7

83)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 지난 1년간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1.3%로 2019년 1.7% 대비 0.4%p 하락하였음

○ 연령별로는 만25~29세의 1.8%가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2.7%)이 타 지역 대비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표 II-83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7	2,714	2.2	97.8
2018	3,133	1.1	98.9
2019	3,530	1.7	98.3
2020	3,520	1.3	98.7

표 Ⅱ-83-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520	1.3	98.7
성별	남자	1,855	1.3	98.7
	여자	1,665	1.4	98.6
연령	만 18~19세	477	0.8	99.2
	만 20~24세	1,095	1.2	98.8
	만 25~29세	1,050	1.8	98.2
	만 30~34세	898	1.1	98.9
지역	서울	676	0.8	99.2
	인천/경기	824	1.4	98.6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2.7	97.3
	광주/전라/제주	468	0.7	99.3
	부산/울산/경남	555	1.8	98.2
	대구/경북	448	0.2	99.8
학력	고졸이하	1,098	1.5	98.5
	대학/대학원 재학	898	1.4	98.6
	대졸이상	1,524	1.2	98.8
주거형태	동거	2,194	1.0	99.0
	비동거/독립	1,326	2.0	98.0

84)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는 비율은 7.7%로 나타나 2019년(9.4%) 대비 1.7%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여자(8.4%)가 남자(7.1%)보다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는 응답이 높음

○ 연령별로 20대의 응답이 높은편임

○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의 응답이 9.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에 대구/경북 지역은 3.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Ⅱ-84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7	2,714	13.9	86.1
2018	3,133	18.7	81.3
2019	3,530	9.4	90.6
2020	3,520	7.7	92.3

표 Ⅱ-84-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520	7.7	92.3
성별	남자	1,855	7.1	92.9
	여자	1,665	8.4	91.6
연령	만 18~19세	477	7.2	92.8
	만 20~24세	1,095	8.1	91.9
	만 25~29세	1,050	8.5	91.5
	만 30~34세	898	6.6	93.4
지역	서울	676	5.7	94.3
	인천/경기	824	8.9	91.1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9.9	90.1
	광주/전라/제주	468	8.9	91.1
	부산/울산/경남	555	7.9	92.1
	대구/경북	448	3.1	96.9
학력	고졸이하	1,098	7.6	92.4
	대학/대학원 재학	898	7.8	92.2
	대졸이상	1,524	7.7	92.3
주거형태	동거	2,194	7.6	92.4
	비동거/독립	1,326	7.9	92.1

85)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2.2%로 2019년 1.9% 대비 0.3%p 상승하였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TV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3.6%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보면 대학/대학원 재학(3.7%)의 TV 비보유율이 타 학력에 비해 높음

○ 주거형태별로는 비동거/독립(3.6%)이 동거(1.4%)인 경우보다 높은 비보유율을 보임

표 Ⅱ-85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7	2,714	2.7	97.3
2018	3,133	0.5	99.5
2019	3,530	1.9	98.1
2020	3,520	2.2	97.8

표 Ⅱ-85-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520	2.2	97.8
성별	남자	1,855	2.1	97.9
	여자	1,665	2.2	97.8
연령	만 18~19세	477	1.3	98.7
	만 20~24세	1,095	2.4	97.6
	만 25~29세	1,050	2.8	97.2
	만 30~34세	898	1.7	98.3
지역	서울	676	2.3	97.7
	인천/경기	824	2.5	97.5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2.1	97.9
	광주/전라/제주	468	3.6	96.4
	부산/울산/경남	555	1.1	98.9
	대구/경북	448	1.3	98.7
학력	고졸이하	1,098	1.1	98.9
	대학/대학원 재학	898	3.7	96.3
	대졸이상	1,524	2.1	97.9
주거형태	동거	2,194	1.4	98.6
	비동거/독립	1,326	3.6	96.4

86)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비율은 1.1%로 2019년 대비 0.2%p 상승하였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성별로 보면 남자(1.3%)가 여자(0.8%)보다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학력별로 대학/대학원 재학(1.7%)의 냉장고 비보유율이 타 학력에 비해 높음

○ 주거형태별로 비동거/독립(1.6%)이 동거(0.8%)인 경우보다 약 2배가량 높은 비보유율을 보임

표 Ⅱ-86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7	2,714	0.7	99.3
2018	3,133	0.3	99.7
2019	3,530	0.9	99.1
2020	3,520	1.1	98.9

표 Ⅱ-86-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520	1.1	98.9
성별	남자	1,855	1.3	98.7
	여자	1,665	0.8	99.2
연령	만18~19세	477	0.9	99.1
	만20~24세	1,095	1.1	98.9
	만25~29세	1,050	1.5	98.5
	만30~34세	898	0.7	99.3
지역	서울	676	1.3	98.7
	인천/경기	824	1.1	98.9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1.1	98.9
	광주/전라/제주	468	1.0	99.0
	부산/울산/경남	555	0.8	99.2
	대구/경북	448	0.6	99.4
학력	고졸이하	1,098	0.8	99.2
	대학/대학원 재학	898	1.7	98.3
	대졸이상	1,524	0.9	99.1
주거형태	동거	2,194	0.8	99.2
	비동거/독립	1,326	1.6	98.4

87)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비율은 28.5%로 나타나 2019년(20.2%) 대비 8.3%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여자의 자동차 비보유율이 29.7%로 남자(27.4%) 대비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동차 비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이 38.7%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보유율 응답이 높음

○ 주거형태별로 동거의 경우 31.0%로 비동거/독립(24.0%)에 비해 비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87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7	2,714	24.6	75.4
2018	3,133	22.4	77.6
2019	3,530	20.2	79.8
2020	3,520	28.5	71.5

표 Ⅱ-87-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520	28.5	71.5
성별	남자	1,855	27.4	72.6
	여자	1,665	29.7	70.3
연령	만18~19세	477	35.9	64.1
	만20~24세	1,095	36.3	63.7
	만25~29세	1,050	29.7	70.3
	만30~34세	898	16.8	83.2
지역	서울	676	29.9	70.1
	인천/경기	824	26.1	73.9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38.7	61.3
	광주/전라/제주	468	19.6	80.4
	부산/울산/경남	555	27.8	72.2
	대구/경북	448	28.3	71.7
학력	고졸이하	1,098	28.3	71.7
	대학/대학원 재학	898	35.5	64.5
	대졸이상	1,524	25.1	74.9
주거형태	동거	2,194	31.0	69.0
	비동거/독립	1,326	24.0	76.0

88)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비율은 0.3%로 나타나 2017년 이후 큰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99%이상의 휴대폰 보유율을 보이고 있음

표 Ⅱ-88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7	2,714	0.3	99.7
2018	3,133	0.4	99.6
2019	3,530	0.4	99.6
2020	3,520	0.3	99.7

표 Ⅱ-88-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520	0.3	99.7
성별	남자	1,855	0.2	99.8
	여자	1,665	0.5	99.5
연령	만 18~19세	477	0.0	100.0
	만 20~24세	1,095	0.4	99.6
	만 25~29세	1,050	0.3	99.7
	만 30~34세	898	0.4	99.6
지역	서울	676	0.4	99.6
	인천/경기	824	0.3	99.7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0.9	99.1
	광주/전라/제주	468	0.0	100.0
	부산/울산/경남	555	0.0	100.0
	대구/경북	448	0.2	99.8
학력	고졸이하	1,098	0.3	99.7
	대학/대학원 재학	898	0.6	99.4
	대졸이상	1,524	0.2	99.8
주거형태	동거	2,194	0.2	99.8
	비동거/독립	1,326	0.5	99.5

89)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 우리 사회 전체, 기성세대, 정부 및 지자체가 졸업자에게 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먼저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13.9%(그렇다 13.2%+매우 그렇다 0.7%)로 '그렇지 않다' 46.1%(전혀 그렇지 않다 7.0%+그렇지 않다 39.1%)에 비해 낮게 나타남

○ 2019년 대비 '그렇다'는 응답은 0.6%p 상승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4%p 하락하였음

○ 연령별로 만18~19세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15.4%(그렇다 14.8%+매우 그렇다 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Ⅱ-89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9	3,530	6.3	41.2	39.2	12.6	0.7
2020	3,520	7.0	39.1	40.0	13.2	0.7

표 Ⅱ-89-1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520	7.0	39.1	40.0	13.2	0.7
성별	남자	1,855	7.2	38.8	38.8	14.3	0.8
	여자	1,665	6.7	39.4	41.3	12.0	0.6
연령	만 18~19세	477	6.8	37.0	40.8	14.8	0.6
	만 20~24세	1,095	6.2	40.8	38.4	13.8	0.8
	만 25~29세	1,050	7.2	38.2	41.5	12.5	0.7
	만 30~34세	898	7.7	39.1	39.6	12.9	0.7
지역	서울	676	7.2	44.4	33.5	13.7	1.1
	인천/경기	824	6.8	39.8	40.0	12.0	1.3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7.0	38.9	40.9	12.8	0.4
	광주/전라/제주	468	5.1	33.9	45.2	15.9	0.0
	부산/울산/경남	555	5.4	35.9	43.6	15.0	0.1
	대구/경북	448	11.6	34.9	42.2	11.2	0.0
학력	고졸이하	1,098	7.3	37.9	41.7	12.5	0.6
	대학/대학원 재학	898	6.8	41.1	37.8	13.8	0.5
	대졸이상	1,524	6.9	38.8	40.0	13.4	1.0
주거형태	동거	2,194	6.8	38.4	40.5	13.3	1.0
	비동거/독립	1,326	7.3	40.4	39.0	13.1	0.2

90)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2) 우리사회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 ‘우리사회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34.2%(그렇다 31.1%+매우 그렇다 3.1%)로 ‘그렇지 않다’ 18.0%(전혀 그렇지 않다 2.6%+그렇지 않다 15.4%)에 비해 높게 나타나 고졸자에 대한 대우와는 달리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38.5%(그렇다 37.0%+매우 그렇다 1.5%)로 다른 지역 대비 높음

○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짐

표 Ⅱ-90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2) 우리사회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9	3,530	1.7	17.7	48.9	29.4	2.3
2020	3,520	2.6	15.4	47.7	31.1	3.1

표 Ⅱ-90-1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2) 우리사회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520	2.6	15.4	47.7	31.1	3.1
성별	남자	1,855	3.0	14.6	48.1	31.0	3.2
	여자	1,665	2.2	16.4	47.3	31.2	3.0
연령	만 18~19세	477	1.5	14.0	47.9	32.8	3.8
	만 20~24세	1,095	2.7	16.1	46.1	32.2	2.9
	만 25~29세	1,050	3.1	15.0	47.6	31.7	2.6
	만 30~34세	898	2.3	15.8	49.5	28.8	3.6
지역	서울	676	1.7	12.6	47.2	37.0	1.5
	인천/경기	824	2.6	14.4	49.1	30.4	3.5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2.8	19.7	49.8	25.0	2.8
	광주/전라/제주	468	2.1	18.1	48.6	24.8	6.5
	부산/울산/경남	555	2.7	16.4	45.8	32.6	2.4
	대구/경북	448	5.1	15.0	42.9	33.9	3.1
학력	고졸이하	1,098	2.7	14.3	47.2	31.1	4.6
	대학/대학원 재학	898	2.7	16.1	47.1	31.7	2.5
	대졸이상	1,524	2.5	15.9	48.4	30.8	2.4
주거형태	동거	2,194	2.4	15.4	46.9	32.3	3.1
	비동거/독립	1,326	3.0	15.6	49.2	29.0	3.2

91)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3)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 ‘기성세대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14.7%(그렇다 13.8%+매우 그렇다 0.9%)로 ‘그렇지 않다’ 40.9%(전혀 그렇지 않다 6.3%+그렇지 않다 34.6%)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만18~19세에서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18.1%(그렇다 16.6%+매우 그렇다 1.5%)로 타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서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17.7%(그렇다 16.8%+매우 그렇다 0.9%)로 타 지역 대비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91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3)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9	3,530	5.7	38.3	41.5	14.0	0.5
2020	3,520	6.3	34.6	44.3	13.8	0.9

표 Ⅱ-91-1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3)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520	6.3	34.6	44.3	13.8	0.9
성별	남자	1,855	6.2	33.8	45.2	14.0	0.8
	여자	1,665	6.5	35.5	43.4	13.7	0.9
연령	만 18~19세	477	4.0	29.0	48.8	16.6	1.5
	만 20~24세	1,095	5.5	35.2	44.0	14.3	1.1
	만 25~29세	1,050	7.7	35.1	44.3	12.5	0.4
	만 30~34세	898	6.5	35.5	43.2	13.9	0.9
지역	서울	676	4.8	39.2	40.1	14.9	1.1
	인천/경기	824	7.1	33.0	46.2	12.9	0.8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7.6	36.2	44.6	10.9	0.7
	광주/전라/제주	468	5.8	33.6	43.0	16.8	0.9
	부산/울산/경남	555	5.2	31.3	48.4	14.8	0.3
	대구/경북	448	7.8	33.5	42.4	14.7	1.6
학력	고졸이하	1,098	5.3	32.9	48.2	12.5	1.1
	대학/대학원 재학	898	5.8	37.1	42.7	13.5	0.9
	대졸이상	1,524	7.3	34.6	42.7	14.8	0.7
주거형태	동거	2,194	6.0	34.1	44.5	14.3	1.1
	비동거/독립	1,326	6.9	35.5	44.0	13.0	0.5

92)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4) 기성세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 ‘기성세대가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24.8%(그렇다 23.0%+매우 그렇다 1.8%)로 ‘그렇지 않다’ 27.3%(전혀 그렇지 않다 4.8%+그렇지 않다 22.5%)에 비해 낮게 나타나 기성세대의 고졸자, 대졸자 배려 모두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 만18~19세에서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30.9%(그렇다 28.7%+매우 그렇다 2.2%)로 타 연령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표 II-92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4) 기성세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9	3,530	3.8	30.0	45.9	19.4	0.8
2020	3,520	4.8	22.5	47.8	23.0	1.8

표 II-92-1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4) 기성세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520	4.8	22.5	47.8	23.0	1.8
성별	남자	1,855	4.6	21.5	48.9	23.2	1.8
	여자	1,665	5.1	23.7	46.6	22.9	1.7
연령	만 18~19세	477	2.7	18.9	47.5	28.7	2.2
	만 20~24세	1,095	3.9	22.5	48.6	23.1	1.9
	만 25~29세	1,050	6.0	23.3	47.3	22.3	1.1
	만 30~34세	898	5.2	23.0	47.7	21.9	2.2
지역	서울	676	3.7	19.9	47.6	27.9	0.9
	인천/경기	824	5.5	20.9	47.8	24.0	1.9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6.3	28.3	49.1	15.8	0.6
	광주/전라/제주	468	4.4	26.0	44.6	19.2	5.8
	부산/울산/경남	555	4.4	23.2	50.6	20.9	0.8
	대구/경북	448	4.5	20.9	45.5	26.9	2.2
학력	고졸이하	1,098	3.7	21.7	48.6	23.5	2.4
	대학/대학원 재학	898	3.9	22.4	48.7	23.4	1.6
	대졸이상	1,524	6.1	23.1	46.9	22.6	1.4
주거형태	동거	2,194	4.5	22.2	47.9	23.6	1.9
	비동거/독립	1,326	5.6	23.1	47.7	22.1	1.5

93)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5)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16.4%(그렇다 15.5%+매우 그렇다 0.9%)로 ‘그렇지 않다’ 38.5%(전혀 그렇지 않다 5.9%+그렇지 않다 32.6%)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만18~19세에서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19.9%(그렇다 19.1%+매우 그렇다 0.8%)로 타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다른 지역 대비 높음

○ 학력별로 학력이 높을수록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93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5)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9	3,530	5.1	34.8	44.9	14.5	0.7
2020	3,520	5.9	32.6	45.0	15.5	0.9

표 Ⅱ-93-1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5)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520	5.9	32.6	45.0	15.5	0.9
성별	남자	1,855	6.3	31.0	45.9	16.0	0.8
	여자	1,665	5.5	34.4	44.0	15.0	1.1
연령	만 18~19세	477	4.2	31.6	44.3	19.1	0.8
	만 20~24세	1,095	4.7	32.4	46.6	15.3	1.1
	만 25~29세	1,050	7.4	34.6	43.5	14.0	0.5
	만 30~34세	898	6.3	31.0	45.3	16.2	1.3
지역	서울	676	5.3	35.0	40.8	18.0	0.8
	인천/경기	824	7.2	33.0	44.5	14.2	1.1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5.3	35.5	45.8	12.2	1.1
	광주/전라/제주	468	5.1	32.9	41.6	19.4	1.0
	부산/울산/경남	555	4.1	26.5	55.9	13.5	0.1
	대구/경북	448	7.9	30.3	42.5	18.2	1.1
학력	고졸이하	1,098	5.4	34.2	44.8	14.8	0.8
	대학/대학원 재학	898	4.8	34.1	44.7	15.3	1.1
	대졸이상	1,524	6.9	30.9	45.3	16.1	0.9
주거형태	동거	2,194	5.7	32.5	45.0	15.7	1.1
	비동거/독립	1,326	6.4	32.8	45.0	15.1	0.6

94)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6)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24.8%(그렇다 23.2%+매우 그렇다 1.6%)로 ‘그렇지 않다’ 27.8%(전혀 그렇지 않다 4.2%+그렇지 않다 23.6%)에 비해 낮게 나타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고졸자, 대졸자 지원 모두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 보면 만18~19세의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29.3%(그렇다 27.6%+매우 그렇다 1.7%)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서울 지역의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94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6)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9	3,530	3.5	28.4	49.2	18.1	0.7
2020	3,520	4.2	23.6	47.4	23.2	1.6

표 Ⅱ-94-1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6)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520	4.2	23.6	47.4	23.2	1.6
성별	남자	1,855	4.5	22.7	48.1	23.2	1.5
	여자	1,665	3.8	24.6	46.7	23.2	1.7
연령	만 18~19세	477	2.7	17.0	51.0	27.6	1.7
	만 20~24세	1,095	3.5	23.8	49.1	22.1	1.5
	만 25~29세	1,050	4.7	26.0	45.7	22.6	1.1
	만 30~34세	898	4.9	22.9	46.5	23.7	2.1
지역	서울	676	2.7	22.2	43.5	30.5	1.1
	인천/경기	824	5.0	22.9	46.9	23.5	1.8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5.5	24.3	53.7	15.7	0.9
	광주/전라/제주	468	3.6	23.5	45.4	22.2	5.3
	부산/울산/경남	555	3.7	24.6	52.0	19.7	0.0
	대구/경북	448	4.4	26.6	44.5	23.6	0.9
학력	고졸이하	1,098	3.4	21.3	50.8	22.3	2.3
	대학/대학원 재학	898	3.6	24.7	47.6	22.5	1.6
	대졸이상	1,524	5.0	24.4	45.3	24.2	1.1
주거형태	동거	2,194	4.0	23.4	47.5	23.6	1.6
	비동거/독립	1,326	4.7	23.9	47.4	22.6	1.5

95) 중소기업 취업 의향

○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63.9%로 2019년 62.4% 대비 소폭(1.5%p) 상승함

○ 연령이 낮을수록 중소기업 취업의향 비율이 높음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69.0%), 부산/울산/경남(68.8%) 지역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 비율이 높은 편임

○ 학력별로 보면 고졸이하(70.4%)에서 중소기업 취업의향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95 중소기업 취업 의향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6	2,534	68.9	31.1
2017	2,714	59.4	40.6
2018	3,133	63.9	36.1
2019	3,530	62.4	37.6
2020	3,520	63.9	36.1

표 Ⅱ-95-1 중소기업 취업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520	63.9	36.1
성별	남자	1,855	62.4	37.6
	여자	1,665	65.6	34.4
연령	만18~19세	477	68.4	31.6
	만20~24세	1,095	68.3	31.7
	만25~29세	1,050	62.7	37.3
	만30~34세	898	59.3	40.7
지역	서울	676	58.6	41.4
	인천/경기	824	69.0	31.0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61.2	38.8
	광주/전라/제주	468	61.1	38.9
	부산/울산/경남	555	68.8	31.2
	대구/경북	448	58.2	41.8
학력	고졸이하	1,098	70.4	29.6
	대학/대학원 재학	898	62.7	37.3
	대졸이상	1,524	60.4	39.6
주거형태	동거	2,194	65.4	34.6
	비동거/독립	1,326	61.4	38.6

96)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없는 청년에게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고용 불안정'이 22.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낮은 급여 수준'(19.4%),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 수준'(19.0%),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없음'(15.1%) 등의 순이었음

○ 2019년 결과와 비교해보면 1순위 '고용 불안정', 2순위 '낮은 급여 수준'은 순위가 동일하며,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 수준' 응답이 7.2%p 상승함

○ 연령별로 보면 만18~19세는 '낮은 급여 수준' 때문이라는 응답이 21.8%로 높은 반면에 만20~24세, 만25~29세, 만 30-34세는 '고용 불안정'(20.4%, 24.4%, 22.9%)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서울 지역에서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 수준' 때문이라는 응답이 24.7%로 다른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표 II-96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이 부재	고용 불안정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낮은 급여 수준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없음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 수준	기타
2016	789	10.1	4.2	28.2	11.1	22.6	1.8	15.8	-	5.7
2017	1,114	11.5	8.0	20.6	8.4	19.8	2.8	13.3	13.9	1.7
2018	1,163	11.4	8.7	24.7	10.9	20.7	3.5	7.9	11.7	0.5
2019	1,362	8.3	6.6	28.5	6.8	22.1	1.3	12.1	11.8	2.6
2020	1,273	8.6	6.9	22.0	6.2	19.4	1.1	15.1	19.0	1.6

* 주 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응답
2) 보기문항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수준'은 2017년도부터 추가된 문항임
3) 2016년 응답결과에는 '모름/무응답'이 0.6% 있었음 (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96-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이 부재	고용 불안정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낮은 급여 수준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없음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 수준	기타
전체		1,273	8.6	6.9	22.0	6.2	19.4	1.1	15.1	19.0	1.6
성별	남자	686	7.8	4.9	22.2	6.6	22.8	0.9	15.8	18.0	1.1
	여자	587	9.6	9.4	21.8	5.8	15.3	1.3	14.3	20.3	2.3
연령	만18~19세	160	9.1	4.3	13.7	11.5	21.8	2.1	19.1	17.5	0.8
	만20~24세	357	9.0	10.4	20.4	4.5	19.5	0.4	18.4	15.7	1.6
	만25~29세	385	7.7	6.1	24.4	5.3	19.6	1.1	11.7	22.6	1.6
	만30~34세	371	9.0	5.7	22.9	7.2	18.6	1.3	14.9	18.4	2.0
지역	서울	276	9.9	6.7	13.0	8.5	20.7	1.2	14.7	24.7	0.7
	인천/경기	249	10.1	7.5	26.1	4.4	19.4	1.7	14.9	13.7	2.2
	대전/충청/세종/강원	198	6.3	5.1	28.3	6.9	13.6	0.0	17.7	20.3	1.8
	광주/전라/제주	181	6.6	7.0	25.2	5.3	23.3	1.6	10.0	19.8	1.2
	부산/울산/경남	183	8.7	9.7	23.8	4.6	19.1	0.9	16.8	15.1	1.2
	대구/경북	186	6.8	5.1	17.7	7.4	21.5	0.0	16.5	21.7	3.3
학력	고졸이하	324	6.5	9.2	20.3	8.3	20.8	1.4	18.2	13.5	1.9
	대학/대학원 재학	340	8.2	7.7	17.0	5.9	20.8	0.8	17.7	20.1	1.7
	대졸이상	609	9.8	5.5	25.0	5.4	18.2	1.0	12.5	21.1	1.4
주거형태	동거	755	8.3	6.1	20.3	6.9	20.5	0.5	17.0	18.9	1.4
	비동거/독립	518	9.0	8.1	24.6	5.2	17.7	1.9	12.2	19.3	1.9

* 주: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응답

97)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 창업을 해 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9.0%는 실제로 창업까지 경험하였으며, 실제 창업까지는 하지 않았으나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9%로 나타남

○ 2019년(창업 경험 12.2%, 창업 생각 25.3%)에 비해 창업 경험의 경우에는 3.2%p 하락하였으나 창업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0.6%p 상승하였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실제 창업을 했거나(남자 10.1%, 여자 7.7%)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남자 28.2%, 여자 23.3%)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실제 창업 경험이 만 30-34세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는 반면, 창업을 생각해 본 경험은 만 20-24세에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창업 경험이 12.6%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97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창업을 생각해 보았고 실제로 창업을 했다	창업을 생각해 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본 적은 없다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017	2,321	12.7	35.8	51.5
2018	2,641	5.7	22.7	71.6
2019	2,948	12.2	25.3	62.5
2020	3,520	9.0	25.9	65.2

* 주 1) 2017~2019년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020년 전체 응답
2) 2016년 이전에는 창업 고려 여부에 '예/아니오' 형태의 보기로 진행되어 직접적인 시계열 비교가 어려움

표 II-97-1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창업을 생각해 보았고 실제로 창업을 했다	창업을 생각해 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 본 적은 없다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전체		3,520	9.0	25.9	65.2
성별	남자	1,855	10.1	28.2	61.7
	여자	1,665	7.7	23.3	69.1
연령	만 18~19세	477	0.1	17.5	82.3
	만 20~24세	1,095	3.8	26.3	69.9
	만 25~29세	1,050	7.6	27.6	64.8
	만 30~34세	898	18.6	26.3	55.1
지역	서울	676	12.6	27.8	59.6
	인천/경기	824	7.9	30.8	61.2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7.2	23.9	69.0
	광주/전라/제주	468	8.9	19.3	71.8
	부산/울산/경남	555	7.8	23.0	69.2
	대구/경북	448	8.8	18.3	72.9
학력	고졸이하	1,098	11.7	24.8	63.5
	대학/대학원 재학	898	1.6	25.0	73.4
	대졸이상	1,524	10.9	27.0	62.2
주거형태	동거	2,194	5.2	25.2	69.6
	비동거/독립	1,326	15.6	27.0	57.4

98)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 개인, 교육 중심의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과 일자리, 경제 중심의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 중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노동 수요(일자리, 경제)' 분야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78.7%로 높았으며, 2019년 81.5% 대비 2.8%p 하락하였음

○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는 '노동 수요' 정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83.8%로 높은 반면, 인천/경기 지역은 '노동 공급' 정책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25.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Ⅱ-98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노동 공급(개인, 교육)	노동 수요(일자리, 경제)
2016	2,192	16.9	83.1
2017	2,321	17.8	82.2
2018	2,641	21.4	78.6
2019	2,948	18.5	81.5
2020	3,520	21.3	78.7

* 주: 2016~2019년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020년 전체 응답

표 II-98-1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노동 공급(개인, 교육)	노동 수요(일자리, 경제)
전체		3,520	21.3	78.7
성별	남자	1,855	21.1	78.9
	여자	1,665	21.4	78.6
연령	만18~19세	477	28.7	71.3
	만20~24세	1,095	22.4	77.6
	만25~29세	1,050	18.6	81.4
	만30~34세	898	20.6	79.4
지역	서울	676	21.3	78.7
	인천/경기	824	25.5	74.5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16.2	83.8
	광주/전라/제주	468	18.4	81.6
	부산/울산/경남	555	18.6	81.4
	대구/경북	448	21.5	78.5
학력	고졸이하	1,098	22.8	77.2
	대학/대학원 재학	898	23.1	76.9
	대졸이상	1,524	19.5	80.5
주거형태	동거	2,194	21.6	78.4
	비동거/독립	1,326	20.7	79.3

99)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노동공급, 즉 개인과 교육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을 물어본 결과 '청년들의 고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가 25.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청년들의 능력 향상과 핵심역량 수준 제고'(17.7%),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15.6%) 등의 순이었음

○ 2019년에 비해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3.3%p),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일과 학습 병행 제도 활성화'(-4.1%p) 응답이 하락함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Ⅱ-99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일과 학습 병행 제도 활성화	고학력화로 인한 대졸자 과다 배출 억제	청년들의 고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선호도 (청년 눈높이 제고)	청년들의 능력 향상과 핵심역량 수준 제고	미취업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수당, 배당, 급여 지급	기타
2016	2,192	17.9	12.8	15.5	24.6	12.8	14.5	1.7	0.1
2017	2,321	18.0	13.0	14.8	23.4	14.3	14.7	1.8	0.0
2018	2,641	18.8	14.0	14.4	25.8	14.0	11.6	1.4	0.1
2019	2,948	18.9	14.4	11.7	22.9	12.5	16.9	2.7	0.0
2020	3,520	15.6	10.3	10.8	25.5	14.7	17.7	5.3	0.0

* 주 1) 2016~2019년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020년 전체 응답
2) 2016년 응답결과에는 '모름/무응답'이 0.2% 있었음 (본 표에 미제시함)

표 Ⅱ-99-1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3,520	15.6	10.3	10.8	25.5	14.7	17.7	5.3
성별	남자	1,855	16.2	9.8	11.8	25.1	14.0	17.7	5.4
	여자	1,665	15.0	10.9	9.7	26.0	15.6	17.7	5.2
연령	만 18~19세	477	16.8	9.7	10.6	24.0	13.5	20.3	5.2
	만 20~24세	1,095	14.1	10.6	10.3	25.6	14.9	17.6	6.9
	만 25~29세	1,050	15.8	10.9	9.7	25.2	15.5	17.8	5.1
	만 30~34세	898	16.6	9.6	12.4	26.3	14.2	16.9	4.0
지역	서울	676	15.5	9.7	11.2	23.4	14.0	20.5	5.8
	인천/경기	824	15.9	9.8	10.9	27.1	14.5	16.2	5.7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14.6	12.4	10.5	23.8	16.0	18.5	4.2
	광주/전라/제주	468	14.0	9.8	8.3	27.3	16.6	17.8	6.1
	부산/울산/경남	555	19.5	8.7	11.7	26.8	13.7	15.7	3.8
	대구/경북	448	12.6	13.7	11.2	23.6	14.6	18.3	6.1
학력	고졸이하	1,098	14.5	7.9	12.4	25.7	13.1	17.5	8.9
	대학/대학원 재학	898	15.3	12.5	11.0	23.4	15.5	17.0	5.2
	대졸이상	1,524	16.5	10.7	9.6	26.4	15.4	18.3	3.0
주거형태	동거	2,194	15.7	9.6	10.3	26.3	14.9	17.9	5.4
	비동거/독립	1,326	15.6	11.7	11.6	24.1	14.5	17.5	5.1

* 주: 보기 ①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
②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일과 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③고학력화로 인한 대졸자 과다 배출 억제
④청년들의 고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
⑤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선호도(청년 눈높이 제고) ⑥청년들의 능력 향상과 핵심역량 수준 제고
⑦미취업 청소년 및 청년 대상 배당, 급여 지급

100)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에 대한 응답은 '경제 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가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9년(37.5%) 대비 6.3%p 하락한 수치임

○ 다음으로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21.0%), '공공부문 채용 확대'(1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공공부문 채용 확대'가 19.8%로 타 지역에 비해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보면 고졸이하는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26.0%) 응답이 높은 반면, 대학/대학원 재학의 경우에는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17.6%)의 응답이 타 학력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100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채용 확대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경제 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	임금 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해외 취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기타
2016	2,192	14.6	16.9	26.6	27.3	6.5	5.3	2.4	0.2
2017	2,321	14.5	14.7	18.5	32.1	11.6	5.2	3.0	0.3
2018	2,641	20.5	16.2	22.7	22.2	8.9	5.8	3.5	0.1
2019	2,948	12.0	12.7	19.6	37.5	6.9	6.0	5.2	0.1
2020	3,520	14.3	14.5	21.0	31.2	8.4	6.0	4.6	0.0

* 주 1) 2016~2019년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020년 전체 응답
2) 2016년 응답결과에는 '모름/무응답'이 0.2% 있었음 (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100-1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3,520	14.3	14.5	21.0	31.2	8.4	6.0	4.6
성별	남자	1,855	14.4	13.7	21.6	30.5	7.9	6.5	5.4
	여자	1,665	14.1	15.4	20.3	32.0	9.0	5.3	3.8
연령	만 18~19세	477	17.2	15.8	23.5	25.4	7.1	6.0	5.0
	만 20~24세	1,095	15.9	14.4	20.7	31.5	7.9	5.5	4.0
	만 25~29세	1,050	14.3	13.7	21.8	32.1	8.3	5.3	4.6
	만 30~34세	898	11.7	15.0	19.7	31.8	9.6	7.1	5.2
지역	서울	676	14.4	12.3	24.5	25.5	9.6	7.7	6.0
	인천/경기	824	14.4	14.9	20.9	32.0	9.2	4.4	4.2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11.9	14.3	18.5	31.8	8.9	8.6	6.0
	광주/전라/제주	468	14.3	19.8	18.9	33.2	6.3	4.5	2.9
	부산/울산/경남	555	17.2	11.4	20.9	34.2	6.2	5.9	4.2
	대구/경북	448	12.5	17.3	19.4	34.0	8.1	5.3	3.4
학력	고졸이하	1,098	12.6	13.3	26.0	29.3	9.1	5.2	4.5
	대학/대학원 재학	898	17.6	15.1	17.8	31.7	8.0	5.5	4.4
	대졸이상	1,524	13.7	15.0	19.5	32.1	8.2	6.7	4.8
주거형태	동거	2,194	15.1	14.9	22.3	30.0	8.0	5.7	4.1
	비동거/독립	1,326	12.8	13.8	18.7	33.4	9.3	6.4	5.6

* 주: 보기 ①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
②공공 부문 채용 확대
③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④경제 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
⑥임금 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⑦해외 취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101) 청년 중소기업 일자리 선호도 개선을 위한 우선적 개선사항

○ 청년들의 중소기업 일자리 선호도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항목을 물어본 결과 '임금수준 향상'이 28.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유급휴가,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등 복리후생 개선'(24.9%), '정규직 고용 확대'(22.6%)의 순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임금수준 향상' 응답이 31.3%로 높은 반면 여자는 '유급휴가,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등 복리후생 개선'이 27.5%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연령대별로 만18~19세에서 '임금수준 향상'이 30.7%로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31.2%)에서 '유급휴가,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등 복리후생 개선' 응답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

표 II-101-1 청년 중소기업 일자리 선호도 개선을 위한 우선적 개선사항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3,520	28.7	22.6	24.9	7.8	4.0	12.0
성별	남자	1,855	31.3	22.9	22.5	8.2	4.0	11.1
	여자	1,665	25.7	22.3	27.5	7.5	4.0	13.1
연령	만 18~19세	477	30.7	21.4	22.3	6.1	4.8	14.7
	만 20~24세	1,095	28.6	22.9	24.5	8.4	2.6	13.1
	만 25~29세	1,050	28.2	23.9	24.9	7.0	5.0	10.9
	만 30~34세	898	28.5	21.3	26.0	8.8	4.0	11.4
지역	서울	676	29.1	20.0	25.4	7.2	5.0	13.3
	인천/경기	824	28.7	24.5	22.6	8.6	3.7	11.9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32.1	24.7	19.9	7.9	3.4	12.0
	광주/전라/제주	468	32.3	21.5	29.5	5.8	3.1	7.9
	부산/울산/경남	555	25.5	25.0	27.0	9.6	1.9	11.0
	대구/경북	448	22.9	16.2	31.2	6.2	7.6	15.8
학력	고졸이하	1,098	29.9	22.6	21.3	8.8	3.8	13.6
	대학/대학원 재학	898	29.4	22.8	26.2	6.6	4.0	11.0
	대졸이상	1,524	27.5	22.5	26.5	7.9	4.1	11.6
주거형태	동거	2,194	29.2	22.4	24.3	7.5	4.2	12.5
	비동거/독립	1,326	27.6	23.0	25.9	8.5	3.7	11.3

* 주: 보기 ①임금수준 향상 ②정규직 고용 확대
③유급휴가,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등 복리후생 개선
④근로시간 준수 ⑤민주적 의사소통 문화 정립 ⑥자기개발 기회 제공

102)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 지난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는지 확인 결과 62.8%는 '일을 했다'고 응답하였고 1.2%는 '휴가 및 일시휴직'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합산한 경제활동 비율은 64.0%였음. 이는 2019년(68.9%: 66.7%+2.2%) 결과 대비 4.9%p 하락한 수치임

○ 일을 하였다는 응답 결과를 기준으로, 성별로 보면 남자(65.4%)가 여자(59.8%) 대비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일을 하였다는 비율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주거 형태별로 비동거/독립(71.5%)이 동거(57.9%)인 경우보다 일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Ⅱ-102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일을 하였음	휴가 및 일시휴직	일을 하지 않았음
2016	2,192	67.7	-	32.3
2017	2,321	71.1	1.8	27.1
2018	2,641	71.9	1.1	27.0
2019	2,948	66.7	2.2	31.1
2020	3,520	62.8	1.2	36.0

* 주 1) 2016~2019년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020년 전체 응답
2) 2016년 조사는 보기문항이 '예(일을 하였음) / 아니오(일을 하지 않았음)' 형태로 제시되었음

표 II-102-1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을 하였음	휴가 및 일시휴직	일을 하지 않았음
전체		3,520	62.8	1.2	36.0
성별	남자	1,855	65.4	0.8	33.8
	여자	1,665	59.8	1.8	38.4
연령	만 18~19세	477	18.3	0.2	81.6
	만 20~24세	1,095	49.9	1.0	49.1
	만 25~29세	1,050	74.1	0.9	25.0
	만 30~34세	898	78.2	2.3	19.6
지역	서울	676	64.1	2.2	33.7
	인천/경기	824	64.0	1.0	35.1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63.3	1.2	35.5
	광주/전라/제주	468	63.1	0.5	36.4
	부산/울산/경남	555	61.1	1.0	37.9
	대구/경북	448	57.1	1.0	41.9
학력	고졸이하	1,098	66.9	1.0	32.2
	대학/대학원 재학	898	28.4	0.5	71.1
	대졸이상	1,524	77.1	1.8	21.1
주거형태	동거	2,194	57.9	0.6	41.5
	비동거/독립	1,326	71.5	2.3	26.2

103)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 현재 일자리가 없는 청년의 83.9%는 지난 4주 내 직장을 구해보지 않은 비구직자로, 2019년(84.3%) 대비 0.4%p 하락한 결과임

○ 다음으로 '직장을 구해 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비율은 13.3%, '직장을 구해 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는 비율이 2.8%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의 구직 비율(17.8%)이 여자(14.3%)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만25~29세의 구직 비율(29.9%)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만18~19세는 직장을 구해보지 않은 비율(94.2%)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강원의 구직 비율이 20.0%로 다른 지역 대비 높음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 청년의 구직 비율(33.7%)이 타 학력 대비 높게 조사됨

표 II-103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직장을 구해 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직장을 구해 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
2017	654	10.7	3.6	85.7
2018	651	8.5	3.0	88.5
2019	943	12.6	3.0	84.3
2020	1,358	13.3	2.8	83.9

* 주: 2017~2019년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는 경우만 응답. 2020년 전체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는 경우 응답

표 Ⅱ-103-1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직장을 구해 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직장을 구해 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
전체		1,358	13.3	2.8	83.9
성별	남자	689	14.7	3.1	82.3
	여자	669	11.9	2.4	85.6
연령	만18~19세	381	5.2	0.5	94.2
	만20~24세	540	11.7	2.4	85.9
	만25~29세	258	26.4	3.5	70.1
	만30~34세	179	10.3	5.6	84.1
지역	서울	248	17.5	3.3	79.3
	인천/경기	295	12.3	4.5	83.2
	대전/충청/세종/강원	199	19.3	0.7	80.0
	광주/전라/제주	184	7.4	1.7	90.9
	부산/울산/경남	232	13.3	0.9	85.8
	대구/경북	200	6.3	2.8	91.0
학력	고졸이하	382	13.1	1.2	85.7
	대학/대학원 재학	645	4.6	1.8	93.6
	대졸이상	331	27.8	5.9	66.3
주거형태	동거	1,003	14.0	2.0	84.0
	비동거/독립	355	11.3	5.0	83.8

* 주: 일자리가 없는 경우만 응답

104) 지난 주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

○ 지난 주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취업 준비 중이어서'의 응답이 37.5%로 가장 높고, '학교(정규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24.9%), '육아나 돌봄, 출산, 가사 활동으로 인해'(24.4%)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연령별로는 만30~34세의 '육아나 돌봄, 출산, 가사 활동으로 인해'라는 응답이 47.9%로 상대적으로 높음

○ 주거형태별로 보면 동거는 '취업 준비 중이어서'(52.2%), 비동거/독립은 '육아나 돌봄, 출산, 가사 활동으로 인해'(51.5%)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04 지난 주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육아나 돌봄, 출산, 가사 활동으로 인해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학교(정규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 훈련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진학 준비 중이어서	취업 준비 중이어서	기타
2019	25	8.4	5.8	41.1	5.6	5.5	17.4	16.1
2020	28	24.4	6.6	24.9	4.0	2.6	37.5	0.0

* 주: 2019년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지난주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경우만 응답. 2020년 전체 응답자 중 지난주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경우 응답

표 II-104-1 지난 주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육아나 돌봄, 출산, 가사 활동으로 인해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학교(정규 교육 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 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진학 준비 중이어서	취업 준비 중이어서
전체		28	24.4	6.6	24.9	4.0	2.6	37.5
성별	남자	16	5.0	9.0	44.9	0.0	0.0	41.1
	여자	12	48.6	3.6	0.0	8.9	5.9	33.0
연령	만 18~19세	3	0.0	0.0	77.3	0.0	0.0	22.7
	만 20~24세	10	17.7	0.0	28.1	0.0	7.5	46.7
	만 25~29세	7	9.8	5.6	41.3	0.0	0.0	43.2
	만 30~34세	8	47.9	15.5	0.0	12.3	0.0	24.2
지역	서울	5	0.0	0.0	14.7	0.0	0.0	85.3
	인천/경기	11	39.2	5.8	33.3	7.7	5.2	8.8
	대전/충청/세종/강원	2	45.9	0.0	0.0	0.0	0.0	54.1
	광주/전라/제주	3	0.0	0.0	19.1	0.0	0.0	80.9
	부산/울산/경남	2	0.0	0.0	0.0	0.0	0.0	100.0
	대구/경북	5	26.5	34.1	30.3	0.0	0.0	9.1
학력	고졸이하	4	54.5	14.0	0.0	0.0	23.0	8.4
	대학/대학원 재학	9	0.0	0.0	84.1	0.0	0.0	15.9
	대졸이상	15	30.8	8.5	0.0	6.7	0.0	54.0
주거형태	동거	16	0.0	0.0	35.3	7.5	5.0	52.2
	비동거/독립	12	51.5	13.9	13.4	0.0	0.0	21.1

* 주: 지난주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경우만 응답

105) 지난 주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

○ 지난주 직장을 구해보지 않은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학교(정규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55.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육아나 돌봄, 가사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15.1%)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대비 '학교(정규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의 응답 비율은 22.2%p 상승하였으나 '육아나 돌봄, 가사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라는 응답은 26.7%p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의 응답이 63.5%로 여자(48.0%)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 연령이 낮을수록 '학교(정규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의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Ⅱ-105 지난 주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2020년 상위5위)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학교(정규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준비 중이어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취업을 위한 학원, 직업훈련 기관 통학 중이어서
2019	802	33.4	41.8	4.0	2.0	2.5
2020	1,171	55.6	15.1	6.2	4.8	3.8

* 주 1) 2019년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지난주 직장을 구해보지 않은 경우만 응답.
2020년 전체 응답자 중 지난주 직장을 구해보지 않은 경우 응답

표 II-105-1 지난 주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상위5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교(정규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준비 중이어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취업을 위한 학원, 직업 훈련 기관 통학 중이어서
전체		1,171	55.6	15.1	6.2	4.8	3.8
성별	남자	589	63.5	0.2	6.7	6.4	4.8
	여자	582	48.0	29.4	5.7	3.4	2.9
연령	만18~19세	364	91.2	0.2	0.0	0.6	0.4
	만20~24세	464	66.9	0.6	4.8	7.0	2.2
	만25~29세	193	28.9	17.1	18.3	7.7	11.5
	만30~34세	150	1.7	73.5	5.3	2.4	4.5
지역	서울	204	60.9	14.9	1.5	4.8	2.0
	인천/경기	251	51.7	18.3	4.7	4.3	7.7
	대전/충청/세종/강원	163	57.1	16.3	4.2	4.7	0.0
	광주/전라/제주	168	56.5	10.9	11.3	7.9	0.8
	부산/울산/경남	200	50.9	17.1	9.9	5.7	2.4
	대구/경북	185	60.5	7.2	10.4	2.5	5.6
학력	고졸이하	333	42.2	22.1	3.3	2.0	1.7
	대학/대학원 재학	609	84.8	0.9	1.8	3.9	1.8
	대졸이상	229	3.8	39.7	20.0	10.6	11.4
주거형태	동거	869	66.5	1.0	7.4	5.6	4.5
	비동거/독립	302	24.9	55.0	2.9	2.6	2.0

* 주: 지난주 직장을 구해보지 않은 경우만 응답

106) 교육, 취업을 하지 않는 상태 지속 기간

○ 지난주에 정규 교육기관 통학을 제외하고 직장을 구해보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의 지속기간을 물어본 결과, 2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고, 1개월 이상(32.5%), 1년-2년 미만(24.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상태가 지속된 기간은 평균 24.1개월로 조사됨

○ 성별로는 여자(30.8개월)의 지속 기간이 남자(14.0개월)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출산, 육아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속 기간도 상대적으로 늘어남

○ 주거형태별로 동거(15.1개월) 보다 비동거/독립(35.4개월)의 경우에 교육, 취업을 하지 않는 상태 지속 기간이 김

표 II-106 교육, 취업을 하지 않는 상태 지속 기간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개월)

연도	사례수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2년 미만	2년 이상	평균 지속 기간 (개월)
2019	512	5.7	18.1	15.1	61.0	40.8
2020	458	4.4	32.5	24.2	38.9	24.1

* 주: 2019년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지난주 정규교육기관 통학 외의 사유로 직장을 구해보지 않은 경우만 응답. 2020년 전체 응답자 중 지난주 정규교육기관 통학 외의 사유로 직장을 구해보지 않은 경우 응답

표 Ⅱ-106-1 교육, 취업을 하지 않는 상태 지속 기간

(단위: 명, %, 개월)

구분		사례수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2년 미만	2년 이상	평균 지속 기간 (개월)
전체		458	4.4	32.5	24.2	38.9	24.1
성별	남자	188	6.5	45.3	27.8	20.4	14.0
	여자	270	2.9	24.0	21.9	51.2	30.8
연령	만 18~19세	36	4.2	79.8	16.0	0.0	6.5
	만 20~24세	144	11.6	46.3	26.1	16.0	11.9
	만 25~29세	131	1.1	35.6	28.7	34.7	23.6
	만 30~34세	147	0.9	11.3	20.1	67.6	37.5
지역	서울	73	8.4	28.1	14.3	49.3	23.9
	인천/경기	112	4.6	30.5	24.0	40.8	27.6
	대전/충청/세종/강원	58	4.2	41.5	17.9	36.4	21.4
	광주/전라/제주	65	3.9	33.0	28.0	35.1	21.4
	부산/울산/경남	87	1.9	31.7	31.9	34.4	22.1
	대구/경북	63	1.8	35.9	32.7	29.6	22.2
학력	고졸이하	161	2.7	30.6	22.2	44.5	28.1
	대학/대학원 재학	78	14.3	47.7	28.2	9.7	10.2
	대졸이상	219	1.9	28.3	24.3	45.4	26.3
주거형태	동거	258	5.4	44.2	28.5	21.9	15.1
	비동거/독립	200	3.1	17.9	18.9	60.2	35.4

* 주: 지난주 정규교육기관 통학 외의 사유로 직장을 구해보지 않은 경우만 응답

107) 구직 활동 기간

○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으나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으면 일을 할 수 있었던 청년을 대상으로 가장 최근 구직 활동 기간을 물어본 결과, 1개월 이상이라는 응답이 58.3%로 가장 많고, 2년 이상(15.1%), 1년-2년 미만(1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구직 활동 기간은 평균 10.3개월로, 2019년 평균 8.4개월 대비 1.9개월 증가한 수치임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균 구직 활동 기간도 상대적으로 늘어남

○ 지역별로는 서울(12.9개월) 지역의 구직 활동 기간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보면 대졸이상의 평균 구직활동 기간이 12.7개월로 다른 학력 대비 높은 비율을 보임

표 II-107 구직 활동 기간

(단위: 명, %, 개월)

연도	사례수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2년 미만	2년 이상	구직 활동 기간 (개월)
2019	133	25.7	51.5	13.4	9.4	8.4
2020	180	12.0	58.3	14.6	15.1	10.3

* 주: 2019년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지난주 직장이 주어졌으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경우만 응답. 2020년 전체 응답자 중 지난주 직장이 주어졌으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경우 응답

표 II-107-1 구직 활동 기간

(단위: 명, %, 개월)

구분		사례수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2년 미만	2년 이상	구직활동 기간 (개월)
전체		180	12.0	58.3	14.6	15.1	10.3
성별	남자	93	12.3	56.2	17.3	14.2	10.3
	여자	87	11.6	60.6	11.6	16.2	10.4
연령	만18~19세	15	32.5	59.0	8.5	0.0	3.8
	만20~24세	74	16.3	66.0	12.2	5.6	6.4
	만25~29세	62	3.6	58.7	15.6	22.1	12.3
	만30~34세	29	14.0	40.6	20.4	25.0	16.9
지역	서울	43	6.5	54.7	12.9	25.9	12.9
	인천/경기	40	13.8	57.3	18.4	10.5	9.1
	대전/충청/세종/강원	36	18.2	51.8	20.2	9.8	10.2
	광주/전라/제주	15	26.7	53.9	13.9	5.5	6.6
	부산/울산/경남	32	7.1	71.3	1.9	19.7	11.3
	대구/경북	14	4.4	74.3	16.1	5.1	7.0
학력	고졸이하	49	8.0	73.9	11.3	6.9	8.4
	대학/대학원 재학	29	43.5	44.3	10.5	1.7	3.8
	대졸이상	102	5.9	55.3	17.0	21.7	12.7
주거형태	동거	128	11.8	56.2	16.5	15.4	10.4
	비동거/독립	52	12.3	64.0	9.4	14.3	10.3

* 주: 지난주 직장이 주어졌으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경우만 응답

108)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으로는 '사무종사자'가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비스 종사자'(26.3%), '판매 종사자'(18.9%) 등의 순임

○ 남자는 '판매종사자'(20.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1.4%)가 상대적으로 높고, 여자는 '사무 종사자' 직업의 비율이 38.6%로 높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됨

○ 연령이 높을수록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직업의 비율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높아짐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사무 종사자' 직업이 36.9%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의 직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108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직업 군인	기타
2016	1,499	2.4	8.2	30.5	27.3	17.4	0.7	8.3	3.4	1.7	0.1	-
2017	1,667	1.8	12.8	25.7	30.5	16.8	0.4	6.2	3.0	2.6	0.2	-
2018	1,990	0.8	3.3	45.5	20.9	18.4	0.8	6.3	2.4	0.9	0.4	0.2
2019	2,005	2.3	10.3	28.7	26.0	16.9	0.7	6.6	3.8	4.2	0.5	-
2020	2,162	1.8	9.3	30.8	26.3	18.9	0.2	6.8	3.1	2.6	0.2	-

* 주: 2016~2019년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2020년 전체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 응답

표 II-108-1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직업 군인
전체		2,162	1.8	9.3	30.8	26.3	18.9	0.2	6.8	3.1	2.6	0.2
성별	남자	1,166	2.6	6.5	24.4	25.1	20.9	0.4	11.4	5.1	3.3	0.3
	여자	996	0.8	12.8	38.6	27.7	16.5	0.1	1.2	0.6	1.7	0.1
연령	만 18~19세	96	1.3	1.8	2.7	43.2	31.7	0.0	7.3	2.8	9.3	0.0
	만 20~24세	555	0.4	7.2	14.6	38.8	24.4	0.4	6.8	2.2	5.0	0.4
	만 25~29세	792	1.8	8.0	38.5	21.8	16.9	0.2	6.9	3.7	2.1	0.1
	만 30~34세	719	2.7	12.7	35.4	21.6	16.4	0.3	6.7	3.1	1.0	0.1
지역	서울	428	2.8	8.6	36.9	29.8	15.9	0.0	2.5	1.3	2.1	0.0
	인천/경기	529	2.3	11.0	32.1	24.5	20.0	0.0	5.0	3.5	1.7	0.0
	대전/충청/세종/강원	350	0.0	5.7	32.1	26.5	17.8	1.0	5.2	5.8	4.5	1.3
	광주/전라/제주	284	2.4	10.1	18.9	26.7	22.8	0.9	14.4	0.7	3.1	0.0
	부산/울산/경남	323	1.3	9.6	29.1	23.3	18.3	0.2	10.9	3.8	3.6	0.0
	대구/경북	248	0.0	9.7	24.2	27.9	20.4	0.0	12.4	3.8	1.7	0.0
학력	고졸이하	716	1.2	1.3	13.7	29.0	33.3	0.2	10.7	6.0	4.5	0.1
	대학/대학원 재학	253	0.3	6.2	14.0	44.9	26.3	0.0	1.7	0.9	4.6	1.2
	대졸이상	1,193	2.3	14.3	43.1	21.4	9.7	0.3	5.6	1.9	1.2	0.1
주거 형태	동거	1,191	1.1	7.4	31.8	28.6	18.8	0.3	6.2	2.5	3.1	0.0
	비동거/독립	971	2.7	12.0	29.3	23.0	19.0	0.2	7.6	3.9	1.8	0.4

* 주: 일자리가 있는 경우 응답

109)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

○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에 대해 '임금근로자'가 86.7%로 '비임금근로자' 13.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19년(83.6%) 대비 '임금근로자'가 3.1%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여자(87.8%)가 남자(85.7%)보다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임금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90.3%로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에서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16.2%로 높게 나타남

표 II-109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2016	1,499	89.5	10.5
2017	1,667	85.2	14.8
2018	1,990	92.9	7.1
2019	2,005	83.6	16.4
2020	2,162	86.7	13.3

* 주: 2016~2019년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2020년 전체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 응답

표 II-109-1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전체		2,162	86.7	13.3
성별	남자	1,166	85.7	14.3
	여자	996	87.8	12.2
연령	만18~19세	96	96.2	3.8
	만20~24세	555	91.0	9.0
	만25~29세	792	89.8	10.2
	만30~34세	719	80.0	20.0
지역	서울	428	85.0	15.0
	인천/경기	529	87.0	13.0
	대전/충청/세종/강원	350	90.3	9.7
	광주/전라/제주	284	83.0	17.0
	부산/울산/경남	323	87.5	12.5
	대구/경북	248	86.8	13.2
학력	고졸이하	716	83.8	16.2
	대학/대학원 재학	253	92.5	7.5
	대졸이상	1,193	87.2	12.8
주거형태	동거	1,191	90.6	9.4
	비동거/독립	971	81.2	18.8

* 주: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110) 근로 형태(임금근로자)

○ 임금근로자인 청년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72.6%로 2019년 정규직 비율(88.9%) 대비 16.3%p 하락함

○ 근로시간 유형은 ‘전일제’가 81.7%로 2019년 전일제 비율(85.1%) 대비 3.4%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자의 ‘정규직’(73.6%) 비율과 ‘전일제’(84.9%) 근무형태 근무 비율이 여자(정규직 71.4%, 전일제 77.9%)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정규직’ 비율 및 ‘전일제’ 근무형태 근무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정규직’ 비율이 76.8%%로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으며 근로시간 유형이 ‘전일제’인 비율 역시 대구/경북(87.5%) 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보면 대학/대학원 재학인 경우에 ‘비정규직’(76.9%) 비율과 ‘시간제’(72.5%) 근무형태 근무 비율이 타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10 근로 형태(임금근로자)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고용 형태		근로시간 유형	
		정규직	비정규직	전일제	시간제
2016	1,341	75.0	25.0	83.9	16.1
2017	1,432	73.8	26.2	83.2	16.8
2018	1,845	85.5	14.5	92.1	7.9
2019	1,671	88.9	11.1	85.1	14.9
2020	1,893	72.6	27.4	81.7	18.3

* 주: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만 응답

표 II-110-1 근로 형태(임금근로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고용 형태		근로시간 유형	
			정규직	비정규직	전일제	시간제
전체		1,893	72.6	27.4	81.7	18.3
성별	남자	1,009	73.6	26.4	84.9	15.1
	여자	884	71.4	28.6	77.9	22.1
연령	만 18~19세	93	24.8	75.2	35.5	64.5
	만 20~24세	512	48.4	51.6	59.4	40.6
	만 25~29세	716	79.9	20.1	88.4	11.6
	만 30~34세	572	86.0	14.0	94.5	5.5
지역	서울	376	70.6	29.4	78.8	21.2
	인천/경기	461	74.2	25.8	81.7	18.3
	대전/충청/세종/강원	319	71.9	28.1	84.8	15.2
	광주/전라/제주	241	71.4	28.6	80.5	19.5
	부산/울산/경남	279	70.9	29.1	80.5	19.5
	대구/경북	217	76.8	23.2	87.5	12.5
학력	고졸이하	610	71.8	28.2	85.6	14.4
	대학/대학원 재학	239	23.1	76.9	27.5	72.5
	대졸이상	1,044	82.4	17.6	90.1	9.9
주거형태	동거	1,087	66.9	33.1	76.3	23.7
	비동거/독립	806	81.4	18.6	90.2	9.8

* 주: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만 응답

111) 근로 형태(비임금근로자)

○ 비임금근로자인 청년의 근로 형태를 파악한 결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28.5%), '무급가족 종사자'(12.0%)의 순으로 나타남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은 2019년(68.5%) 대비 9.0%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자(31.0%)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근로 형태 비율이 여자(24.9%)보다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40.5%)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무급가족 종사자'(22.5%),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72.1%), 근로 형태가 높게 나타남

표 II-111 근로 형태(비임금근로자)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2016	158	28.9	66.3	4.8
2017	235	32.5	59.2	8.3
2018	145	26.0	57.7	16.3
2019	334	23.6	68.5	7.9
2020	269	28.5	59.5	12.0

* 주: 비임금근로자인 경우에만 응답

표 II-111-1 근로 형태(비임금근로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체		269	28.5	59.5	12.0
성별	남자	157	31.0	62.8	6.2
	여자	112	24.9	54.7	20.3
연령	만 18~19세	3	0.0	66.6	33.4
	만 20~24세	43	21.4	50.1	28.5
	만 25~29세	76	30.6	53.6	15.9
	만 30~34세	147	29.8	65.1	5.1
지역	서울	52	31.5	61.1	7.4
	인천/경기	68	24.9	59.5	15.6
	대전/충청/세종/강원	31	40.5	48.9	10.5
	광주/전라/제주	43	15.7	61.8	22.5
	부산/울산/경남	44	36.2	54.5	9.3
	대구/경북	31	25.9	72.1	2.0
학력	고졸이하	106	28.7	61.4	10.0
	대학/대학원 재학	14	12.4	65.5	22.0
	대졸이상	149	30.0	57.6	12.4
주거형태	동거	104	26.1	52.4	21.4
	비동거/독립	165	30.1	64.4	5.4

* 주: 비임금근로자인 경우에만 응답

112) 일하는 곳

○ 현재 일하는 직장 유형으로, 응답자의 83.9%가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6.2%),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기업'(3.1%),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85.9%)에 소속되어 있다는 응답이 여자(81.3%) 에 비해 높고, 여자는 '정부기관'(7.2%)에 소속되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외국인 회사, '법인 단체', 연령이 낮을수록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높음

○ 학력별로 고졸이하에선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91.9%)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대졸이상에서는 '정부기관'(8.7%)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112 일하는 곳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	외국인 회사	정부투자 기관/정부 출연기관/ 공기업	(재단, 사단) 법인 단체	정부 기관 (공무원, 군인 등)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기타
2016	1,499	86.1	1.1	2.3	3.4	4.2	2.9	0.1
2017	1,667	82.9	1.6	3.6	3.8	5.2	2.2	0.4
2018	1,990	86.5	3.3	4.6	1.2	3.0	1.4	0.1
2019	2,005	85.3	1.3	2.0	3.1	5.3	3.1	-
2020	2,162	83.9	1.2	3.1	2.6	6.2	3.0	-

* 주 1) 2016~2019년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2020년 전체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 응답
2) 2017년 응답결과에는 모름/무응답이 0.4% 있었음 (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112-1 일하는 곳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	외국인 회사	정부투자 기관/정부 출연기관/ 공기업	(재단, 사단) 법인 단체	정부 기관 (공무원, 군인 등)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기타
전체		2,162	83.9	1.2	3.1	2.6	6.2	3.0
성별	남자	1,166	85.9	1.3	3.5	1.7	5.3	2.2
	여자	996	81.3	1.1	2.7	3.7	7.2	3.9
연령	만 18~19세	96	92.2	0.0	0.6	0.0	3.1	4.1
	만 20~24세	555	87.8	0.5	3.3	1.5	3.1	3.7
	만 25~29세	792	82.9	0.8	3.1	2.8	7.3	3.0
	만 30~34세	719	81.6	2.2	3.3	3.3	7.2	2.5
지역	서울	428	85.5	2.0	1.8	2.3	3.2	5.2
	인천/경기	529	88.7	1.3	1.5	1.8	4.5	2.2
	대전/충청/세종/강원	350	71.0	0.6	6.8	5.6	13.7	2.2
	광주/전라/제주	284	79.8	0.0	4.6	3.4	6.4	5.7
	부산/울산/경남	323	85.7	1.9	3.7	2.2	6.1	0.4
	대구/경북	248	84.1	0.0	4.2	1.5	8.0	2.2
학력	고졸이하	716	91.9	0.4	3.0	1.2	1.3	2.1
	대학/대학원 재학	253	83.4	1.1	1.2	1.4	6.8	6.2
	대졸이상	1,193	79.6	1.6	3.6	3.6	8.7	2.9
주거형태	동거	1,191	84.8	1.1	2.5	2.3	6.0	3.3
	비동거/독립	971	82.5	1.3	4.0	3.2	6.4	2.6

* 주: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113)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

○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사업체)의 종사자 규모는 '1-4인'이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9년(35.0%) 대비 3.6%p 하락함

○ 다음으로 '10-29인'(20.3%), '5-9인'(17.0%) 등의 순임

○ 성별로 보면 '500인 이상' 규모에서 남자(9.2%)가 여자(5.9%)보다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29인 이하'의 규모가 작은 직장에서의 응답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30인 이상'의 규모가 큰 직장에서 재직하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대학/대학원생은 '1-4인'(49.1%), 대졸이상은 '30-99인'(18.9%)의 규모의 직장에서 재직 중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음

표 Ⅱ-113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2016	1,393	27.8	15.9	21.7	16.9	10.7	2.8	4.2
2017	1,667	36.4	14.8	17.1	12.0	8.7	2.8	8.1
2018	1,990	19.7	15.4	22.1	26.0	11.7	2.7	2.3
2019	2,005	35.0	13.1	18.5	15.6	7.3	3.1	7.4
2020	2,162	31.4	17.0	20.3	14.5	7.2	1.9	7.7

* 주: 2016~2019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2020년 전체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 응답

표 Ⅱ-113-1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전체		2,162	31.4	17.0	20.3	14.5	7.2	1.9	7.7
성별	남자	1,166	29.5	15.7	18.0	16.8	9.0	1.8	9.2
	여자	996	33.8	18.5	22.9	11.7	5.1	2.0	5.9
연령	만18~19세	96	47.3	31.9	12.4	3.7	3.5	0.0	1.2
	만20~24세	555	41.1	19.7	19.3	9.0	4.6	2.6	3.7
	만25~29세	792	25.5	19.1	22.3	14.1	6.9	1.8	10.4
	만30~34세	719	30.1	12.0	19.4	19.2	9.6	1.7	8.0
지역	서울	428	32.7	16.0	18.4	14.9	7.5	1.6	8.9
	인천/경기	529	28.4	20.1	21.5	14.4	7.1	1.6	6.8
	대전/충청/세종/강원	350	26.8	14.7	21.4	13.2	8.7	3.6	11.6
	광주/전라/제주	284	34.0	19.2	15.5	17.8	5.6	3.1	4.7
	부산/울산/경남	323	35.3	12.5	23.3	15.4	5.5	1.1	7.0
	대구/경북	248	38.5	16.1	18.9	10.1	9.4	0.9	6.1
학력	고졸이하	716	39.4	20.0	20.1	9.0	5.9	1.8	3.8
	대학/대학원 재학	253	49.1	24.1	10.6	6.3	2.4	2.7	4.9
	대졸이상	1,193	23.9	14.1	22.1	18.9	8.8	1.8	10.3
주거형태	동거	1,191	30.6	18.8	21.0	13.9	6.9	2.2	6.7
	비동거/독립	971	32.7	14.5	19.2	15.3	7.7	1.4	9.2

* 주: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114) 현재 일자리 근속년수

○ 현재 일자리 근속년수를 조사한 결과, '3년 미만'이 6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9년(52.5%) 대비 8.7%p 상승함

○ 현재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년수는 32.9개월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8.3개월 하락한 수치임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근속년수가 높음

○ 학력별로 보면 대학/대학원 재학의 평균 근속년수가 13.6개월로 고졸이하(33.0개월)나 대졸이상(36.3개월)과 3배가량 차이를 보임

○ 주거형태별로 동거인 경우 '3년 미만'(69.2%)에서 비동거/독립(50.1%)보다 응답 비율이 높고, 비동거/독립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모든 기간에서 동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14 현재 일자리 근속년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년, 개월)

연도	사례수	3년 미만	3-5년 미만	5-7년 미만	7-10년 미만	10년 이상	평균 근속년수 (개월)
2016	1,499	47.7	20.6	15.2	8.4	7.9	3.7
2017	1,667	54.8	16.9	12.9	8.1	7.3	40.6
2018	1,988	35.8	24.2	18.5	12.9	8.6	60.1
2019	2,005	52.5	19.7	12.5	8.5	6.7	41.2
2020	2,162	61.2	19.5	11.0	5.9	2.3	32.9

* 주: 2016~2019년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2020년 전체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 응답

표 II-114-1 현재 일자리 근속년수

(단위: 명, 년, 개월)

구분		사례수	3년 미만	3-5년 미만	5-7년 미만	7-10년 미만	10년 이상	평균 근속년수 (개월)
전체		2,162	61.2	19.5	11.0	5.9	2.3	32.9
성별	남자	1,166	61.0	20.3	10.4	6.6	1.7	32.5
	여자	996	61.5	18.6	11.7	5.2	3.1	33.4
연령	만 18~19세	96	98.7	1.3	0.0	0.0	0.0	8.9
	만 20~24세	555	89.8	8.1	2.1	0.0	0.0	14.9
	만 25~29세	792	64.2	23.2	9.1	3.3	0.2	29.2
	만 30~34세	719	37.2	24.4	19.4	12.8	6.2	50.0
지역	서울	428	62.3	18.6	11.8	4.5	2.6	32.8
	인천/경기	529	62.9	19.4	11.1	5.1	1.5	31.7
	대전/충청/세종/강원	350	64.8	15.4	8.8	6.7	4.3	32.6
	광주/전라/제주	284	55.6	24.2	10.4	7.9	1.9	35.0
	부산/울산/경남	323	61.7	20.0	7.8	8.3	2.2	32.7
	대구/경북	248	51.7	22.8	17.6	5.4	2.4	36.6
학력	고졸이하	716	61.2	19.9	11.4	4.9	2.7	33.0
	대학/대학원 재학	253	91.0	4.6	2.3	1.3	0.9	13.6
	대졸이상	1,193	55.9	22.0	12.3	7.4	2.4	36.3
주거형태	동거	1,191	69.2	18.3	8.3	2.9	1.3	27.1
	비동거/독립	971	50.1	21.3	14.7	10.1	3.7	41.1

* 주: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115) 교육 수준 대비 직무 수준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교육 수준 대비 직무 수준을 조사한 결과 '나의 교육 수준과 유사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0.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나의 교육 수준보다 낮다'(24.4%), '나의 교육 수준보다 높다'(5.0%) 등의 순임

○ 성별로 보면 남자(6.4%)가 여자(3.2%)보다 본인의 교육 수준에 비해 직무 수준이 높다는 응답을 보임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본인의 교육 수준보다 현재의 직무 수준이 낮다고 응답하였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준이 유사하다고 응답함

○ 학력별로는 대학/대학원 재학의 경우 본인의 교육 수준 대비 직무 수준이 낮다는 응답(59.7%)이 높게 나타났으나, 고졸이하와 대졸이상에서는 유사하다는 응답(77.6%, 72.8%)이 높게 나타남

표 II-115-1 교육 수준 대비 직무 수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나의 교육수준 보다 낮다	나의 교육수준과 유사하다	나의 교육수준 보다 높다
전체		2,162	24.4	70.7	5.0
성별	남자	1,166	24.2	69.4	6.4
	여자	996	24.6	72.2	3.2
연령	만 18~19세	96	47.6	49.0	3.4
	만 20~24세	555	37.1	58.5	4.4
	만 25~29세	792	22.4	72.0	5.7
	만 30~34세	719	16.5	78.8	4.7
지역	서울	428	20.8	75.4	3.9
	인천/경기	529	25.5	68.9	5.6
	대전/충청/세종/강원	350	16.9	76.8	6.3
	광주/전라/제주	284	29.8	67.2	3.1
	부산/울산/경남	323	34.0	59.6	6.3
	대구/경북	248	19.7	77.3	3.0
학력	고졸이하	716	17.6	77.6	4.9
	대학/대학원 재학	253	59.7	37.9	2.4
	대졸이상	1,193	21.7	72.8	5.5
주거형태	동거	1,191	28.8	66.6	4.5
	비동거/독립	971	18.1	76.4	5.6

* 주: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116) 기술 수준 대비 직무 수준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체득한 기술 수준 대비 직무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나의 기술 수준과 유사하다'라는 응답이 7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나의 기술 수준보다 낮다'(22.1%)의 기술 수준보다 높다'(4.5%) 순임

○ 성별로 보면 남자(6.0%)가 여자(2.8%)보다 본인의 기술 수준에 비해 현재 맡고 있는 직무 수준이 높다는 응답을 보임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본인의 기술 수준보다 현재의 직무 수준이 낮다고 응답하였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준이 유사하다고 응답함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본인의 기술 수준보다 직무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32.9%로 높게 나타났고,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는 기술 수준과 직무 수준이 유사하다는 응답(80.0%)이 높게 나타남

표 II-116-1 기술 수준 대비 직무 수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나의 기술수준 보다 낮다	나의 기술수준과 유사하다	나의 기술수준 보다 높다
전체		2,162	22.1	73.3	4.5
성별	남자	1,166	22.6	71.4	6.0
	여자	996	21.5	75.6	2.8
연령	만 18~19세	96	47.4	49.7	2.9
	만 20~24세	555	33.4	62.8	3.8
	만 25~29세	792	19.6	75.3	5.0
	만 30~34세	719	15.6	79.8	4.6
지역	서울	428	20.1	75.9	4.0
	인천/경기	529	22.9	71.0	6.0
	대전/충청/세종/강원	350	15.6	80.0	4.4
	광주/전라/제주	284	21.7	76.6	1.7
	부산/울산/경남	323	32.9	62.0	5.1
	대구/경북	248	18.1	79.0	3.0
학력	고졸이하	716	17.5	78.7	3.8
	대학/대학원 재학	253	55.2	42.0	2.8
	대졸이상	1,193	18.7	76.0	5.3
주거형태	동거	1,191	26.7	69.5	3.9
	비동거/독립	971	15.7	78.8	5.5

* 주: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117) 전공과 일치 여부

○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전공과의 일치도를 조사한 결과 본인의 전공 분야와 '일치한다'는 응답이 41.6%,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4%로, 직무와 전공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높은 비율을 보임

○ 성별로 보면 남자(61.0%)가 여자(55.4%)에 비해 현재 직무와 전공 분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직무와 전공이 서로 일치한다는 응답이 49.7%로 높게 나타난 반면,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7.3%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음

○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전공 분야와 직무가 일치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표 II-117-1 전공과 일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나의 전공분야와 일치한다	나의 전공분야와 불일치한다
전체		1,577	41.6	58.4
성별	남자	826	39.0	61.0
	여자	751	44.6	55.4
연령	만18~19세	60	12.7	87.3
	만20~24세	356	27.8	72.2
	만25~29세	585	47.4	52.6
	만30~34세	576	44.9	55.1
지역	서울	315	49.7	50.3
	인천/경기	378	43.4	56.6
	대전/충청/세종/강원	237	32.7	67.3
	광주/전라/제주	214	37.8	62.2
	부산/울산/경남	258	37.7	62.3
	대구/경북	175	38.4	61.6
학력	고졸이하	131	9.9	90.1
	대학/대학원 재학	253	21.1	78.9
	대졸이상	1,193	48.8	51.2
주거형태	동거	876	40.1	59.9
	비동거/독립	701	43.9	56.1

* 주: 대학진학 경험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118)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및 희망 월 평균 소득

○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은 세후 기준 232.9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 240.1만 원 대비 7.2만 원 하락함

○ 본인이 원하는 월 평균 소득은 세후 기준 312.6만 원으로 현재 소득 대비 약 8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음

○ 성별로 보면 남자의 현재 소득과 희망 소득 모두 여자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 평균 소득과 희망 소득 모두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학력별로는 대학/대학원 재학인 경우에 현재 소득(123.1만 원)과 희망 소득(181.7만 원)이 다른 학력에 비해 낮게 나타남

표 Ⅱ-118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및 희망 월 평균 소득 연도별 추이

(단위: 명, 만 원)

연도	사례수	현재 월 평균 소득 (만 원)	희망 월 평균 소득 (만 원)
2016	1,499	223.7	-
2017	1,667	234.5	-
2018	1,990	242.3	-
2019	2,005	240.1	343.7
2020	2,162	232.9	312.6

* 주 1) 2016~2019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2020년 전체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 응답
2) 본인이 원하는 월평균 소득은 2019년 신규 문항임

표 II-118-1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단위: 명, 만 원)

구분		사례수	현재 월 평균 소득 (만 원)	희망 월 평균 소득 (만 원)
전체		2,162	232.9	312.6
성별	남자	1,166	254.1	345.8
	여자	996	207.2	272.5
연령	만 18~19세	96	111.7	149.7
	만 20~24세	555	167.5	232.9
	만 25~29세	792	236.5	315.3
	만 30~34세	719	279.8	373.1
지역	서울	428	243.0	322.2
	인천/경기	529	227.0	304.3
	대전/충청/세종/강원	350	233.3	321.5
	광주/전라/제주	284	222.3	288.1
	부산/울산/경남	323	226.9	303.5
	대구/경북	248	250.8	349.4
학력	고졸이하	716	234.0	316.9
	대학/대학원 재학	253	123.1	181.7
	대졸이상	1,193	251.8	333.9
주거형태	동거	1,191	210.4	281.9
	비동거/독립	971	264.3	355.7

* 주: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119)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및 희망 주당 노동시간

○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은 41.7시간, 희망하는 주당 노동시간은 38.9시간으로 나타남

○ 2019년 대비 현재 주당 노동시간과 희망 주당 노동시간 모두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현재 주당 노동시간과 희망 주당 노동시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늘어날수록 현재 주당 노동시간과 희망 노동시간도 높아짐

○ 현재 주당 노동시간이 30시간 미만인 대학/대학원 재학을 제외하면 전 영역에서 현재보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119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및 희망 주당 노동시간 연도별 추이

(단위: 명, 시간)

연도	사례수	현재 주당 노동시간 (시간)	희망 주당 노동시간 (시간)
2019	2,005	43.7	40.7
2020	2,162	41.7	38.9

* 주: 2019년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2020년 전체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 응답

표 II-119-1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및 희망 주당 노동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사례수	현재 주당 노동시간 (시간)	희망 주당 노동시간 (시간)
전체		2,162	41.7	38.9
성별	남자	1,166	43.3	40.2
	여자	996	39.6	37.3
연령	만18~19세	96	30.5	31.2
	만20~24세	555	37.2	35.7
	만25~29세	792	42.9	40.0
	만30~34세	719	44.1	40.4
지역	서울	428	41.6	38.2
	인천/경기	529	40.7	38.4
	대전/충청/세종/강원	350	42.6	40.3
	광주/전라/제주	284	41.8	38.4
	부산/울산/경남	323	42.1	39.2
	대구/경북	248	43.2	40.4
학력	고졸이하	716	45.1	41.1
	대학/대학원 재학	253	28.4	28.7
	대졸이상	1,193	42.1	39.5
주거형태	동거	1,191	39.9	38.0
	비동거/독립	971	44.1	40.1

* 주: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120) 추가 노동 가능 여부

○ 주 노동시간이 35시간 미만인 경우 추가 노동이 가능했는지를 물어본 결과 '가능(있었음)'이 37.0%, '불가능(없었음)' 63.0%로 추가 노동이 불가능했다는 응답이 더 높게 조사됨

○ 성별로 보면 여자가 남자(35.0%)에 비해 가능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8.3%로 더 높음

○ 연령별로는 만25~29세 가능했다는 응답이 49.7%로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만30~34세의 경우에는 불가능했다는 응답이 76.6%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추가 노동이 불가능했다(82.6%)고 응답한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음

○ 주거형태별로 동거 중인 경우에 43.0%가 추가 노동이 가능했다고 응답하여 비동거/독립인 경우(18.2%)에 비해 높음

표 II-120 추가 노동 가능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있었음	없었음
2019	253	42.6	57.4
2020	314	37.0	63.0

* 주: 2019년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주 35시간 미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2020년 전체 응답자 중 주 35시간 미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 응답

표 II-120-1 추가 노동 가능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었음	없었음
전체		314	37.0	63.0
성별	남자	128	35.0	65.0
	여자	186	38.3	61.7
연령	만18~19세	58	29.9	70.1
	만20~24세	161	36.9	63.1
	만25~29세	56	49.7	50.3
	만30~34세	39	23.4	76.6
지역	서울	63	38.0	62.0
	인천/경기	79	43.1	56.9
	대전/충청/세종/강원	45	27.9	72.1
	광주/전라/제주	54	47.1	52.9
	부산/울산/경남	49	25.3	74.7
	대구/경북	24	17.4	82.6
학력	고졸이하	52	34.2	65.8
	대학/대학원 재학	163	32.1	67.9
	대졸이상	99	44.3	55.7
주거형태	동거	225	43.0	57.0
	비동거/독립	89	18.2	81.8

* 주: 주 35시간 미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121) 추가 노동을 위한 구직활동 여부

○ 주 3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추가 노동을 위한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없었음'이 86.4%로 '있었음'(13.6%)이라고 응답한 비율 대비 높게 조사됨

○ 성별로 보면 여자(14.5%)가 남자(12.3%)에 비해 구직활동 경험 응답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만25~29세(21.4%)의 구직활동 경험이 타 연령 대비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거주자의 구직활동 경험이 21.1%로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17.9%)이 구직활동 경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121 추가 노동을 위한 구직활동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있었음	없었음
2019	253	13.5	86.5
2020	314	13.6	86.4

* 주: 2019년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주 35시간 미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2020년 전체 응답자 중 주35시간 미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 응답

표 II-121-1 추가 노동을 위한 구직활동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었음	없었음
전체		314	13.6	86.4
성별	남자	128	12.3	87.7
	여자	186	14.5	85.5
연령	만 18~19세	58	8.1	91.9
	만 20~24세	161	13.1	86.9
	만 25~29세	56	21.4	78.6
	만 30~34세	39	7.7	92.3
지역	서울	63	11.1	88.9
	인천/경기	79	14.0	86.0
	대전/충청/세종/강원	45	7.9	92.1
	광주/전라/제주	54	16.4	83.6
	부산/울산/경남	49	21.1	78.9
	대구/경북	24	8.7	91.3
학력	고졸이하	52	11.3	88.7
	대학/대학원 재학	163	11.0	89.0
	대졸이상	99	17.9	82.1
주거형태	동거	225	15.5	84.5
	비동거/독립	89	7.6	92.4

* 주: 주 35시간 미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122)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 현재 직장에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받고 있다'는 긍정 응답이 42.2%(받고 있는 편이다 38.1%+충분히 받고 있다 4.1%)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부정 응답 12.5%(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1.1%+받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 11.4%)보다 높게 나타남

○ '받고 있다'는 응답은 2019년 조사결과 36.5% 응답 대비 5.7%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여자(43.8%)가 남자(40.8%) 보다 직장에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음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인 경우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44.2%)과 받지 못한다는 응답(13.8%) 모두 타 학력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122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받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받고 있는 편이다	충분히 받고 있다
2016	1,499	1.2	14.4	50.9	28.0	5.5
2017	1,667	2.3	14.3	46.8	30.4	6.3
2018	1,990	0.7	17.2	50.3	30.0	1.7
2019	2,005	2.2	16.0	45.3	31.7	4.8
2020	2,162	1.1	11.4	45.3	38.1	4.1

* 주: 2016~2019년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2020년 전체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 응답

표 II-122-1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받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받고 있는 편이다	충분히 받고 있다
전체		2,162	1.1	11.4	45.3	38.1	4.1
성별	남자	1,166	0.8	11.8	46.6	36.6	4.2
	여자	996	1.5	11.0	43.8	39.9	3.9
연령	만 18~19세	96	0.0	4.9	60.7	28.5	5.9
	만 20~24세	555	0.9	10.4	47.0	36.6	5.0
	만 25~29세	792	1.8	12.2	45.1	37.3	3.6
	만 30~34세	719	0.6	11.8	43.3	40.6	3.7
지역	서울	428	0.3	9.1	42.5	44.5	3.6
	인천/경기	529	0.6	10.3	47.0	37.8	4.3
	대전/충청/세종/강원	350	1.1	14.6	43.2	36.4	4.7
	광주/전라/제주	284	4.8	13.8	39.4	38.3	3.7
	부산/울산/경남	323	1.1	14.4	48.8	30.8	4.9
	대구/경북	248	0.7	9.1	51.2	36.8	2.3
학력	고졸이하	716	1.0	9.2	51.2	34.8	3.8
	대학/대학원 재학	253	0.5	12.1	46.4	33.9	7.1
	대졸이상	1,193	1.3	12.5	42.0	40.6	3.6
주거형태	동거	1,191	0.8	12.3	46.6	36.5	3.8
	비동거/독립	971	1.5	10.2	43.6	40.3	4.4

* 주: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123) 이직 의향

○ 현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이직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76.8%로 이직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23.2%)보다 높게 나타남

○ 2019년 대비 이직할 의향이 '없다'(74.5%)는 응답이 2.3%p 상승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이직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높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직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90.1%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주거형태별로 보면 비동거/독립인 경우에 이직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82.6%로 동거 중인 청년(72.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23 이직 의향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있다	없다
2016	1,499	29.4	70.6
2017	1,667	30.2	69.8
2018	1,990	25.0	75.0
2019	2,005	25.5	74.5
2020	2,162	23.2	76.8

* 주: 2016~2019년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2020년 전체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 응답

표 II-123-1 이직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2,162	23.2	76.8
성별	남자	1,166	23.7	76.3
	여자	996	22.6	77.4
연령	만 18~19세	96	33.1	66.9
	만 20~24세	555	26.5	73.5
	만 25~29세	792	24.5	75.5
	만 30~34세	719	19.0	81.0
지역	서울	428	28.0	72.0
	인천/경기	529	26.3	73.7
	대전/충청/세종/강원	350	19.9	80.1
	광주/전라/제주	284	19.4	80.6
	부산/울산/경남	323	22.0	78.0
	대구/경북	248	9.9	90.1
학력	고졸이하	716	20.0	80.0
	대학/대학원 재학	253	27.1	72.9
	대졸이상	1,193	24.2	75.8
주거형태	동거	1,191	27.3	72.7
	비동거/독립	971	17.4	82.6

* 주: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124) 이직 희망 사유

○ 이직 의향이 있는 경우, 이직 희망 사유로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48.6%) 대비 5.7%p 하락한 결과임

○ 다음으로 '더 나은 근무환경'(16.2%),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이직을 희망한다는 응답은 남자(46.8%)가 여자(38.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만18~19세에서 '개인 발전/승진',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위해 이직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타 연령에 비해 높음

○ 주거형태별로는 동거의 경우 '개인 발전/승진', 비동거/독립 상태인 경우에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해서 이직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높음

표 Ⅱ-124 이직 희망 사유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개인 발전/승진	더 나은 근무 환경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개인 사업을 위해서	건강 상의 이유로	집안 사정 때문에	기타
2016	441	47.6	10.1	17.4	4.4	13.2	1.8	3.7	0.0	0.8	0.0
2017	503	52.1	10.8	16.5	3.0	9.9	0.7	4.0	0.5	2.4	0.0
2018	498	55.8	8.7	14.1	2.7	15.0	1.2	1.1	0.1	0.4	1.0
2019	490	48.6	10.4	16.2	3.6	11.3	0.9	6.3	0.6	1.2	0.8
2020	477	42.9	9.6	16.2	3.5	14.3	2.5	7.7	0.6	2.6	0.0

* 주: 이직 의향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II-124-1 이직 희망 사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개인 발전/승진	더 나은 근무 환경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개인 사업을 위해서	건강 상의 이유로	집안 사정 때문에
전체		477	42.9	9.6	16.2	3.5	14.3	2.5	7.7	0.6	2.6
성별	남자	259	46.8	8.0	15.0	2.5	14.0	2.9	8.9	0.6	1.3
	여자	218	38.0	11.7	17.8	4.9	14.6	2.0	6.2	0.6	4.3
연령	만 18~19세	28	41.3	23.0	25.9	0.0	5.8	0.0	0.0	0.0	3.9
	만 20~24세	136	45.3	11.6	11.9	5.7	15.2	0.7	7.0	0.0	2.6
	만 25~29세	179	41.2	9.2	16.8	2.2	15.8	4.9	5.7	1.5	2.6
	만 30~34세	134	43.3	6.6	18.1	3.9	12.5	1.1	12.1	0.0	2.4
지역	서울	120	48.1	12.2	12.4	5.4	12.7	0.0	8.6	0.0	0.7
	인천/경기	143	38.9	8.6	15.7	2.3	16.3	3.1	9.0	1.2	4.9
	대전/충청/세종/강원	63	46.0	11.0	20.6	4.7	8.2	3.9	5.6	0.0	0.0
	광주/전라/제주	56	37.7	10.1	19.8	4.8	17.0	0.0	4.0	2.2	4.5
	부산/울산/경남	70	47.2	3.5	20.1	1.5	14.8	3.5	7.6	0.0	1.8
	대구/경북	25	32.0	17.1	12.9	3.1	18.0	12.4	4.5	0.0	0.0
학력	고졸이하	131	43.0	9.5	15.1	2.5	13.6	2.3	11.3	0.9	1.8
	대학/대학원 재학	67	50.7	10.9	15.4	1.3	15.1	1.6	0.7	1.4	2.9
	대졸이상	279	41.3	9.4	16.9	4.5	14.4	2.8	7.6	0.3	2.9
주거형태	동거	309	43.6	11.7	14.7	2.4	15.5	2.9	7.1	0.6	1.4
	비동거/독립	168	41.3	5.0	19.6	5.9	11.7	1.6	9.0	0.6	5.3

* 주: 이직 의향이 있는 경우만 응답

125)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경험 여부

○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3.8%로 ‘참여하고 있다+참여한 적 있다’(6.2%)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만25~29세에서 ‘참여하고 있다’(1.4%), ‘참여한 적이 있다’(7.2%)고 응답한 비율이 타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과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동일하게 7.5%로 높은 반면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의 응답 비율은 2.9%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음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에서 참여 경험이 9.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Ⅱ-125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년.월)

연도	사례수	참여하고 있다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한 적이 없다	평균 (년월)
2019	2,948	1.6	3.4	95.0	2015.6
2020	3,520	1.2	5.0	93.8	2016.9

* 주: 2019년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020년 전체 응답

표 II-125-1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경험 여부

(단위: 명, %, 년.월)

구분		사례수	참여하고 있다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한 적이 없다	평균 (년월)
전체		3,520	1.2	5.0	93.8	2016.9
성별	남자	1,855	1.0	5.1	93.9	2017.1
	여자	1,665	1.5	4.9	93.6	2016.6
연령	만18~19세	477	0.9	0.5	98.6	2018.4
	만20~24세	1,095	1.2	4.0	94.8	2017.7
	만25~29세	1,050	1.4	7.2	91.4	2017.1
	만30~34세	898	1.0	5.1	93.8	2015.7
지역	서울	676	0.9	4.8	94.3	2016.6
	인천/경기	824	1.9	5.6	92.5	2017.0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1.1	6.4	92.5	2017.3
	광주/전라/제주	468	0.6	2.3	97.1	2016.7
	부산/울산/경남	555	1.1	5.3	93.6	2016.6
	대구/경북	448	0.4	3.9	95.6	2016.4
학력	고졸이하	1,098	1.4	4.4	94.2	2017.0
	대학/대학원 재학	898	0.4	0.9	98.7	2015.0
	대졸이상	1,524	1.5	7.5	91.0	2016.9
주거형태	동거	2,194	1.0	5.4	93.6	2017.1
	비동거/독립	1,326	1.6	4.3	94.1	2016.3

126) 정부 추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인지 및 참여의향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청년들에게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의향을 물어본 결과 '모른다'는 응답이 50.6%,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40.4%),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9.0%)로 조사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높은 편임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2.2%로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보면 대학/대학원 재학은 '참여할 의향이 있다'(11.8%), 대졸이상은 '참여할 의향이 없다'(50.6%)의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는 동거(10.1%) 중인 청년의 경우 비동거/독립 상태(7.0%)에 있는 청년에 비해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높음

표 Ⅱ-126 정부 추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인지 및 참여의향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모른다
2019	2,811	7.1	36.6	56.3
2020	3,325	9.0	40.4	50.6

* 주: 2019년 중/고등학생인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응답하지 않음. 2020년 전체 응답자 중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응답하지 않음

표 II-126-1 정부 추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인지 및 참여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모른다
전체		3,325	9.0	40.4	50.6
성별	남자	1,756	8.6	41.5	49.9
	여자	1,569	9.4	39.2	51.3
연령	만18~19세	471	5.7	16.1	78.2
	만20~24세	1,041	13.1	32.9	54.0
	만25~29세	965	8.6	49.2	42.3
	만30~34세	848	6.4	47.3	46.3
지역	서울	638	12.2	45.8	42.1
	인천/경기	761	10.5	38.1	51.5
	대전/충청/세종/강원	512	6.1	33.7	60.1
	광주/전라/제주	457	5.9	45.1	49.0
	부산/울산/경남	525	8.9	43.7	47.5
	대구/경북	432	4.5	35.9	59.6
학력	고졸이하	1,039	7.0	33.9	59.1
	대학/대학원 재학	889	11.8	29.4	58.8
	대졸이상	1,397	8.8	50.6	40.7
주거형태	동거	2,074	10.1	38.1	51.8
	비동거/독립	1,251	7.0	44.6	48.4

* 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응답

127)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도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되었다'(조금 도움이 되었다 43.8%+많은 도움이 되었다 16.0%)는 응답이 59.8%, '도움이 되지 않았다'(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3.2%+별로 도움되지 않았다 14.0%) 17.2%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보임

○ 성별로 보면 여자(62.7%)가 남자(57.1%)에 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만18~19세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85.1%(조금 도움이 되었다 63.6%+많은 도움이 되었다 21.5%)로 타 연령 대비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경우 69.0%(조금 도움이 되었다 59.6%+많은 도움이 되었다 9.4%)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36.5%(조금 도움이 되었다 31.5%+많은 도움이 되었다 5.0%)의 응답자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Ⅱ-127-1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 되지 않았(는)다	별로 도움 되지 않았(는)다	보통이다	조금 도움이 되었(된)다	많은 도움이 되었(된)다
전체		195	3.2	14.0	23.0	43.8	16.0
성별	남자	99	5.6	13.5	23.8	40.0	17.1
	여자	96	0.5	14.6	22.2	47.9	14.8
연령	만18~19세	6	14.9	0.0	0.0	63.6	21.5
	만20~24세	54	2.2	20.4	29.6	32.0	15.7
	만25~29세	85	3.4	13.4	17.7	50.0	15.5
	만30~34세	50	2.8	10.7	27.4	42.7	16.5
지역	서울	38	0.0	9.3	21.6	59.6	9.4
	인천/경기	63	3.7	9.5	29.6	34.1	23.2
	대전/충청/세종/강원	37	4.8	18.8	13.4	46.6	16.5
	광주/전라/제주	11	0.0	6.0	41.9	29.0	23.1
	부산/울산/경남	30	4.8	26.3	6.3	55.1	7.5
	대구/경북	16	4.0	22.0	37.5	31.5	5.0
학력	고졸이하	59	4.1	14.1	23.9	30.6	27.2
	대학/대학원 재학	9	0.0	24.3	5.4	70.3	0.0
	대졸이상	127	3.0	13.3	23.9	47.3	12.6
주거형태	동거	120	1.2	15.8	23.0	43.6	16.4
	비동거/독립	75	6.9	10.6	23.1	44.2	15.2

* 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 응답

128)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경험 여부

○ 정부의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참여 경험을 조사한 결과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6.6%로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3.4%)보다 높게 조사됨

○ 연령별로는 만 25-29세에서 참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2%로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0.6%만이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에서 5.2%가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28-1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경험 여부

(단위: 명, %, 년.월)

구분		사례수	참여하고 있다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한 적이 없다	평균 (년월)
전체		3,520	1.7	1.7	96.6	2018.4
성별	남자	1,855	1.9	1.5	96.6	2018.6
	여자	1,665	1.5	1.9	96.6	2018.2
연령	만18~19세	477	1.1	0.2	98.7	2020.0
	만20~24세	1,095	1.3	1.2	97.5	2018.0
	만25~29세	1,050	3.0	3.2	93.8	2018.6
	만30~34세	898	0.8	1.1	98.0	2018.0
지역	서울	676	0.4	3.4	96.1	2018.5
	인천/경기	824	2.9	1.4	95.8	2018.8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2.4	1.0	96.5	2017.6
	광주/전라/제주	468	0.4	0.2	99.3	2017.6
	부산/울산/경남	555	1.8	1.9	96.3	2018.7
	대구/경북	448	0.7	1.3	98.0	2016.8
학력	고졸이하	1,098	1.3	1.4	97.3	2018.3
	대학/대학원 재학	898	0.3	0.4	99.3	2017.6
	대졸이상	1,524	2.6	2.6	94.8	2018.5
주거형태	동거	2,194	1.5	1.9	96.6	2018.3
	비동거/독립	1,326	1.9	1.4	96.6	2018.5

129)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인지 및 참여의향

○ 정부의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청년들에게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 의향을 물어본 결과 '모른다'는 응답이 53.9%,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33.8%),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12.3%)로 조사됨

○ 연령별로는 만20~24세에서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16.0%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제주 지역의 41.5%가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여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보면 대학/대학원 재학은 '참여할 의향이 있다'(14.5%), 대졸이상은 '참여할 의향이 없다'(41.7%)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는 동거 중인 경우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13.7%)는 응답이 높음

표 Ⅱ-129-1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인지 및 참여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모른다
전체		3,416	12.3	33.8	53.9
성별	남자	1,801	11.2	34.6	54.2
	여자	1,615	13.6	32.9	53.5
연령	만18~19세	472	7.3	13.6	79.0
	만20~24세	1,071	16.0	28.3	55.7
	만25~29세	990	13.7	40.2	46.0
	만30~34세	883	8.9	39.3	51.8
지역	서울	653	14.9	37.5	47.6
	인천/경기	787	15.5	30.4	54.1
	대전/충청/세종/강원	533	11.0	28.3	60.7
	광주/전라/제주	464	5.6	41.5	53.0
	부산/울산/경남	538	9.8	38.0	52.2
	대구/경북	441	8.7	30.3	61.0
학력	고졸이하	1,069	9.5	29.2	61.3
	대학/대학원 재학	893	14.5	24.2	61.3
	대졸이상	1,454	13.1	41.7	45.2
주거형태	동거	2,134	13.7	31.7	54.6
	비동거/독립	1,282	10.0	37.4	52.5

* 주: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응답

130)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다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이 직장생활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80.3%(조금 도움이 되었다 50.0%+많은 도움이 되었다 30.3%)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5.3%(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0.8%+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4.5%)보다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자(84.1%)가 남자(77.0%)에 비해 내일배움공제 사업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 평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 90.0%로 다른 지역 대비 높음

○ 주거형태별로는 비동거/독립 상태인 경우에 81.6%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동거(79.6%)보다 긍정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130-1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 되지 않았(는)다	별로 도움 되지 않았(는)다	보통이다	조금 도움이 되었(된)다	많은 도움이 되었(된)다
전체		104	0.8	4.5	14.4	50.0	30.3
성별	남자	54	1.4	3.2	18.4	44.8	32.2
	여자	50	0.0	6.1	9.8	55.9	28.2
연령	만18~19세	5	0.0	0.0	16.1	58.7	25.3
	만20~24세	24	0.0	8.8	9.8	59.3	22.1
	만25~29세	60	1.3	3.5	13.3	44.8	37.0
	만30~34세	15	0.0	3.6	23.4	54.0	19.0
지역	서울	23	0.0	9.2	16.4	55.3	19.1
	인천/경기	37	1.9	0.0	8.0	52.2	37.8
	대전/충청/세종/강원	16	0.0	8.8	24.6	52.9	13.7
	광주/전라/제주	4	0.0	0.0	16.6	42.3	41.1
	부산/울산/경남	17	0.0	7.1	9.2	42.8	40.9
	대구/경북	7	0.0	0.0	39.7	24.3	36.0
학력	고졸이하	29	0.0	4.5	19.6	35.8	40.2
	대학/대학원 재학	5	0.0	0.0	27.1	55.8	17.1
	대졸이상	70	1.1	4.8	11.8	54.3	27.9
주거형태	동거	60	0.0	5.1	15.2	46.7	32.9
	비동거/독립	44	2.2	3.5	12.8	55.9	25.7

* 주: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 응답

131)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참여 경험 여부

○ 정부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참여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96.5%로,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다'(0.8%) 및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2.6%)는 응답 3.4%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만25~29세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4%로 타 연령 대비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4.8%가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데 비해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1.8%가 지원금 수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낮음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에서 지원금 수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보면 동거(4.3%) 중인 경우에 비동거/독립(1.9%)인 경우보다 지원금을 수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표 Ⅱ-131-1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참여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지원받고 있다	지원받은 적이 있다	지원받은 적이 없다
전체		3,520	0.8	2.6	96.5
성별	남자	1,855	0.5	2.6	96.9
	여자	1,665	1.2	2.6	96.2
연령	만18~19세	477	0.3	0.3	99.3
	만20~24세	1,095	1.2	1.9	96.9
	만25~29세	1,050	1.0	4.4	94.6
	만30~34세	898	0.5	2.1	97.4
지역	서울	676	1.4	3.4	95.2
	인천/경기	824	0.6	2.6	96.8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0.7	2.9	96.4
	광주/전라/제주	468	1.0	1.5	97.5
	부산/울산/경남	555	0.8	2.8	96.4
	대구/경북	448	0.5	1.3	98.1
학력	고졸이하	1,098	0.4	1.3	98.3
	대학/대학원 재학	898	0.2	1.1	98.8
	대졸이상	1,524	1.4	4.2	94.4
주거형태	동거	2,194	1.1	3.2	95.7
	비동거/독립	1,326	0.3	1.6	98.0

132)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인지 및 참여의향

○ 정부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의향을 물어본 결과 '모른다'는 응답이 51.9%,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38.0%),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10.1%)로 조사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64.5%로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보면 대학/대학원 재학은 '참여할 의향이 있다'(15.7%), 대졸이상은 '참여할 의향이 없다'(47.9%)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비동거/독립 상태인 경우 '참여할 의향이 없다'(43.9%) 응답이 높음

표 Ⅱ-132-1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인지 및 참여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모른다
전체		3,413	10.1	38.0	51.9
성별	남자	1,810	10.2	38.6	51.2
	여자	1,603	10.0	37.2	52.8
연령	만 18~19세	474	7.9	16.8	75.3
	만 20~24세	1,061	15.1	30.4	54.4
	만 25~29세	1,001	10.9	43.6	45.5
	만 30~34세	877	4.9	46.8	48.3
지역	서울	648	11.1	45.4	43.5
	인천/경기	800	12.0	33.9	54.0
	대전/충청/세종/강원	532	9.5	33.4	57.1
	광주/전라/제주	457	6.4	45.3	48.2
	부산/울산/경남	535	9.0	42.0	49.0
	대구/경북	441	7.5	28.0	64.5
학력	고졸이하	1,082	7.1	31.7	61.2
	대학/대학원 재학	889	15.7	26.7	57.6
	대졸이상	1,442	9.2	47.9	43.0
주거형태	동거	2,113	11.9	34.5	53.6
	비동거/독립	1,300	6.9	43.9	49.1

* 주: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응답

133)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 정부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이 직장생활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73.0%(조금 도움이 되었다 39.3%+많은 도움이 되었다 33.7%), '도움이 되지 않았다' 6.8%(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0.5%+별로 도움되지 않았다 6.3%)로 긍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자(74.1%)가 남자(72.0%)에 비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과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8.6%, 8.3%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주거형태별로는 동거(74.9%) 중인 경우에 비동거/독립(66.1%) 상태인 경우보다 사업이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표 II-133-1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조금 도움이 되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전체		107	0.5	6.3	20.2	39.3	33.7
성별	남자	45	0.0	10.7	17.3	40.6	31.4
	여자	62	0.9	2.1	22.9	38.2	35.9
연령	만18~19세	3	26.5	0.0	22.9	50.6	0.0
	만20~24세	34	0.0	6.9	12.2	33.4	47.4
	만25~29세	49	0.0	8.0	24.5	34.7	32.9
	만30~34세	21	0.0	2.2	19.9	55.9	22.0
지역	서울	28	0.0	7.5	26.6	31.8	34.1
	인천/경기	24	0.0	8.6	15.7	49.6	26.1
	대전/충청/세종/강원	17	3.4	0.0	27.6	37.5	31.5
	광주/전라/제주	11	0.0	8.3	15.4	39.2	37.1
	부산/울산/경남	20	0.0	6.4	10.4	33.1	50.1
	대구/경북	7	0.0	0.0	23.0	48.4	28.7
학력	고졸이하	16	0.0	4.1	30.4	36.0	29.5
	대학/대학원 재학	9	5.8	5.5	37.8	35.7	15.2
	대졸이상	82	0.0	6.8	16.3	40.4	36.5
주거형태	동거	81	0.6	6.0	18.5	38.3	36.6
	비동거/독립	26	0.0	7.1	26.7	43.4	22.7

* 주: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 응답

134) 이전 취업 경험

○ 조사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취업을 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이전 취업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높아짐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이 46.3%로 다른 지역 대비 이전 취업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음

○ 주거형태별로 동거(43.9%) 보다 비동거/독립(60.9%)이 이전 취업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134-1 이전 취업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520	50.0	50.0
성별	남자	1,855	49.5	50.5
	여자	1,665	50.7	49.3
연령	만18~19세	477	16.3	83.7
	만20~24세	1,095	38.5	61.5
	만25~29세	1,050	58.8	41.2
	만30~34세	898	63.3	36.7
지역	서울	676	51.6	48.4
	인천/경기	824	50.2	49.8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51.2	48.8
	광주/전라/제주	468	48.8	51.2
	부산/울산/경남	555	49.2	50.8
	대구/경북	448	46.3	53.7
학력	고졸이하	1,098	56.1	43.9
	대학/대학원 재학	898	26.9	73.1
	대졸이상	1,524	57.6	42.4
주거 형태	동거	2,194	43.9	56.1
	비동거/독립	1,326	60.9	39.1

135) 최근 그만둔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 이전 취업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직장에서의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가 92.2%로 ‘비임금근로자’ 7.8% 대비 월등히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88.5%)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모두 90% 이상 ‘임금근로자’였다고 응답함

○ 학력별로는 대학/대학원 재학에서 ‘임금근로자’ 응답이 94.8%로 가장 높고 고졸이하가 91.2%로 가장 낮으나 대졸이상(92.1%)과 큰 차이는 없음

표 II-135-1 최근 그만둔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전체		1,677	92.2	7.8
성별	남자	863	92.0	8.0
	여자	814	92.3	7.7
연령	만18~19세	74	92.8	7.2
	만20~24세	410	94.3	5.7
	만25~29세	622	92.0	8.0
	만30~34세	571	90.9	9.1
지역	서울	327	88.5	11.5
	인천/경기	416	92.4	7.6
	대전/충청/세종/강원	268	90.0	10.0
	광주/전라/제주	214	95.9	4.1
	부산/울산/경남	255	96.3	3.7
	대구/경북	197	93.4	6.6
학력	고졸이하	585	91.2	8.8
	대학/대학원 재학	214	94.8	5.2
	대졸이상	878	92.1	7.9
주거 형태	동거	895	92.3	7.7
	비동거/독립	782	91.9	8.1

* 주: 이전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136) 이전 직장의 채용 과정 공정성

○ 이전 취업 경험이 있는 임금근로자의 직장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물어본 결과 '공정했다(공정한 편이었다 52.9%+매우 공정했다 4.7%)'는 응답이 57.6%로 '공정하지 않았다(전혀 공정하지 않았다 0.7%+공정하지 않은 편이었다 3.5%)' 4.2% 대비 월등히 높음

○ 연령별로는 만30~34세에서 '공정했다'는 응답이 65.6%로 다른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고, 만20~24세에서 50.2%로 낮음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62.5%)이 고졸이하(50.0%) 보다 채용 과정이 더 공정하다고 느낌

표 II-136-1 이전 직장의 채용 과정 공정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	공정하지 않은 편이었다	보통이다	공정한 편이었다	매우 공정했다
전체		1,556	0.7	3.5	38.1	52.9	4.7
성별	남자	799	0.6	3.8	42.2	49.1	4.3
	여자	757	0.9	3.2	33.7	57.0	5.3
연령	만18~19세	68	0.0	0.0	41.7	55.4	2.9
	만20~24세	388	0.8	5.5	43.5	44.0	6.2
	만25~29세	580	1.2	3.9	40.6	50.1	4.3
	만30~34세	520	0.3	2.2	31.9	61.1	4.4
지역	서울	291	0.5	1.6	28.0	65.8	4.1
	인천/경기	388	1.0	4.3	41.5	46.9	6.4
	대전/충청/세종/강원	244	0.7	3.5	43.7	47.7	4.5
	광주/전라/제주	203	1.7	6.5	39.0	50.7	2.0
	부산/울산/경남	244	0.4	3.9	44.7	46.5	4.6
	대구/경북	186	0.0	1.4	29.4	65.2	4.0
학력	고졸이하	540	0.4	3.2	46.4	46.7	3.3
	대학/대학원 재학	205	0.0	4.8	44.8	45.0	5.5
	대졸이상	811	1.1	3.4	31.5	58.5	5.5
주거형태	동거	831	0.7	4.1	41.4	49.5	4.3
	비동거/독립	725	0.8	2.8	33.9	57.2	5.3

* 주: 이전 취업 경험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응답

137) 취업 후 퇴사 및 해고 경험 여부

○ 취업 후 퇴사 및 해고 경험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는 응답은 61.7%,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7%로 조사됨

○ 2019년 대비 스스로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는 19.9%p 상승, ‘둘 다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22.1%p 하락하였음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는 응답이 높아짐

○ 지역별로는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7.0%로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는 대학/대학원 재학(6.7%)에서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37 취업 후 퇴사 및 해고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둘 다 경험한 적이 있다	둘 다 경험한 적이 없다
2019	2,948	41.8	1.8	3.7	52.6
2020	1,677	61.7	4.7	3.1	30.5

* 주: 2019년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020년 전체 응답자 중 이전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표 II-137-1 취업 후 퇴사 및 해고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둘 다 경험한 적이 있다	둘 다 경험한 적이 없다
전체		1,677	61.7	4.7	3.1	30.5
성별	남자	863	62.3	4.2	2.9	30.6
	여자	814	61.0	5.2	3.2	30.5
연령	만18~19세	74	45.3	5.0	1.8	47.9
	만20~24세	410	58.2	5.3	1.8	34.8
	만25~29세	622	60.8	5.6	3.0	30.6
	만30~34세	571	66.2	3.5	4.1	26.3
지역	서울	327	48.3	5.2	5.0	41.5
	인천/경기	416	61.7	4.9	3.4	30.0
	대전/충청/세종/강원	268	64.7	4.5	2.6	28.2
	광주/전라/제주	214	66.8	2.7	2.6	27.9
	부산/울산/경남	255	79.0	7.0	1.1	12.9
	대구/경북	197	57.6	1.6	1.0	39.8
학력	고졸이하	585	66.0	3.6	2.3	28.1
	대학/대학원 재학	214	60.0	6.7	3.5	29.9
	대졸이상	878	59.4	5.0	3.4	32.1
주거형태	동거	895	57.2	5.8	3.3	33.7
	비동거/독립	782	67.4	3.4	2.8	26.5

* 주: 이전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138) 가장 최근 그만둔 일자리 시기

○ 취업 후 퇴사 또는 해고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일자리를 그만둔 시기는 '2017년~2020년'이 72.9%로 가장 많고, 이어서 '2014년~2016년'(20.5%), '2010~2013년'(5.7%) 등의 순임

○ 연령이 높을수록 일자리를 일찍 그만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38-1 가장 최근 그만둔 일자리 시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2010년 이전	2010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20년
전체		1,148	1.0	5.7	20.5	72.9
성별	남자	586	1.5	4.7	19.1	74.8
	여자	562	0.4	6.8	22.0	70.8
연령	만18~19세	37	0.0	0.0	0.0	100.0
	만20~24세	263	0.0	0.0	6.6	93.4
	만25~29세	426	0.4	3.9	16.2	79.4
	만30~34세	422	2.2	10.7	33.3	53.9
지역	서울	185	0.3	5.0	16.0	78.7
	인천/경기	296	0.9	5.6	24.4	69.2
	대전/충청/세종/강원	188	1.3	6.0	15.4	77.2
	광주/전라/제주	144	0.0	6.9	27.8	65.2
	부산/울산/경남	216	1.8	6.3	14.8	77.2
	대구/경북	119	2.0	4.0	27.7	66.3
학력	고졸이하	411	0.8	7.1	24.0	68.2
	대학/대학원 재학	148	0.6	1.4	4.1	93.8
	대졸이상	589	1.2	5.8	22.0	71.0
주거형태	동거	589	0.4	3.7	13.5	82.4
	비동거/독립	559	1.7	7.9	28.4	62.0

* 주: 취업 후 퇴사 또는 해고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139)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의 종사상 지위

○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의 지위는 '임금근로자'가 96.5%로 '비임금근로자' 3.5%보다 월등히 높음

○ 성별, 연령, 지역별, 학력, 주거형태별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이 모든 응답에서 '임금근로자'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139-1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의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전체		847	96.5	3.5
성별	남자	444	95.8	4.2
	여자	403	97.3	2.7
연령	만18~19세	37	100.0	0.0
	만20~24세	244	97.0	3.0
	만25~29세	335	96.0	4.0
	만30~34세	231	96.5	3.5
지역	서울	145	96.1	3.9
	인천/경기	208	95.4	4.6
	대전/충청/세종/강원	151	95.1	4.9
	광주/전라/제주	94	98.3	1.7
	부산/울산/경남	170	99.0	1.0
	대구/경북	79	97.5	2.5
학력	고졸이하	289	98.6	1.4
	대학/대학원 재학	137	95.9	4.1
	대졸이상	421	95.4	4.6
주거형태	동거	482	97.5	2.5
	비동거/독립	365	95.1	4.9

* 주: 2017~2020년 사이 그만둔 일자리가 있는 경우 응답

140)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의 고용형태-임금근로자

○ 가장 최근에 그만둔 일자리에서 임금근로자였던 응답자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57.4%로 비정규직(42.6%) 대비 14.8%p 더 높음

○ 연령별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정규직' 고용형태 근무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정규직 비율이 62.0%로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고졸이하(59.7%)에 비해 대졸이상(69.3%)의 '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140-1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의 고용형태-임금근로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818	57.4	42.6
성별	남자	427	57.0	43.0
	여자	391	57.9	42.1
연령	만18~19세	37	9.8	90.2
	만20~24세	236	37.1	62.9
	만25~29세	323	61.3	38.7
	만30~34세	222	76.7	23.3
지역	서울	138	57.7	42.3
	인천/경기	199	59.0	41.0
	대전/충청/세종/강원	145	50.6	49.4
	광주/전라/제주	92	57.9	42.1
	부산/울산/경남	168	62.0	38.0
	대구/경북	76	51.5	48.5
학력	고졸이하	285	59.7	40.3
	대학/대학원 재학	133	15.2	84.8
	대졸이상	400	69.3	30.7
주거형태	동거	469	50.7	49.3
	비동거/독립	349	67.9	32.1

* 주: 2017~2020년 사이 그만둔 일자리에서 임금근로자인 경우 응답

141)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의 고용형태-비임금근로자

○ 가장 최근에 그만 둔일자리에서 비임금근로자의 고용 형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51.6%로 가장 높고, 이어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40.1%), '무급가족종사자'(8.3%)의 순임

표 II-141-1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의 고용형태-비임금근로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전체		29	40.1	51.6	8.3
성별	남자	17	51.4	44.7	3.9
	여자	12	19.5	64.3	16.2
연령	만20~24세	8	52.0	37.1	10.8
	만25~29세	12	35.2	59.0	5.8
	만30~34세	9	38.5	51.3	10.2
지역	서울	7	55.4	44.6	0.0
	인천/경기	9	40.6	46.6	12.8
	대전/충청/세종/강원	6	40.9	59.1	0.0
	광주/전라/제주	2	0.0	33.1	66.9
	부산/울산/경남	2	0.0	100.0	0.0
	대구/경북	3	40.2	59.8	0.0
학력	고졸이하	4	40.7	59.3	0.0
	대학/대학원 재학	4	80.1	19.9	0.0
	대졸이상	21	28.6	59.2	12.2
주거형태	동거	13	59.2	28.8	12.0
	비동거/독립	16	25.1	69.5	5.4

* 주: 2017~2020년 사이 그만둔 일자리에서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응답

142)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의 근로시간 유형

○ 가장 최근에 그만둔 일자리에서 응답자의 77.2%는 '전일제'였으며 22.8%는 '시간제'로 근무했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전일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전일제'의 응답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83.3%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서울 지역에서 69.1%로 낮음

○ 주거형태별로 동거(72.2%) 보다 비동거/독립(84.9%)에서의 '전일제' 응답이 높음

표 II-142-1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의 근로시간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일제	시간제
전체		847	77.2	22.8
성별	남자	444	78.0	22.0
	여자	403	76.3	23.7
연령	만18~19세	37	18.4	81.6
	만20~24세	244	60.2	39.8
	만25~29세	335	83.1	16.9
	만30~34세	231	91.4	8.6
지역	서울	145	69.1	30.9
	인천/경기	208	79.0	21.0
	대전/충청/세종/강원	151	80.6	19.4
	광주/전라/제주	94	74.7	25.3
	부산/울산/경남	170	83.3	16.7
	대구/경북	79	72.0	28.0
학력	고졸이하	289	82.9	17.1
	대학/대학원 재학	137	37.9	62.1
	대졸이상	421	86.0	14.0
주거형태	동거	482	72.2	27.8
	비동거/독립	365	84.9	15.1

* 주: 2017~2020년 사이 그만둔 일자리가 있는 경우 응답

143)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의 유형

○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의 유형으로, 응답자의 90.2%가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로 응답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재단,사단)법인 단체'(2.8%),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2.4%), '정부 기관(공무원, 군인 등)'(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는 '민간회사 또는 개입사업체'(91.4%)에 소속되어 있다는 응답이 여자(88.7%) 에 비해 높고, 여자는 '(재단,사단)법인 단체'(4.1%)에 소속되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높음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은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의 응답이 다른 지역대비 낮고 '(재단,사단)법인 단체'의 응답이 다른 지역 대비 높음

○ 학력별로 고졸이하는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94.0%) 응답이 다른 학력 응답자 대비 높게 나타남

표 II-143-1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의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	외국인 회사	정부투자 기관/정부 출연기관/ 공기업	(재단,사단) 법인 단체	정부 기관 (공무원, 군인 등)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전체		847	90.2	1.4	1.2	2.8	2.1	2.4
성별	남자	444	91.4	2.1	1.1	1.6	1.9	2.0
	여자	403	88.7	0.6	1.4	4.1	2.3	2.8
연령	만 18~19세	37	92.6	0.0	0.0	0.0	1.9	5.5
	만 20~24세	244	92.1	1.4	1.4	2.3	1.2	1.6
	만 25~29세	335	89.7	1.1	1.4	1.9	2.3	3.6
	만 30~34세	231	88.6	2.1	0.9	4.8	2.5	1.1
지역	서울	145	94.0	2.1	0.0	0.7	0.7	2.5
	인천/경기	208	92.9	1.6	1.7	0.8	0.6	2.5
	대전/충청/세종/강원	151	82.8	1.4	1.8	5.4	6.3	2.3
	광주/전라/제주	94	80.2	0.8	0.0	7.5	5.3	6.3
	부산/울산/경남	170	91.1	0.6	2.2	4.5	0.8	0.8
	대구/경북	79	94.1	1.3	0.4	1.3	2.2	0.7
학력	고졸이하	289	94.0	0.0	1.0	1.3	1.6	2.0
	대학/대학원 재학	137	87.5	1.6	1.1	4.9	1.5	3.5
	대졸이상	421	88.5	2.2	1.4	3.0	2.6	2.3
주거형태	동거	482	90.2	1.7	1.4	2.0	2.0	2.7
	비동거/독립	365	90.1	0.9	1.0	4.0	2.1	1.8

* 주: 2017~2020년 사이 그만둔 일자리가 있는 경우 응답

144)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의 종사자 수

○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의 종사자 수는 '1-4인'이 26.4%로 가장 높고, '10-29인'(23.1%), '5-9인'(22.1%), '30-99인'(13.2%) 등의 순임. 응답자의 71.6%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직장에서 근무 했었음

○ 연령별로는 만18~19세, 만20~24세에서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직장에서의 근무 비율이 높은 편이고, 만25세 이상에서는 30인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한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종사자 수 '1-4인' 직장에서의 근무 경험 비율이 다른 지역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II-144-1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의 종사자 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전체		847	26.4	22.1	23.1	13.2	6.5	2.4	6.3
성별	남자	444	23.5	20.0	22.8	15.4	7.6	2.7	7.9
	여자	403	29.7	24.6	23.4	10.7	5.1	2.0	4.4
연령	만18~19세	37	46.3	21.3	24.6	1.6	0.0	0.0	6.1
	만20~24세	244	31.0	23.4	23.9	12.0	4.5	1.6	3.6
	만25~29세	335	23.3	22.8	20.1	11.8	8.6	3.8	9.6
	만30~34세	231	24.3	20.0	26.4	17.7	5.9	1.4	4.3
지역	서울	145	27.2	29.6	13.6	13.8	4.5	5.2	6.1
	인천/경기	208	21.9	19.1	29.4	14.2	6.2	2.6	6.7
	대전/충청/세종/강원	151	27.3	23.2	18.6	10.9	12.5	1.8	5.6
	광주/전라/제주	94	32.1	21.8	20.0	13.0	5.5	0.7	7.0
	부산/울산/경남	170	25.7	17.9	28.7	15.2	5.8	0.6	6.2
	대구/경북	79	36.9	22.4	22.0	7.9	2.5	2.0	6.4
학력	고졸이하	289	30.7	26.0	21.3	10.9	5.9	0.8	4.3
	대학/대학원 재학	137	33.6	22.8	23.5	11.2	1.7	1.4	5.8
	대졸이상	421	21.4	19.5	24.1	15.3	8.3	3.7	7.7
주거형태	동거	482	25.4	22.4	23.6	12.4	6.0	3.3	6.9
	비동거/독립	365	27.9	21.6	22.3	14.5	7.2	1.1	5.5

* 주: 2017~2020년 사이 그만둔 일자리가 있는 경우 응답

145)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의 근속년수

○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의 근속년수를 조사한 결과, '3년 미만'이 8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5년 미만'(12.2%), '5-7년 미만'(3.7%) 등의 순임

○ 가장 최근 그만둔 일자리의 평균 근속년수는 20.3개월로 조사됨

○ 성별로 보면 여자의 평균 근속년수가 21.9개월로 남자(19.0개월)보다 2.9개월 정도 더 근무한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10년 이상' 근무 응답이 다른 지역대비 높게 나타나 평균 근속년수도 가장 많은 25.5개월임

○ 주거형태별로 동거인 경우보다 비동거/독립의 경우에 3년 이상 근속년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45-1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의 근속년수

(단위: 명, 년, 개월)

구분		사례수	3년 미만	3-5년 미만	5-7년 미만	7-10년 미만	10년 이상	평균 근속년수 (개월)
전체		847	82.1	12.2	3.7	1.1	0.9	20.3
성별	남자	444	85.0	9.9	4.1	0.5	0.5	19.0
	여자	403	78.7	14.9	3.2	1.7	1.5	21.9
연령	만 18~19세	37	100.0	0.0	0.0	0.0	0.0	5.7
	만 20~24세	244	94.8	4.5	0.7	0.0	0.0	11.2
	만 25~29세	335	82.8	13.3	3.2	0.7	0.0	20.2
	만 30~34세	231	67.0	19.3	7.7	2.7	3.2	30.7
지역	서울	145	82.0	13.8	3.1	1.2	0.0	19.7
	인천/경기	208	83.2	13.3	2.5	0.7	0.4	19.8
	대전/충청/세종/강원	151	85.3	6.9	7.0	0.8	0.0	18.3
	광주/전라/제주	94	75.2	15.2	3.7	1.0	4.9	25.5
	부산/울산/경남	170	81.2	11.6	3.6	1.7	2.0	21.4
	대구/경북	79	81.3	12.8	4.0	1.9	0.0	19.5
학력	고졸이하	289	80.0	11.8	6.1	0.7	1.4	22.3
	대학/대학원 재학	137	97.5	2.5	0.0	0.0	0.0	8.5
	대졸이상	421	78.5	15.5	3.4	1.7	0.9	22.8
주거형태	동거	482	88.3	8.6	2.7	0.0	0.5	15.9
	비동거/독립	365	72.6	17.8	5.2	2.8	1.6	27.0

* 주: 2017~2020년 사이 그만둔 일자리가 있는 경우 응답

146)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 및 월 소득

○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의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40.6시간으로 월소득은 195.1만 원으로 조사됨

○ 성별로는 남자의 근로시간 42.2시간 대비 여자 38.6시간으로 남자가 3.6시간 더 일하고 소득은 39.5만 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주당 근로시간과 월 소득이 높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 주당 근로시간과 월 소득이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주거 형태별로는 동거보다는 비동거/독립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과 월 소득이 높게 나타남

표 II-146-1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 및 월 소득

(단위: 명, 시간, 만 원)

구분		사례수	주당 근로시간(시간)	월 소득(만 원)
전체		847	40.6	195.1
성별	남자	444	42.2	213.4
	여자	403	38.6	173.9
연령	만18~19세	37	23.7	72.9
	만20~24세	244	37.0	159.4
	만25~29세	335	42.6	197.3
	만30~34세	231	42.9	239.4
지역	서울	145	39.5	188.9
	인천/경기	208	39.5	198.4
	대전/충청/세종/강원	151	42.8	210.7
	광주/전라/제주	94	40.0	182.6
	부산/울산/경남	170	41.8	191.1
	대구/경북	79	40.6	190.0
학력	고졸이하	289	44.1	212.0
	대학/대학원 재학	137	31.2	129.3
	대졸이상	421	41.2	205.2
주거 형태	동거	482	38.9	178.3
	비동거/독립	365	43.1	220.8

* 주: 2017~2020년 사이 그만둔 일자리가 있는 경우 응답

147)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 교육 수준 대비 직무 수준

○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 수준은 '나의 교육수준과 유사하다'는 응답이 57.1%로 가장 높고, 이어서 '나의 교육수준보다 낮다'(40.3%), '나의 교육수준보다 높다'(2.5%)의 순임

○ 성별로는 남자는 '나의 교육수준보다 낮다'는 응답이 여자는 '나의 교육수준과 유사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나의 교육수준보다 낮다'는 응답이 높음

○ 학력별로 보면 대학/대학원 재학은 '나의 교육수준보다 낮다'는 응답이 고졸이하는 '나의 교육수준과 유사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147-1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 교육 수준 대비 직무 수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나의 교육수준 보다 낮다	나의 교육수준과 유사하다	나의 교육수준 보다 높다
전체		847	40.3	57.1	2.5
성별	남자	444	43.6	54.1	2.3
	여자	403	36.6	60.6	2.8
연령	만18~19세	37	88.0	10.4	1.6
	만20~24세	244	45.9	51.8	2.3
	만25~29세	335	38.8	59.1	2.1
	만30~34세	231	31.9	64.7	3.5
지역	서울	145	47.0	51.4	1.6
	인천/경기	208	41.3	56.1	2.6
	대전/충청/세종/강원	151	34.3	60.6	5.1
	광주/전라/제주	94	37.8	62.2	0.0
	부산/울산/경남	170	41.1	55.7	3.1
	대구/경북	79	31.0	68.2	0.8
학력	고졸이하	289	30.0	68.4	1.6
	대학/대학원 재학	137	69.9	28.2	1.9
	대졸이상	421	37.5	59.2	3.3
주거형태	동거	482	45.7	51.0	3.4
	비동거/독립	365	32.2	66.6	1.2

* 주: 2017~2020년 사이 그만둔 일자리가 있는 경우 응답

148)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 기술 수준 대비 직무 수준

○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의 수준은 '나의 기술수준과 유사하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높고, '나의 기술수준보다 낮다'(38.6%), '나의 기술수준보다 높다'(3.7%) 등의 순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나의 기술수준보다 낮다'는 응답이 여자는 '나의 기술수준과 유사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나의 기술수준보다 낮다'는 응답이 높음

○ 학력별로 보면 대학/대학원 재학은 '나의 기술수준보다 낮다'는 응답이 고졸이하는 '나의 기술수준과 유사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48-1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 기술 수준 대비 직무 수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나의 기술수준보다 낮다	나의 기술수준과 유사하다	나의 기술수준보다 높다
전체		847	38.6	57.7	3.7
성별	남자	444	42.8	53.2	3.9
	여자	403	33.6	63.0	3.4
연령	만18~19세	37	83.2	13.4	3.4
	만20~24세	244	44.3	52.4	3.3
	만25~29세	335	38.0	57.9	4.2
	만30~34세	231	28.9	67.6	3.5
지역	서울	145	47.6	49.7	2.8
	인천/경기	208	39.8	54.0	6.1
	대전/충청/세종/강원	151	32.7	62.8	4.5
	광주/전라/제주	94	28.3	71.7	0.0
	부산/울산/경남	170	39.1	57.8	3.1
	대구/경북	79	31.7	68.3	0.0
학력	고졸이하	289	28.9	68.7	2.4
	대학/대학원 재학	137	68.3	29.1	2.6
	대졸이상	421	35.2	59.9	4.9
주거형태	동거	482	44.8	50.6	4.7
	비동거/독립	365	29.1	68.7	2.2

* 주: 2017~2020년 사이 그만둔 일자리가 있는 경우 응답

149)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 업무내용과 전공의 일치 여부

○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의 수준이 본인의 전공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불일치 한다'는 응답이 55.7%로 '일치 한다' 44.3%에 비해 11.4%p 더 높음

○ 연령별로 '전공분야와 불일치 한다'는 응답은 만20~24세(59.9%)에서 다른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전공분야와 불일치 한다'는 응답이 64.8%로 다른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표 Ⅱ-149-1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 업무내용과 전공의 일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나의 전공분야와 일치한다	나의 전공분야와 불일치한다
전체		421	44.3	55.7
성별	남자	178	42.2	57.8
	여자	243	46.0	54.0
연령	만20~24세	58	40.1	59.9
	만25~29세	201	45.1	54.9
	만30~34세	162	44.6	55.4
지역	서울	74	54.1	45.9
	인천/경기	110	41.1	58.9
	대전/충청/세종/강원	68	47.1	52.9
	광주/전라/제주	41	42.5	57.5
	부산/울산/경남	94	35.1	64.9
	대구/경북	34	56.3	43.7
학력	대학/대학원 재학	4	7.9	92.1
	대졸이상	417	44.5	55.5
주거형태	동거	216	47.7	52.3
	비동거/독립	205	40.1	59.9

* 주: 2017~2020년 사이 그만둔 일자리가 있는 응답자 중 대학졸업자인 경우 응답

150) 가장 최근 그만둔 일자리의 횟수

○ 가장 최근 그만둔 일자리가 몇 번째 일자리였는지 물음에 대해 '첫 번째' 라는 응답이 45.4%로 가장 높고, 이어서 '두 번째'(25.8%), '네 번째 이상'(15.0%), '세 번째'(13.8%)의 순임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첫 번째' 일자리였다는 응답은 낮아짐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 지역에서 그만둔 일자리가 '첫 번째'였다는 응답은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네 번째 이상'이라는 응답은 낮은 편임

표 II-150-1 가장 최근 그만둔 일자리 횟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상
전체		1,148	45.4	25.8	13.8	15.0
성별	남자	586	46.6	24.4	12.1	16.9
	여자	562	44.2	27.3	15.6	12.9
연령	만18~19세	37	71.7	22.0	6.3	0.0
	만20~24세	263	46.2	24.2	10.2	19.4
	만25~29세	426	49.1	24.0	15.2	11.7
	만30~34세	422	40.0	28.6	14.7	16.7
지역	서울	185	42.5	31.9	9.7	15.9
	인천/경기	296	45.0	24.8	14.1	16.1
	대전/충청/세종/강원	188	45.4	24.6	15.5	14.5
	광주/전라/제주	144	57.0	22.1	13.3	7.6
	부산/울산/경남	216	39.4	22.9	18.3	19.4
	대구/경북	119	53.4	29.1	8.9	8.5
학력	고졸이하	411	40.2	23.6	17.3	18.9
	대학/대학원 재학	148	48.1	22.6	12.0	17.3
	대졸이상	589	48.2	28.0	11.8	11.9
주거형태	동거	589	49.5	26.4	11.3	12.8
	비동거/독립	559	40.8	25.1	16.6	17.5

* 주: 취업 후 퇴사 또는 해고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151) 가장 최근 그만둔 일자리의 자의적 퇴사 여부

○ 가장 최근에 그만둔 일이 스스로 원해서 그만둔 것이었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86.7%임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스스로 원해서 그만둔 것이 '아니다' 라는 응답이 높음

○ 지역별로 보면 스스로 원해서 그만둔 것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서울 지역에서 17.3%로 다른 지역대비 상대적으로 높고, 대구/경북 지역이 4.2%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주거 형태별로는 동거(16.4%)가 비동거/독립(9.7%) 보다 비자의적 퇴사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151-1 가장 최근 그만둔 일자리의 자의적 퇴사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1,148	86.7	13.3
성별	남자	586	87.1	12.9
	여자	562	86.2	13.8
연령	만18~19세	37	75.7	24.3
	만20~24세	263	85.2	14.8
	만25~29세	426	86.5	13.5
	만30~34세	422	88.4	11.6
지역	서울	185	82.7	17.3
	인천/경기	296	85.0	15.0
	대전/충청/세종/강원	188	89.2	10.8
	광주/전라/제주	144	86.4	13.6
	부산/울산/경남	216	88.4	11.6
	대구/경북	119	95.8	4.2
학력	고졸이하	411	88.9	11.1
	대학/대학원 재학	148	86.8	13.2
	대졸이상	589	85.2	14.8
주거 형태	동거	589	83.6	16.4
	비동거/독립	559	90.3	9.7

* 주: 취업 후 퇴사 또는 해고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152) 가장 최근 그만둔 일자리의 자의적 퇴사 이유

○ 스스로 일을 그만 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23.8%가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라고 응답하였고, '더 나은 근무환경(직장상사, 동료, 식대, 출퇴근 시간/거리 등)'(20.4%), '집안사정 때문에(육아, 가사부담 등 포함)'(14.1%) 등의 순임

○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여자의 경우 '집안사정 때문에(육아, 가사부담 등 포함)' 응답이 가장 높음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대졸이상은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퇴사를 했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대학/대학원 재학의 경우 '개인발전/승진'을 위한 퇴사가 가장 높음

○ 주거형태별로 비동거/독립의 경우 '집안사정 때문에(육아, 가사부담 등 포함)' 퇴사했다는 응답이 25.8%로 동거 3.2%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II-152-1 가장 최근 그만둔 일자리의 자의적 퇴사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1,015	23.8	7.7	20.4	11.6	11.7	2.4	6.3	1.9	14.1
성별	남자	526	27.2	7.6	19.9	14.3	14.2	3.6	8.5	1.5	3.3
	여자	489	20.1	7.9	20.9	8.6	9.0	1.1	3.9	2.5	26.2
연령	만 18~19세	29	13.8	23.7	24.4	12.8	7.8	13.1	4.5	0.0	0.0
	만 20~24세	229	17.5	15.4	17.7	15.4	15.6	2.8	3.2	2.8	9.6
	만 25~29세	377	28.0	6.8	23.1	14.0	12.0	1.4	4.0	1.9	8.8
	만 30~34세	380	23.6	3.7	18.9	7.3	9.7	2.7	10.2	1.7	22.3
지역	서울	155	25.9	11.7	20.0	9.2	9.3	4.4	6.4	1.2	12.0
	인천/경기	259	25.7	8.8	21.7	11.4	8.6	2.4	4.9	1.2	15.3
	대전/충청/세종/강원	169	22.5	6.5	21.0	9.7	16.7	0.3	4.2	3.3	15.9
	광주/전라/제주	127	25.5	4.7	21.1	13.9	4.9	2.7	9.4	4.8	13.0
	부산/울산/경남	192	20.3	4.2	18.5	13.3	16.4	2.1	8.1	2.1	15.0
	대구/경북	113	19.7	8.1	17.8	14.6	18.4	2.3	8.2	0.0	10.8
학력	고졸이하	373	22.9	5.5	21.6	14.5	10.6	2.2	6.9	3.0	12.9
	대학/대학원 재학	132	15.5	22.8	14.2	13.8	15.8	5.0	3.0	0.0	10.0
	대졸이상	510	26.4	5.5	21.0	9.0	11.5	1.9	6.8	1.7	16.0
주거형태	동거	505	24.4	11.2	22.4	15.8	14.8	2.7	3.7	1.9	3.2
	비동거/독립	510	23.2	4.0	18.1	7.1	8.5	2.1	9.1	2.0	25.8

* 주 1) 취업 후 퇴사 또는 해고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경우 응답

2) 보기 ①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②개인발전/승진 ③더 나은 근무환경(직장상사, 동료, 식대, 출퇴근 시간/거리 등) ④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⑤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⑥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⑦개인 사업을 위해서 ⑧건강상의 이유로 ⑨집안사정 때문에(육아, 가사부담 등 포함)

153) 가장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후 가장 어려웠던 점

○ 일을 그만둔 후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었다'는 응답이 41.5%인 가운데, '생계 유지를 위한 생활비 부족'(19.6%),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기회 부족'(14.6%)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부족'(11.7%)이 여자는 '가족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 부족'(5.8%)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53-1 가장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후 가장 어려웠던 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전체		1,148	19.6	4.6	9.6	14.6	1.6	5.0	3.3	41.5
성별	남자	586	20.0	4.6	11.7	14.6	1.0	7.4	1.0	39.6
	여자	562	19.2	4.6	7.4	14.7	2.2	2.4	5.8	43.6
연령	만 18~19세	37	19.5	3.9	2.2	4.6	0.0	0.0	0.0	69.8
	만 20~24세	263	22.6	3.0	9.4	10.2	1.0	2.5	0.4	50.9
	만 25~29세	426	18.0	7.1	10.5	18.3	1.5	3.4	1.8	39.5
	만 30~34세	422	19.6	3.2	9.4	14.1	2.0	8.3	6.6	36.8
지역	서울	185	21.6	3.0	10.1	16.3	1.2	10.0	2.4	35.7
	인천/경기	296	19.4	5.8	7.1	18.6	1.8	4.2	5.0	38.2
	대전/충청/세종/강원	188	19.2	4.5	11.8	10.9	2.3	2.2	1.4	47.7
	광주/전라/제주	144	16.9	3.1	9.8	18.2	0.0	3.7	1.9	46.5
	부산/울산/경남	216	24.7	3.6	11.3	8.6	2.2	4.4	4.5	40.7
	대구/경북	119	8.3	8.5	11.7	9.7	0.9	5.5	1.3	54.0
학력	고졸이하	411	21.6	5.4	11.2	13.9	1.2	4.7	3.2	38.9
	대학/대학원 재학	148	22.5	0.0	5.7	6.4	0.0	1.1	1.3	63.1
	대졸이상	589	17.7	5.2	9.6	17.1	2.2	6.2	3.9	38.1
주거형태	동거	589	20.4	5.1	11.8	15.4	1.2	3.2	0.7	42.2
	비동거/독립	559	18.7	4.1	7.1	13.8	2.0	7.2	6.3	40.8

* 주 1) 취업 후 퇴사 또는 해고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2) 보기 ①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비 부족 ②재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의 부족 ③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부족 ④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기회 부족 ⑤이전 직장경력으로 인한 재취업 과정에서의 차별 ⑥창업을 위한 자금조달 등 어려움 ⑦가족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 부족 ⑧기타 ⑨특별히 없었음

154) 실업급여 인지 여부

○ 직장을 그만 두었을 당시 실업급여 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예)’고 응답한 비율은 78.7%로 ‘알지 못한다(아니오)’는 응답(21.3%)보다 높게 나타남

○ 2019년과 비교 시, 실업급여 인지율은 5.5%p 하락하였음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실업급여 인지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이 68.4%, 광주/전라/제주 지역이 70.2%로 다른 지역대비 상대적으로 인지율이 낮은 편임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이 실업급여 인지율 85.0%로 상대적으로 높고, 대학/대학원 재학이 57.7%로 낮음

표 Ⅱ-154 실업급여 인지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9	1,334	84.2	15.8
2020	1,148	78.7	21.3

* 주: 2019년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퇴사 및 해고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020년 전체 응답자 중 퇴사 및 해고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표 Ⅱ-154-1 실업급여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1,148	78.7	21.3
성별	남자	586	79.5	20.5
	여자	562	77.8	22.2
연령	만 18~19세	37	34.0	66.0
	만 20~24세	263	65.8	34.2
	만 25~29세	426	81.5	18.5
	만 30~34세	422	85.7	14.3
지역	서울	185	82.9	17.1
	인천/경기	296	82.1	17.9
	대전/충청/세종/강원	188	68.4	31.6
	광주/전라/제주	144	70.2	29.8
	부산/울산/경남	216	82.3	17.7
	대구/경북	119	76.3	23.7
학력	고졸이하	411	76.5	23.5
	대학/대학원 재학	148	57.7	42.3
	대졸이상	589	85.0	15.0
주거형태	동거	589	77.0	23.0
	비동거/독립	559	80.6	19.4

* 주: 퇴사 및 해고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155) 실업급여 수급 여부

○ 실업급여 인지자 중 수급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72.3%로 수급한 적이 '있다'는 응답(27.7%)보다 높게 나타남

○ 2019년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비교 해 보면 10.1%p 수급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하락하였음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실업급여 수급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인천/경기 지역(32.8%)에서 수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광주/전라/제주 지역(13.2%)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표 Ⅱ-155 실업급여 수급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9	1,111	37.8	62.2
2020	885	27.7	72.3

* 주: 2019년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퇴사 및 해고 경험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인지자만 응답. 2020년 전체 응답자 중 퇴사 및 해고 경험이 있는 실업급여 인지자 응답

표 Ⅱ-155-1 실업급여 수급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885	27.7	72.3
성별	남자	452	27.2	72.8
	여자	433	28.2	71.8
연령	만18~19세	12	0.0	100.0
	만20~24세	171	17.4	82.6
	만25~29세	345	25.4	74.6
	만30~34세	357	34.7	65.3
지역	서울	154	24.5	75.5
	인천/경기	241	32.8	67.2
	대전/충청/세종/강원	129	26.9	73.1
	광주/전라/제주	95	13.2	86.8
	부산/울산/경남	175	29.0	71.0
	대구/경북	91	28.3	71.7
학력	고졸이하	311	29.7	70.3
	대학/대학원 재학	82	7.6	92.4
	대졸이상	492	29.7	70.3
주거형태	동거	447	26.9	73.1
	비동거/독립	438	28.5	71.5

* 주: 퇴사 및 해고 경험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인지자만 응답

156) 실업급여 미수급 이유

○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라는 응답이 81.3%로 2019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11.4%), '절차가 복잡해서, 요구사항이 많아서'(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는 서울 지역(17.0%) 에서 '절차가 복잡해서, 요구사항이 많아서'라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9.0%) 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II-156 실업급여 미수급 이유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	절차가 복잡해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급여 혜택이 크지 않아서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기타
2019	698	77.3	11.9	8.4	1.8	0.5	0.0
2020	660	81.3	11.4	4.2	1.3	0.7	1.0

* 주: 2019년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퇴사 및 해고 경험이 있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만 응답. 2020년 전체 응답자 중 퇴사 및 해고 경험이 있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응답

표 Ⅱ-156-1 실업급여 미수급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	절차가 복잡해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급여 혜택이 크지 않아서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기타
전체		660	81.3	11.4	4.2	1.3	0.7	1.0
성별	남자	347	81.4	11.4	4.0	1.1	1.2	0.8
	여자	313	81.1	11.4	4.5	1.6	0.2	1.2
연령	만18~19세	12	100.0	0.0	0.0	0.0	0.0	0.0
	만20~24세	142	92.8	1.4	2.5	1.5	1.2	0.7
	만25~29세	260	78.6	11.7	6.1	2.0	1.0	0.6
	만30~34세	246	77.3	16.8	3.4	0.7	0.3	1.6
지역	서울	118	74.9	17.0	2.9	1.6	0.0	3.6
	인천/경기	169	82.1	11.3	4.4	1.1	0.5	0.6
	대전/충청/세종/강원	97	76.3	8.1	9.0	4.7	1.9	0.0
	광주/전라/제주	84	87.6	10.0	1.0	0.5	0.0	0.8
	부산/울산/경남	127	83.0	10.8	4.7	0.0	1.4	0.0
	대구/경북	65	90.9	5.6	2.4	0.0	1.1	0.0
학력	고졸이하	230	82.1	13.4	2.4	1.0	0.4	0.8
	대학/대학원 재학	76	94.0	1.5	4.5	0.0	0.0	0.0
	대졸이상	354	78.1	12.4	5.3	1.8	1.1	1.3
주거형태	동거	340	79.4	11.3	5.2	1.9	1.4	0.7
	비동거/독립	320	83.3	11.6	3.1	0.7	0.0	1.3

* 주: 퇴사 및 해고 경험이 있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만 응답

157) 직장 내 괴롭힘_1)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떠넘겼다

○ 현재 또는 직전 직장에서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떠넘긴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14.6%로 조사됨

○ 만25~29세(16.4%)에서 과도한 업무, 다른 사람의 일을 떠넘겨 받았다는 응답이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해당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3%로 타 지역 대비 월등이 낮음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6.2%)보다 대졸이상(20.1%)에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57-1 직장 내 괴롭힘_1)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떠넘겼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체		1,031	14.6	83.5	2.0
성별	남자	538	14.4	83.4	2.2
	여자	493	14.8	83.6	1.6
연령	만18~19세	37	5.5	86.0	8.5
	만20~24세	253	12.4	86.0	1.6
	만25~29세	399	16.4	80.7	2.9
	만30~34세	342	14.6	84.7	0.7
지역	서울	164	18.0	80.3	1.6
	인천/경기	272	16.1	81.6	2.3
	대전/충청/세종/강원	169	13.1	84.1	2.8
	광주/전라/제주	133	9.3	89.1	1.6
	부산/울산/경남	188	17.6	80.7	1.7
	대구/경북	105	2.3	97.1	0.6
학력	고졸이하	372	6.2	91.3	2.4
	대학/대학원 재학	139	14.3	82.0	3.7
	대졸이상	520	20.1	78.7	1.2
주거형태	동거	560	15.3	82.4	2.3
	비동거/독립	471	13.6	84.9	1.5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이면서 2017~2020년 사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158) 직장 내 괴롭힘_2)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나에게 소리치거나 화를 내거나 모욕적인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 현재 또는 이전 직장에서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나에게 소리치거나 화를 내거나 모욕적인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지에 대해 9.7%의 응답자가 '있다'고 응답함

○ 남자(10.7%), 만20~24세(12.5%), 서울(13.2%), 인천/경기(12.2%), 대학/대학원 재학(14.1%), 동거(10.8%)에서 소리지름, 화내기, 모욕적인 욕설, 물리적 폭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적 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158-1 직장 내 괴롭힘_2)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나에게 소리치거나 화를 내거나 모욕적인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체		1,031	9.7	88.7	1.6
성별	남자	538	10.7	86.4	2.9
	여자	493	8.4	91.4	0.2
연령	만18~19세	37	3.4	87.6	9.1
	만20~24세	253	12.5	87.3	0.2
	만25~29세	399	10.7	86.7	2.6
	만30~34세	342	7.1	91.8	1.0
지역	서울	164	13.2	86.0	0.8
	인천/경기	272	12.2	85.7	2.1
	대전/충청/세종/강원	169	9.2	88.0	2.7
	광주/전라/제주	133	3.9	93.7	2.4
	부산/울산/경남	188	8.0	91.2	0.9
	대구/경북	105	1.7	98.3	0.0
학력	고졸이하	372	7.9	90.9	1.3
	대학/대학원 재학	139	14.1	83.9	2.0
	대졸이상	520	9.7	88.5	1.8
주거형태	동거	560	10.8	87.2	2.1
	비동거/독립	471	8.2	90.7	1.1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이면서 2017~2020년 사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159) 직장 내 괴롭힘_3) 고용주, 직장상사가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암묵적, 직접적으로 강요하였다

○ 현재 또는 이전 직장에서 고용주, 직장상사가 원하지 않는 부서 이동이나 퇴사를 암묵적,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은 5.3%로 조사됨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원치 않는 부서 이동 또는 퇴사 강요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이 '없다'는 응답이 100.0%임

표 II-159-1 직장 내 괴롭힘_3) 고용주, 직장상사가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암묵적, 직접적으로 강요하였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체		1,031	5.3	93.7	1.0
성별	남자	538	4.8	93.6	1.6
	여자	493	5.8	93.9	0.3
연령	만18~19세	37	6.0	86.6	7.4
	만20~24세	253	5.7	94.0	0.3
	만25~29세	399	6.2	93.0	0.8
	만30~34세	342	4.0	94.8	1.2
지역	서울	164	6.9	92.0	1.2
	인천/경기	272	6.1	92.3	1.6
	대전/충청/세종/강원	169	5.9	93.6	0.5
	광주/전라/제주	133	2.0	96.2	1.8
	부산/울산/경남	188	5.5	94.5	0.0
	대구/경북	105	0.0	100.0	0.0
학력	고졸이하	372	3.1	96.1	0.8
	대학/대학원 재학	139	6.7	91.1	2.2
	대졸이상	520	6.3	92.9	0.8
주거형태	동거	560	6.4	92.6	1.1
	비동거/독립	471	3.8	95.3	0.9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이면서 2017~2020년 사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160) 직장 내 괴롭힘_4)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였다

○ 현재 또는 이전 직장에서 내 의사와 상관없는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7.7%임

○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있다'는 응답 비율 높아짐

○ 서울(10.8%), 대졸이상(10.4%), 비동거/독립(9.1%)의 경우에 내 의사와 상관없는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160-1 직장 내 괴롭힘_4)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였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체		1,031	7.7	91.0	1.3
성별	남자	538	7.8	90.5	1.7
	여자	493	7.6	91.5	0.9
연령	만18~19세	37	2.1	90.5	7.4
	만20~24세	253	6.4	93.0	0.6
	만25~29세	399	7.4	90.9	1.6
	만30~34세	342	9.3	89.7	1.0
지역	서울	164	10.8	88.4	0.8
	인천/경기	272	7.9	89.0	3.1
	대전/충청/세종/강원	169	8.6	91.4	0.0
	광주/전라/제주	133	7.1	91.2	1.6
	부산/울산/경남	188	6.2	93.8	0.0
	대구/경북	105	1.3	98.7	0.0
학력	고졸이하	372	4.9	93.9	1.3
	대학/대학원 재학	139	4.2	93.6	2.2
	대졸이상	520	10.4	88.4	1.2
주거형태	동거	560	6.7	91.7	1.6
	비동거/독립	471	9.1	89.9	1.0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이면서 2017~2020년 사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161) 직장 내 괴롭힘_5) 교육·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 대우 등에서 나를 다른 동료들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였다

○ 현재 또는 이전 직장에서 교육·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 대우 등에서 다른 동료들보다 불합리하게 차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7%가 '있다'고 응답함

○ 만25~29세(7.7%), 인천/경기(6.8%), 대학/대학원 재학(7.1%), 동거(6.9%)의 경우 교육·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 대우 등에서 다른 동료들보다 불합리하게 차별 받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161-1 직장 내 괴롭힘_5) 교육·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 대우 등에서 나를 다른 동료들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였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체		1,031	5.7	92.8	1.5
성별	남자	538	5.1	92.7	2.1
	여자	493	6.3	92.9	0.8
연령	만18~19세	37	0.0	92.6	7.4
	만20~24세	253	5.3	94.2	0.5
	만25~29세	399	7.7	90.4	1.8
	만30~34세	342	4.1	94.5	1.4
지역	서울	164	5.7	92.5	1.8
	인천/경기	272	6.8	91.2	2.1
	대전/충청/세종/강원	169	5.8	91.9	2.3
	광주/전라/제주	133	4.4	94.3	1.2
	부산/울산/경남	188	4.8	94.9	0.3
	대구/경북	105	3.9	96.1	0.0
학력	고졸이하	372	3.2	95.7	1.1
	대학/대학원 재학	139	7.1	91.4	1.5
	대졸이상	520	6.9	91.3	1.8
주거형태	동거	560	6.9	91.2	1.9
	비동거/독립	471	4.1	94.9	1.0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이면서 2017~2020년 사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162) 직장 내 괴롭힘_6)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요구할 수 없도록 암묵적,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내 요구를 무시하였다

○ 현재 또는 이전 직장에서 주어진 권리를 요구할 수 없도록 암묵적,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요구를 무시당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7.8%가 '있다'고 응답함

○ 만18~19세(9.5%), 인천/경기(9.6%), 대졸이상(9.5%), 동거(8.6%)의 경우 주어진 권리를 요구할 수 없도록 무시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162-1 직장 내 괴롭힘_6)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요구할 수 없도록 암묵적,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내 요구를 무시하였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체		1,031	7.8	91.3	0.8
성별	남자	538	7.9	91.0	1.1
	여자	493	7.7	91.8	0.5
연령	만18~19세	37	9.5	90.5	0.0
	만20~24세	253	7.1	92.0	0.8
	만25~29세	399	8.9	90.3	0.8
	만30~34세	342	7.0	92.1	0.9
지역	서울	164	9.2	90.0	0.8
	인천/경기	272	9.6	89.5	0.9
	대전/충청/세종/강원	169	8.9	89.4	1.7
	광주/전라/제주	133	3.7	95.0	1.2
	부산/울산/경남	188	6.8	93.2	0.0
	대구/경북	105	2.3	97.7	0.0
학력	고졸이하	372	5.5	93.3	1.2
	대학/대학원 재학	139	7.1	92.0	0.9
	대졸이상	520	9.5	89.9	0.6
주거형태	동거	560	8.6	90.3	1.1
	비동거/독립	471	6.9	92.7	0.5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이면서 2017~2020년 사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163) 직장 내 괴롭힘_7) 나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행동을 했다

○ 현재 또는 이전 직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행동을 나에게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2.8%가 '있다'고 응답함

○ 지역별로 서울 지역에서 '있다'는 응답이 6.0%로 전체 응답 2.8%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냄

표 II-163-1 직장 내 괴롭힘_7)나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행동을 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체		1,031	2.8	95.8	1.4
성별	남자	538	1.8	96.0	2.2
	여자	493	4.0	95.5	0.4
연령	만18~19세	37	0.0	91.0	9.0
	만20~24세	253	2.9	96.8	0.3
	만25~29세	399	3.2	95.3	1.5
	만30~34세	342	2.6	96.1	1.3
지역	서울	164	6.0	94.0	0.0
	인천/경기	272	1.5	95.0	3.4
	대전/충청/세종/강원	169	1.7	97.9	0.5
	광주/전라/제주	133	1.7	96.7	1.7
	부산/울산/경남	188	4.3	95.7	0.0
	대구/경북	105	1.3	98.7	0.0
학력	고졸이하	372	1.9	98.1	0.0
	대학/대학원 재학	139	3.1	93.8	3.1
	대졸이상	520	3.4	94.8	1.8
주거형태	동거	560	2.9	95.3	1.9
	비동거/독립	471	2.8	96.5	0.8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이면서 2017~2020년 사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164) 직장 내 괴롭힘_8)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업무 외의 대화나 식사, 모임 등에서 나를 조직적으로 제외하였다

○ 현재 또는 이전 직장에서 업무 외 대화, 식사, 모임 등에서 조직적으로 제외하였는지에 대해 2.1%의 응답자가 '있다'고 응답함

○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학력별, 주거형태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음

표 II-164-1 직장 내 괴롭힘_8)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업무 외의 대화나 식사, 모임 등에서 나를 조직적으로 제외하였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체		1,031	2.1	96.6	1.3
성별	남자	538	1.9	96.4	1.7
	여자	493	2.4	96.7	0.8
연령	만18~19세	37	0.0	92.6	7.4
	만20~24세	253	0.9	98.8	0.3
	만25~29세	399	2.9	95.1	2.0
	만30~34세	342	2.2	97.1	0.7
지역	서울	164	3.5	95.4	1.1
	인천/경기	272	2.3	96.1	1.6
	대전/충청/세종/강원	169	2.0	96.4	1.6
	광주/전라/제주	133	1.7	95.9	2.4
	부산/울산/경남	188	1.0	98.6	0.4
	대구/경북	105	1.3	98.7	0.0
학력	고졸이하	372	0.5	98.8	0.6
	대학/대학원 재학	139	2.8	95.6	1.5
	대졸이상	520	3.0	95.3	1.7
주거형태	동거	560	2.5	96.2	1.4
	비동거/독립	471	1.7	97.1	1.2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이면서 2017~2020년 사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165) 산업 안전_9) 회사로부터 업무수행 중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인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혹은 교육을 받았다

○ 산업 안전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위험 요인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혹은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6.5%에 불과함

○ 남자(19.0%), 만25~29세(20.9%), 대전/충청/세종/강원(25.1%), 동거(19.0%)의 경우에 위험,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65-1 산업 안전_9) 회사로부터 업무수행 중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인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혹은 교육을 받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체		1,031	16.5	81.1	2.4
성별	남자	538	19.0	77.6	3.4
	여자	493	13.6	85.1	1.3
연령	만18~19세	37	10.3	82.3	7.4
	만20~24세	253	14.3	82.9	2.8
	만25~29세	399	20.9	77.2	1.9
	만30~34세	342	13.6	84.0	2.4
지역	서울	164	15.8	83.6	0.6
	인천/경기	272	19.8	75.1	5.1
	대전/충청/세종/강원	169	25.1	72.7	2.2
	광주/전라/제주	133	10.4	87.9	1.8
	부산/울산/경남	188	12.8	86.4	0.8
	대구/경북	105	3.0	97.0	0.0
학력	고졸이하	372	14.4	83.1	2.5
	대학/대학원 재학	139	17.2	78.9	3.9
	대졸이상	520	17.7	80.3	2.0
주거형태	동거	560	19.0	78.5	2.4
	비동거/독립	471	13.2	84.4	2.4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이면서 2017~2020년 사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166) 산업 안전_10) 나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근로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다

○ 현재 또는 이전 직장에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근로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은 6.6%임

○ 남자(8.2%), 연령이 높을수록,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9.4%)에서 위험한 근로환경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166-1 산업 안전_10) 나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근로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체		1,031	6.6	91.8	1.6
성별	남자	538	8.2	89.6	2.2
	여자	493	4.7	94.3	1.0
연령	만18~19세	37	0.0	92.6	7.4
	만20~24세	253	5.5	93.8	0.6
	만25~29세	399	6.9	91.7	1.4
	만30~34세	342	7.3	90.5	2.1
지역	서울	164	6.7	93.3	0.0
	인천/경기	272	6.4	91.3	2.3
	대전/충청/세종/강원	169	9.4	86.6	4.0
	광주/전라/제주	133	5.4	94.6	0.0
	부산/울산/경남	188	7.6	90.9	1.5
	대구/경북	105	0.6	98.8	0.6
학력	고졸이하	372	6.9	92.5	0.6
	대학/대학원 재학	139	4.6	92.8	2.5
	대졸이상	520	6.8	91.1	2.1
주거형태	동거	560	6.2	92.1	1.8
	비동거/독립	471	7.1	91.4	1.5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이면서 2017~2020년 사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167) 산업 안전_11) 업무수행 중 업무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다친 적이 있다

○ 현재 또는 이전 직장에서 업무 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다친 적이 있는지에 대해 5.4%가 '있다'고 응답함

○ 만20~24세(9.1%), 서울(6.8%), 인천/경기(7.0%), 대학/대학원 재학(8.0%) 경우에 업무수행 중 다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167-1 산업 안전_11) 업무수행 중 업무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다친 적이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체		1,031	5.4	93.9	0.7
성별	남자	538	6.0	93.3	0.6
	여자	493	4.7	94.6	0.7
연령	만18~19세	37	0.0	100.0	0.0
	만20~24세	253	9.1	90.9	0.0
	만25~29세	399	3.8	95.1	1.1
	만30~34세	342	5.3	94.1	0.7
지역	서울	164	6.8	93.2	0.0
	인천/경기	272	7.0	92.2	0.8
	대전/충청/세종/강원	169	3.2	95.1	1.7
	광주/전라/제주	133	2.9	97.1	0.0
	부산/울산/경남	188	6.4	92.8	0.7
	대구/경북	105	0.6	99.4	0.0
학력	고졸이하	372	3.9	95.6	0.5
	대학/대학원 재학	139	8.0	91.0	1.0
	대졸이상	520	5.8	93.5	0.7
주거형태	동거	560	6.5	92.8	0.7
	비동거/독립	471	4.0	95.4	0.6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이면서 2017~2020년 사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168) 산업 안전_12) 산업재해보험 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

○ 업무 수행 중 다친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산업재해보험 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27.6%가 '있다'고 응답함

○ 성별로는 남자(34.1%)가 여자(18.0%) 보다 산업재해보험 급여를 받은 경험이 높게 나타남

표 Ⅱ-168-1 산업 안전_12) 산업재해보험 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체		51	27.6	71.1	1.4
성별	남자	29	34.1	65.9	0.0
	여자	22	18.0	78.6	3.4
연령	만 20~24세	18	22.9	73.5	3.6
	만 25~29세	16	50.7	49.3	0.0
	만 30~34세	17	14.6	85.4	0.0
지역	서울	9	28.4	71.6	0.0
	인천/경기	18	22.7	77.3	0.0
	대전/충청/세종/강원	5	47.2	52.8	0.0
	광주/전라/제주	4	28.3	71.7	0.0
	부산/울산/경남	14	25.3	67.7	6.9
	대구/경북	1	100.0	0.0	0.0
학력	고졸이하	14	32.9	61.6	5.6
	대학/대학원 재학	8	22.3	77.7	0.0
	대졸이상	29	27.0	73.0	0.0
주거형태	동거	31	29.8	68.1	2.0
	비동거/독립	20	22.7	77.3	0.0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이면서 2017~2020년 사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근로자 중 업무 수행 중 다친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169)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정책 또는 절차 여부

○ 현재 또는 이전 직장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이나 대응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관련 정책이나 규정이 없다'는 응답이 49.1%로 가장 높고, '모르겠다'(35.4%), '있다'(14.6%) 등의 순임

○ 지역별로 보면 관련 정책 또는 절차 여부가 '있다'는 응답은 인천/경기 지역(19.9%)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대구/경북 지역(5.4%)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관련 정책이나 규정이 없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37.1%)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표 II-169-1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정책 또는 절차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거나 곧 만들 예정이다	관련 정책이나 규정이 없다	모르겠다
전체		1,031	14.6	0.8	49.1	35.4
성별	남자	538	16.3	0.5	47.4	35.8
	여자	493	12.6	1.1	51.2	35.1
연령	만18~19세	37	13.2	0.0	31.4	55.4
	만20~24세	253	11.7	0.3	48.5	39.4
	만25~29세	399	13.4	1.4	47.5	37.7
	만30~34세	342	17.8	0.5	52.6	29.0
지역	서울	164	12.6	0.0	44.4	43.0
	인천/경기	272	19.9	1.3	42.8	36.0
	대전/충청/세종/강원	169	13.4	0.9	37.1	48.6
	광주/전라/제주	133	13.0	0.7	60.2	26.1
	부산/울산/경남	188	12.2	0.8	61.8	25.1
	대구/경북	105	5.4	0.6	69.4	24.5
학력	고졸이하	372	9.3	0.5	56.9	33.3
	대학/대학원 재학	139	12.0	0.6	40.3	47.1
	대졸이상	520	18.7	1.1	46.3	33.9
주거형태	동거	560	13.4	0.7	47.3	38.6
	비동거/독립	471	16.1	1.0	51.5	31.3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이면서 2017~2020년 사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170) 직장 내 괴롭힘 전담 담당자 및 창구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상담하거나 고충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전담 담당자나 담당 창구가 있는지에 대해 '15.5%'가 있다고 응답함

○ 지역별로 보면 직장 내 전담 담당자 및 창구가 '있다'는 응답은 인천/경기 지역(21.8%)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대구/경북 지역(7.1%)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표 II-170-1 직장 내 괴롭힘 전담 담당자 및 창구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체		1,031	15.5	64.4	20.1
성별	남자	538	17.6	62.1	20.3
	여자	493	13.0	67.1	19.9
연령	만18~19세	37	17.7	62.4	19.8
	만20~24세	253	18.2	64.4	17.4
	만25~29세	399	13.7	61.9	24.3
	만30~34세	342	15.5	67.3	17.2
지역	서울	164	14.0	60.3	25.7
	인천/경기	272	21.8	57.2	21.0
	대전/충청/세종/강원	169	15.2	57.8	27.0
	광주/전라/제주	133	12.0	71.0	17.0
	부산/울산/경남	188	10.5	78.3	11.1
	대구/경북	105	7.1	79.9	13.0
학력	고졸이하	372	10.4	68.7	20.9
	대학/대학원 재학	139	18.3	68.6	13.1
	대졸이상	520	18.1	60.6	21.3
주거형태	동거	560	16.3	62.7	21.0
	비동거/독립	471	14.4	66.7	18.9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이면서 2017~2020년 사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171)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처리 절차의 적절성

○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 또는 고충 처리 절차가 적절히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68.7%, '모르겠다'는 응답이 20.6%로 응답자의 약 90%는 처리 절차의 적절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1%로 여자(5.8%), 만25~29세(7.9%), 경기/인천(7.3%), 대졸이상(7.0%)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음

○ '직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한 적은 있지만 직장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응답은 4.0%로 연령이 높을수록 응답비율이 높아짐

표 II-171-1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처리 절차의 적절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나의 직장에서 직장 괴롭힘이 발생한 적이 없다	나의 직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한 적은 있지만 직장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직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전체		1,031	68.7	4.0	1.6	5.1	20.6
성별	남자	538	69.0	3.2	1.8	4.4	21.5
	여자	493	68.3	4.9	1.4	5.8	19.5
연령	만18~19세	37	76.7	0.0	0.0	0.0	23.3
	만20~24세	253	68.8	2.2	3.2	3.6	22.2
	만25~29세	399	66.8	3.9	1.7	7.9	19.7
	만30~34세	342	70.1	5.5	0.7	3.3	20.3
지역	서울	164	69.6	6.9	0.9	4.2	18.4
	인천/경기	272	58.2	4.5	2.9	7.3	27.1
	대전/충청/세종/강원	169	67.6	4.9	2.8	4.2	20.5
	광주/전라/제주	133	81.1	0.0	0.0	3.3	15.6
	부산/울산/경남	188	73.8	2.7	0.6	5.3	17.7
	대구/경북	105	87.6	1.2	0.0	0.7	10.5
학력	고졸이하	372	77.6	3.2	1.1	3.0	15.1
	대학/대학원 재학	139	69.1	1.4	4.0	2.6	22.9
	대졸이상	520	62.8	5.2	1.4	7.0	23.6
주거형태	동거	560	66.2	3.6	1.9	6.4	21.9
	비동거/독립	471	72.0	4.5	1.3	3.3	18.8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이면서 2017~2020년 사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172) 직장에서의 본인의 영향력_1) 나의 업무 내용이나 방법

○ 현재 또는 이전 직장에서 나의 업무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그렇다(그렇다 34.7%+매우 그렇다 7.9%)'는 응답이 42.6%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8.1%+그렇지 않다 20.2%)' 28.3%에 비해 14.3%p 높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다(나의 업무 내용이나 방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응답이 높은 편임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제주(52.3%), 학력별로는 대졸이상(48.4%)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172-1 직장에서의 본인의 영향력_1) 나의 업무 내용이나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전체		1,031	8.1	20.2	27.6	34.7	7.9	1.4
성별	남자	538	8.3	22.6	23.9	35.0	9.0	1.1
	여자	493	7.9	17.6	31.8	34.4	6.6	1.7
연령	만18~19세	37	31.7	12.3	38.8	15.8	0.0	1.4
	만20~24세	253	8.1	24.0	26.3	35.7	5.6	0.3
	만25~29세	399	9.4	21.4	27.4	32.2	7.9	1.8
	만30~34세	342	5.1	17.3	27.8	38.3	10.0	1.6
지역	서울	164	10.8	22.4	24.8	33.0	7.5	1.5
	인천/경기	272	6.6	18.8	27.1	36.5	9.1	1.9
	대전/충청/세종/강원	169	11.8	23.1	30.3	28.4	4.3	2.0
	광주/전라/제주	133	5.6	16.2	24.8	38.9	13.3	1.2
	부산/울산/경남	188	2.8	19.3	32.6	39.2	5.6	0.4
	대구/경북	105	17.3	23.9	23.5	27.2	8.1	0.0
학력	고졸이하	372	6.5	27.7	28.1	29.7	6.9	1.1
	대학/대학원 재학	139	16.8	22.0	24.5	30.8	4.6	1.3
	대졸이상	520	7.1	15.0	28.0	39.0	9.4	1.6
주거형태	동거	560	9.7	21.5	26.8	34.6	6.0	1.3
	비동거/독립	471	6.1	18.6	28.6	34.9	10.3	1.5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이면서 2017~2020년 사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173) 직장에서의 본인의 영향력_2) 나의 업무일정

○ 본인의 업무 일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그렇다(그렇다 31.4%+매우 그렇다 7.5%)'는 응답이 38.9%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10.2%+그렇지 않다 21.0%)' 31.2%에 비해 7.7%p 높음

○ 지역별로는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광주/전라/제주 지역(48.9%)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31.4%)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44.3%)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173-1 직장에서의 본인의 영향력_2) 나의 업무일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전체		1,031	10.2	21.0	28.4	31.4	7.5	1.4
성별	남자	538	11.3	20.7	27.3	30.9	8.5	1.3
	여자	493	8.9	21.3	29.7	32.0	6.4	1.6
연령	만 18~19세	37	28.6	35.1	20.4	14.4	1.5	0.0
	만 20~24세	253	9.7	22.8	27.0	30.6	9.4	0.6
	만 25~29세	399	11.3	22.3	27.5	30.5	6.3	2.1
	만 30~34세	342	8.0	17.5	30.9	34.2	8.1	1.3
지역	서울	164	12.2	21.7	25.0	33.2	6.5	1.5
	인천/경기	272	8.4	21.1	28.9	31.4	8.5	1.6
	대전/충청/세종/강원	169	15.5	20.8	29.0	26.7	4.8	3.3
	광주/전라/제주	133	10.8	13.4	26.1	39.5	9.4	0.8
	부산/울산/경남	188	4.7	25.3	32.0	29.9	7.8	0.4
	대구/경북	105	14.9	20.5	28.7	28.5	7.4	0.0
학력	고졸이하	372	9.6	27.3	30.0	27.3	4.4	1.5
	대학/대학원 재학	139	18.3	22.2	22.2	31.3	5.0	1.0
	대졸이상	520	8.6	16.6	28.9	34.2	10.1	1.5
주거형태	동거	560	13.1	20.5	26.7	30.8	7.5	1.4
	비동거/독립	471	6.5	21.7	30.7	32.2	7.5	1.5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이면서 2017~2020년 사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174) 직장에서의 본인의 영향력_3) 내가 속한 팀의 업무 목표

○ 본인이 속한 팀의 업무 목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12.2%+그렇지 않다 24.0%)'는 응답은 36.2%로 '그렇다(그렇다 23.3%+매우 그렇다 6.8%)'는 응답 30.1%에 비해 6.1%p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의 응답 비율이 높음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35.7%)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174-1 직장에서의 본인의 영향력_3) 내가 속한 팀의 업무 목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전체		1,031	12.2	24.0	31.5	23.3	6.8	2.1
성별	남자	538	11.8	23.1	31.6	22.3	9.5	1.6
	여자	493	12.6	25.1	31.3	24.5	3.8	2.6
연령	만18~19세	37	36.1	24.7	22.7	15.0	0.0	1.4
	만20~24세	253	15.3	22.1	33.8	22.2	4.6	2.0
	만25~29세	399	13.5	24.3	30.7	23.1	5.4	3.0
	만30~34세	342	7.1	24.9	31.5	24.9	10.3	1.3
지역	서울	164	14.6	33.8	21.0	23.0	5.7	1.9
	인천/경기	272	10.0	23.3	34.7	22.3	7.0	2.6
	대전/충청/세종/강원	169	16.1	19.4	33.7	22.9	5.0	2.8
	광주/전라/제주	133	13.4	17.6	30.1	25.1	11.0	2.9
	부산/울산/경남	188	4.1	23.1	38.3	25.4	8.0	1.2
	대구/경북	105	26.0	23.4	24.8	22.0	3.9	0.0
학력	고졸이하	372	11.0	27.6	34.9	18.4	6.4	1.7
	대학/대학원 재학	139	24.6	21.4	30.0	21.1	1.0	1.9
	대졸이상	520	9.9	22.4	29.6	27.1	8.6	2.4
주거형태	동거	560	14.3	23.3	32.8	21.2	6.4	2.0
	비동거/독립	471	9.5	25.0	29.7	26.1	7.5	2.3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이면서 2017~2020년 사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175) 직장에서의 본인의 영향력_4) 내가 속한 팀에 필요한 훈련

○ 본인이 속한 팀에 필요한 훈련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14.2%+그렇지 않다 25.7%)'는 응답은 39.9%로 '그렇다(그렇다 21.3%+매우 그렇다 5.4%)'는 응답 26.7%에 비해 13.2%p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의 응답 비율이 높은 편임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32.4%)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75-1 직장에서의 본인의 영향력_4) 내가 속한 팀에 필요한 훈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전체		1,031	14.2	25.7	31.0	21.3	5.4	2.4
성별	남자	538	13.8	27.1	29.4	20.2	7.5	2.0
	여자	493	14.6	24.2	32.8	22.5	3.1	2.8
연령	만18~19세	37	32.8	28.3	21.1	13.9	0.0	3.9
	만20~24세	253	16.0	23.9	31.2	21.3	4.6	2.9
	만25~29세	399	14.6	26.2	33.3	18.0	5.2	2.7
	만30~34세	342	11.1	26.2	29.2	25.3	6.7	1.6
지역	서울	164	15.6	33.2	26.2	17.0	5.4	2.6
	인천/경기	272	12.1	26.7	31.1	21.3	5.7	3.1
	대전/충청/세종/강원	169	18.2	21.8	34.4	19.9	3.7	2.0
	광주/전라/제주	133	19.8	17.7	27.9	22.7	8.2	3.7
	부산/울산/경남	188	4.4	27.5	35.1	27.8	4.1	1.2
	대구/경북	105	26.6	17.3	31.3	17.5	7.3	0.0
학력	고졸이하	372	13.7	31.9	33.4	13.7	5.7	1.6
	대학/대학원 재학	139	25.4	23.6	24.6	20.8	2.2	3.4
	대졸이상	520	11.6	22.2	31.1	26.3	6.0	2.6
주거형태	동거	560	16.7	24.5	32.2	19.4	4.9	2.2
	비동거/독립	471	10.8	27.4	29.5	23.7	6.1	2.6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이면서 2017~2020년 사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176) 직장에서의 본인의 영향력_5) 함께 일할 신입사원의 채용

○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27.6%+그렇지 않다 30.8%)'는 응답이 58.4%로 '그렇다(그렇다 14.7%+매우 그렇다 3.8%)'는 응답 18.5%에 비해 39.9%p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의 응답 비율이 높은 편임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24.6%)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176-1 직장에서의 본인의 영향력_5) 함께 일할 신입사원의 채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전체		1,031	27.6	30.8	21.3	14.7	3.8	1.9
성별	남자	538	28.6	29.4	19.9	16.4	4.3	1.5
	여자	493	26.5	32.4	22.9	12.7	3.3	2.3
연령	만18~19세	37	47.9	23.6	8.2	17.8	0.0	2.6
	만20~24세	253	27.2	26.7	22.8	18.8	3.4	1.1
	만25~29세	399	26.9	31.8	23.3	12.2	3.2	2.6
	만30~34세	342	27.0	32.8	19.1	14.5	5.1	1.5
지역	서울	164	33.4	35.7	15.5	8.8	4.8	1.8
	인천/경기	272	23.7	32.7	21.0	15.8	3.8	3.1
	대전/충청/세종/강원	169	23.5	30.7	27.2	12.7	3.8	2.0
	광주/전라/제주	133	45.4	22.0	16.7	11.4	3.7	0.8
	부산/울산/경남	188	18.1	25.7	30.9	22.1	2.5	0.7
	대구/경북	105	35.4	34.4	9.6	15.8	4.8	0.0
학력	고졸이하	372	29.4	33.2	22.0	11.3	2.1	2.0
	대학/대학원 재학	139	40.3	26.2	11.9	17.8	1.5	2.4
	대졸이상	520	23.3	30.4	23.1	16.1	5.5	1.6
주거형태	동거	560	28.6	29.6	21.6	15.4	2.8	2.2
	비동거/독립	471	26.3	32.4	20.9	13.7	5.3	1.5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이면서 2017~2020년 사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177) 직장에서의 본인의 영향력_6) 나의 임금 인상

○ 본인의 임금 인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21.9%+그렇지 않다 34.2%)’는 응답이 56.1%로 ‘그렇다(그렇다 14.7%+매우 그렇다 3.3%)’는 응답 18.0%에 비해 38.1%p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의 응답 비율이 높은 편임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43.9%)에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음

표 Ⅱ-177-1 직장에서의 본인의 영향력_6) 나의 임금 인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전체		1,031	21.9	34.2	23.8	14.7	3.3	2.0
성별	남자	538	23.0	32.7	24.1	15.2	3.1	1.9
	여자	493	20.7	35.9	23.4	14.1	3.6	2.3
연령	만 18~19세	37	42.1	33.2	8.6	13.5	0.0	2.6
	만 20~24세	253	21.6	34.6	25.6	13.6	3.4	1.1
	만 25~29세	399	23.8	34.9	21.2	13.2	4.1	2.8
	만 30~34세	342	18.6	33.2	26.6	17.1	2.7	1.8
지역	서울	164	25.1	38.5	17.0	12.4	5.2	1.8
	인천/경기	272	16.7	39.1	22.6	16.3	1.9	3.4
	대전/충청/세종/강원	169	20.8	32.8	28.5	12.1	3.8	2.0
	광주/전라/제주	133	36.7	23.9	25.1	10.5	2.2	1.6
	부산/울산/경남	188	14.6	29.2	32.9	18.4	4.1	0.7
	대구/경북	105	36.0	29.7	14.0	15.7	4.6	0.0
학력	고졸이하	372	21.8	39.3	22.5	11.5	2.8	2.0
	대학/대학원 재학	139	33.6	34.1	14.7	14.2	1.0	2.4
	대졸이상	520	19.1	30.9	26.9	16.8	4.3	2.0
주거형태	동거	560	23.1	35.0	22.6	14.3	2.9	2.2
	비동거/독립	471	20.5	33.2	25.4	15.1	3.9	1.9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이면서 2017~2020년 사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178) 직장에서의 본인의 영향력_7) 나의 복리후생

○ 본인의 복리후생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19.5%+그렇지 않다 33.8%)'는 응답이 53.2%로 '그렇다(그렇다 14.2%+매우 그렇다 3.3%)'는 응답 17.5%에 비해 35.7%p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의 응답 비율이 높음

○ 학력별로는 대학/대학원 재학(65.0%)에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졸이상(44.3%)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표 Ⅱ-178-1 직장에서의 본인의 영향력_7) 나의 복리후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전체		1,031	19.5	33.8	27.2	14.2	3.3	2.1
성별	남자	538	19.9	33.2	27.5	13.8	4.0	1.5
	여자	493	18.9	34.4	26.8	14.7	2.5	2.7
연령	만18~19세	37	44.6	30.0	13.6	9.2	0.0	2.6
	만20~24세	253	19.1	35.3	27.5	13.5	3.5	1.1
	만25~29세	399	20.7	33.2	24.7	15.4	3.1	2.9
	만30~34세	342	16.5	33.6	30.7	13.8	3.6	1.7
지역	서울	164	20.2	40.4	21.0	11.6	4.3	2.6
	인천/경기	272	15.7	33.8	30.2	15.3	1.9	3.1
	대전/충청/세종/강원	169	19.2	31.0	31.5	10.1	6.2	2.0
	광주/전라/제주	133	34.1	26.7	20.6	16.0	1.2	1.3
	부산/울산/경남	188	13.1	34.4	32.7	16.2	2.9	0.7
	대구/경북	105	29.7	30.7	16.8	17.5	5.4	0.0
학력	고졸이하	372	19.6	42.8	22.9	9.6	2.7	2.4
	대학/대학원 재학	139	29.8	35.2	19.2	11.0	2.3	2.4
	대졸이상	520	16.8	27.5	31.9	18.1	4.0	1.7
주거형태	동거	560	20.9	34.1	26.5	12.9	3.2	2.5
	비동거/독립	471	17.6	33.3	28.1	16.0	3.4	1.5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이면서 2017~2020년 사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179) 직장에서의 본인의 영향력_8) 사업장 산업안전 기준의 설정 혹은 관리

○ 사업장의 산업안전 기준의 설정 혹은 관리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19.9%+그렇지 않다 29.8%)'는 응답이 49.7%로 '그렇다(그렇다 13.6%+매우 그렇다 3.3%)'는 응답 16.9%에 비해 32.8%p 높음

○ 연령별로는 만18~19세(61.1%), 학력별로는 대학/대학원 재학(60.9%)에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79-1직장에서의 본인의 영향력_8)사업장의 산업안전 기준의 설정 혹은 관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전체		1,031	19.9	29.8	30.4	13.6	3.3	3.0
성별	남자	538	20.5	28.6	31.5	13.5	3.7	2.2
	여자	493	19.2	31.2	29.1	13.6	2.9	4.0
연령	만18~19세	37	37.8	23.3	21.4	14.9	0.0	2.6
	만20~24세	253	19.4	26.5	33.9	14.3	3.0	2.8
	만25~29세	399	22.2	29.9	28.4	11.4	3.6	4.3
	만30~34세	342	16.2	32.2	30.9	15.3	3.6	1.7
지역	서울	164	24.2	33.8	23.4	9.0	5.2	4.4
	인천/경기	272	15.3	33.0	31.8	13.2	2.5	4.3
	대전/충청/세종/강원	169	20.9	23.6	36.4	14.4	2.0	2.8
	광주/전라/제주	133	36.7	23.1	23.2	13.7	2.0	1.3
	부산/울산/경남	188	9.3	28.9	39.0	19.4	2.7	0.7
	대구/경북	105	28.2	29.5	20.2	11.7	9.0	1.5
학력	고졸이하	372	18.6	35.8	29.5	9.9	2.8	3.3
	대학/대학원 재학	139	33.3	27.6	19.0	15.0	1.5	3.6
	대졸이상	520	17.3	26.4	33.8	15.6	4.1	2.7
주거형태	동거	560	21.6	27.0	31.5	13.3	2.7	3.9
	비동거/독립	471	17.6	33.5	28.9	14.0	4.2	1.8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이면서 2017~2020년 사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180) 직장 내 조직 혹은 제도 설치 여부_1) 노동조합

○ 직장 내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다는 응답은 9.6%임

○ 성별로는 남자(12.2%)가 여자(6.7%)에 비해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있다'를 응답한 비율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모르겠다'를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16.2%)에서 '있다'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구/경북(4.7%)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 학력별로 대졸이상(13.6%)에서 다른 학력 대비 '있다'의 응답이 높음

표 II-180-1 직장 내 조직 혹은 제도 설치 여부_1) 노동조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체		1,031	9.6	76.9	13.5
성별	남자	538	12.2	76.8	10.9
	여자	493	6.7	77.0	16.3
연령	만18~19세	37	0.0	70.7	29.3
	만20~24세	253	6.4	74.6	19.0
	만25~29세	399	10.5	75.5	14.0
	만30~34세	342	11.5	80.4	8.2
지역	서울	164	8.4	75.6	16.0
	인천/경기	272	9.1	73.6	17.3
	대전/충청/세종/강원	169	13.2	73.1	13.8
	광주/전라/제주	133	16.2	75.2	8.6
	부산/울산/경남	188	6.9	82.1	11.0
	대구/경북	105	4.7	94.1	1.2
학력	고졸이하	372	5.6	83.3	11.1
	대학/대학원 재학	139	4.0	72.2	23.8
	대졸이상	520	13.6	73.9	12.4
주거형태	동거	560	9.3	76.1	14.6
	비동거/독립	471	10.0	78.0	12.0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이면서 2017~2020년 사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181) 직장 내 조직 혹은 제도 설치 여부_2) 노사협의회

○ 직장 내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모르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설치 여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은 2.4%임

○ 연령별로 보면 '모르겠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음

표 II-181-1 직장 내 조직 혹은 제도 설치 여부_2) 노사협의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체		934	2.4	80.7	16.9
성별	남자	478	2.4	81.2	16.4
	여자	456	2.3	80.2	17.5
연령	만18~19세	37	0.0	71.6	28.4
	만20~24세	237	2.3	76.8	20.9
	만25~29세	357	2.1	78.7	19.1
	만30~34세	303	2.9	86.3	10.9
지역	서울	152	3.9	76.3	19.7
	인천/경기	247	1.5	78.0	20.5
	대전/충청/세종/강원	148	2.2	79.4	18.4
	광주/전라/제주	114	4.2	86.0	9.8
	부산/울산/경남	174	0.6	84.6	14.8
	대구/경북	99	4.5	90.3	5.2
학력	고졸이하	351	2.1	86.2	11.7
	대학/대학원 재학	134	1.7	75.1	23.2
	대졸이상	449	2.7	78.4	18.9
주거형태	동거	509	2.6	79.6	17.7
	비동거/독립	425	2.0	82.1	15.9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이면서 2017~2020년 사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노동조합이 없거나 모른다고 한 경우 응답

182) 직장 내 조직 혹은 제도 설치 여부_3) 업무 관련 제안제도

○ 직장 내 업무 관련 제안제도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11.7%가 ‘있다’, 70.1% ‘없다’ ‘모르겠다’ 18.1%임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있다’를 응답한 비율이 높고, 낮을수록 ‘모르겠다’를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지역(7.4%)에서 ‘있다’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음

○ 학력별로는 ‘있다’의 응답이 대졸이상에서 17.0%로 다른 학력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82-1 직장 내 조직 혹은 제도 설치 여부_3) 업무 관련 제안제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체		1,031	11.7	70.1	18.1
성별	남자	538	15.1	65.7	19.2
	여자	493	7.9	75.2	16.9
연령	만18~19세	37	0.0	75.1	24.9
	만20~24세	253	6.7	70.0	23.3
	만25~29세	399	12.9	68.0	19.1
	만30~34세	342	14.5	72.1	13.3
지역	서울	164	10.1	73.8	16.1
	인천/경기	272	10.9	66.9	22.3
	대전/충청/세종/강원	169	18.5	59.5	22.0
	광주/전라/제주	133	15.9	66.7	17.3
	부산/울산/경남	188	7.4	76.8	15.7
	대구/경북	105	10.1	86.8	3.2
학력	고졸이하	372	6.3	78.0	15.7
	대학/대학원 재학	139	4.8	71.3	24.0
	대졸이상	520	17.0	64.7	18.3
주거형태	동거	560	11.2	68.4	20.5
	비동거/독립	471	12.5	72.5	15.1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이면서 2017~2020년 사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183) 직장 내 조직 혹은 제도 설치 여부_4) 조직적응 프로그램

○ 직장 내 조직적응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는 응답은 11.7%, '없다' 70.2%, '모르겠다' 18.1%임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있다'를 응답한 비율이 높고, 낮을수록 '모르겠다'를 응답한 비율이 높음

○ 학력별로는 '있다'의 응답이 대졸이상에서 16.8%로 다른 학력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83-1 직장 내 조직 혹은 제도 설치 여부_4) 조직적응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체		1,031	11.7	70.2	18.1
성별	남자	538	15.0	65.9	19.1
	여자	493	7.8	75.2	17.0
연령	만18~19세	37	0.0	72.1	27.9
	만20~24세	253	7.2	70.0	22.8
	만25~29세	399	12.3	68.5	19.2
	만30~34세	342	14.6	72.2	13.2
지역	서울	164	9.9	73.4	16.8
	인천/경기	272	12.4	66.8	20.8
	대전/충청/세종/강원	169	14.2	63.1	22.8
	광주/전라/제주	133	13.3	69.2	17.5
	부산/울산/경남	188	9.2	74.4	16.4
	대구/경북	105	10.9	84.7	4.4
학력	고졸이하	372	5.3	78.7	15.9
	대학/대학원 재학	139	7.5	70.1	22.5
	대졸이상	520	16.8	64.7	18.4
주거형태	동거	560	11.0	68.7	20.3
	비동거/독립	471	12.6	72.3	15.2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이면서 2017~2020년 사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184)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에 대한 응답 결과 '향후 10-20년 미만'이 33.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향후 20년 이후'(15.8%), '향후 7-10년 미만'(1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 시 '이미 소유하고 있다' 9.2%p 하락,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는 2.3%p 상승함

○ 연령별로 만30~34세의 '이미 소유하고 있다' 응답이 19.9%로 타 연령대 대비 높고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예상 마련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 서울은 '이미 소유하고 있다' 응답이 4.5%로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 낮음

○ 학력별로 대졸이상의 '이미 소유하고 있다'(12.0%) 응답이 높음

표 Ⅱ-184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이미 소유하고 있다	향후 1년 이내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향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향후 20년 이후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2016	2,534	13.6	0.4	0.9	5.4	8.2	12.5	34.8	17.8	6.3
2017	2,714	17.2	0.7	3.8	5.6	9.4	14.5	27.3	14.9	6.6
2018	3,133	8.4	0.1	0.7	4.4	5.8	12.5	32.6	25.2	10.3
2019	3,530	17.0	0.8	1.9	5.0	8.9	11.6	29.2	17.0	8.6
2020	3,520	7.8	0.3	1.8	4.1	9.9	15.5	33.7	15.8	10.9

표 Ⅱ-184-1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이미 소유하고 있다	향후 1년 이내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향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향후 20년 이후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전체		3,520	7.8	0.3	1.8	4.1	9.9	15.5	33.7	15.8	10.9
성별	남자	1,855	6.6	0.5	2.2	4.6	10.1	15.5	35.0	15.8	9.8
	여자	1,665	9.2	0.2	1.4	3.5	9.7	15.5	32.4	15.9	12.2
연령	만 18~19세	477	0.1	0.3	0.4	0.9	4.9	10.2	43.2	30.5	9.5
	만 20~24세	1,095	1.2	0.1	0.7	2.0	6.2	13.1	43.5	21.6	11.7
	만 25~29세	1,050	5.2	0.2	2.2	6.1	10.0	18.3	30.9	13.9	13.1
	만 30~34세	898	19.9	0.7	3.0	5.2	15.1	16.7	23.9	7.2	8.2
지역	서울	676	4.5	0.0	1.2	3.0	9.4	16.7	33.7	16.1	15.4
	인천/경기	824	7.8	0.3	1.5	4.9	10.9	15.0	28.2	19.1	12.4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9.7	1.0	3.0	6.3	12.2	13.5	38.3	8.3	7.6
	광주/전라/제주	468	10.0	0.4	2.4	3.8	9.2	14.6	35.6	15.9	8.1
	부산/울산/경남	555	10.2	0.4	2.8	3.0	7.9	17.8	39.1	11.7	7.0
	대구/경북	448	6.8	0.2	0.7	2.6	7.8	15.0	36.3	21.4	9.2
학력	고졸이하	1,098	6.5	0.3	1.6	3.5	10.0	14.8	31.7	19.1	12.4
	대학/대학원 재학	898	1.1	0.1	1.1	1.6	5.3	11.1	46.9	22.6	10.1
	대졸이상	1,524	12.0	0.5	2.3	5.7	12.0	18.1	28.6	10.4	10.3
주거형태	동거	2,194	0.7	0.3	1.1	2.9	7.5	15.5	38.5	20.4	13.1
	비동거/독립	1,326	20.4	0.3	3.1	6.3	14.1	15.5	25.4	7.7	7.0

185)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에 대한 생각

○ 평소 집에 대해 갖고 있었던 생각 중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청년들의 68.6%가 '그렇다'(그렇다 52.5%+매우 그렇다 16.1%)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 13.3%(전혀 그렇지 않다 2.5%+그렇지 않다 10.8%) 대비 높게 나타남

○ '그렇다'는 응답은 2019년 조사결과(62.8%) 대비 5.8%p 상승한 결과임

○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렇다'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인천/경기 지역에서 '그렇다'(64.0%)는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음

○ 주거형태별로 비동거/독립(74.6%)이 동거(65.3%) 보다 '그렇다'의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185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에 대한 생각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1.0	12.1	25.2	48.5	13.3
2017	2,714	2.3	14.8	19.0	47.7	16.2
2018	3,133	1.1	13.8	23.6	51.0	10.5
2019	3,530	1.9	16.0	19.2	50.0	12.8
2020	3,520	2.5	10.8	18.0	52.5	16.1

표 Ⅱ-185-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520	2.5	10.8	18.0	52.5	16.1
성별	남자	1,855	2.9	10.1	16.4	53.6	17.0
	여자	1,665	2.1	11.6	19.8	51.4	15.1
연령	만 18~19세	477	1.0	9.7	27.6	47.9	13.8
	만 20~24세	1,095	2.7	12.4	21.5	49.0	14.4
	만 25~29세	1,050	3.4	10.3	16.9	51.8	17.5
	만 30~34세	898	1.9	10.1	12.4	58.5	17.1
지역	서울	676	2.0	7.5	16.7	56.5	17.4
	인천/경기	824	3.3	13.3	19.5	47.7	16.2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4.2	13.5	16.1	47.4	18.8
	광주/전라/제주	468	3.0	8.3	16.8	56.1	15.8
	부산/울산/경남	555	1.3	12.0	17.7	58.0	11.0
	대구/경북	448	0.2	6.8	20.4	55.9	16.8
학력	고졸이하	1,098	3.2	9.8	17.3	52.6	17.1
	대학/대학원 재학	898	2.2	11.8	22.1	50.1	13.9
	대졸이상	1,524	2.3	11.0	16.4	53.7	16.6
주거형태	동거	2,194	2.5	11.3	20.9	50.6	14.7
	비동거/독립	1,326	2.6	10.0	12.8	56.0	18.6

186) 내 명의의 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 내 명의의 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높은 집값 때문에'라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고, '자가 보유 여부보다는 거주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27.8%), '자가 마련을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2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만30~34세는 '높은 집값 때문에', 만20~24세는 '자가 보유 여부보다는 거주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25~29세는 '자가마련을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186-1 내 명의의 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높은 집값 때문에	자가 보유 여부보다는 거주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가 마련을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자산 증식 및 보전 수단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사를 자주 해야 할 상황이라서
전체		462	42.9	27.8	20.5	6.1	2.7
성별	남자	237	39.2	28.9	20.6	8.5	2.8
	여자	225	46.9	26.6	20.5	3.6	2.5
연령	만18~19세	52	46.0	28.5	17.9	6.3	1.3
	만20~24세	156	40.1	33.1	19.0	4.9	2.9
	만25~29세	147	38.3	24.6	26.6	7.3	3.1
	만30~34세	107	51.1	24.8	15.6	6.2	2.3
지역	서울	72	38.3	31.7	16.4	8.1	5.5
	인천/경기	136	51.4	25.9	15.2	6.0	1.5
	대전/충청/세종/강원	90	42.5	29.1	23.3	4.1	1.0
	광주/전라/제주	50	34.8	39.2	21.7	0.0	4.3
	부산/울산/경남	79	33.8	18.0	33.8	11.2	3.2
	대구/경북	35	28.1	34.0	27.0	4.8	6.1
학력	고졸이하	142	40.2	27.6	21.7	5.9	4.6
	대학/대학원 재학	116	35.9	32.2	21.4	9.4	1.0
	대졸이상	204	48.1	25.6	19.3	4.6	2.4
주거형태	동거	295	44.5	28.0	18.6	6.2	2.7
	비동거/독립	167	39.7	27.4	24.2	6.1	2.5

* 주: 본인 명의의 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응답

187) 내 명의의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내 명의의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27.5%로 가장 높고, '자산 증식 및 보전을 위해서'(26.1%),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23.1%) 등의 순임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집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의 응답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가 있어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주거형태별로 동거(25.5%)보다 비동거/독립(30.6%)의 경우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어서'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187-1 내 명의의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어서	자산 증식 및 보전을 위해서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가가 있어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집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전체		2,397	27.5	26.1	23.1	12.6	10.7
성별	남자	1,294	25.1	27.3	23.5	13.3	10.8
	여자	1,103	30.4	24.7	22.7	11.7	10.5
연령	만18~19세	298	22.9	22.7	20.9	16.9	16.5
	만20~24세	709	25.9	25.9	21.8	14.5	11.9
	만25~29세	715	29.1	26.4	23.4	11.3	9.8
	만30~34세	675	28.5	26.8	24.6	11.1	9.0
지역	서울	489	25.9	30.3	28.0	8.0	7.7
	인천/경기	521	29.2	24.5	24.0	12.0	10.2
	대전/충청/세종/강원	372	28.2	29.1	12.9	14.0	15.8
	광주/전라/제주	333	30.2	16.4	28.6	17.2	7.6
	부산/울산/경남	370	26.2	28.4	18.9	15.7	10.8
	대구/경북	312	23.9	23.9	23.3	13.8	15.1
학력	고졸이하	753	28.9	22.9	22.6	13.3	12.2
	대학/대학원 재학	582	22.7	29.1	21.8	15.2	11.2
	대졸이상	1,062	28.8	26.7	24.1	10.9	9.4
주거형태	동거	1,424	25.5	26.7	22.9	13.6	11.2
	비동거/독립	973	30.6	25.1	23.5	11.1	9.8

* 주: 본인 명의의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응답

188) 현재 집 값 수준에 대한 생각

○ 현재 집 값 수준에 대해 청년들의 3.5%가 '그렇다'(그렇다 3.1%+매우 그렇다 0.4%)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 85.2%(전혀 그렇지 않다 46.5%+그렇지 않다 38.7%) 대비 현저히 낮음

○ '그렇다'는 응답은 2019년 조사결과(6.1%) 대비 2.6%p 하락한 결과임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그렇지 않다'(90.4%)는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그렇지 않다'(75.3%)는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임

표 II-188 현재 집 값 수준에 대한 생각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27.4	42.0	21.6	8.0	1.0
2017	2,714	29.1	40.3	22.0	8.0	0.7
2018	3,133	27.2	37.8	21.2	12.1	1.6
2019	3,530	35.7	40.7	17.5	5.5	0.6
2020	3,520	46.5	38.7	11.3	3.1	0.4

표 II-188-1 현재 집 값 수준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520	46.5	38.7	11.3	3.1	0.4
성별	남자	1,855	45.8	38.9	11.8	3.0	0.5
	여자	1,665	47.3	38.6	10.7	3.2	0.2
연령	만 18~19세	477	37.6	43.4	16.6	2.4	0.0
	만 20~24세	1,095	44.1	41.2	11.3	2.8	0.5
	만 25~29세	1,050	50.2	36.1	11.0	2.5	0.2
	만 30~34세	898	47.8	37.6	9.9	4.2	0.6
지역	서울	676	59.4	31.0	6.1	3.2	0.3
	인천/경기	824	54.9	32.5	8.6	3.5	0.6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39.7	43.6	13.9	2.3	0.5
	광주/전라/제주	468	37.1	44.5	14.1	4.0	0.3
	부산/울산/경남	555	25.2	50.1	20.9	3.8	0.0
	대구/경북	448	39.9	47.9	11.4	0.8	0.0
학력	고졸이하	1,098	43.1	39.7	12.9	4.2	0.2
	대학/대학원 재학	898	44.6	42.6	10.5	1.8	0.4
	대졸이상	1,524	49.6	36.2	10.7	3.1	0.5
주거형태	동거	2,194	46.1	39.5	11.5	2.5	0.3
	비동거/독립	1,326	47.1	37.3	11.0	4.1	0.5

189) 부모님 도움 없이 집 마련에 대한 생각

○ 부모님 도움 없이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질문에 대해 청년들의 46.2%가 '그렇다'(그렇다 31.9%+매우 그렇다 14.3%)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 26.4%(전혀 그렇지 않다 2.4%+그렇지 않다 24.0%) 대비 높게 나타남

○ '그렇다(불가능하다)'는 응답은 2019년 조사결과(43.4%) 대비 3.8%p 상승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43.9%)에 비해 여자(48.7%)가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그렇다'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그렇다'(53.0%)는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29.2%)은 타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남

표 II-189 부모님 도움 없이 집 마련에 대한 생각 연도별 추이[10)]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5.6	22.8	39.9	27.8	3.9
2017	2,714	7.0	25.6	34.5	25.1	7.8
2018	3,133	2.6	14.4	36.0	37.6	9.5
2019	3,530	4.4	24.1	28.3	33.0	10.4
2020	3,520	2.4	24.0	27.5	31.9	14.3

10) 2019년 이전년도까지는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의 부정문 형태로 질문하였으나 2020년도 조사 시에는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긍정문 형태로 질문함. 표 상에서는 비교를 위해 2020년 조사값을 reverse recoding 한 값을 입력함

표 Ⅱ-189-1 부모님 도움 없이 집 마련에 대한 생각[11)]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520	2.4	24.0	27.5	31.9	14.3
성별	남자	1,855	2.6	26.7	26.8	30.5	13.4
	여자	1,665	2.1	21.0	28.2	33.5	15.2
연령	만 18~19세	477	1.7	19.7	33.6	33.3	11.6
	만 20~24세	1,095	3.1	21.1	27.8	34.2	13.8
	만 25~29세	1,050	2.2	23.5	28.4	30.8	15.0
	만 30~34세	898	2.0	29.0	24.0	30.2	14.8
지역	서울	676	1.8	20.7	24.4	36.1	16.9
	인천/경기	824	2.4	23.9	25.7	32.0	16.0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2.9	26.5	23.2	32.1	15.2
	광주/전라/제주	468	1.4	25.1	28.2	30.7	14.7
	부산/울산/경남	555	4.1	29.6	37.1	23.1	6.1
	대구/경북	448	1.1	18.4	31.9	36.1	12.4
학력	고졸이하	1,098	2.6	25.7	29.7	27.4	14.5
	대학/대학원 재학	898	2.0	21.9	27.8	36.6	11.7
	대졸이상	1,524	2.4	24.0	25.9	32.3	15.4
주거형태	동거	2,194	2.3	21.9	28.5	33.3	14.0
	비동거/독립	1,326	2.6	27.8	25.6	29.3	14.7

11) 2020년도 조사 시에는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긍정문 형태로 질문함. 표 Ⅱ-189 표와의 일치를 위해 동일하게 2020년 조사값을 reverse recoding 한 값을 입력함

190) 공동주거 경험 여부 및 향후 거주 의향

○ 공동주거 경험 비율은 5.7%, 향후 공동주거 의향 비율은 5.9%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경험비율 6.1%, 의향비율 6.7%) 대비 하락하였음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공동주거 경험 비율이 높고, 향후 의향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인천/경기 지역에서 공동주거경험(7.3%)과 향후 공동주거 의향(7.6%) 모두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향후 의향 비율은 대학/대학원 재학(10.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Ⅱ-190 공동주거 경험 여부 및 향후 거주 의향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공동주거 경험 여부		향후 공동주거 거주 의향	
		예	아니오	예	아니오
2016	2,534	9.1	90.9	7.6	92.4
2017	2,714	7.1	92.9	8.0	92.0
2018	3,133	2.5	97.5	2.8	97.2
2019	3,530	6.1	93.9	6.7	93.3
2020	3,520	5.7	94.3	5.9	94.1

표 II-190-1 공동주거 경험 여부 및 향후 거주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공동주거 경험 여부		향후 공동주거 거주 의향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3,520	5.7	94.3	5.9	94.1
성별	남자	1,855	6.6	93.4	6.0	94.0
	여자	1,665	4.7	95.3	5.9	94.1
연령	만 18~19세	477	4.3	95.7	9.9	90.1
	만 20~24세	1,095	5.3	94.7	8.1	91.9
	만 25~29세	1,050	5.6	94.4	5.3	94.7
	만 30~34세	898	6.8	93.2	3.0	97.0
지역	서울	676	5.4	94.6	5.7	94.3
	인천/경기	824	7.3	92.7	7.6	92.4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5.0	95.0	6.2	93.8
	광주/전라/제주	468	3.2	96.8	5.2	94.8
	부산/울산/경남	555	5.6	94.4	4.2	95.8
	대구/경북	448	5.0	95.0	3.4	96.6
학력	고졸이하	1,098	4.5	95.5	4.3	95.7
	대학/대학원 재학	898	6.0	94.0	10.6	89.4
	대졸이상	1,524	6.4	93.6	4.6	95.4
주거형태	동거	2,194	5.1	94.9	6.8	93.2
	비동거/독립	1,326	6.8	93.2	4.4	95.6

191) 부모 동거 여부

○ 부모 동거 여부 조사 결과 '현재 같이 살고 있다'는 동거 비율은 63.9%이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는 일시 별거 비율이 4.3%,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라는 독립 비율이 31.8%로 조사됨

○ 2019년 대비 동거 비율은 12.4%p 상승, 독립 비율은 12.3%p 하락함

○ 성별로 남자의 동거 비율이 66.3%로 여자(61.1%) 대비 높은 반면 독립 비율은 여자(35.5%)가 남자(28.5%) 대비 높은 것이 특징임

○ 연령별로 만18~19세 대부분(93.3%)은 부모와 동거하고 있고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독립 비율도 비례하여 상승하고 있음

표 Ⅱ-191 부모 동거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현재 같이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이다
2017	2,714	51.0	4.4	44.6
2018	3,133	59.5	2.1	38.4
2019	3,530	51.5	4.4	44.1
2020	3,520	63.9	4.3	31.8

표 II-191-1 부모 동거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현재 같이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이다
전체		3,520	63.9	4.3	31.8
성별	남자	1,855	66.3	5.2	28.5
	여자	1,665	61.1	3.4	35.5
연령	만 18~19세	477	93.3	5.1	1.6
	만 20~24세	1,095	81.5	7.5	11.0
	만 25~29세	1,050	65.9	3.7	30.4
	만 30~34세	898	34.2	1.6	64.2
지역	서울	676	69.0	5.0	25.9
	인천/경기	824	65.0	4.0	31.0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52.6	4.4	43.1
	광주/전라/제주	468	64.1	3.9	32.0
	부산/울산/경남	555	64.8	3.7	31.6
	대구/경북	448	63.3	5.6	31.1
학력	고졸이하	1,098	61.2	1.6	37.3
	대학/대학원 재학	898	81.4	12.7	5.9
	대졸이상	1,524	56.9	2.0	41.1
주거형태	동거	2,194	100.0	0.0	0.0
	비동거/독립	1,326	0.0	12.0	88.0

192) 미혼 독립 거주 여부

○ 현재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해 38.8%가 '예'라고 응답해 2019년 조사 결과(20.6%) 대비 18.2%p 상승함

○ 성별로 남자(50.9%)가 여자(27.0%)보다 미혼 독립 거주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은 낮을수록 독립하여 거주한다는 응답이 높음

○ 학력별로 대학생/대학원 재학(71.6%)에서 미혼 독립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192 미혼 독립 거주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6	1,007	14.9	85.1
2017	1,285	25.3	74.7
2018	1,232	15.7	84.3
2019	1,659	20.6	79.4
2020	1,326	38.8	61.2

* 주: 2016~2019년 중/고등학생인 경우 응답하지 않음. 부모님과 비동거/독립인 경우에만 응답. 2020년 전체 응답자 중 부모님과 비동거/독립인 경우 응답

표 II-192-1 미혼 독립 거주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1,326	38.8	61.2
성별	남자	655	50.9	49.1
	여자	671	27.0	73.0
연령	만 18~19세	41	67.9	32.1
	만 20~24세	258	68.7	31.3
	만 25~29세	420	48.5	51.5
	만 30~34세	607	23.8	76.2
지역	서울	228	45.9	54.1
	인천/경기	309	33.3	66.7
	대전/충청/세종/강원	266	43.3	56.7
	광주/전라/제주	168	33.9	66.1
	부산/울산/경남	199	35.8	64.2
	대구/경북	156	43.7	56.3
학력	고졸이하	425	36.0	64.0
	대학/대학원 재학	196	71.6	28.4
	대졸이상	705	33.4	66.6

* 주: 부모님과 비동거/독립인 경우에만 응답

193) 주거 형태

○ 부모님과 비동거/독립인 경우 주거 형태에 대해서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응답이 42.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다세대/빌라'(28.3%), '원룸(다가구)'(1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여자는 '아파트'(46.8%), 남자는 '원룸(다가구)'(20.2%)의 주거 형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아파트', '단독주택', 연령이 낮을수록 '원룸(다가구)', '오피스텔', '기숙사' 거주 비율이 높음

○ 지역별로 '다세대/빌라'는 서울(48.5%), '단독주택'은 대구/경북 지역(23.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93 주거 형태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원룸(다가구)	아파트	다세대/빌라	오피스텔	하숙	기숙사	고시원	단독주택	기타
2016	150	35.2	33.6	23.7	4.7	0.6	0.0	0.0	-	2.2
2017	330	37.1	27.7	22.2	6.5	0.2	2.8	0.0	-	3.5
2018	212	19.4	26.9	32.5	12.4	0.2	0.4	0.0	-	8.3
2019	472	47.1	17.5	21.9	7.2	-	3.1	-	-	3.2
2020	1,326	15.7	42.7	28.3	1.7	0.0	1.2	0.0	9.6	0.9

* 주 1) 2016~2019년 미혼 1인 가구인 경우에만 응답. 2020년 미혼 여부 상관없이 부모님과 비동거/독립인 경우 응답
2) 단독주택 2020년 보기 추가

표 II-193-1 주거 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아파트	다세대/빌라	원룸(다가구)	단독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기타
전체		1,326	42.7	28.3	15.7	9.6	1.7	1.2	0.9
성별	남자	655	38.5	26.4	20.2	11.2	1.5	1.4	0.9
	여자	671	46.8	30.1	11.3	8.0	1.9	0.9	1.0
연령	만18~19세	41	13.6	17.5	43.5	1.9	6.6	12.2	4.6
	만20~24세	258	22.3	28.9	34.0	6.4	3.8	4.0	0.7
	만25~29세	420	37.8	29.1	20.4	9.6	1.3	0.6	1.2
	만30~34세	607	52.2	28.0	6.9	10.7	1.2	0.3	0.7
지역	서울	228	29.3	48.5	11.0	5.4	2.4	2.7	0.6
	인천/경기	309	48.7	33.6	12.1	3.6	0.4	0.6	1.1
	대전/충청/세종/강원	266	44.5	24.0	17.6	8.5	4.1	0.9	0.4
	광주/전라/제주	168	40.8	15.6	19.8	19.9	0.0	0.7	3.2
	부산/울산/경남	199	49.9	14.7	19.8	13.6	0.8	1.2	0.0
	대구/경북	156	37.0	12.0	22.8	23.0	3.1	1.0	1.1
학력	고졸이하	425	38.3	34.8	14.1	10.6	1.1	0.4	0.7
	대학/대학원 재학	196	24.8	23.6	33.2	4.6	3.5	8.3	2.1
	대졸이상	705	48.9	25.6	12.9	10.1	1.7	0.1	0.8

* 주: 부모님과 비동거/독립인 경우에만 응답

194) 현재 거주지 주택의 점유형태

○ 현재 거주지의 점유형태는 ‘전세’라는 응답이 36.8%로 가장 높고, ‘보증금 있는 월세’(33.1%), ‘자가’(22.5%), ‘무상’(4.9%) 등의 순임

○ 성별로 여자는 ‘자가’(26.1%), 남자는 ‘보증금 있는 월세’(38.2%)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 ‘전세’, 연령이 낮을수록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자가’(14.2%) 응답이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음

표 II-194-1 현재 거주지 주택의 점유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 등	무상
전체		1,326	22.5	36.8	33.1	2.0	0.7	4.9
성별	남자	655	18.8	34.4	38.2	3.0	0.8	4.9
	여자	671	26.1	39.2	28.1	1.1	0.6	5.0
연령	만18~19세	41	0.0	7.4	71.0	13.0	8.7	0.0
	만20~24세	258	8.0	16.6	64.7	4.2	1.4	5.1
	만25~29세	420	17.5	35.2	38.0	2.1	0.6	6.6
	만30~34세	607	30.2	44.4	20.0	1.0	0.2	4.1
지역	서울	228	14.2	43.4	36.3	3.5	0.5	2.2
	인천/경기	309	23.5	46.5	25.4	2.0	0.0	2.6
	대전/충청/세종/강원	266	18.6	32.9	36.7	1.3	1.7	8.8
	광주/전라/제주	168	30.8	23.1	37.3	1.5	2.6	4.7
	부산/울산/경남	199	30.3	27.4	34.1	2.1	0.0	6.2
	대구/경북	156	22.7	27.5	39.2	1.4	0.4	8.9
학력	고졸이하	425	18.2	37.4	37.4	1.7	0.4	4.8
	대학/대학원 재학	196	8.5	16.7	55.7	8.4	3.8	6.8
	대졸이상	705	27.9	40.7	25.8	0.8	0.2	4.6

* 주: 부모님과 비동거/독립인 경우에만 응답

195) 주거 비용 마련 방법

○ 현재 거주지가 자가, 전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인 경우 주거 비용 마련 방법에 대해 '전부 본인 스스로' 마련했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높고, '본인이 대부분 마련, 부모님 등이 일부 도움'(22.2%), '부모님 등이 대부분 마련, 본인 일부 도움'(20.1%) 등의 순임

○ 성별로 '전부 본인 스스로' 마련했다는 응답은 남자(49.5%)가 여자(37.8%)에 비해 높음

○ 지역별로 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는 '전부 본인 스스로'(55.0%), 서울 지역에서는 '부모님 등이 대부분 마련, 본인 일부 도움'(29.1%) 응답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195-1 주거 비용 마련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부 본인 스스로	본인 대부분 마련, 부모님 (또는 친지) 등이 일부 도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대부분 마련, 본인 일부 도움	전부 부모님 (또는 친지) 등이 마련해 주심
전체		1,222	43.5	22.2	20.1	14.2
성별	남자	594	49.5	19.3	18.3	13.0
	여자	628	37.8	24.9	21.9	15.4
연령	만18~19세	36	11.3	8.9	16.8	63.0
	만20~24세	234	33.9	12.7	16.8	36.6
	만25~29세	378	47.0	24.4	15.0	13.7
	만30~34세	574	45.1	23.9	23.9	7.1
지역	서울	215	26.1	29.5	29.1	15.3
	인천/경기	294	44.5	24.0	19.3	12.1
	대전/충청/세종/강원	237	55.0	17.9	14.9	12.1
	광주/전라/제주	152	46.7	20.3	13.8	19.2
	부산/울산/경남	184	48.4	20.5	21.2	9.9
	대구/경북	140	42.6	13.0	19.8	24.6
학력	고졸이하	391	57.1	20.1	12.4	10.4
	대학/대학원 재학	167	13.0	15.0	17.8	54.2
	대졸이상	664	41.4	24.6	24.9	9.0

* 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점유 형태가 자가, 전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인 경우 응답

196) 월세 마련 방법

○ 현재 거주지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인 경우 월세 마련 방법에 대해 '전부 본인 스스로' 마련했다는 응답이 75.8%로 가장 높고, '전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마련해 주심'(16.2%), '부모님(또는 친지)등이 대부분 마련, 본인 일부 도움'(4.3%) 등의 순임

○ 성별로 '전부 본인 스스로' 마련했다는 응답은 남자(77.3%)가 여자(73.8%)에 비해 높음

○ 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전부 본인 스스로'(87.4%),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전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마련해 주심'(24.8%) 응답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196-1 월세 마련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부 본인 스스로	본인 대부분 마련,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일부 도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대부분 마련, 본인 일부 도움	전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마련해 주심
전체		579	75.8	3.6	4.3	16.2
성별	남자	328	77.3	2.2	5.6	14.9
	여자	251	73.8	5.6	2.5	18.0
연령	만 18~19세	38	22.9	12.5	7.5	57.1
	만 20~24세	192	54.1	7.4	8.6	29.8
	만 25~29세	198	85.2	1.6	1.6	11.5
	만 30~34세	151	93.7	0.9	2.8	2.6
지역	서울	109	66.1	6.3	9.5	18.2
	인천/경기	104	79.8	4.0	1.7	14.5
	대전/충청/세종/강원	126	77.6	2.9	3.2	16.3
	광주/전라/제주	80	74.7	3.9	5.6	15.8
	부산/울산/경남	85	87.4	1.2	1.4	10.1
	대구/경북	75	68.6	2.0	4.6	24.8
학력	고졸이하	201	89.9	2.3	0.4	7.4
	대학/대학원 재학	144	23.2	7.9	13.0	55.9
	대졸이상	234	92.3	2.5	2.9	2.3

* 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점유 형태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인 경우 응답

197)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선택 이유

○ 부모님과 비동거/독립인 경우 현재 거주 중인 집을 선택 이유로 ‘주택 위치’ 때문이라는 응답이 33.7%로 가장 높고, 이어서 ‘주거비용’(28.1%), ‘주택유형’(16.7%), ‘주거환경’(12.3%) 등의 순임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주택위치’를 많이 고려한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유형’을 많이 고려함

○ 지역별로는 서울(33.2%), 경기/인천 지역(30.0%)에서 ‘주거비용’ 때문에 선택했다는 응답이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대학/대학원 재학에서 ‘주택위치’(43.5%)를 많이 고려함

표 II-197-1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선택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주택위치 (직장/학교와의 거리, 부모님 집과의 거리)	주거비용 (매매 가격, 전월세 가격 등)	주택유형 (아파트, 다세대/빌라, 원룸(다가구), 오피스텔 등)	주거환경 (의료/문화/상업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성, 교통, 교육환경 등)	주택상태 (주택 규모, 노후도, 방의 개수, 인테리어 등)	향후 주택 가격 변화 (미래 자산가치 상승 기대)	기타
전체		1,326	33.7	28.1	16.7	12.3	5.3	3.0	1.0
성별	남자	655	34.5	29.5	14.7	11.7	4.9	3.6	0.9
	여자	671	32.8	26.7	18.6	12.8	5.7	2.4	1.0
연령	만 18~19세	41	48.2	26.7	11.9	13.2	0.0	0.0	0.0
	만 20~24세	258	40.9	22.9	13.9	12.4	7.4	2.4	0.0
	만 25~29세	420	35.8	25.5	16.5	12.9	5.4	2.8	1.1
	만 30~34세	607	29.9	31.1	17.7	11.9	4.8	3.3	1.3
지역	서울	228	38.3	33.2	11.2	9.5	4.0	3.3	0.5
	인천/경기	309	30.2	30.0	20.8	10.9	3.6	3.1	1.3
	대전/충청/세종/강원	266	37.4	27.7	13.7	11.8	4.2	3.0	2.2
	광주/전라/제주	168	33.5	22.5	16.1	16.6	6.7	4.1	0.5
	부산/울산/경남	199	31.1	25.4	21.0	12.7	7.5	1.8	0.6
	대구/경북	156	32.6	22.3	14.2	18.0	10.8	2.2	0.0
학력	고졸이하	425	30.7	32.3	15.6	11.8	6.1	3.0	0.5
	대학/대학원 재학	196	43.5	22.7	12.8	13.2	4.9	2.3	0.7
	대졸이상	705	33.3	26.9	18.1	12.4	4.9	3.1	1.3

* 주: 부모님과 비동거/독립인 경우에만 응답

표 Ⅱ-197-2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선택 이유-1+2+3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주택위치 (직장/학교와의 거리, 부모님 집과의 거리)	주거비용 (매매 가격, 전월세 가격 등)	주택유형 (아파트, 다세대/빌라, 원룸 (다가구), 오피스텔 등)	주거환경 (의료/문화/상업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성, 교통, 교육환경 등)	주택상태 (주택 규모, 노후도, 방의 개수, 인테리어 등)	향후 주택 가격 변화 (미래 자산가치 상승 기대)	기타
전체		1,326	77.3	66.9	55.6	49.8	35.4	13.7	1.2
성별	남자	655	77.4	70.1	53.0	47.9	36.0	14.6	0.9
	여자	671	77.3	63.8	58.0	51.6	34.8	12.9	1.5
연령	만 18~19세	41	90.9	71.1	47.9	56.1	28.2	5.7	0.0
	만 20~24세	258	79.6	64.8	57.6	52.2	36.9	8.9	0.0
	만 25~29세	420	78.1	68.5	55.5	50.8	35.5	10.6	1.1
	만 30~34세	607	75.8	66.5	55.3	48.4	35.2	17.1	1.7
지역	서울	228	80.5	70.2	48.9	47.1	36.3	16.5	0.5
	인천/경기	309	76.0	67.3	58.9	46.4	35.4	14.7	1.3
	대전/충청/세종/강원	266	80.2	70.8	60.6	44.8	30.0	10.2	3.5
	광주/전라/제주	168	77.3	69.8	47.1	60.7	30.6	14.0	0.5
	부산/울산/경남	199	69.5	60.7	58.9	53.3	44.5	12.5	0.6
	대구/경북	156	81.4	57.5	51.7	59.7	36.3	13.3	0.0
학력	고졸이하	425	75.0	67.9	54.2	52.6	39.6	10.1	0.5
	대학/대학원 재학	196	84.9	70.0	56.1	48.7	29.7	9.9	0.7
	대졸이상	705	77.1	65.8	56.2	48.4	34.2	16.5	1.7

* 주: 부모님과 비동거/독립인 경우에만 응답

198) 집의 의미

○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의 의미에 대해서는 '가족과 함께 하는 공간'이라는 응답이 26.7%로 가장 높고, '휴식의 공간'(24.5%),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23.4%), '나만의 사적인 공간'(14.1%) 등의 순임

○ 성별로 보면 여자는 '가족과 함께 하는 공간'(30.1%), 남자는 '나만의 사적인 공간'(18.3%)이라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과 함께 하는 공간' 이라는데 집의 의미를 두는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나만의 사적인 공간'으로서 집의 의미를 두는 편임

○ 학력별로는 대학/대학원 재학에서 '나만의 사적인 공간'(24.2%)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98-1 집의 의미-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	휴식의 공간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	나만의 사적인 공간	자산 증식을 위한 중요한 수단	생리위생 및 세탁, 식사를 위한 공간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 주는 공간
전체		1,326	26.7	24.5	23.4	14.1	5.6	3.7	2.1
성별	남자	655	23.1	25.1	22.1	18.3	6.4	2.9	2.1
	여자	671	30.1	23.8	24.7	10.0	4.9	4.4	2.1
연령	만18~19세	41	8.4	29.7	25.3	26.0	5.8	4.0	0.7
	만20~24세	258	17.0	26.5	22.8	22.9	4.2	5.4	1.2
	만25~29세	420	18.7	28.1	25.5	17.0	4.8	4.1	1.9
	만30~34세	607	34.5	21.6	22.4	9.5	6.5	2.9	2.5
지역	서울	228	21.7	29.8	21.4	14.1	7.1	4.1	1.9
	인천/경기	309	32.3	21.1	22.5	15.4	3.1	4.1	1.4
	대전/충청/세종/강원	266	23.1	26.1	23.5	17.8	5.1	3.1	1.4
	광주/전라/제주	168	33.0	19.5	22.5	12.6	6.0	4.9	1.5
	부산/울산/경남	199	24.9	25.1	30.5	6.5	7.4	1.4	4.2
	대구/경북	156	20.1	26.5	20.7	14.8	9.1	4.5	4.3
학력	고졸이하	425	26.7	26.9	23.6	13.6	4.2	2.6	2.4
	대학/대학원 재학	196	14.5	22.8	26.6	24.2	6.5	5.3	0.1
	대졸이상	705	29.2	23.4	22.6	12.2	6.3	3.9	2.4

* 주: 부모님과 비동거/독립인 경우에만 응답

표 II-198-2 집의 의미-1+2+3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	휴식의 공간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	나만의 사적인 공간	생리위생 및 세탁, 식사를 위한 공간	자산 증식을 위한 중요한 수단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 주는 공간
전체		1,326	74.3	73.4	55.5	43.9	22.4	21.6	8.9
성별	남자	655	72.2	75.3	51.2	48.5	23.4	21.5	8.0
	여자	671	76.5	71.5	59.7	39.4	21.5	21.6	9.8
연령	만18~19세	41	79.6	84.6	20.2	74.6	32.8	7.4	0.7
	만20~24세	258	73.7	78.0	37.8	61.0	26.8	14.8	7.9
	만25~29세	420	74.1	77.9	48.0	52.6	22.5	18.0	6.9
	만30~34세	607	74.5	69.2	65.9	33.0	20.8	26.0	10.6
지역	서울	228	69.3	74.7	49.2	45.8	28.6	21.6	10.8
	인천/경기	309	76.5	72.5	61.9	43.4	19.4	18.4	8.0
	대전/충청/세종/강원	266	74.1	74.4	55.0	47.7	21.8	21.9	5.1
	광주/전라/제주	168	74.9	79.7	60.3	36.1	22.8	21.5	4.6
	부산/울산/경남	199	76.1	71.7	54.2	37.6	22.7	23.8	13.8
	대구/경북	156	74.5	67.7	43.9	52.0	20.8	28.1	13.0
학력	고졸이하	425	74.0	75.9	61.2	42.7	21.5	17.0	7.7
	대학/대학원 재학	196	73.1	75.5	32.0	70.4	28.4	14.2	6.4
	대졸이상	705	74.8	71.6	57.2	38.9	21.7	25.7	10.1

* 주: 부모님과 비동거/독립인 경우에만 응답

199) 향후 주거 마련 시 중요사항

○ 향후 주거 마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주거비용'이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고, '주택위치'(21.0%), '주거환경'(16.3%), '주택유형'(14.8%) 등의 순임

○ 연령별로 만18~19세의 경우 '주택위치'(31.9%)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 대비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주택유형'(26.2%) 응답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199-1 향후 주거 마련 시 중요사항-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주거비용	주택위치	주거환경	주택유형	주택상태	향후 주택 가격 변화
전체		1,326	34.1	21.0	16.3	14.8	7.3	6.6
성별	남자	655	35.7	19.7	14.2	16.2	6.8	7.5
	여자	671	32.5	22.2	18.3	13.4	7.7	5.7
연령	만18~19세	41	21.9	31.9	11.1	14.0	11.1	10.0
	만20~24세	258	34.8	17.6	17.7	17.1	9.5	3.3
	만25~29세	420	38.5	19.9	14.6	14.1	7.0	5.9
	만30~34세	607	31.8	22.1	17.0	14.6	6.6	7.8
지역	서울	228	33.7	25.9	12.0	14.5	6.7	7.3
	인천/경기	309	40.8	17.4	15.6	11.6	7.1	7.4
	대전/충청/세종/강원	266	37.2	19.6	21.8	10.3	5.0	6.1
	광주/전라/제주	168	29.7	23.7	15.5	18.5	6.6	6.0
	부산/울산/경남	199	23.5	20.5	12.9	26.2	11.1	5.8
	대구/경북	156	26.3	23.5	21.7	14.5	8.5	5.5
학력	고졸이하	425	37.6	18.2	19.1	12.3	6.6	6.3
	대학/대학원 재학	196	37.2	20.2	13.8	15.4	10.5	3.0
	대졸이상	705	31.4	22.7	15.2	16.1	7.0	7.5

* 주: 부모님과 비동거/독립인 경우에만 응답

표 II-199-2 향후 주거 마련 시 중요사항-1+2+3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주거비용	주택위치	주거환경	주택유형	주택상태	향후 주택 가격 변화
전체		1,326	66.9	61.6	58.4	54.2	34.2	24.8
성별	남자	655	68.3	60.8	55.9	56.2	32.8	26.0
	여자	671	65.4	62.3	60.9	52.2	35.6	23.6
연령	만18~19세	41	58.2	70.6	57.7	48.8	39.0	25.7
	만20~24세	258	67.3	61.2	57.3	55.7	38.0	20.6
	만25~29세	420	71.2	63.8	56.8	53.0	34.2	20.9
	만30~34세	607	64.5	60.1	59.7	54.6	33.0	28.1
지역	서울	228	70.9	63.6	51.7	53.2	36.1	24.5
	인천/경기	309	71.1	60.4	56.8	54.1	32.8	24.9
	대전/충청/세종/강원	266	67.2	61.7	62.3	55.5	28.1	25.2
	광주/전라/제주	168	70.1	55.6	71.1	48.7	32.0	22.6
	부산/울산/경남	199	58.4	61.1	53.5	64.0	38.6	24.5
	대구/경북	156	52.8	68.5	63.1	45.1	43.5	27.0
학력	고졸이하	425	65.6	59.9	61.5	55.6	37.4	20.0
	대학/대학원 재학	196	66.2	68.0	54.0	51.2	35.9	24.6
	대졸이상	705	67.7	61.1	57.6	54.0	32.0	27.5

* 주: 부모님과 비동거/독립인 경우에만 응답

200) 청년 주거 정책 인지도

○ 청년 주거 정책 중 응답자의 68.5%는 '청년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은 44.7%, '청년 주거환경 개선 정책'은 21.7%,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정책'은 38.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정책'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높을수록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임

○ 지역별로 서울 지역에서 다른 지역대비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정책'은 대학/대학원 재학(43.5%)에서 높고 나머지 정책은 대졸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200-1 청년 주거 정책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청년 주택 공급 정책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청년 주거환경 개선 정책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정책
전체		1,326	68.5	44.7	21.7	38.0
성별	남자	655	67.4	44.9	23.1	38.3
	여자	671	69.6	44.5	20.3	37.8
연령	만18~19세	41	30.4	27.1	10.4	30.2
	만20~24세	258	58.4	35.8	15.0	42.1
	만25~29세	420	71.4	47.2	23.0	37.9
	만30~34세	607	71.0	46.4	23.2	37.3
지역	서울	228	79.7	51.4	31.9	49.1
	인천/경기	309	70.2	45.2	22.7	36.4
	대전/충청/세종/강원	266	60.0	38.6	14.1	28.6
	광주/전라/제주	168	61.5	45.0	19.7	43.3
	부산/울산/경남	199	68.3	43.8	17.8	33.8
	대구/경북	156	64.9	43.0	20.6	40.7
학력	고졸이하	425	65.2	38.6	18.9	30.3
	대학/대학원 재학	196	55.2	41.2	16.7	43.5
	대졸이상	705	73.2	48.9	24.3	41.3

* 주: 부모님과 비동거/독립인 경우에만 응답

201) 가장 시급한 청년 주거 정책

○ 청년들의 주거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할 정책으로는 '청년 주택 공급 정책'이 63.0%로 가장 높고, 이어서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23.2%), '청년 주거환경 개선 정책'(7.6%),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 비 지원 정책'(6.2%)의 순임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청년 주택 공급 정책' 연령이 낮을수록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학/대학원 재학에서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정책'(11.3%)이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201-1 가장 시급한 청년 주거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청년 주택 공급 정책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청년 주거환경 개선 정책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정책
전체		1,326	63.0	23.2	7.6	6.2
성별	남자	655	62.9	23.4	7.5	6.2
	여자	671	63.1	23.0	7.7	6.2
연령	만18~19세	41	51.0	29.3	9.2	10.5
	만20~24세	258	55.8	29.1	7.4	7.7
	만25~29세	420	64.3	25.4	5.5	4.8
	만30~34세	607	64.7	20.1	8.8	6.3
지역	서울	228	67.1	19.2	7.9	5.7
	인천/경기	309	61.6	26.5	5.0	6.9
	대전/충청/세종/강원	266	66.5	19.3	8.4	5.8
	광주/전라/제주	168	61.7	25.7	6.1	6.4
	부산/울산/경남	199	63.3	21.4	9.3	6.0
	대구/경북	156	53.8	27.9	13.0	5.3
학력	고졸이하	425	68.2	21.5	6.0	4.2
	대학/대학원 재학	196	50.1	30.9	7.7	11.3
	대졸이상	705	62.8	22.6	8.4	6.2

* 주: 부모님과 비동거/독립인 경우에만 응답

202)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 본인의 신체에 대해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그렇다’ 응답이 86.8%(그렇다 64.8%+매우 그렇다 22.0%)로 ‘그렇지 않다’ 2.6%(전혀 그렇지 않다 0.3%+그렇지 않다 2.3%)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 2019년 조사 대비 ‘그렇다’는 응답은 4.3%p 상승,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0.8%p 하락함

○ 성별로 남자(89.8%)가 여자(83.5%)에 비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95.6%)에서 타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건강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학력별로는 대학/대학원 재학(91.0%)의 ‘그렇다’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Ⅱ-202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9	3,530	0.4	3.0	14.1	58.9	23.6
2020	3,520	0.3	2.3	10.6	64.8	22.0

표 II-202-1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520	0.3	2.3	10.6	64.8	22.0
성별	남자	1,855	0.2	1.7	8.3	61.9	27.9
	여자	1,665	0.3	3.0	13.2	68.2	15.3
연령	만18~19세	477	0.0	1.4	4.8	64.2	29.5
	만20~24세	1,095	0.0	3.2	9.4	64.5	22.9
	만25~29세	1,050	0.7	2.2	10.0	64.5	22.6
	만30~34세	898	0.2	1.9	14.3	65.9	17.8
지역	서울	676	0.2	2.2	9.0	69.3	19.3
	인천/경기	824	0.2	2.6	12.0	61.9	23.3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0.4	3.8	15.1	59.3	21.5
	광주/전라/제주	468	0.4	1.8	8.3	67.4	22.2
	부산/울산/경남	555	0.3	2.3	11.1	69.8	16.5
	대구/경북	448	0.4	0.0	3.9	62.9	32.7
학력	고졸이하	1,098	0.4	3.4	9.8	64.2	22.2
	대학/대학원 재학	898	0.4	1.7	7.0	65.5	25.4
	대졸이상	1,524	0.2	2.0	12.8	64.9	20.2
주거형태	동거	2,194	0.4	2.4	8.9	65.3	23.1
	비동거/독립	1,326	0.1	2.2	13.6	64.1	20.1

203)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으로 '마른 편이다'라는 응답이 17.2%(매우 마른 편이다 0.6%+약간 마른 편이다 16.6%)로 '비만이다'라는 응답 21.6%(약간 비만이다 19.2%+매우 비만이다 2.4%)보다 낮음

○ 2019년 '비만이다'(22.3%) 응답 대비 0.7%p 하락하였고, '마른 편이다'(16.5%) 응답은 0.7%p 상승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만이다'를 응답한 비율이 높아짐

○ 학력별로 고졸이하(26.9%)에서 '비만이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주거형태별로 비동거/독립(24.7%)인 경우, 동거(19.8%) 보다 자신을 비만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203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매우 마른 편이다	약간 마른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비만이다	매우 비만이다
2016	2,534	1.4	14.6	61.1	20.4	2.5
2017	2,714	2.8	18.1	54.4	20.8	3.9
2018	3,133	2.2	21.6	54.1	20.7	1.3
2019	3,530	0.9	15.6	61.3	19.8	2.5
2020	3,520	0.6	16.6	61.2	19.2	2.4

표 II-203-1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마른 편이다	약간 마른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비만이다	매우 비만이다
전체		3,520	0.6	16.6	61.2	19.2	2.4
성별	남자	1,855	0.6	15.3	63.1	18.3	2.8
	여자	1,665	0.7	18.0	59.1	20.2	2.0
연령	만 18~19세	477	0.7	19.5	60.8	17.4	1.6
	만 20~24세	1,095	0.9	17.5	61.0	17.6	3.1
	만 25~29세	1,050	0.8	17.3	61.8	17.9	2.1
	만 30~34세	898	0.1	13.9	60.9	22.7	2.4
지역	서울	676	0.1	18.0	62.9	16.4	2.6
	인천/경기	824	0.5	15.7	57.9	22.5	3.3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1.2	16.0	57.5	22.6	2.6
	광주/전라/제주	468	1.6	16.1	62.8	17.6	1.8
	부산/울산/경남	555	0.7	17.8	64.4	15.3	1.9
	대구/경북	448	0.0	15.7	67.9	16.1	0.3
학력	고졸이하	1,098	0.4	16.6	56.1	22.6	4.2
	대학/대학원 재학	898	0.8	19.7	64.2	13.7	1.6
	대졸이상	1,524	0.7	15.0	62.9	19.7	1.7
주거형태	동거	2,194	0.6	18.1	61.5	17.5	2.3
	비동거/독립	1,326	0.6	13.9	60.7	22.0	2.7

204) 건강검진 수검 여부

○ 건강검진 수검 여부에 대해 40.7%가 '예'라고 응답한 반면,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은 59.3%로 조사됨

○ 2019년 건강검진 수검자 44.3%에 비해 3.6%p 하락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수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주거 형태별 비동거/독립의 건강검진 수검 비율이 51.1%로 부모와 동거 중인 청년 34.9% 대비 높음

표 II-204 건강검진 수검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9	3,530	44.3	55.7
2020	3,520	40.7	59.3

표 II-204-1 건강검진 수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520	40.7	59.3
성별	남자	1,855	39.7	60.3
	여자	1,665	42.0	58.0
연령	만18~19세	477	19.3	80.7
	만20~24세	1,095	24.5	75.5
	만25~29세	1,050	45.1	54.9
	만30~34세	898	59.5	40.5
지역	서울	676	43.2	56.8
	인천/경기	824	40.8	59.2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34.1	65.9
	광주/전라/제주	468	44.2	55.8
	부산/울산/경남	555	40.9	59.1
	대구/경북	448	41.0	59.0
학력	고졸이하	1,098	36.0	64.0
	대학/대학원 재학	898	19.2	80.8
	대졸이상	1,524	54.3	45.7
주거형태	동거	2,194	34.9	65.1
	비동거/독립	1,326	51.1	48.9

205)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

○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으로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응답이 8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12.4%),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5.1%) 등의 순임

○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 시,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0.6%p 하락,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1.5%p 상승,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0.9%p 하락함

○ 지역별로 서울 지역에서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응답이 17.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이 9.9%로 타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205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2019	3,530	83.1	10.9	6.0
2020	3,520	82.5	12.4	5.1

표 II-205-1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전체		3,520	82.5	12.4	5.1
성별	남자	1,855	81.9	11.7	6.4
	여자	1,665	83.3	13.1	3.6
연령	만18~19세	477	81.9	12.6	5.4
	만20~24세	1,095	81.5	11.3	7.2
	만25~29세	1,050	81.5	14.1	4.4
	만30~34세	898	84.9	11.4	3.7
지역	서울	676	79.2	17.5	3.2
	인천/경기	824	83.4	12.4	4.2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86.7	7.0	6.3
	광주/전라/제주	468	84.7	7.6	7.6
	부산/울산/경남	555	78.0	12.1	9.9
	대구/경북	448	85.3	13.9	0.8
학력	고졸이하	1,098	81.1	12.5	6.4
	대학/대학원 재학	898	82.3	12.6	5.1
	대졸이상	1,524	83.6	12.1	4.3
주거형태	동거	2,194	82.8	11.8	5.4
	비동거/독립	1,326	82.1	13.3	4.5

206)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8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9년 조사 결과(79.8%) 보다 3.8%p 상승하였음

○ 성별로 보면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자(86.3%)가 여자(80.4%)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졸이상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18.0%)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주거형태별로 비동거/독립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20.6%), 동거 중인 경우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88.0%)의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206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기타
2019	582	3.0	15.2	1.4	79.8	0.7
2020	612	2.3	13.3	0.8	83.6	0.0

* 주: 질환 발생 시 병원을 가지 않는 응답자

표 II-206-1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전체		612	2.3	13.3	0.8	83.6
성별	남자	350	1.5	12.0	0.2	86.3
	여자	262	3.4	14.8	1.4	80.4
연령	만 18~19세	87	0.6	9.8	0.0	89.6
	만 20~24세	206	2.3	7.7	1.7	88.3
	만 25~29세	182	1.0	14.7	0.0	84.3
	만 30~34세	137	4.9	19.5	0.9	74.7
지역	서울	126	1.7	16.0	1.1	81.2
	인천/경기	153	4.0	7.6	0.0	88.4
	대전/충청/세종/강원	74	5.1	17.6	2.3	74.9
	광주/전라/제주	77	1.1	18.2	2.7	77.9
	부산/울산/경남	121	0.3	16.0	0.0	83.7
	대구/경북	61	0.0	8.6	0.0	91.4
학력	고졸이하	205	0.4	10.7	0.7	88.2
	대학/대학원 재학	162	1.3	7.8	0.6	90.3
	대졸이상	245	4.3	18.0	0.9	76.8
주거형태	동거	372	2.7	8.9	0.4	88.0
	비동거/독립	240	1.7	20.6	1.4	76.2

* 주: 질환 발생 시 병원을 가지 않는 응답자

207)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1)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에서 느낀 기분 중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가 79.5%(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0.1%+대부분 그렇다 48.9%+항상 그렇다 10.5%)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는 20.5%(전혀 그렇지 않다 1.6%+때때로 그렇다 11.1%+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7.8%)로 조사되어 긍정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19년 '그렇다'(74.1%) 응답 대비 5.4%p 상승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그렇다'(88.3%)의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Ⅱ-207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1)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2017	2,714	1.2	16.4	13.2	31.3	34.4	3.4
2018	3,133	0.1	8.8	13.8	28.9	44.7	3.7
2019	3,530	1.5	13.1	11.3	22.3	44.9	6.9
2020	3,520	1.6	11.1	7.8	20.1	48.9	10.5

표 Ⅱ-207-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1)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체		3,520	1.6	11.1	7.8	20.1	48.9	10.5
성별	남자	1,855	2.1	10.3	7.8	20.1	48.5	11.2
	여자	1,665	1.0	12.1	7.8	20.0	49.3	9.8
연령	만18~19세	477	0.7	6.4	7.3	18.4	51.4	15.9
	만20~24세	1,095	1.8	11.2	6.8	20.2	47.9	12.0
	만25~29세	1,050	2.0	10.5	8.9	19.9	49.6	9.1
	만30~34세	898	1.2	13.4	7.7	20.6	48.2	8.8
지역	서울	676	2.9	9.2	4.9	19.9	52.0	11.1
	인천/경기	824	1.3	13.8	8.8	20.2	46.7	9.1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1.2	13.8	7.9	19.8	45.5	11.7
	광주/전라/제주	468	2.1	9.8	10.6	24.9	41.3	11.4
	부산/울산/경남	555	1.0	10.1	8.9	16.1	54.5	9.4
	대구/경북	448	0.3	5.2	6.3	20.9	54.2	13.2
학력	고졸이하	1,098	2.1	10.4	7.8	21.2	46.0	12.4
	대학/대학원 재학	898	1.3	9.9	7.0	17.1	52.6	12.2
	대졸이상	1,524	1.4	12.2	8.2	20.8	48.9	8.5
주거형태	동거	2,194	1.8	10.5	8.1	20.2	49.0	10.3
	비동거/독립	1,326	1.1	12.2	7.3	19.7	48.6	11.0

208)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2)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에서 느낀 기분 중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가 77.9%(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1.0%+대부분 그렇다 44.5%+항상 그렇다 12.5%)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는 22.1%(전혀 그렇지 않다 1.8% + 때때로 그렇다 10.1% +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0.3%)로 조사돼 긍정 응답 비율이 더 높음

○ 2019년 '그렇다'(72.7%) 응답 대비 5.2%p 상승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그렇다'(86.5%)의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Ⅱ-208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2)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2017	2,714	2.2	15.0	15.2	26.8	36.5	4.3
2018	3,133	0.3	7.5	17.7	33.4	32.9	8.2
2019	3,530	2.3	12.5	12.6	23.8	39.7	9.2
2020	3,520	1.8	10.1	10.3	21.0	44.5	12.5

표 Ⅱ-208-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2)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체		3,520	1.8	10.1	10.3	21.0	44.5	12.5
성별	남자	1,855	2.0	9.5	10.3	20.7	44.0	13.5
	여자	1,665	1.5	10.7	10.3	21.3	45.0	11.3
연령	만 18~19세	477	0.6	7.2	9.1	21.9	42.7	18.5
	만 20~24세	1,095	1.6	9.8	9.2	21.6	44.8	13.0
	만 25~29세	1,050	2.4	10.1	10.7	22.0	43.3	11.5
	만 30~34세	898	1.6	11.1	11.3	18.9	46.0	11.0
지역	서울	676	2.2	7.8	7.6	20.7	47.7	14.0
	인천/경기	824	2.4	11.9	11.1	20.7	44.8	9.2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1.6	11.8	10.4	22.8	37.4	16.1
	광주/전라/제주	468	1.7	10.2	11.4	20.9	41.1	14.7
	부산/울산/경남	555	0.6	11.8	12.1	14.7	48.9	11.8
	대구/경북	448	0.6	3.3	9.6	29.6	43.3	13.6
학력	고졸이하	1,098	1.8	10.3	11.0	22.5	40.1	14.3
	대학/대학원 재학	898	1.3	7.6	9.4	20.7	47.3	13.7
	대졸이상	1,524	1.9	11.1	10.3	20.1	45.8	10.7
주거형태	동거	2,194	1.8	9.2	10.2	22.6	43.7	12.5
	비동거/독립	1,326	1.7	11.5	10.4	18.1	45.9	12.4

209)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3)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에서 느낀 기분 중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문항에 대해 '그렇다'가 72.9%(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1.4%+대부분 그렇다 40.8% + 항상 그렇다 10.8%)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는 27.1%(전혀 그렇지 않다 2.5%+때때로 그렇다 12.4% +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2.1%)로 조사돼 긍정 응답 비율이 더 높음

○ 2019년 '그렇다'(70.2%) 응답 대비 2.7%p 상승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그렇다'(83.7%)의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209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3)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2017	2,714	2.3	15.8	15.5	29.5	31.5	5.4
2018	3,133	0.7	9.6	15.7	33.7	32.4	7.9
2019	3,530	2.4	13.4	14.0	22.9	38.7	8.6
2020	3,520	2.5	12.4	12.1	21.4	40.8	10.8

표 Ⅱ-209-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3)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체		3,520	2.5	12.4	12.1	21.4	40.8	10.8
성별	남자	1,855	2.6	11.8	11.9	20.4	41.2	12.1
	여자	1,665	2.5	13.1	12.4	22.6	40.3	9.2
연령	만18~19세	477	1.7	8.5	12.4	16.3	45.8	15.2
	만20~24세	1,095	2.9	12.4	10.4	20.9	41.7	11.7
	만25~29세	1,050	2.6	12.6	12.4	23.8	39.0	9.6
	만30~34세	898	2.4	13.5	13.4	21.0	40.1	9.7
지역	서울	676	3.7	9.1	9.9	21.1	44.8	11.4
	인천/경기	824	2.1	16.2	14.6	20.0	38.4	8.7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3.4	13.4	8.7	24.1	36.4	13.9
	광주/전라/제주	468	2.9	9.9	14.9	24.7	35.4	12.1
	부산/울산/경남	555	1.8	13.4	13.0	15.9	46.7	9.3
	대구/경북	448	0.6	6.2	9.5	27.9	43.3	12.5
학력	고졸이하	1,098	3.1	10.3	11.0	22.8	39.9	12.9
	대학/대학원 재학	898	1.7	11.7	12.2	17.7	45.2	11.6
	대졸이상	1,524	2.6	14.1	12.8	22.4	39.1	9.0
주거형태	동거	2,194	2.5	12.2	12.2	21.3	41.0	10.7
	비동거/독립	1,326	2.6	12.7	12.0	21.6	40.3	10.8

210)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4)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에서 느낀 기분 중 잠에서 깨어났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가 63.9%(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2.3%+대부분 그렇다 34.6%+항상 그렇다 7.1%)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는 36.1%(전혀 그렇지 않다 7.9%+때때로 그렇다 15.2% +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2.9%)로 조사돼 긍정 응답 비율이 더 높음

○ 2019년 '그렇다'(58.9%) 응답 대비 5.0%p 상승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그렇다' 응답 비율이 높음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그렇다'(74.7%)의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대학/대학원 재학이 '그렇다'(69.7%)의 응답 비율이 높은 편임

표 II-210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4)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2017	2,714	9.8	21.9	17.5	26.2	21.9	2.7
2018	3,133	1.6	12.3	17.8	30.2	33.2	4.8
2019	3,530	7.1	18.7	15.4	23.6	30.2	5.1
2020	3,520	7.9	15.2	12.9	22.3	34.6	7.1

표 Ⅱ-210-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4)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체		3,520	7.9	15.2	12.9	22.3	34.6	7.1
성별	남자	1,855	6.8	15.7	13.4	21.8	34.7	7.7
	여자	1,665	9.3	14.7	12.4	22.8	34.4	6.4
연령	만 18~19세	477	4.6	12.1	11.5	24.8	35.7	11.2
	만 20~24세	1,095	8.1	14.3	13.6	19.8	37.1	7.2
	만 25~29세	1,050	9.0	15.2	12.0	24.4	33.1	6.5
	만 30~34세	898	7.8	17.1	13.8	21.6	33.3	6.3
지역	서울	676	7.6	10.7	13.9	23.2	37.4	7.3
	인천/경기	824	8.6	18.5	13.1	22.6	30.4	6.8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12.6	17.0	12.3	22.9	27.3	7.9
	광주/전라/제주	468	7.3	14.4	11.9	21.9	37.7	6.9
	부산/울산/경남	555	7.8	18.4	9.4	14.5	42.3	7.8
	대구/경북	448	0.3	7.4	17.6	30.2	38.6	5.8
학력	고졸이하	1,098	7.8	13.7	13.5	23.3	34.1	7.6
	대학/대학원 재학	898	6.3	12.8	11.3	21.1	39.4	9.2
	대졸이상	1,524	8.9	17.3	13.4	22.2	32.5	5.7
주거형태	동거	2,194	7.0	15.1	13.3	22.3	35.0	7.4
	비동거/독립	1,326	9.6	15.5	12.2	22.2	33.8	6.6

21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5)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에서 느낀 기분 중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가 55.1%(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2.2%+대부분 그렇다 26.9%+항상 그렇다 6.0%)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는 44.9%(전혀 그렇지 않다 6.3%+때때로 그렇다 23.2% +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5.4%)로 조사돼 긍정 응답 비율이 더 높음

○ 2019년 '그렇다'(51.7%) 응답 대비 3.4%p 상승함

○ 지역별로 서울 지역에서 '그렇다'(63.8%)의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Ⅱ-21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2017	2,714	6.1	26.3	17.4	28.1	19.7	2.5
2018	3,133	2.1	14.8	17.4	31.4	31.1	3.2
2019	3,530	8.6	24.2	15.6	20.2	27.1	4.4
2020	3,520	6.3	23.2	15.4	22.2	26.9	6.0

표 II-211-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5)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체		3,520	6.3	23.2	15.4	22.2	26.9	6.0
성별	남자	1,855	7.0	23.6	14.8	21.6	26.2	6.8
	여자	1,665	5.6	22.7	16.0	23.0	27.7	5.1
연령	만 18~19세	477	3.6	20.3	16.4	24.5	27.6	7.6
	만 20~24세	1,095	5.5	25.6	13.9	20.8	27.4	6.7
	만 25~29세	1,050	7.4	22.2	14.7	22.7	27.2	5.7
	만 30~34세	898	6.9	22.7	17.2	22.3	25.9	5.1
지역	서울	676	6.2	15.2	14.8	27.0	30.3	6.5
	인천/경기	824	6.6	27.6	15.2	20.2	24.5	5.9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6.2	20.1	14.9	23.5	27.5	7.8
	광주/전라/제주	468	13.0	26.8	14.4	16.8	25.3	3.6
	부산/울산/경남	555	4.1	26.3	14.7	19.8	30.8	4.4
	대구/경북	448	2.1	21.9	20.0	25.9	22.5	7.6
학력	고졸이하	1,098	6.6	20.7	16.3	22.8	26.6	7.1
	대학/대학원 재학	898	4.2	25.4	12.9	22.5	29.0	6.1
	대졸이상	1,524	7.2	23.6	16.0	21.7	26.1	5.3
주거형태	동거	2,194	6.4	23.3	15.7	22.4	25.9	6.3
	비동거/독립	1,326	6.3	23.0	14.7	21.9	28.6	5.5

212)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1)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 지난 1주간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고 느꼈는지에 대해 '극히 드물다' 응답이 76.7%로 가장 높고, '가끔 있었다'(18.1%), '종종 있었다'(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극히 드물다'의 경우 2019년 응답(74.8%) 대비 1.9%p 상승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극히 드물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Ⅱ-212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1)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2019	3,530	74.8	19.9	4.3	1.1
2020	3,520	76.7	18.1	4.5	0.6

표 Ⅱ-212-1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1)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전체		3,520	76.7	18.1	4.5	0.6
성별	남자	1,855	78.9	16.5	3.9	0.7
	여자	1,665	74.2	19.9	5.3	0.6
연령	만18~19세	477	81.9	14.9	3.0	0.2
	만20~24세	1,095	78.0	17.0	3.8	1.2
	만25~29세	1,050	75.5	18.4	5.4	0.7
	만30~34세	898	75.1	19.9	4.8	0.2
지역	서울	676	76.9	17.8	5.0	0.3
	인천/경기	824	77.2	17.3	5.0	0.5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74.4	19.8	5.1	0.7
	광주/전라/제주	468	79.7	14.7	2.5	3.1
	부산/울산/경남	555	79.4	16.9	3.6	0.0
	대구/경북	448	70.8	24.6	4.5	0.2
학력	고졸이하	1,098	77.8	17.3	4.2	0.6
	대학/대학원 재학	898	79.1	15.4	4.4	1.1
	대졸이상	1,524	74.9	19.9	4.8	0.4
주거형태	동거	2,194	76.3	18.6	4.4	0.7
	비동거/독립	1,326	77.4	17.3	4.8	0.5

213)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2)비교적 잘 지냈다

○ 지난 1주간 비교적 잘 지냈는지에 대해 '대부분 그랬다' 응답이 60.1%로 가장 높고, '종종 있었다'(29.9%), '가끔 있었다'(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부분 그랬다'의 경우 2019년 응답(59.0%) 대비 0.9%p 상승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별로 대학/대학원 재학에서 '대부분 그랬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Ⅱ-213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2)비교적 잘 지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2019	3,530	6.1	7.8	27.2	59.0
2020	3,520	2.9	7.2	29.9	60.1

표 Ⅱ-213-1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2)비교적 잘 지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전체		3,520	2.9	7.2	29.9	60.1
성별	남자	1,855	3.3	6.9	28.4	61.3
	여자	1,665	2.4	7.4	31.4	58.7
연령	만18~19세	477	3.4	5.8	26.3	64.4
	만20~24세	1,095	2.7	6.0	30.3	60.9
	만25~29세	1,050	3.2	7.7	29.8	59.3
	만30~34세	898	2.5	8.1	30.7	58.7
지역	서울	676	1.7	8.9	27.1	62.2
	인천/경기	824	4.7	9.0	31.8	54.5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3.9	6.1	25.8	64.3
	광주/전라/제주	468	1.6	6.5	29.5	62.5
	부산/울산/경남	555	1.7	4.7	29.7	63.8
	대구/경북	448	1.2	2.7	36.3	59.8
학력	고졸이하	1,098	3.5	7.4	29.8	59.3
	대학/대학원 재학	898	3.0	4.2	28.7	64.0
	대졸이상	1,524	2.5	8.4	30.4	58.7
주거형태	동거	2,194	3.2	6.7	30.9	59.1
	비동거/독립	1,326	2.3	8.0	27.9	61.8

214)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3)상당히 우울했다

○ 지난 1주간 상당히 우울했는지에 대해 ‘극히 드물다’ 응답이 78.4%로 가장 높고, ‘가끔 있었다’(16.3%), ‘종종 있었다’(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극히 드물다’의 경우 2019년 응답(76.7%) 대비 1.7%p 상승함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극히 드물다’는 응답이 88.5%로 타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표 Ⅱ-214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3)상당히 우울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2019	3,530	76.7	18.4	3.7	1.1
2020	3,520	78.4	16.3	4.1	1.2

표 Ⅱ-214-1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3)상당히 우울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전체		3,520	78.4	16.3	4.1	1.2
성별	남자	1,855	80.3	15.0	3.3	1.3
	여자	1,665	76.3	17.7	4.9	1.1
연령	만18~19세	477	82.3	12.3	4.4	0.9
	만20~24세	1,095	77.3	17.3	3.9	1.5
	만25~29세	1,050	77.1	17.1	4.3	1.6
	만30~34세	898	79.7	15.7	4.0	0.6
지역	서울	676	78.0	16.2	4.4	1.5
	인천/경기	824	74.5	19.9	4.9	0.8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74.0	19.7	4.3	1.9
	광주/전라/제주	468	83.2	9.5	5.7	1.5
	부산/울산/경남	555	82.7	14.2	2.4	0.7
	대구/경북	448	88.5	8.7	1.1	1.7
학력	고졸이하	1,098	77.1	17.1	4.4	1.4
	대학/대학원 재학	898	81.3	13.4	3.9	1.3
	대졸이상	1,524	77.8	17.1	4.0	1.0
주거형태	동거	2,194	78.6	15.9	4.2	1.3
	비동거/독립	1,326	78.1	16.9	3.9	1.1

215)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4)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 지난 1주간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는지에 대해 '극히 드물다' 응답이 63.7%로 가장 높고, '가끔 있었다'(28.3%), '종종 있었다'(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극히 드물다'의 경우 2019년 응답(61.7%) 대비 2.0%p 상승함

○ 성별로 남자(66.2%)가 여자(60.8%)에 비해 '극히 드물다'는 응답이 높음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별로 대학/대학원 재학(70.8%)에서 상대적으로 '극히 드물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215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4)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2019	3,530	61.7	30.7	6.2	1.4
2020	3,520	63.7	28.3	6.7	1.4

표 II-215-1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4)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전체		3,520	63.7	28.3	6.7	1.4
성별	남자	1,855	66.2	26.5	6.1	1.2
	여자	1,665	60.8	30.3	7.4	1.5
연령	만18~19세	477	69.8	23.4	5.4	1.4
	만20~24세	1,095	64.7	27.2	6.7	1.4
	만25~29세	1,050	63.2	27.5	7.3	2.0
	만30~34세	898	61.0	31.9	6.4	0.7
지역	서울	676	62.7	28.1	7.8	1.4
	인천/경기	824	58.0	34.0	6.8	1.2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59.5	28.0	10.7	1.9
	광주/전라/제주	468	74.1	18.4	4.6	2.9
	부산/울산/경남	555	67.2	27.7	4.7	0.5
	대구/경북	448	75.5	20.6	3.1	0.8
학력	고졸이하	1,098	61.6	29.5	7.3	1.5
	대학/대학원 재학	898	70.8	22.4	5.3	1.5
	대졸이상	1,524	61.4	30.4	7.0	1.2
주거형태	동거	2,194	64.3	27.4	6.8	1.5
	비동거/독립	1,326	62.6	29.7	6.5	1.2

216)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5)잠을 설쳤다

○ 지난 1주간 잠을 설쳤는지에 대해 ‘극히 드물다’ 응답이 67.7%로 가장 높고, ‘가끔 있었다’(24.6%), ‘종종 있었다’(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극히 드물다’의 경우 2019년 응답(63.4%) 대비 4.3%p 상승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별로 광주/전라 제주 지역(76.4%), 학력별로 대학/대학원 재학(72.0%)에서 상대적으로 ‘극히 드물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216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5)잠을 설쳤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2019	3,530	63.4	28.1	6.6	1.9
2020	3,520	67.7	24.6	6.1	1.6

표 II-216-1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5)잠을 설쳤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전체		3,520	67.7	24.6	6.1	1.6
성별	남자	1,855	69.6	23.3	5.5	1.5
	여자	1,665	65.6	26.1	6.7	1.7
연령	만18~19세	477	72.6	21.5	4.6	1.3
	만20~24세	1,095	70.0	22.8	5.3	1.8
	만25~29세	1,050	66.8	24.4	6.7	2.1
	만30~34세	898	64.8	27.5	6.7	1.0
지역	서울	676	66.0	26.9	5.7	1.3
	인천/경기	824	65.3	25.1	8.0	1.6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65.1	24.4	8.2	2.3
	광주/전라/제주	468	76.4	17.2	3.6	2.8
	부산/울산/경남	555	71.6	23.2	4.1	1.1
	대구/경북	448	68.8	28.0	2.6	0.5
학력	고졸이하	1,098	68.8	24.6	4.9	1.7
	대학/대학원 재학	898	72.0	20.7	5.8	1.5
	대졸이상	1,524	65.0	26.5	7.0	1.6
주거형태	동거	2,194	68.3	24.4	5.5	1.8
	비동거/독립	1,326	66.7	25.0	7.1	1.2

217)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6)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 지난 1주간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는지에 대해 ‘극히 드물다’ 응답이 80.4%로 가장 높고, ‘가끔 있었다’(14.9%), ‘종종 있었다’(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극히 드물다’의 경우 2019년 응답(79.5%) 대비 0.9%p 상승함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극히 드물다’는 응답이 88.1%로 타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표 II-217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6)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2019	3,530	79.5	15.5	3.9	1.1
2020	3,520	80.4	14.9	3.7	1.0

표 II-217-1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6)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전체		3,520	80.4	14.9	3.7	1.0
성별	남자	1,855	81.1	14.2	3.5	1.2
	여자	1,665	79.7	15.7	3.9	0.7
연령	만18~19세	477	83.6	12.9	3.3	0.2
	만20~24세	1,095	81.1	15.4	2.7	0.9
	만25~29세	1,050	77.8	15.9	5.0	1.3
	만30~34세	898	81.6	13.9	3.5	1.0
지역	서울	676	76.7	18.8	3.7	0.8
	인천/경기	824	79.4	16.1	3.8	0.8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78.3	15.0	5.5	1.2
	광주/전라/제주	468	83.0	10.7	4.0	2.2
	부산/울산/경남	555	83.9	12.6	2.6	0.9
	대구/경북	448	88.1	9.3	2.2	0.5
학력	고졸이하	1,098	81.6	13.8	3.8	0.7
	대학/대학원 재학	898	82.3	14.2	2.5	1.0
	대졸이상	1,524	78.8	15.9	4.2	1.2
주거형태	동거	2,194	80.1	15.3	3.8	0.9
	비동거/독립	1,326	81.1	14.1	3.6	1.2

218)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7)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 지난 1주간 큰 불만 없이 생활했는지에 대해 '대부분 그랬다' 응답이 51.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종종 있었다'(29.9%) 등의 순임

○ '대부분 그랬다'의 경우 2019년 응답(50.6%) 대비 0.9%p 상승함

○ 학력별로 대학/대학원 재학(57.2%)에서 상대적으로 '대부분 그랬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Ⅱ-218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7)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2019	3,530	11.5	11.4	26.5	50.6
2020	3,520	8.7	9.8	29.9	51.5

표 Ⅱ-218-1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7)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전체		3,520	8.7	9.8	29.9	51.5
성별	남자	1,855	8.5	9.0	29.6	52.9
	여자	1,665	8.9	10.8	30.3	49.9
연령	만18~19세	477	9.1	6.3	27.1	57.5
	만20~24세	1,095	8.7	8.8	30.4	52.1
	만25~29세	1,050	9.9	9.4	31.7	49.1
	만30~34세	898	7.3	12.6	28.4	51.7
지역	서울	676	5.1	7.5	30.5	56.8
	인천/경기	824	12.9	13.7	28.3	45.2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6.6	10.0	30.2	53.2
	광주/전라/제주	468	7.3	8.3	28.8	55.6
	부산/울산/경남	555	8.6	8.9	27.3	55.2
	대구/경북	448	7.1	4.6	39.4	49.0
학력	고졸이하	1,098	10.3	10.1	29.7	49.9
	대학/대학원 재학	898	7.0	5.7	30.1	57.2
	대졸이상	1,524	8.5	11.7	30.0	49.8
주거형태	동거	2,194	9.6	9.0	31.1	50.3
	비동거/독립	1,326	7.1	11.3	27.9	53.7

219)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8)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 지난 1주간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에 대해 '극히 드물다' 응답이 84.0%로 가장 높고, '가끔 있었다'(11.7%), '종종 있었다'(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극히 드물다'의 경우 2019년 응답(82.8%) 대비 1.2%p 상승함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92.7%)에서 상대적으로 '극히 드물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Ⅱ-219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8)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2019	3,530	82.8	12.4	3.8	1.0
2020	3,520	84.0	11.7	3.2	1.1

표 Ⅱ-219-1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8)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전체		3,520	84.0	11.7	3.2	1.1
성별	남자	1,855	84.5	11.8	2.6	1.1
	여자	1,665	83.5	11.7	3.7	1.0
연령	만18~19세	477	83.8	12.5	3.3	0.4
	만20~24세	1,095	85.3	11.5	2.4	0.8
	만25~29세	1,050	81.5	12.8	4.0	1.7
	만30~34세	898	85.7	10.6	2.9	0.8
지역	서울	676	83.5	11.9	4.5	0.2
	인천/경기	824	84.0	11.9	2.7	1.4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80.9	13.3	4.9	1.0
	광주/전라/제주	468	85.6	11.5	0.9	2.0
	부산/울산/경남	555	81.4	13.9	3.3	1.5
	대구/경북	448	92.7	5.6	1.3	0.5
학력	고졸이하	1,098	83.3	11.7	3.6	1.3
	대학/대학원 재학	898	86.5	10.3	2.4	0.8
	대졸이상	1,524	83.3	12.5	3.2	1.0
주거형태	동거	2,194	82.9	12.6	3.4	1.1
	비동거/독립	1,326	86.0	10.2	2.7	1.1

220)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9)마음이 슬펐다

○ 지난 1주간 마음이 슬펐다에 대해 ‘극히 드물다’ 응답이 79.9%로 가장 높고, ‘가끔 있었다’(15.4%), ‘종종 있었다’(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극히 드물다’의 경우 2019년 응답(78.7%) 대비 1.2%p 상승함

○ 성별로 남자(82.3%)의 ‘극히 드물다’ 응답이 여자(77.2%)에 비해 높음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89.1%)에서 타 지역대비 ‘극히 드물다’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220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9)마음이 슬펐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2019	3,530	78.7	17.1	3.1	1.1
2020	3,520	79.9	15.4	3.7	1.0

표 II-220-1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9)마음이 슬펐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전체		3,520	79.9	15.4	3.7	1.0
성별	남자	1,855	82.3	14.0	3.1	0.5
	여자	1,665	77.2	17.0	4.3	1.4
연령	만18~19세	477	83.6	13.8	2.4	0.2
	만20~24세	1,095	79.8	16.8	2.7	0.7
	만25~29세	1,050	79.0	14.4	5.2	1.4
	만30~34세	898	79.9	15.7	3.3	1.1
지역	서울	676	78.7	17.6	2.7	1.0
	인천/경기	824	79.0	15.2	4.7	1.0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76.0	16.9	6.2	0.9
	광주/전라/제주	468	80.8	13.5	3.9	1.8
	부산/울산/경남	555	81.1	16.0	2.1	0.8
	대구/경북	448	89.1	10.2	0.5	0.1
학력	고졸이하	1,098	80.9	14.5	3.7	0.9
	대학/대학원 재학	898	82.5	14.0	2.2	1.2
	대졸이상	1,524	78.1	16.7	4.4	0.9
주거형태	동거	2,194	79.3	16.2	3.4	1.0
	비동거/독립	1,326	81.0	14.0	4.1	0.9

221)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10)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 지난 1주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에 대해 '극히 드물다' 응답이 87.0%로 가장 높고, '가끔 있었다'(10.4%), '종종 있었다'(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극히 드물다'의 경우 2019년 응답(86.2%) 대비 0.8%p 상승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가끔 있었다'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221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10)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2019	3,530	86.2	10.5	2.3	1.1
2020	3,520	87.0	10.4	2.2	0.5

표 II-221-1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10)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전체		3,520	87.0	10.4	2.2	0.5
성별	남자	1,855	87.1	10.9	1.7	0.3
	여자	1,665	86.8	9.8	2.8	0.6
연령	만18~19세	477	87.2	11.2	1.4	0.2
	만20~24세	1,095	87.6	10.2	1.7	0.5
	만25~29세	1,050	85.4	10.7	3.4	0.6
	만30~34세	898	88.0	9.9	1.6	0.4
지역	서울	676	85.7	11.7	2.6	0.0
	인천/경기	824	88.1	9.5	1.6	0.7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82.9	11.5	5.2	0.3
	광주/전라/제주	468	90.2	8.0	0.9	0.9
	부산/울산/경남	555	84.6	13.1	1.9	0.5
	대구/경북	448	92.2	6.7	0.6	0.5
학력	고졸이하	1,098	87.3	8.9	2.8	1.0
	대학/대학원 재학	898	87.5	10.5	1.6	0.3
	대졸이상	1,524	86.5	11.2	2.1	0.2
주거형태	동거	2,194	86.2	11.1	2.3	0.4
	비동거/독립	1,326	88.4	9.1	1.9	0.6

222)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11)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 지난 1주간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에 대해 '극히 드물다' 응답이 78.4%로 가장 높고, '가끔 있었다'(16.2%), '종종 있었다'(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극히 드물다'의 경우 2019년 응답(77.5%) 대비 0.9%p 상승함

표 Ⅱ-222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11)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2019	3,530	77.5	17.4	3.7	1.3
2020	3,520	78.4	16.2	4.4	1.0

표 Ⅱ-222-1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11)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전체		3,520	78.4	16.2	4.4	1.0
성별	남자	1,855	79.0	16.6	4.0	0.5
	여자	1,665	77.8	15.7	4.9	1.6
연령	만18~19세	477	82.7	14.5	2.4	0.4
	만20~24세	1,095	76.9	17.2	4.4	1.5
	만25~29세	1,050	77.6	15.8	5.2	1.3
	만30~34세	898	79.4	16.0	4.3	0.3
지역	서울	676	76.0	17.1	5.6	1.3
	인천/경기	824	78.2	16.0	4.8	1.0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76.3	17.1	5.1	1.5
	광주/전라/제주	468	83.3	12.4	3.2	1.1
	부산/울산/경남	555	78.4	17.4	3.6	0.6
	대구/경북	448	82.8	15.3	1.7	0.1
학력	고졸이하	1,098	79.4	16.0	3.6	1.0
	대학/대학원 재학	898	79.2	15.4	4.0	1.4
	대졸이상	1,524	77.5	16.6	5.1	0.8
주거형태	동거	2,194	77.7	16.6	4.5	1.2
	비동거/독립	1,326	79.7	15.3	4.3	0.6

223) 규칙적인 운동 여부

○ 1회 30분 이상 지속하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지 물어본 결과 34.9%가 '예'라고 응답한 반면,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은 65.1%로 조사됨

○ 2019년 조사결과(32.1%) 대비 '예'라는 긍정 응답이 2.8%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여자(27.3%)보다 남자(41.7%)가 규칙적 운동 비율이 높음

○ 학력별로 고졸이하(27.0%)의 규칙적 운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Ⅱ-223 규칙적인 운동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6	2,534	27.6	72.4
2017	2,714	36.9	63.1
2018	3,133	28.4	71.6
2019	3,530	32.1	67.9
2020	3,520	34.9	65.1

표 Ⅱ-223-1 규칙적인 운동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520	34.9	65.1
성별	남자	1,855	41.7	58.3
	여자	1,665	27.3	72.7
연령	만 18~19세	477	31.6	68.4
	만 20~24세	1,095	35.6	64.4
	만 25~29세	1,050	36.9	63.1
	만 30~34세	898	33.1	66.9
지역	서울	676	37.8	62.2
	인천/경기	824	35.6	64.4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33.1	66.9
	광주/전라/제주	468	30.3	69.7
	부산/울산/경남	555	33.3	66.7
	대구/경북	448	36.2	63.8
학력	고졸이하	1,098	27.0	73.0
	대학/대학원 재학	898	39.8	60.2
	대졸이상	1,524	37.5	62.5
주거형태	동거	2,194	35.8	64.2
	비동거/독립	1,326	33.4	66.6

224) 규칙적인 운동 빈도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지속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 운동 빈도는 '일주일에 3번'이 35.1%로 가장 높고, '일주일에 5번'(19.3%), '일주일에 2번'(1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조사결과 대비 '일주일에 5번' 운동한다는 비율이 5.5%p 가장 많이 상승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매일' 운동한다는 응답이 높음

○ 주거 형태가 동거인 경우 '일주일에 5번'(21.6%), 비동거/독립인 경우 '일주일에 3번'(39.8%)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224 규칙적인 운동 빈도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일주일에 1번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4번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6번	매일
2016	699	7.3	20.0	27.9	17.3	15.4	2.9	9.2
2017	1,007	7.2	15.5	30.1	9.3	19.8	4.3	13.8
2018	918	7.7	20.4	36.8	12.1	15.8	2.2	5.1
2019	1,097	5.9	17.6	36.1	12.7	13.8	5.2	8.6
2020	1,204	4.2	15.7	35.1	12.8	19.3	3.6	9.3

* 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만 응답

표 Ⅱ-224-1 규칙적인 운동 빈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주일에 1번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4번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6번	매일
전체		1,204	4.2	15.7	35.1	12.8	19.3	3.6	9.3
성별	남자	760	3.6	14.5	31.5	14.6	21.5	4.0	10.4
	여자	444	5.2	17.7	41.4	9.8	15.7	2.8	7.4
연령	만 18~19세	146	1.8	14.8	38.3	13.2	13.2	4.0	14.8
	만 20~24세	372	4.6	14.3	30.9	12.0	20.8	5.1	12.3
	만 25~29세	395	4.4	17.5	36.8	11.6	18.0	3.9	7.8
	만 30~34세	291	4.3	15.2	36.7	15.1	21.3	1.4	6.1
지역	서울	256	2.2	16.6	32.3	12.1	24.9	2.8	9.1
	인천/경기	286	5.2	16.7	38.8	14.1	15.6	2.1	7.6
	대전/충청/세종/강원	173	6.2	14.2	32.2	14.6	15.0	4.4	13.5
	광주/전라/제주	138	3.4	17.3	27.9	9.6	24.5	6.6	10.7
	부산/울산/경남	189	5.9	15.6	33.3	12.4	19.6	7.0	6.1
	대구/경북	162	0.8	10.7	42.9	10.9	19.7	2.0	13.0
학력	고졸이하	280	3.3	17.1	37.8	13.7	14.2	3.2	10.7
	대학/대학원 재학	346	2.9	13.2	31.3	13.4	22.5	4.4	12.4
	대졸이상	578	5.3	16.3	35.9	12.1	20.0	3.3	7.0
주거형태	동거	753	3.2	15.9	32.7	12.8	21.6	3.9	9.9
	비동거/독립	451	5.9	15.2	39.8	12.8	15.0	3.0	8.1

* 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만 응답

226)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85.2%(어느 정도 중요하다 69.3%+매우 중요하다 15.9%)로 '중요하지 않다' 3.0%(전혀 중요하지 않다 0.3%+별로 중요하지 않다 2.7%)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남

○ 2019년 조사 결과 대비 '중요하다'(81.2%)는 응답은 4.0%p 상승한 반면, '중요하지 않다'(4.8%)는 응답은 1.8%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여자(88.5%)가 남자(82.3%)보다 외모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Ⅱ-225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2016	2,534	0.3	2.4	15.7	66.8	14.7
2017	2,714	0.8	4.5	16.4	62.6	15.6
2018	3,133	0.1	2.0	12.8	59.3	25.7
2019	3,530	0.6	4.2	14.0	65.0	16.2
2020	3,520	0.3	2.7	11.7	69.3	15.9

표 II-225-1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3,520	0.3	2.7	11.7	69.3	15.9
성별	남자	1,855	0.4	3.4	13.9	67.8	14.5
	여자	1,665	0.3	1.9	9.3	71.1	17.4
연령	만18~19세	477	0.1	4.8	13.5	66.7	14.9
	만20~24세	1,095	0.7	1.9	12.1	68.5	16.7
	만25~29세	1,050	0.3	2.7	12.2	68.8	16.0
	만30~34세	898	0.1	2.8	10.2	71.6	15.2
지역	서울	676	0.4	2.6	9.8	70.4	16.8
	인천/경기	824	0.5	3.7	12.0	67.2	16.6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0.1	1.7	13.9	68.3	16.0
	광주/전라/제주	468	0.4	2.9	12.2	67.6	16.9
	부산/울산/경남	555	0.2	2.2	12.6	74.2	10.9
	대구/경북	448	0.2	1.5	10.3	70.4	17.6
학력	고졸이하	1,098	0.6	3.7	13.6	66.2	16.0
	대학/대학원 재학	898	0.2	2.3	10.7	70.4	16.4
	대졸이상	1,524	0.3	2.3	11.1	70.8	15.6
주거형태	동거	2,194	0.4	2.1	12.3	69.1	16.0
	비동거/독립	1,326	0.2	3.6	10.8	69.7	15.7

226) 성형수술 경험

○ 의료 목적과 미용 목적을 모두 포함, 성형수술 경험에 대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8.3%이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1.7%로 조사됨

○ 2019년 조사결과 대비 성형수술 경험이 '있다'(9.3%)는 응답은 2.4%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여자(22.5%)가 남자(2.1%)보다 성형수술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수술 경험 비율이 높음

○ 학력별로 대졸이상(15.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주거형태별로 동거(9.3%)보다 비동거/독립(15.9%)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성형수술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226 성형수술 경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6	2,534	12.7	87.3
2017	2,714	11.8	88.2
2018	3,133	10.4	89.6
2019	3,530	9.3	90.7
2020	3,520	11.7	88.3

표 II-226-1 성형수술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520	11.7	88.3
성별	남자	1,855	2.1	97.9
	여자	1,665	22.5	77.5
연령	만 18~19세	477	5.9	94.1
	만 20~24세	1,095	9.5	90.5
	만 25~29세	1,050	12.3	87.7
	만 30~34세	898	15.1	84.9
지역	서울	676	11.8	88.2
	인천/경기	824	11.5	88.5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11.0	89.0
	광주/전라/제주	468	10.7	89.3
	부산/울산/경남	555	11.7	88.3
	대구/경북	448	14.3	85.7
학력	고졸이하	1,098	8.7	91.3
	대학/대학원 재학	898	8.4	91.6
	대졸이상	1,524	15.2	84.8
주거형태	동거	2,194	9.3	90.7
	비동거/독립	1,326	15.9	84.1

228) 성형수술 목적

○ 성형수술 경험이 있는 경우, 성형수술의 주 목적으로 '미용(쌍커플, 보톡스, 지방제거 등)'이 93.4%로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6.6%보다 높음

○ 2019년 조사 결과 대비 '미용' 목적 성형수술 비율은 0.5%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여자의 대부분은 '미용'(95.7%)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였으며, 남자의 경우에는 '의료'의 목적이 28.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는 응답비율이 높은 편임

○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지역은 '미용' 목적 성형수술이 100%임

표 II-227 성형수술 목적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의료 (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미용 (쌍커플, 보톡스, 지방제거 등)
2016	321	10.0	90.0
2017	316	11.3	88.7
2018	352	2.3	97.7
2019	318	7.1	92.9
2020	407	6.6	93.4

* 주: 성형수술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II-227-1 성형수술 목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의료 (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미용 (쌍커플, 보톡스, 지방제거 등)
전체		407	6.6	93.4
성별	남자	37	28.3	71.7
	여자	370	4.3	95.7
연령	만 18~19세	24	4.0	96.0
	만 20~24세	109	6.5	93.5
	만 25~29세	138	6.3	93.7
	만 30~34세	136	7.4	92.6
지역	서울	75	10.1	89.9
	인천/경기	93	6.9	93.1
	대전/충청/세종/강원	60	9.8	90.2
	광주/전라/제주	54	11.4	88.6
	부산/울산/경남	67	0.0	100.0
	대구/경북	58	0.0	100.0
학력	고졸이하	93	6.9	93.1
	대학/대학원 재학	78	13.3	86.7
	대졸이상	236	4.8	95.2
주거형태	동거	207	6.5	93.5
	비동거/독립	200	6.8	93.2

* 주: 성형수술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

228)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에 대해 '자기 만족을 위해'라는 응답이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19.4%),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1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조사결과 대비 '자기만족을 위해'라는 이유는 4.8%p 상승,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3.4%p),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2.9%p)라는 이유는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28.2%), 여자는 '자기 만족을 위해'(65.8%)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학/대학원 재학에서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29.6%)라는 응답이 다른 학력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228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	자기 만족을 위해	기타
2016	289	53.8	31.4	9.1	3.2	-	1.6
2017	279	48.3	31.3	4.5	4.4	10.2	1.3
2018	345	39.5	15.5	10.8	4.0	30.3	0.0
2019	297	18.6	11.6	5.4	4.3	59.9	0.2
2020	380	19.4	12.5	2.0	1.4	64.7	0.0

* 주 1)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경우만 응답
2) 보기문항 중 '자기만족을 위해'는 2017년부터 추가되었음
3) 2016년 응답결과에는 '모름/무응답'이 0.9% 있었음(본 표에 미제시함)

표 Ⅱ-228-1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	자기 만족을 위해
전체		380	19.4	12.5	2.0	1.4	64.7
성별	남자	26	28.2	15.8	2.4	3.8	49.8
	여자	354	18.7	12.2	2.0	1.2	65.8
연령	만 18~19세	23	31.9	4.1	0.0	0.0	63.9
	만 20~24세	101	17.2	15.9	1.0	0.0	65.9
	만 25~29세	129	17.9	11.2	3.2	1.7	66.1
	만 30~34세	127	20.6	12.6	1.9	2.3	62.7
지역	서울	68	16.6	11.1	3.2	1.1	68.1
	인천/경기	84	11.5	14.3	1.1	2.7	70.5
	대전/충청/세종/강원	55	16.4	18.2	1.3	0.0	64.2
	광주/전라/제주	48	36.8	8.7	0.0	0.0	54.5
	부산/울산/경남	67	27.4	9.6	3.7	0.0	59.2
	대구/경북	58	26.0	10.5	2.4	3.1	58.0
학력	고졸이하	87	21.4	9.7	3.8	1.7	63.5
	대학/대학원 재학	70	29.6	13.3	0.9	0.0	56.2
	대졸이상	223	16.2	13.3	1.7	1.7	67.2
주거형태	동거	193	18.8	14.9	2.5	1.1	62.7
	비동거/독립	187	20.1	10.0	1.5	1.7	66.7

* 주: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경우만 응답

229) 건강관련 정책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부분

○ 건강관련 정책 중 정부가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부분으로 ‘청년 주요 질병에 대한 건강 보험 확대 적용’이 22.5%로 가장 높고, ‘청년 건강검진 지원 정책’(21.3%),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 정책’(21.1%) 등의 순임

○ 성별로 보면 ‘생활 체육시설 확대 정책’을 확대 해야 한다는 응답이 남자(21.5%)가 여자(16.3%) 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지원 정책’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출산지원 정책’은 동거(10.8%) 보다 비동거/독립(25.3%)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229-1 건강관련 정책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부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청년 주요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	청년 건강검진 지원 정책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 정책	생활 체육시설 확대 정책	출산지원 정책
전체		3,520	22.5	21.3	21.1	19.0	16.0
성별	남자	1,855	22.6	21.5	19.8	21.5	14.7
	여자	1,665	22.4	21.2	22.6	16.3	17.4
연령	만18~19세	477	23.8	21.4	25.0	20.8	8.9
	만20~24세	1,095	26.3	22.7	21.3	19.6	10.1
	만25~29세	1,050	19.2	22.1	23.2	19.9	15.7
	만30~34세	898	22.0	19.0	17.4	16.9	24.7
지역	서울	676	18.8	25.1	19.5	24.6	11.9
	인천/경기	824	24.4	19.6	22.7	17.3	16.0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24.8	21.0	25.3	13.9	15.0
	광주/전라/제주	468	24.0	16.2	18.7	20.4	20.7
	부산/울산/경남	555	21.1	21.5	19.6	18.5	19.3
	대구/경북	448	21.6	24.3	18.2	19.3	16.7
학력	고졸이하	1,098	25.4	21.1	20.1	17.2	16.2
	대학/대학원 재학	898	22.1	21.2	23.9	22.4	10.4
	대졸이상	1,524	20.9	21.5	20.4	18.6	18.6
주거형태	동거	2,194	23.6	22.2	23.4	20.1	10.8
	비동거/독립	1,326	20.5	19.8	17.2	17.2	25.3

230) 선호하는 가치_1) 일 중시 VS 여가 중시

○ 일과 여가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조사 결과 여가를 중시한다는 응답이 47.7%(⑤+⑥+⑦)로, 일을 중시한다는 응답25.5(①+②+③) 대비 22.2%p 더 높게 나타남

○ 2019년 대비 여가를 중시한다는 응답(44.6%)은 3.1%p 상승하였음

○ 성별로 남자는 일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29.2%로 여자(21.4%)보다 높은 반면 여자는 여가를 중시한다는 응답이 52.1%로 남자(43.8%) 보다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여가를 중시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29.0%) 일 중시, 대학/대학원 재학(52.4%)은 여가를 중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Ⅱ-230 선호하는 가치_1) 일 중시 VS 여가 중시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 일						여가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16	2,534	3.1	13.0	18.4	24.8	22.3	16.2	2.1
2017	2,714	3.4	13.4	15.2	24.6	19.5	19.5	4.5
2018	3,133	1.1	12.2	17.7	23.4	25.8	18.3	1.5
2019	3,530	2.1	13.5	12.6	27.2	24.0	17.6	3.0
2020	3,520	1.8	10.8	12.9	26.7	25.3	17.9	4.6

표 II-230-1 선호하는 가치_1) 일 중시 VS 여가 중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일						여가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3,520	1.8	10.8	12.9	26.7	25.3	17.9	4.6
성별	남자	1,855	2.2	13.8	13.1	27.0	23.0	16.5	4.3
	여자	1,665	1.3	7.4	12.8	26.5	27.8	19.5	4.9
연령	만18~19세	477	0.7	5.0	8.9	28.8	30.5	23.3	2.8
	만20~24세	1,095	2.0	9.1	12.2	28.2	26.2	17.6	4.7
	만25~29세	1,050	1.3	12.0	14.2	25.9	24.0	17.3	5.3
	만30~34세	898	2.5	13.1	13.7	25.5	24.0	17.0	4.3
지역	서울	676	1.7	14.6	12.8	28.1	26.1	14.7	2.1
	인천/경기	824	1.7	10.2	14.1	25.3	23.9	18.8	5.9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0.9	12.3	6.8	28.9	21.2	24.9	5.0
	광주/전라/제주	468	2.7	6.9	13.2	25.9	27.5	19.6	4.2
	부산/울산/경남	555	3.0	9.6	13.2	24.4	28.7	16.0	5.1
	대구/경북	448	0.9	7.8	18.0	29.8	26.4	12.5	4.6
학력	고졸이하	1,098	2.7	13.5	12.8	27.7	23.3	16.7	3.3
	대학/대학원 재학	898	1.2	8.5	12.0	25.8	30.6	17.7	4.1
	대졸이상	1,524	1.5	10.2	13.5	26.6	23.8	18.8	5.6
주거형태	동거	2,194	1.5	10.6	12.3	27.8	25.4	17.8	4.6
	비동거/독립	1,326	2.4	11.2	14.1	24.8	25.0	18.2	4.5

231) 선호하는 가치_2) 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 현실과 이상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조사한 결과 현실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68.8%(①+②+③)로 이상을 중시한다는 응답 14.1%(⑤+⑥+⑦) 보다 54.7%p 높음

○ 2019년 대비 현실을 중시한다는 응답(70.2%)은 1.4%p 하락한 반면 이상을 중시한다는 응답(11.6%)은 2.5%p 상승함

○ 연령이 낮을수록 이상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높음

○ 주거형태별로 비동거/독립(73.0%) 현실 중시, 동거(16.0%)는 이상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231 선호하는 가치_2) 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 현실						이상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16	2,534	12.4	28.8	26.8	18.0	9.6	4.0	0.4
2017	2,714	11.6	30.8	23.9	18.6	7.8	5.9	1.4
2018	3,133	6.5	20.7	34.2	22.2	11.8	4.4	0.2
2019	3,530	10.6	32.7	26.9	18.3	6.8	3.7	1.1
2020	3,520	9.2	31.4	28.2	17.1	8.8	4.4	0.9

표 Ⅱ-231-1 선호하는 가치_2) 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현실						이상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3,520	9.2	31.4	28.2	17.1	8.8	4.4	0.9
성별	남자	1,855	9.8	32.4	27.8	16.6	7.6	4.9	0.9
	여자	1,665	8.6	30.3	28.6	17.7	10.2	3.8	0.8
연령	만18~19세	477	7.5	30.1	25.6	18.5	11.8	5.1	1.5
	만20~24세	1,095	9.2	31.4	28.5	15.7	9.8	4.3	1.0
	만25~29세	1,050	8.4	31.8	28.2	18.0	8.2	4.7	0.8
	만30~34세	898	10.7	31.4	28.7	17.1	7.6	3.8	0.6
지역	서울	676	9.8	30.4	30.5	16.5	7.2	4.0	1.5
	인천/경기	824	10.0	32.2	26.3	17.4	8.6	5.0	0.5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8.2	38.0	22.4	18.3	7.9	4.0	1.2
	광주/전라/제주	468	11.3	31.4	25.3	16.2	7.2	7.0	1.6
	부산/울산/경남	555	8.2	30.1	29.6	14.4	13.0	4.3	0.5
	대구/경북	448	6.0	22.7	39.4	20.9	10.3	0.7	0.0
학력	고졸이하	1,098	8.4	33.1	27.6	16.9	9.4	3.6	1.1
	대학/대학원 재학	898	8.3	29.7	28.8	16.6	10.2	5.6	0.8
	대졸이상	1,524	10.2	31.2	28.3	17.6	7.8	4.3	0.8
주거형태	동거	2,194	8.9	29.4	28.1	17.6	9.8	5.2	0.9
	비동거/독립	1,326	9.7	35.0	28.4	16.2	7.1	2.8	0.8

232) 선호하는 가치_3) 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 결과와 과정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조사 결과 결과를 중시한다는 응답이 55.2%(①+②+③)로 과정을 중시한다는 응답 21.8%(⑤+⑥+⑦) 대비 33.4%p 높게 나타남

○ 2019년 대비 결과를 중시한다는 응답(53.9%)은 1.3%p 상승, 과정을 중시한다는 응답(20.7%)은 1.1%p 상승하였음

○ 성별로 남자는 결과를 중시한다는 응답(57.1%)이, 여자는 과정을 중시 한다는 응답(22.4%)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 서울 지역(63.3%)에서 결과를 중시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232 선호하는 가치_3) 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 결과						과정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16	2,534	9.7	21.1	22.8	25.3	14.5	5.4	1.2
2017	2,714	8.7	22.9	20.1	24.7	12.0	9.0	2.6
2018	3,133	4.0	17.4	29.8	26.7	17.6	4.3	0.2
2019	3,530	8.7	24.1	21.1	25.5	12.0	6.9	1.8
2020	3,520	7.9	22.1	25.2	23.0	12.4	7.7	1.7

표 Ⅱ-232-1 선호하는 가치_3) 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결과						과정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3,520	7.9	22.1	25.2	23.0	12.4	7.7	1.7
성별	남자	1,855	8.6	23.9	24.6	21.7	11.6	7.6	2.1
	여자	1,665	7.2	20.1	25.8	24.5	13.3	7.7	1.4
연령	만18~19세	477	5.4	23.5	22.7	22.5	15.0	9.4	1.5
	만20~24세	1,095	9.3	22.7	23.4	22.3	12.6	7.6	2.0
	만25~29세	1,050	6.3	23.1	26.8	23.8	11.3	7.0	1.8
	만30~34세	898	9.1	19.9	26.1	23.0	12.5	7.9	1.5
지역	서울	676	7.9	23.8	31.6	18.5	11.5	5.2	1.5
	인천/경기	824	9.5	24.1	20.0	22.0	12.0	9.9	2.3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7.3	23.1	21.3	22.2	12.5	11.5	2.1
	광주/전라/제주	468	6.7	23.9	28.6	23.9	9.9	5.8	1.3
	부산/울산/경남	555	6.9	19.1	25.9	25.4	14.7	6.9	1.2
	대구/경북	448	6.0	12.3	29.5	33.7	14.8	2.9	0.8
학력	고졸이하	1,098	7.7	22.9	26.3	24.2	11.3	6.2	1.3
	대학/대학원 재학	898	7.4	22.8	24.1	21.5	14.5	7.7	2.0
	대졸이상	1,524	8.2	21.2	25.1	23.0	12.1	8.6	1.9
주거형태	동거	2,194	7.4	21.3	25.8	22.9	12.6	8.2	1.7
	비동거/독립	1,326	8.7	23.5	24.2	23.1	12.0	6.8	1.7

233) 선호하는 가치_4) 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 개인과 집단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조사 결과 개인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43.4%(①+②+③)로 집단을 중시한다는 응답 22.4%(⑤+⑥+⑦) 대비 20.9%p 높게 나타남

○ 2019년 대비 개인을 중시한다는 응답(40.8%)은 2.6%p 상승하였고 집단을 중시한다는 응답(22.7%)은 0.3%p 하락하여. 2017년 이후 개인 중시 응답은 꾸준히 상승, 집단 중시 응답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임

○ 연령별로 만25~29세(46.3%)에서 개인을 중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30.1%)에서 집단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233 선호하는 가치_4) 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 개인						집단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16	2,534	6.3	13.0	22.1	37.4	14.6	5.6	1.0
2017	2,714	4.0	14.0	20.3	36.5	13.3	9.5	2.4
2018	3,133	1.8	12.2	24.5	36.5	17.7	6.1	1.2
2019	3,530	3.8	14.5	22.5	36.6	13.4	7.4	1.9
2020	3,520	5.4	14.2	23.8	34.2	13.9	7.1	1.4

표 Ⅱ-233-1 선호하는 가치_4) 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개인						집단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3,520	5.4	14.2	23.8	34.2	13.9	7.1	1.4
성별	남자	1,855	4.8	14.7	23.9	33.4	13.7	8.0	1.6
	여자	1,665	6.0	13.7	23.6	35.1	14.2	6.2	1.2
연령	만 18~19세	477	6.2	14.4	21.7	32.8	16.3	7.3	1.3
	만 20~24세	1,095	6.3	13.6	23.0	33.9	13.1	8.4	1.8
	만 25~29세	1,050	4.6	15.7	26.1	32.9	13.9	5.7	1.1
	만 30~34세	898	5.1	13.2	22.7	36.4	13.9	7.3	1.4
지역	서울	676	6.2	17.6	27.9	31.4	10.9	5.3	0.7
	인천/경기	824	5.6	15.4	20.7	33.5	15.3	7.4	2.0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5.5	13.3	25.1	31.6	11.2	11.1	2.2
	광주/전라/제주	468	4.3	18.7	29.0	30.6	10.0	6.2	1.2
	부산/울산/경남	555	4.9	10.3	14.9	39.7	19.9	9.0	1.2
	대구/경북	448	4.4	4.7	30.7	42.5	15.1	2.5	0.2
학력	고졸이하	1,098	5.5	13.0	23.1	39.1	12.1	5.5	1.6
	대학/대학원 재학	898	6.4	15.6	22.0	30.2	16.2	8.1	1.4
	대졸이상	1,524	4.8	14.3	25.0	33.1	13.9	7.7	1.3
주거형태	동거	2,194	5.5	15.1	23.5	33.4	13.9	7.1	1.5
	비동거/독립	1,326	5.2	12.7	24.2	35.7	13.9	7.2	1.2

234)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 청년들은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재산·경제력'(28.1%)을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목한 가정'(20.7%), '건강'(12.9%) 등의 순임

○ 2019년 대비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 요건으로 '꿈·목표의식'을 응답한 비율은 3.3%p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화목한 가정'은 3.9%p 가장 많이 하락하였음

○ 성별로 남자는 '재산·경제력'(30.7%), 여자는 '화목한 가정'(24.3%)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친구·대인관계', '꿈·목표의식'이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서울 지역(14.4%)에서 '자아성취'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다른 지역대비 높음

○ 현재 부모와 동거(15.9%) 중인 청년에 비해 비동거/독립(29.0%)인 경우 '화목한 가정'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234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재산·경제력	화목한 가정	자아성취	건강	감사·긍정적 태도	종교생활	직업·직장	연인(이성관계 등)	친구·대인관계	꿈·목표의식
2016	2,534	24.3	27.1	12.3	8.0	4.9	0.6	11.4	1.4	5.0	4.9
2017	2,714	27.8	26.4	10.1	14.2	6.4	0.7	4.5	0.7	4.3	4.7
2018	3,133	36.5	17.6	10.4	11.0	4.9	0.6	9.0	1.5	5.3	3.3
2019	3,530	31.2	24.6	7.3	16.3	6.9	0.7	4.5	0.7	3.4	4.4
2020	3,520	28.1	20.7	8.4	12.9	7.3	0.7	7.3	1.5	5.5	7.7

표 Ⅱ-234-1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재산·경제력	화목한 가정	자아 성취	건강	감사·긍정적 태도	종교 생활	직업·직장	연인(이성 관계 등)	친구·대인 관계	꿈·목표 의식
전체		3,520	28.1	20.7	8.4	12.9	7.3	0.7	7.3	1.5	5.5	7.7
성별	남자	1,855	30.7	17.5	7.7	11.8	6.2	0.5	9.3	1.7	6.3	8.3
	여자	1,665	25.1	24.3	9.3	14.2	8.5	0.9	5.0	1.2	4.6	7.0
연령	만 18~19세	477	25.6	17.8	8.7	10.1	9.3	0.3	4.7	1.4	11.3	10.7
	만 20~24세	1,095	27.8	15.3	8.7	13.0	8.0	0.5	8.7	1.1	7.3	9.5
	만 25~29세	1,050	29.8	19.0	9.4	11.9	5.6	0.5	8.4	1.9	5.0	8.5
	만 30~34세	898	27.3	28.9	7.0	15.0	7.8	1.0	5.5	1.4	2.2	3.9
지역	서울	676	23.1	16.4	14.4	17.3	7.6	0.5	4.8	1.6	4.9	9.5
	인천/경기	824	29.4	22.3	7.4	9.5	8.5	0.9	6.5	0.8	5.1	9.6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30.2	23.4	7.1	14.2	5.3	0.5	4.3	0.9	7.7	6.4
	광주/전라/제주	468	24.8	24.0	6.0	10.9	7.7	0.9	10.7	3.4	6.4	5.2
	부산/울산/경남	555	34.5	19.5	6.2	12.1	5.9	0.6	10.0	2.8	4.9	3.3
	대구/경북	448	25.7	19.0	5.9	16.5	6.9	0.2	12.6	0.2	4.8	8.1
학력	고졸이하	1,098	32.9	18.9	5.4	14.3	5.7	0.7	6.9	1.9	7.2	6.1
	대학/대학원 재학	898	23.9	17.1	12.0	10.5	8.5	0.5	8.3	0.7	7.4	11.1
	대졸이상	1,524	27.1	23.6	8.6	13.3	7.7	0.7	7.1	1.6	3.5	7.0
주거형태	동거	2,194	27.6	15.9	10.0	11.9	8.4	0.6	8.3	1.7	6.5	9.2
	비동거/독립	1,326	29.0	29.0	5.8	14.8	5.4	0.8	5.4	1.2	3.7	5.1

235)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43.7%가 '그렇다'(그렇다 39.1%+매우 그렇다 4.6%)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 27.7%(전혀 그렇지 않다 5.1%+그렇지 않다 22.6%) 대비 16.0%p 높게 나타남

○ 2019년 대비 '그렇다'(45.1%)는 응답은 1.4%p 하락, '그렇지 않다'(24.6%)는 응답은 3.1%p 상승하였음

○ 성별로 여자의 '그렇다'는 응답이 47.1%로 나타나 남자(40.7%) 대비 높음

○ 연령별로 보면 '그렇다'는 응답이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51.3%)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임

○ 학력별로 대졸이상(47.2%)에서 '그렇다'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235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3.2	17.7	44.6	32.3	2.1
2017	2,714	3.2	17.5	38.6	35.4	5.4
2018	3,133	2.9	17.2	39.0	38.9	2.1
2019	3,530	5.9	18.7	30.3	38.1	7.0
2020	3,520	5.1	22.6	28.6	39.1	4.6

표 II-235-1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520	5.1	22.6	28.6	39.1	4.6
성별	남자	1,855	5.7	24.3	29.3	36.1	4.6
	여자	1,665	4.4	20.7	27.8	42.5	4.6
연령	만 18~19세	477	6.5	20.0	28.3	39.6	5.6
	만 20~24세	1,095	5.9	25.6	28.6	35.6	4.3
	만 25~29세	1,050	6.0	25.0	28.5	36.3	4.1
	만 30~34세	898	2.9	17.8	28.7	45.5	5.1
지역	서울	676	3.8	20.7	30.2	42.4	2.8
	인천/경기	824	4.6	23.1	29.7	37.0	5.6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7.1	23.7	26.9	38.2	4.2
	광주/전라/제주	468	10.3	23.8	25.5	33.7	6.7
	부산/울산/경남	555	2.9	25.4	28.6	38.2	4.8
	대구/경북	448	4.3	17.7	26.6	47.8	3.5
학력	고졸이하	1,098	7.4	25.4	27.2	35.9	4.2
	대학/대학원 재학	898	4.5	24.1	30.1	36.3	5.0
	대졸이상	1,524	3.9	20.1	28.7	42.5	4.7
주거형태	동거	2,194	5.6	23.8	29.8	36.8	4.0
	비동거/독립	1,326	4.1	20.5	26.4	43.2	5.8

236)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존재 여부

○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고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96.5%로, 평균 친구 수는 4.9명임

○ 친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19년(95.0%) 대비 1.5%p, 평균 친구 수는 0.2명 상승하였음

○ 여자(96.6%)가 남자(96.3%)보다 친구가 있는 비율이 소폭 높은 반면 친구 수는 남자가 0.4명 더 많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평균 친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236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존재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없다	있다	
			%	평균(명)
2016	2,534	8.7	91.3	3.2
2017	2,714	3.9	96.1	5.0
2018	3,133	7.9	92.1	4.7
2019	3,530	5.0	95.0	4.7
2020	3,520	3.5	96.5	4.9

표 Ⅱ-236-1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존재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	평균(명)
전체		3,520	3.5	96.5	4.9
성별	남자	1,855	3.7	96.3	5.1
	여자	1,665	3.4	96.6	4.7
연령	만 18~19세	477	3.1	96.9	5.3
	만 20~24세	1,095	3.1	96.9	5.1
	만 25~29세	1,050	3.8	96.2	4.9
	만 30~34세	898	3.8	96.2	4.5
지역	서울	676	1.8	98.2	5.0
	인천/경기	824	4.3	95.7	4.8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4.5	95.5	4.8
	광주/전라/제주	468	3.8	96.2	4.9
	부산/울산/경남	555	3.4	96.6	5.1
	대구/경북	448	3.0	97.0	4.6
학력	고졸이하	1,098	5.1	94.9	4.7
	대학/대학원 재학	898	2.3	97.7	5.1
	대졸이상	1,524	3.1	96.9	4.9
주거형태	동거	2,194	3.4	96.6	5.1
	비동거/독립	1,326	3.8	96.2	4.6

237) 평소 외출 정도

○ 평소 얼마나 외출 하는지 파악한 결과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는 응답이 7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9.5%),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7.1%) 등의 순임

○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는 응답은 2019년(75.6%) 대비 3.4%p 하락,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는 2019년(3.6%) 대비 2.9%p 상승함

○ 성별로 남자의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는 응답 비율이 76.7%로 여자(67.1%)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대가 낮을수록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회 외출한다'는 응답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는 응답이 높음

○ 학력별로는 대학/대학원 재학에서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는 응답(63.1%)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Ⅱ-237 평소 외출 정도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 한다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2017	2,321	77.4	4.2	5.2	8.8	1.6	2.5	0.1	0.0
2018	3,133	84.8	2.5	4.1	7.2	0.5	0.9	0.0	0.0
2019	3,530	75.6	3.6	7.3	10.4	0.8	2.2	0.2	0.0
2020	3,520	72.2	6.5	7.1	9.5	1.3	3.1	0.3	0.0

표 II-237-1 평소 외출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3,520	72.2	6.5	7.1	9.5	1.3	3.1	0.3	0.0
성별	남자	1,855	76.7	6.7	5.7	7.1	1.2	2.2	0.3	0.0
	여자	1,665	67.1	6.3	8.7	12.3	1.3	4.2	0.2	0.0
연령	만 18~19세	477	75.1	12.4	4.0	5.7	1.5	1.2	0.0	0.1
	만 20~24세	1,095	65.8	10.9	8.9	10.3	1.5	2.6	0.0	0.0
	만 25~29세	1,050	75.1	3.9	7.0	8.6	1.3	3.2	0.8	0.0
	만 30~34세	898	74.4	3.0	6.5	10.9	0.9	4.2	0.1	0.0
지역	서울	676	73.4	7.5	6.2	10.0	0.9	1.5	0.4	0.1
	인천/경기	824	73.4	7.3	5.9	8.4	1.5	3.4	0.2	0.0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65.8	6.4	10.5	9.2	1.6	6.0	0.5	0.0
	광주/전라/제주	468	71.8	6.6	5.7	10.7	1.5	3.4	0.2	0.0
	부산/울산/경남	555	69.1	4.0	10.3	13.3	1.4	1.9	0.0	0.0
	대구/경북	448	79.9	5.5	5.0	5.8	0.3	3.3	0.2	0.0
학력	고졸이하	1,098	74.3	3.6	6.4	10.7	1.0	3.8	0.2	0.0
	대학/대학원 재학	898	63.1	15.9	7.8	8.5	1.9	2.6	0.1	0.1
	대졸이상	1,524	75.3	3.7	7.2	9.3	1.1	3.0	0.4	0.0
주거형태	동거	2,194	73.3	7.4	6.3	8.7	1.4	2.5	0.4	0.0
	비동거/독립	1,326	70.1	4.9	8.6	10.9	1.0	4.4	0.0	0.0

* 주) 보기: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238)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 평소 외출을 잘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현재 상태의 지속 기간을 확인한 결과 '6개월 미만'이 41.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개월 이상-1년 미만'(24.2%), '1년 이상-3년 미만'(18.7%) 등의 순임

○ 전년 대비 '6개월 미만'(12.8%p) '6개월 이상-1년 미만'(12.1%p)은 상승한 반면 1년 이상은 모두 작년 조사 결과 대비 하락함

○ 성별로 남자는 '6개월 미만'(54.4%), 여자는 '6개월 이상-1년 미만'(29.6%)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6개월 미만'으로 지속되었다는 응답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3년 이상 장기화 되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238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7년 미만	7년 이상
2017	98	18.4	17.9	36.5	16.6	6.0	4.7
2018	41	23.5	23.8	9.1	25.5	11.3	6.9
2019	100	28.3	12.1	25.1	19.2	8.0	7.3
2020	161	41.1	24.2	18.7	11.9	1.7	2.4

* 주: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하거나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하는 경우,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만 응답

표 II-238-1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7년 미만	7년 이상
전체		161	41.1	24.2	18.7	11.9	1.7	2.4
성별	남자	64	54.4	17.0	15.3	8.2	1.2	3.8
	여자	97	31.2	29.6	21.1	14.6	2.0	1.5
연령	만18~19세	15	81.4	16.1	2.5	0.0	0.0	0.0
	만20~24세	47	51.5	28.7	19.8	0.0	0.0	0.0
	만25~29세	51	47.1	17.0	19.9	13.0	1.4	1.6
	만30~34세	48	18.9	30.3	19.3	22.2	3.6	5.8
지역	서울	20	46.1	19.4	2.5	20.7	3.5	7.8
	인천/경기	42	38.6	33.7	18.8	6.5	0.0	2.4
	대전/충청/세종/강원	36	52.7	15.8	15.9	15.6	0.0	0.0
	광주/전라/제주	25	29.3	26.4	31.4	8.1	4.8	0.0
	부산/울산/경남	22	43.2	3.6	31.4	16.1	0.0	5.8
	대구/경북	16	20.5	39.7	20.2	9.8	9.8	0.0
학력	고졸이하	56	40.4	20.2	20.8	14.9	3.8	0.0
	대학/대학원 재학	35	66.0	22.5	6.0	3.2	2.2	0.0
	대졸이상	70	28.8	27.9	23.7	14.3	0.0	5.3
주거형태	동거	94	47.2	23.5	18.7	5.5	0.9	4.2
	비동거/독립	67	32.5	25.3	18.6	20.8	2.8	0.0

* 주: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하거나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하는 경우,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만 응답

239)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 평소 외출을 잘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외출을 잘 하지 않는 현재 상태가 된 계기를 확인한 결과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28.6%),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15.2%p 상승한 반면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라는 응답은 25.8%p 하락하는 결과를 보임

○ 성별로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라는 응답을 제외하고는 모든 응답에서 남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외출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응답이 높고, 만25~29세(50.7%)에서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다른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61.5%)에서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239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학업중단이나 대학 진학 실패로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기타
2017	98	2.2	17.9	10.1	4.6	61.3	3.8
2018	41	5.8	33.0	17.7	4.3	37.2	1.9
2019	100	3.1	22.2	2.3	1.8	54.4	16.3
2020	161	5.1	37.4	6.8	4.9	28.6	17.2

* 주: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하거나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하는 경우,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만 응답

표 II-239-1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인간 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기타
전체		161	5.1	37.4	6.8	4.9	28.6	17.2
성별	남자	64	8.3	46.4	12.0	8.6	0.0	24.7
	여자	97	2.7	30.7	3.0	2.1	49.7	11.7
연령	만 18~19세	15	18.2	40.7	13.5	0.0	0.0	27.6
	만 20~24세	47	15.9	40.9	9.3	6.1	1.7	26.1
	만 25~29세	51	0.0	50.7	6.4	4.0	23.3	15.6
	만 30~34세	48	0.0	19.1	4.1	5.8	60.7	10.2
지역	서울	20	9.7	41.6	17.7	0.0	17.7	13.2
	인천/경기	42	0.0	43.3	3.0	4.3	28.7	20.8
	대전/충청/세종/강원	36	6.7	26.8	5.5	5.1	35.7	20.2
	광주/전라/제주	25	0.0	61.5	6.6	8.8	16.6	6.5
	부산/울산/경남	22	0.0	24.5	3.9	5.0	40.7	25.9
	대구/경북	16	30.3	17.7	14.0	9.8	25.8	2.4
학력	고졸이하	56	3.7	37.3	7.1	7.5	29.5	14.9
	대학/대학원 재학	35	17.0	31.0	8.7	5.8	3.9	33.7
	대졸이상	70	0.0	40.7	5.7	2.7	40.5	10.4
주거형태	동거	94	7.0	51.7	11.7	8.4	0.9	20.4
	비동거/독립	67	2.5	17.3	0.0	0.0	67.3	12.8

* 주: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하거나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하는 경우,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만 응답

240)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점심기준)

○ 지난 주 점심기준으로 혼자 밥을 먹은 경험 비율은 53.7%이고 주간 평균 취식 횟수는 3.1회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 대비 경험 비율(52.6%) 1.1%p 상승, 평균 취식 횟수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여자 혼자 밥을 먹은 경험 비율이 55.0%로 남자(52.5%) 대비 높음

○ 연령별로 만18~19세가 46.3%로 다른 연령 대비 낮고, 만20~24세 59.5%로 다른 연령 대비 높음

○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 65.6%로 혼자 밥을 먹은 경험 비율이 다른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났음

○ 학력별로는 대학/대학원 재학 청년들이 혼자 밥을 먹은 경험 비율이 64.4%로 타 학력 대비 높게 나타남

표 Ⅱ-240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점심기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회)

연도	사례수	없다	있다	
			%	평균(회)
2017	2,321	49.8	50.2	3.1
2018	2,641	56.5	43.5	2.2
2019	2,948	47.4	52.6	3.1
2020	3,520	46.3	53.7	3.1

* 주: 2017~2019년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020년 전체 응답

표 II-240-1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점심기준)

(단위: 명, %, 회)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	평균(회)
전체		3,520	46.3	53.7	3.1
성별	남자	1,855	47.5	52.5	3.1
	여자	1,665	45.0	55.0	3.2
연령	만 18~19세	477	53.7	46.3	2.9
	만 20~24세	1,095	40.5	59.5	3.2
	만 25~29세	1,050	47.9	52.1	3.2
	만 30~34세	898	47.9	52.1	3.1
지역	서울	676	34.4	65.6	3.0
	인천/경기	824	47.5	52.5	3.3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53.4	46.6	3.1
	광주/전라/제주	468	61.9	38.1	3.0
	부산/울산/경남	555	44.1	55.9	3.3
	대구/경북	448	45.4	54.6	2.9
학력	고졸이하	1,098	51.4	48.6	3.1
	대학/대학원 재학	898	35.6	64.4	3.2
	대졸이상	1,524	48.4	51.6	3.1
주거형태	동거	2,194	47.5	52.5	3.0
	비동거/독립	1,326	44.2	55.8	3.3

241)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저녁기준)

○ 지난 주 저녁기준으로 혼자 술을 마신 경험 비율은 15.0%이고 주간 평균 음주 횟수는 2회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경험 비율(13.6%) 보다 1.4%p 상승했으나, 평균 음주 횟수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 남자의 경우 혼자 술을 마신 경험 비율이 17.4%로 여자(12.2%)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혼자 술을 마신 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이 21.3%로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17.6%)이 타학력 대비 높음

○ 주거형태별로는 동거(13.1%) 보다 비동거/독립(18.2%)에서 혼술 경험과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241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저녁기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회)

연도	사례수	없다	있다	
			%	평균(회)
2017	2,321	82.0	18.0	2.0
2018	2,641	85.4	14.6	1.5
2019	2,948	86.4	13.6	2.0
2020	3,520	85.0	15.0	2.0

* 주: 2017~2019년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020년 전체 응답

표 II-241-1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저녁기준)

(단위: 명, %, 회)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	평균(회)
전체		3,520	85.0	15.0	2.0
성별	남자	1,855	82.6	17.4	2.1
	여자	1,665	87.8	12.2	2.0
연령	만 18~19세	477	94.3	5.7	1.8
	만 20~24세	1,095	87.9	12.1	2.0
	만 25~29세	1,050	82.4	17.6	2.0
	만 30~34세	898	82.0	18.0	2.1
지역	서울	676	78.7	21.3	2.1
	인천/경기	824	84.9	15.1	2.0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86.7	13.3	2.1
	광주/전라/제주	468	91.3	8.7	1.8
	부산/울산/경남	555	87.7	12.3	2.2
	대구/경북	448	86.9	13.1	1.8
학력	고졸이하	1,098	87.2	12.8	2.1
	대학/대학원 재학	898	87.7	12.3	2.1
	대졸이상	1,524	82.4	17.6	2.0
주거형태	동거	2,194	86.9	13.1	2.0
	비동거/독립	1,326	81.8	18.2	2.1

242)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 청년관점에서 기성세대(40, 50대)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 라는 질문에 65.5%가 '그렇다'(그렇다 56.6%+매우 그렇다 8.9%)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 7.6%(전혀 그렇지 않다 0.7%+그렇지 않다 6.9%) 대비 낮게 나타남

○ 2019년 대비 동의 비율(64.9%)은 0.6%p 상승, 비동의 비율(8.7%)은 1.1%p 하락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동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 대구/경북(73.2%) 지역의 동의 비율이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학/대학원 재학(68.9%)의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242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0.6	9.7	31.9	50.3	7.5
2017	2,714	1.1	12.1	29.1	49.9	7.7
2018	3,133	0.2	7.3	24.7	61.1	6.7
2019	3,530	0.8	7.9	26.5	57.7	7.2
2020	3,520	0.7	6.9	26.8	56.6	8.9

표 Ⅱ-242-1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520	0.7	6.9	26.8	56.6	8.9
성별	남자	1,855	1.0	6.3	26.3	57.1	9.3
	여자	1,665	0.5	7.6	27.4	56.1	8.4
연령	만 18~19세	477	0.0	5.4	26.2	60.8	7.6
	만 20~24세	1,095	0.4	6.8	27.9	57.3	7.6
	만 25~29세	1,050	1.2	7.0	26.5	55.5	9.8
	만 30~34세	898	0.9	7.4	26.3	55.8	9.6
지역	서울	676	0.7	5.9	24.9	55.9	12.5
	인천/경기	824	0.7	6.7	29.0	55.0	8.6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1.9	9.2	28.8	53.3	6.8
	광주/전라/제주	468	0.4	7.4	25.7	52.9	13.6
	부산/울산/경남	555	0.4	9.0	25.3	60.6	4.7
	대구/경북	448	0.0	2.5	24.3	67.5	5.6
학력	고졸이하	1,098	0.7	6.9	27.9	56.5	8.1
	대학/대학원 재학	898	0.5	5.1	25.5	59.6	9.3
	대졸이상	1,524	0.9	7.8	26.8	55.3	9.2
주거형태	동거	2,194	0.8	6.3	26.5	57.4	9.1
	비동거/독립	1,326	0.7	8.0	27.4	55.3	8.6

243)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 청년관점에서 기성세대(40, 50대)가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라는 질문에 26.6%가 '그렇다'(그렇다 22.9%+매우 그렇다 3.6%)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 31.6%(전혀 그렇지 않다 3.6%+그렇지 않다 28.0%) 대비 높게 나타남

○ 2019년 대비 동의 비율(26.4%)이 0.2%p 상승, 비동의 비율(32.9%)은 1.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41.3%)에서 비동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

○ 학력별로는 대학/대학원 재학의 비동의 비율이 35.2%로 타 학력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243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2.4	26.5	42.7	25.6	2.8
2017	2,714	3.8	32.3	41.5	20.8	1.7
2018	3,133	1.5	23.2	40.9	29.4	5.1
2019	3,530	3.1	29.8	40.7	23.6	2.8
2020	3,520	3.6	28.0	41.8	22.9	3.6

표 Ⅱ-243-1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520	3.6	28.0	41.8	22.9	3.6
성별	남자	1,855	4.0	26.4	42.4	23.0	4.2
	여자	1,665	3.1	29.8	41.2	22.8	3.0
연령	만 18~19세	477	3.3	28.6	43.6	23.0	1.5
	만 20~24세	1,095	3.3	28.3	41.3	23.6	3.5
	만 25~29세	1,050	3.6	26.0	42.3	23.7	4.4
	만 30~34세	898	3.9	29.7	41.3	21.4	3.7
지역	서울	676	1.2	28.7	44.2	22.8	3.1
	인천/경기	824	5.1	27.0	39.9	23.0	4.9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1.7	31.4	38.9	25.3	2.7
	광주/전라/제주	468	9.5	31.8	40.7	14.8	3.2
	부산/울산/경남	555	2.1	26.9	40.4	26.4	4.2
	대구/경북	448	2.3	22.3	51.1	23.0	1.3
학력	고졸이하	1,098	3.2	27.0	41.1	26.1	2.6
	대학/대학원 재학	898	3.3	31.9	41.8	19.9	3.0
	대졸이상	1,524	3.9	26.7	42.3	22.4	4.6
주거형태	동거	2,194	3.5	27.1	42.4	23.0	3.9
	비동거/독립	1,326	3.7	29.6	40.8	22.8	3.1

244)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 청년관점에서 기성세대(40, 50대)가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라는 질문에 24.3%가 '그렇다'(그렇다 21.6%+매우 그렇다 2.7%)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 34.4%(전혀 그렇지 않다 4.2%+그렇지 않다 30.2%) 대비 낮게 나타남

○ 2019년 대비 동의 비율(25.5%)은 1.2%p 하락한 반면 비동의 비율(31.0%)은 3.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파악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 기성세대가 다른 세대에 대란 배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 거주자들의 비동의 비율이 44.1%로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Ⅱ-244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1.8	29.8	39.0	26.1	3.3
2017	2,714	3.1	32.2	43.3	18.7	2.8
2018	3,133	1.9	23.9	42.6	27.9	3.7
2019	3,530	2.3	28.7	43.6	22.5	3.0
2020	3,520	4.2	30.2	41.3	21.6	2.7

표 II-244-1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520	4.2	30.2	41.3	21.6	2.7
성별	남자	1,855	4.4	30.3	40.4	21.7	3.2
	여자	1,665	4.0	30.1	42.3	21.5	2.1
연령	만 18~19세	477	5.0	33.0	39.4	21.2	1.3
	만 20~24세	1,095	4.5	31.1	41.1	20.3	3.0
	만 25~29세	1,050	4.8	27.7	42.5	22.0	3.1
	만 30~34세	898	3.2	31.1	40.7	22.7	2.4
지역	서울	676	3.2	33.2	37.5	23.7	2.5
	인천/경기	824	4.3	28.4	40.4	24.2	2.6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1.2	28.0	45.2	21.2	4.4
	광주/전라/제주	468	9.0	35.2	37.9	16.6	1.4
	부산/울산/경남	555	7.4	31.7	39.3	18.6	3.1
	대구/경북	448	0.9	24.9	54.1	18.6	1.4
학력	고졸이하	1,098	5.2	27.7	41.2	23.4	2.6
	대학/대학원 재학	898	4.2	32.1	41.9	19.4	2.5
	대졸이상	1,524	3.7	30.9	41.0	21.7	2.8
주거형태	동거	2,194	4.7	30.9	40.0	21.4	3.0
	비동거/독립	1,326	3.4	28.9	43.6	22.0	2.2

245) 노인에 대한 생각_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 청년관점에서 노인세대(70세 이상)가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라는 질문에 대해 43.0%가 '그렇다'(그렇다 39.5%+매우 그렇다 3.5%)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 15.5%(전혀 그렇지 않다 2.3%+그렇지 않다 13.2%) 대비 높게 나타남

○ 2019년 대비 동의 비율(45.3%) -2.3%p과 비동의 비율(16.4%) -0.9%p로 모두 하락하고 보통이다를 응답한 비율이 3.2%p 상승함

○ 연령별로 낮을수록 동의, 노인은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Ⅱ-245 노인에 대한 생각_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2.2	18.5	41.0	33.4	5.0
2017	2,714	2.7	15.7	36.9	40.3	4.4
2018	3,133	0.8	15.3	35.4	43.6	5.0
2019	3,530	2.1	14.3	38.3	41.4	3.9
2020	3,520	2.3	13.2	41.5	39.5	3.5

표 II-245-1 노인에 대한 생각_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520	2.3	13.2	41.5	39.5	3.5
성별	남자	1,855	2.3	13.3	40.8	39.2	4.3
	여자	1,665	2.3	13.1	42.2	39.8	2.7
연령	만 18~19세	477	0.5	10.2	44.0	40.8	4.5
	만 20~24세	1,095	1.8	13.2	41.3	40.1	3.6
	만 25~29세	1,050	2.7	14.5	40.2	39.3	3.2
	만 30~34세	898	3.0	12.8	42.1	38.6	3.4
지역	서울	676	1.4	13.9	44.8	36.0	3.9
	인천/경기	824	3.1	11.5	44.0	37.5	3.9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3.8	16.9	38.3	38.2	2.8
	광주/전라/제주	468	1.6	14.2	35.5	43.9	4.8
	부산/울산/경남	555	2.4	13.4	37.0	43.5	3.6
	대구/경북	448	0.2	10.5	42.8	45.7	0.8
학력	고졸이하	1,098	2.1	13.0	41.1	41.0	2.8
	대학/대학원 재학	898	1.0	12.4	40.7	41.2	4.7
	대졸이상	1,524	3.1	13.7	42.1	37.7	3.4
주거형태	동거	2,194	1.6	12.3	42.9	39.5	3.8
	비동거/독립	1,326	3.6	14.9	39.0	39.5	3.1

246) 노인에 대한 생각_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 청년관점에서 노인세대(70세 이상)가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라는 질문에 대해 36.9%가 '그렇다'(그렇다 34.4%+매우 그렇다 2.5%)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 20.8%(전혀 그렇지 않다 1.7%+그렇지 않다 19.1%) 대비 높게 나타남

○ 2019년 대비 동의 비율(36.7%)은 0.2%p 상승, 비동의 비율(22.3%)은 1.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서울(41.0%), 인천/경기(40.8%) 지역 거주자들의 동의 비율이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보면 고졸이하(30.3%)의 동의 비율이 대학/대학원 재학(40.0%), 대졸이상(39.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임

표 II-246 노인에 대한 생각_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1.1	20.0	38.5	36.7	3.7
2017	2,714	1.4	19.9	41.3	33.7	3.6
2018	3,133	0.7	20.6	44.6	31.8	2.3
2019	3,530	0.9	21.4	41.0	33.5	3.2
2020	3,520	1.7	19.1	42.3	34.4	2.5

표 II-246-1 노인에 대한 생각_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520	1.7	19.1	42.3	34.4	2.5
성별	남자	1,855	1.9	19.9	42.2	33.3	2.8
	여자	1,665	1.6	18.2	42.4	35.7	2.2
연령	만 18~19세	477	3.0	20.1	43.7	32.6	0.6
	만 20~24세	1,095	1.5	19.6	42.6	33.8	2.6
	만 25~29세	1,050	1.5	18.7	40.8	35.7	3.3
	만 30~34세	898	1.7	18.7	43.1	34.3	2.2
지역	서울	676	0.4	18.3	40.3	39.0	2.0
	인천/경기	824	0.6	13.9	44.7	37.4	3.4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1.5	25.1	38.1	32.6	2.7
	광주/전라/제주	468	6.4	24.2	38.1	28.9	2.4
	부산/울산/경남	555	4.3	24.0	40.3	29.1	2.3
	대구/경북	448	0.0	16.9	52.4	30.2	0.4
학력	고졸이하	1,098	2.7	21.5	45.6	27.9	2.4
	대학/대학원 재학	898	1.3	18.2	40.6	37.8	2.2
	대졸이상	1,524	1.4	18.0	41.0	36.9	2.7
주거형태	동거	2,194	1.8	18.3	41.8	35.5	2.6
	비동거/독립	1,326	1.6	20.5	43.1	32.6	2.2

247) 노인에 대한 생각_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 청년관점에서 노인세대(70세 이상)가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라는 질문에 대해 51.5%가 '그렇다'(그렇다 43.4%+매우 그렇다 8.1%)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 12.0%(전혀 그렇지 않다 1.1%+그렇지 않다 10.9%) 대비 높게 나타남

○ 2019년 대비 동의 비율(42.9%) 8.6%p 상승, 비동의 비율(17.1%)은 5.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62.7%) 지역 거주자들의 동의 비율이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노인 세대가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표 II-247 노인에 대한 생각_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1.3	21.5	42.5	31.1	3.6
2017	2,714	2.4	19.0	44.2	30.8	3.6
2018	3,133	1.3	14.6	36.4	41.0	6.7
2019	3,530	1.4	15.7	40.1	38.4	4.5
2020	3,520	1.1	10.9	36.6	43.4	8.1

표 Ⅱ-247-1 노인에 대한 생각_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520	1.1	10.9	36.6	43.4	8.1
성별	남자	1,855	1.5	10.4	36.3	42.8	8.9
	여자	1,665	0.5	11.5	36.9	44.0	7.1
연령	만 18~19세	477	0.8	7.9	36.6	47.6	7.1
	만 20~24세	1,095	1.1	12.4	35.4	43.5	7.6
	만 25~29세	1,050	1.4	10.2	38.0	42.3	8.1
	만 30~34세	898	0.6	11.2	36.3	43.1	8.8
지역	서울	676	0.8	10.3	35.4	44.7	8.7
	인천/경기	824	1.3	11.9	38.8	41.3	6.7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1.9	13.1	37.4	42.5	5.1
	광주/전라/제주	468	1.6	7.8	27.9	42.6	20.1
	부산/울산/경남	555	0.1	12.6	37.2	42.0	8.1
	대구/경북	448	0.2	6.1	39.3	51.7	2.6
학력	고졸이하	1,098	1.0	9.9	38.6	42.3	8.1
	대학/대학원 재학	898	0.9	11.4	37.1	44.0	6.6
	대졸이상	1,524	1.2	11.3	35.1	43.7	8.7
주거형태	동거	2,194	1.3	10.3	37.3	42.8	8.4
	비동거/독립	1,326	0.7	11.9	35.5	44.5	7.4

248) 노인에 대한 생각_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 청년관점에서 노인세대(70세 이상)가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라는 질문에 대해 35.3%가 '그렇다'(그렇다 31.2%+매우 그렇다 4.1%)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 17.7%(전혀 그렇지 않다 2.2%+그렇지 않다 15.5%) 대비 높게 나타남

○ 2019년 대비 동의 비율(35.1%)이 0.2%p 상승, 비동의 비율(20.8%)은 3.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제주(22.7%)는 비동의 응답이, 서울(39.9%) 동의 응답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Ⅱ-248 노인에 대한 생각_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4.0	23.3	43.5	24.6	4.5
2017	2,714	2.8	17.3	47.1	27.2	5.6
2018	3,133	0.9	14.6	49.2	31.9	3.3
2019	3,530	2.1	18.7	44.2	30.3	4.8
2020	3,520	2.2	15.5	46.9	31.2	4.1

표 Ⅱ-248-1 노인에 대한 생각_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520	2.2	15.5	46.9	31.2	4.1
성별	남자	1,855	2.3	16.5	45.4	31.2	4.6
	여자	1,665	2.1	14.4	48.6	31.2	3.6
연령	만 18~19세	477	0.7	15.2	49.8	30.2	4.0
	만 20~24세	1,095	2.2	17.3	46.2	31.2	3.1
	만 25~29세	1,050	2.2	14.1	47.0	32.0	4.7
	만 30~34세	898	2.7	15.5	46.6	30.8	4.5
지역	서울	676	0.7	15.6	43.8	35.3	4.5
	인천/경기	824	3.0	15.8	44.6	32.0	4.5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2.3	15.0	48.0	30.0	4.6
	광주/전라/제주	468	3.6	19.1	45.5	28.6	3.1
	부산/울산/경남	555	0.7	13.8	51.0	29.4	5.1
	대구/경북	448	3.3	13.9	56.1	26.2	0.5
학력	고졸이하	1,098	2.5	15.9	45.8	32.1	3.7
	대학/대학원 재학	898	1.8	16.0	48.0	30.3	3.9
	대졸이상	1,524	2.2	15.1	47.1	31.1	4.5
주거형태	동거	2,194	2.2	16.1	46.3	31.6	3.8
	비동거/독립	1,326	2.2	14.5	48.1	30.5	4.7

249) 사회 · 정치 관련 참여 경험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 지난 1년간 사회 · 정치 문제에 대해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을 하는데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6.4%, '참여한 적이 없다'는 73.5%로 나타남

○ 2019년 조사 결과 대비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0.2%p 소폭 상승함

○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년에 1~2회' 응답이 1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 달에 1-2회'(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 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타 지역대비 '참여한 적 없음'(80.5%)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참여한 적 없음'이 79.3%로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249 사회 · 정치 관련 참여 경험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2019	2,948	73.8	13.4	7.8	3.9	1.2
2020	3,520	73.5	15.0	7.1	3.7	0.6

* 주: 2019년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020년 전체 응답

표 Ⅱ-249-1 사회 · 정치 관련 참여 경험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체		3,520	73.5	15.0	7.1	3.7	0.6
성별	남자	1,855	75.0	14.4	7.0	3.2	0.4
	여자	1,665	71.8	15.7	7.3	4.4	0.7
연령	만 18~19세	477	78.6	11.0	7.8	2.2	0.4
	만 20~24세	1,095	73.4	16.1	6.1	3.5	0.9
	만 25~29세	1,050	73.0	15.2	7.0	4.4	0.4
	만 30~34세	898	72.5	15.1	8.2	3.8	0.4
지역	서울	676	69.1	17.5	8.4	4.5	0.5
	인천/경기	824	73.9	12.9	8.1	4.8	0.4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75.5	12.8	5.6	5.2	1.0
	광주/전라/제주	468	74.9	15.2	6.7	2.0	1.2
	부산/울산/경남	555	80.5	12.1	5.0	1.8	0.5
	대구/경북	448	67.5	24.5	6.9	1.0	0.0
학력	고졸이하	1,098	79.3	12.1	5.0	3.1	0.5
	대학/대학원 재학	898	71.2	15.5	8.8	3.6	0.9
	대졸이상	1,524	71.1	16.6	7.7	4.2	0.4
주거형태	동거	2,194	74.2	14.4	7.4	3.5	0.5
	비동거/독립	1,326	72.4	16.1	6.7	4.1	0.7

250) 사회 · 정치 관련 참여 경험_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 사회 · 정치 관련 참여 중 지난 1년간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 착용/부착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7.6%, '참여한 적이 없다'는 82.4%로 나타남

○ 2019년 조사 결과 대비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0.7%p 하락함

○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년에 1~2회' 응답이 14.3%로 가장 높음

○ 성별로 '참여한 적 있다'는 응답은 여자 20.9%로 남자(14.6%) 보다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타 지역대비 '참여한 적 없음'(91.4%)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참여한 적 없음'이 86.5%로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250 사회 · 정치 관련 참여 경험_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2019	2,948	81.7	12.7	2.9	1.6	1.1
2020	3,520	82.4	14.3	2.1	0.9	0.3

* 주: 2019년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020년 전체 응답

표 II-250-1 사회 · 정치 관련 참여 경험_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체		3,520	82.4	14.3	2.1	0.9	0.3
성별	남자	1,855	85.4	12.6	1.4	0.3	0.3
	여자	1,665	79.1	16.3	2.7	1.5	0.4
연령	만18~19세	477	82.4	14.5	1.4	0.8	0.8
	만20~24세	1,095	82.6	13.5	2.3	1.3	0.3
	만25~29세	1,050	82.7	13.9	1.9	1.0	0.4
	만30~34세	898	81.9	15.6	2.1	0.3	0.2
지역	서울	676	75.7	20.9	2.4	0.6	0.4
	인천/경기	824	83.4	12.9	2.2	1.0	0.4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84.7	11.0	2.6	1.6	0.2
	광주/전라/제주	468	75.6	21.3	2.2	0.7	0.3
	부산/울산/경남	555	91.4	6.0	1.3	0.9	0.4
	대구/경북	448	85.0	14.1	0.7	0.0	0.2
학력	고졸이하	1,098	86.5	11.2	1.4	0.7	0.2
	대학/대학원 재학	898	81.2	14.9	2.4	0.9	0.6
	대졸이상	1,524	80.4	16.0	2.3	1.0	0.3
주거형태	동거	2,194	82.7	14.2	2.0	0.7	0.4
	비동거/독립	1,326	82.0	14.5	2.1	1.2	0.2

251) 사회 · 정치 관련 참여 경험_3)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

○ 사회 · 정치 참여 중 지난 1년간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9.1%, '참여한 적이 없다'는 70.9%로 나타남

○ 2019년 조사 결과 대비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5%p 하락함

○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년에 1~2회' 응답이 22.2%로 가장 높고, '한 달에 1~2회'(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참여한 적 있다'는 응답은 여자 32.7%로 남자(25.8%) 보다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타 지역대비 '참여한 적 없음'(79.5%)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참여한 적 없음'이 79.6%로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251 사회 · 정치 관련 참여 경험_3)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2019	2,948	66.5	25.0	6.3	2.0	0.3
2020	3,520	70.9	22.2	6.0	0.8	0.1

* 주: 2019년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020년 전체 응답

표 Ⅱ-251-1 사회 · 정치 관련 참여 경험_3)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체		3,520	70.9	22.2	6.0	0.8	0.1
성별	남자	1,855	74.2	20.4	4.7	0.5	0.2
	여자	1,665	67.3	24.3	7.4	1.0	0.0
연령	만 18~19세	477	76.0	20.1	3.6	0.2	0.0
	만 20~24세	1,095	70.7	22.4	6.0	0.9	0.1
	만 25~29세	1,050	71.4	20.9	6.5	1.1	0.1
	만 30~34세	898	69.0	24.3	6.1	0.4	0.2
지역	서울	676	65.2	27.7	6.2	0.8	0.0
	인천/경기	824	69.6	20.7	8.7	0.9	0.1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71.5	22.5	4.4	1.5	0.2
	광주/전라/제주	468	70.9	24.9	4.1	0.1	0.0
	부산/울산/경남	555	79.5	14.5	5.3	0.4	0.3
	대구/경북	448	74.9	23.5	1.4	0.2	0.0
학력	고졸이하	1,098	79.6	15.8	4.2	0.4	0.0
	대학/대학원 재학	898	68.7	24.6	5.9	0.7	0.1
	대졸이상	1,524	66.6	25.1	7.2	1.0	0.2
주거형태	동거	2,194	71.2	21.8	6.2	0.7	0.1
	비동거/독립	1,326	70.4	23.1	5.5	0.9	0.1

252) 사회 · 정치 관련 참여 경험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 사회 · 정치 참여 중 지난 1년간 개인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8.5%, ‘참여한 적이 없다’는 91.5%로 10명 중 9명은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조사 결과 대비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0.4%p 하락함

○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년에 1~2회’ 응답이 7.5%로 가장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이 타 지역대비 ‘참여한 적 있다’(13.8%)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Ⅱ-252 사회 · 정치 관련 참여 경험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2019	2,948	91.1	6.4	1.8	0.6	0.1
2020	3,520	91.5	7.5	0.9	0.2	0.0

* 주: 2019년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020년 전체 응답

표 Ⅱ-252-1 사회 · 정치 관련 참여 경험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전체		3,520	91.5	7.5	0.9	0.2
성별	남자	1,855	92.3	6.8	0.7	0.2
	여자	1,665	90.6	8.2	1.1	0.1
연령	만 18~19세	477	94.8	4.9	0.3	0.0
	만 20~24세	1,095	91.3	7.6	0.8	0.3
	만 25~29세	1,050	90.8	8.1	0.9	0.2
	만 30~34세	898	91.2	7.5	1.2	0.1
지역	서울	676	86.2	11.9	1.5	0.4
	인천/경기	824	90.2	8.8	0.9	0.1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93.9	5.1	0.6	0.3
	광주/전라/제주	468	95.9	3.8	0.3	0.0
	부산/울산/경남	555	95.3	3.9	0.7	0.0
	대구/경북	448	93.6	5.3	0.9	0.2
학력	고졸이하	1,098	94.0	5.2	0.7	0.2
	대학/대학원 재학	898	91.0	8.4	0.6	0.0
	대졸이상	1,524	90.1	8.4	1.2	0.2
주거형태	동거	2,194	91.6	7.4	0.8	0.2
	비동거/독립	1,326	91.3	7.5	1.1	0.1

253) 사회 · 정치 관련 참여 경험_5) 항의 전화하기

○ 사회 · 정치 참여 중 지난 1년간 항의 전화하기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7.4%, ‘참여한 적이 없다’는 92.6%로, 10명 중 1명 정도가 항의 전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조사 결과 대비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7%p 하락함

○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년에 1~2회’ 응답이 6.3%로 가장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이 타 지역대비 ‘참여한 적 있다’(11.4%)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253 사회 · 정치 관련 참여 경험_5) 항의 전화하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2019	2,948	89.9	7.7	1.7	0.4	0.2
2020	3,520	92.6	6.3	0.9	0.2	0.0

* 주: 2019년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020년 전체 응답

표 Ⅱ-253-1 사회 · 정치 관련 참여 경험_5) 항의 전화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체		3,520	92.6	6.3	0.9	0.2	0.0
성별	남자	1,855	92.6	6.4	0.7	0.3	0.1
	여자	1,665	92.6	6.2	1.1	0.2	0.0
연령	만 18~19세	477	96.0	3.6	0.4	0.0	0.0
	만 20~24세	1,095	93.5	4.9	1.2	0.3	0.1
	만 25~29세	1,050	91.1	8.0	0.4	0.4	0.0
	만 30~34세	898	92.0	6.7	1.2	0.1	0.0
지역	서울	676	88.6	9.7	1.4	0.3	0.0
	인천/경기	824	92.9	6.3	0.5	0.3	0.0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92.2	6.0	1.5	0.3	0.0
	광주/전라/제주	468	94.4	4.8	0.4	0.2	0.3
	부산/울산/경남	555	97.3	1.8	0.7	0.2	0.0
	대구/경북	448	91.9	7.5	0.6	0.0	0.0
학력	고졸이하	1,098	93.9	5.1	0.8	0.1	0.1
	대학/대학원 재학	898	92.8	6.4	0.8	0.1	0.0
	대졸이상	1,524	91.7	7.0	1.0	0.4	0.0
주거형태	동거	2,194	92.9	6.2	0.6	0.3	0.0
	비동거/독립	1,326	92.0	6.5	1.4	0.1	0.0

254) 사회 · 정치 관련 참여 의향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에 대한 참여 의향은 14.0%가 '참여 한다'(아마도 12.8%+확실히 1.2%)고 응답하여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 71.2%(절대로 41.2%+아마도 30.0%) 대비 낮게 나타남

○ 2019년 조사 결과 대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8.6%p 상승, '참여 한다'는 2.8%p 하락함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62.7%)에서 비의향 비율이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참여 비의향(75.6%)이 비교적 높게 조사됨

표 II-254 사회 · 정치 관련 참여 의향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2016	2,534	14.3	24.4	27.8	30.5	3.0
2017	2,714	12.9	27.5	28.0	28.1	3.5
2018	3,133	9.1	24.0	28.8	35.1	3.0
2019	3,530	30.4	32.2	20.6	14.9	1.9
2020	3,520	41.2	30.0	14.8	12.8	1.2

* 주: 의견 표명 행동은 2018년 이전 설문에서는 반대 의견 제시를 위한 행동의 의견 표명이었으나 2019년 설문부터는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방법으로 조사 항목이 변경됨

표 Ⅱ-254-1 사회 · 정치 관련 참여 의향_1)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체		3,520	41.2	30.0	14.8	12.8	1.2
성별	남자	1,855	44.3	28.6	14.4	12.1	0.6
	여자	1,665	37.8	31.4	15.3	13.5	1.9
연령	만 18~19세	477	42.5	26.7	15.1	14.6	1.1
	만 20~24세	1,095	41.3	30.1	15.2	12.0	1.3
	만 25~29세	1,050	41.6	29.9	15.1	12.0	1.3
	만 30~34세	898	40.3	30.9	14.1	13.8	1.0
지역	서울	676	40.4	32.2	11.9	14.4	1.1
	인천/경기	824	39.0	30.9	14.2	14.4	1.5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42.7	27.7	18.6	9.6	1.5
	광주/전라/제주	468	35.9	26.8	20.6	15.5	1.1
	부산/울산/경남	555	52.8	25.5	11.5	9.5	0.8
	대구/경북	448	37.0	35.0	17.1	10.2	0.8
학력	고졸이하	1,098	50.1	25.5	12.9	10.6	0.9
	대학/대학원 재학	898	36.5	32.2	15.3	13.9	2.1
	대졸이상	1,524	38.0	31.6	15.8	13.6	0.9
주거형태	동거	2,194	42.2	29.6	15.0	12.2	1.0
	비동거/독립	1,326	39.5	30.5	14.6	13.9	1.5

255) 사회 · 정치 관련 참여 의향_2)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부착

○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부착하는 행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11.9%(아마도 10.7%+확실히 1.2%)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 72.0%(절대로 43.3%+아마도 28.7%) 대비 낮게 나타남

○ 2019년 조사 결과 대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5.7%p 상승, '참여 한다'는 2.7%p 하락함

○ 성별로 남자(9.7%)보다 여자(14.5%)의 참여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참여의향은 더 높아짐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59.5%)에서 비의향 비율이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참여 비의향(77.8%)이 비교적 높게 조사됨

표 II-255 사회 · 정치 관련 참여 의향_2)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부착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2016	2,534	16.5	25.2	25.3	28.4	4.6
2017	2,714	13.0	28.0	29.0	25.9	4.1
2018	3,133	13.4	20.2	29.9	32.4	4.1
2019	3,530	34.2	32.1	19.1	12.2	2.5
2020	3,520	43.3	28.7	16.0	10.7	1.2

* 주: 의견 표명 행동은 2018년 이전 설문에서는 반대 의견 제시를 위한 행동의 의견 표명이었으나 2019년 설문부터는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방법으로 조사 항목이 변경됨

표 II-255-1 사회 · 정치 관련 참여 의향_2)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부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체		3,520	43.3	28.7	16.0	10.7	1.2
성별	남자	1,855	46.3	29.4	14.6	9.0	0.7
	여자	1,665	39.9	28.0	17.6	12.7	1.8
연령	만 18~19세	477	43.2	24.2	17.2	14.3	1.2
	만 20~24세	1,095	42.6	30.4	14.6	10.6	1.8
	만 25~29세	1,050	43.9	28.1	16.8	10.1	1.2
	만 30~34세	898	43.5	29.3	16.3	10.3	0.6
지역	서울	676	42.7	30.5	13.1	12.5	1.3
	인천/경기	824	40.1	28.0	17.8	12.4	1.6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44.5	26.4	19.5	8.8	0.8
	광주/전라/제주	468	37.2	22.3	22.6	16.3	1.7
	부산/울산/경남	555	54.2	30.2	10.4	4.5	0.7
	대구/경북	448	44.5	35.6	12.8	6.5	0.6
학력	고졸이하	1,098	53.5	24.2	11.3	10.2	0.7
	대학/대학원 재학	898	37.1	32.4	16.8	11.4	2.3
	대졸이상	1,524	39.9	29.8	18.6	10.7	1.0
주거형태	동거	2,194	43.7	28.6	16.5	9.9	1.3
	비동거/독립	1,326	42.7	28.9	15.2	12.1	1.1

256) 사회 · 정치 관련 참여 의향_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할 의향은 18.9%(아마도 16.7%+확실히 2.2%)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 62.6%(절대로 39.8%+아마도 22.7%) 대비 낮게 나타남

○ 2019년 조사 결과 대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8.0%p 상승, '참여 한다'는 3.3%p 하락함

○ 성별로 남자(16.6%)보다 여자(21.5%)의 참여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49.9%)에서 비의향 비율이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참여 비의향(71.5%)이 높게 조사됨

표 Ⅱ-256 사회 · 정치 관련 참여 의향_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2016	2,534	14.9	19.9	31.0	28.2	6.0
2017	2,714	10.4	22.7	28.4	32.9	5.6
2018	3,133	12.8	22.1	29.6	31.1	4.3
2019	3,530	27.3	27.3	23.3	18.8	3.4
2020	3,520	39.8	22.7	18.5	16.7	2.2

* 주: 의견 표명 행동은 2018년 이전 설문에서는 반대 의견 제시를 위한 행동의 의견 표명이었으나 2019년 설문부터는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방법으로 조사 항목이 변경됨

표 II-256-1 사회 · 정치 관련 참여 의향_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체		3,520	39.8	22.7	18.5	16.7	2.2
성별	남자	1,855	41.7	23.1	18.6	15.3	1.2
	여자	1,665	37.7	22.4	18.4	18.2	3.4
연령	만 18~19세	477	41.9	20.8	15.6	20.6	1.1
	만 20~24세	1,095	39.7	22.7	16.9	18.0	2.6
	만 25~29세	1,050	39.3	23.1	20.2	14.8	2.6
	만 30~34세	898	39.8	23.0	19.3	16.0	1.8
지역	서울	676	41.0	23.3	17.6	15.8	2.3
	인천/경기	824	36.5	19.0	19.3	22.6	2.6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40.1	24.3	20.8	12.6	2.3
	광주/전라/제주	468	29.8	20.1	27.4	21.0	1.8
	부산/울산/경남	555	49.4	25.8	12.9	9.7	2.2
	대구/경북	448	45.0	30.5	13.5	10.0	1.0
학력	고졸이하	1,098	51.5	20.0	14.9	12.2	1.4
	대학/대학원 재학	898	34.7	24.6	17.4	20.7	2.6
	대졸이상	1,524	35.0	23.6	21.4	17.5	2.6
주거형태	동거	2,194	40.0	22.9	18.3	16.8	2.0
	비동거/독립	1,326	39.5	22.5	18.9	16.5	2.6

257) 사회 · 정치 관련 참여 의향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에 대한 의향 응답 결과, 5.4%가 '참여 한다'(아마도 4.9%+확실히 0.4%)고 응답하여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 81.8%(절대로 50.7%+아마도 31.1%) 대비 낮게 나타남

○ 2019년 조사 결과 대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3.3%p 상승함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92.7%)에서 비의향 비율이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참여 비의향(85.4%)이 높게 조사됨

표 Ⅱ-257 사회 · 정치 관련 참여 의향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2016	2,534	24.4	33.5	29.5	11.2	1.5
2017	2,714	17.0	34.1	29.4	17.5	2.1
2018	3,133	18.3	27.6	32.4	20.0	1.8
2019	3,530	41.6	36.9	14.8	5.9	0.8
2020	3,520	50.7	31.1	12.9	4.9	0.4

* 주: 의견 표명 행동은 2018년 이전 설문에서는 반대 의견 제시를 위한 행동의 의견 표명이었으나 2019년 설문부터는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방법으로 조사 항목이 변경됨

표 II-257-1 사회 · 정치 관련 참여 의향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체		3,520	50.7	31.1	12.9	4.9	0.4
성별	남자	1,855	52.1	30.2	12.3	5.3	0.1
	여자	1,665	49.1	32.0	13.5	4.6	0.8
연령	만 18~19세	477	50.7	29.1	15.7	4.1	0.4
	만 20~24세	1,095	49.9	31.6	13.0	5.0	0.4
	만 25~29세	1,050	49.9	30.7	14.0	4.9	0.4
	만 30~34세	898	52.3	31.6	10.5	5.2	0.5
지역	서울	676	52.4	30.0	11.8	4.8	0.9
	인천/경기	824	45.9	32.4	13.9	7.4	0.4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48.6	29.6	18.0	3.6	0.2
	광주/전라/제주	468	47.7	29.6	16.4	6.0	0.3
	부산/울산/경남	555	59.8	28.7	8.8	2.5	0.2
	대구/경북	448	56.3	36.4	6.2	1.1	0.0
학력	고졸이하	1,098	59.7	25.7	11.0	3.4	0.1
	대학/대학원 재학	898	45.9	33.5	14.7	5.3	0.6
	대졸이상	1,524	47.4	33.3	13.1	5.7	0.5
주거형태	동거	2,194	50.2	31.0	13.2	5.2	0.3
	비동거/독립	1,326	51.5	31.3	12.2	4.5	0.5

258) 사회 · 정치 관련 참여 의향_5) 항의 전화하기

○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항의 전화하기에 대한 참여 의향 응답 결과, 5.1%가 '참여 한다'(아마도 4.7%+확실히 0.5%)고 응답하여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 82.5%(절대로 50.9%+아마도 31.6%) 대비 낮게 나타남

○ 2019년 조사 결과 대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3.8%p 상승, '참여 한다'는 1.6%p 하락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참여 비의향(84.5%)이 다른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표 Ⅱ-258 사회 · 정치 관련 참여 의향_5) 항의 전화하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2017	2,714	22.2	34.5	25.7	14.8	2.8
2018	3,133	19.9	30.3	32.7	15.4	1.7
2019	3,530	43.7	35.0	14.6	5.9	0.8
2020	3,520	50.9	31.6	12.3	4.7	0.5

* 주: 의견 표명 행동은 2018년 이전 설문에서는 반대 의견 제시를 위한 행동의 의견 표명이었으나 2019년 설문부터는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방법으로 조사 항목이 변경됨

표 Ⅱ-258-1 사회 · 정치 관련 참여 의향_5) 항의 전화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체		3,520	50.9	31.6	12.3	4.7	0.5
성별	남자	1,855	52.3	30.1	12.9	4.3	0.3
	여자	1,665	49.3	33.3	11.6	5.1	0.6
연령	만 18~19세	477	49.5	31.2	13.9	5.2	0.2
	만 20~24세	1,095	50.6	33.7	11.2	4.1	0.5
	만 25~29세	1,050	51.0	30.5	13.2	4.8	0.5
	만 30~34세	898	51.6	30.9	12.0	5.0	0.5
지역	서울	676	52.3	31.5	11.0	4.6	0.5
	인천/경기	824	45.4	32.5	14.8	6.8	0.5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52.2	30.0	13.9	3.3	0.7
	광주/전라/제주	468	48.0	29.0	16.4	6.0	0.6
	부산/울산/경남	555	59.3	32.0	7.1	1.4	0.1
	대구/경북	448	55.7	33.3	7.8	2.8	0.4
학력	고졸이하	1,098	58.8	25.7	10.2	4.8	0.6
	대학/대학원 재학	898	46.2	35.8	13.2	4.4	0.5
	대졸이상	1,524	48.3	33.3	13.3	4.8	0.3
주거형태	동거	2,194	50.5	32.3	12.3	4.5	0.3
	비동거/독립	1,326	51.6	30.4	12.3	5.1	0.7

259)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청년들이 인식하는 정치적 효능감 중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44.7%가 '그렇다'(그렇다 40.3%+매우 그렇다 4.5%)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 20.5%(전혀 그렇지 않다 5.3%+그렇지 않다 15.2%) 대비 높게 나타남

○ 2019년 대비 동의 비율(37.0%)이 7.7%p 상승함

○ 성별로 남자의 동의 비율이 47.8%로 나타나 여자(41.2%) 대비 높음

○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동의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거주자들의 동의 비율이 55.5%로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33.4%)의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I-259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7	2,714	2.6	16.9	42.0	33.8	4.6
2018	3,133	4.4	20.8	35.8	37.4	1.7
2019	3,530	5.9	19.3	37.7	32.8	4.2
2020	3,520	5.3	15.2	34.8	40.3	4.5

표 Ⅱ-259-1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520	5.3	15.2	34.8	40.3	4.5
성별	남자	1,855	5.0	13.9	33.3	42.3	5.6
	여자	1,665	5.6	16.8	36.4	38.0	3.3
연령	만 18~19세	477	7.3	24.7	36.0	29.8	2.2
	만 20~24세	1,095	5.8	17.5	36.5	36.3	3.8
	만 25~29세	1,050	4.0	12.9	38.0	40.5	4.6
	만 30~34세	898	5.5	12.4	29.0	47.4	5.8
지역	서울	676	5.0	10.4	29.0	48.9	6.6
	인천/경기	824	4.8	16.6	36.2	38.2	4.3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6.9	20.6	44.4	25.7	2.3
	광주/전라/제주	468	6.0	17.9	30.3	37.7	8.1
	부산/울산/경남	555	7.3	13.3	29.4	47.3	2.8
	대구/경북	448	1.4	13.5	41.6	41.5	2.0
학력	고졸이하	1,098	7.0	19.9	39.8	31.6	1.8
	대학/대학원 재학	898	5.0	14.9	30.6	43.8	5.7
	대졸이상	1,524	4.3	12.5	33.7	44.0	5.6
주거형태	동거	2,194	5.8	15.3	35.8	38.7	4.4
	비동거/독립	1,326	4.4	15.1	33.0	43.0	4.6

260)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 청년들이 인식하는 정치적 효능감 중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49.5가 '그렇다' (그렇다 43.2%+매우 그렇다 6.3%)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14.4%(전혀 그렇지 않다 4.0%+그렇지 않다 10.4%) 대비 높게 나타남

○ 2019년 대비 동의 비율(39.9%)이 9.6%p 상승함

○ 성별로는 남자의 동의 비율이 51.3%로 나타나 여자(47.4%) 대비 높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동의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거주자들의 동의 비율이 60.7%로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40.9%)의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I-260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7	2,714	1.7	12.2	40.9	40.0	5.2
2018	3,133	3.8	15.3	40.3	38.0	2.7
2019	3,530	5.0	14.4	40.6	35.4	4.5
2020	3,520	4.0	10.4	36.1	43.2	6.3

표 II-260-1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520	4.0	10.4	36.1	43.2	6.3
성별	남자	1,855	4.2	9.7	34.8	43.9	7.4
	여자	1,665	3.8	11.2	37.6	42.3	5.1
연령	만 18~19세	477	6.5	15.8	37.6	36.4	3.7
	만 20~24세	1,095	4.2	11.9	37.1	40.8	6.0
	만 25~29세	1,050	2.7	10.1	37.3	43.1	6.8
	만 30~34세	898	4.4	7.4	33.2	47.9	7.1
지역	서울	676	3.9	5.3	30.1	51.8	8.9
	인천/경기	824	2.8	12.3	38.0	40.3	6.6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6.9	13.1	40.5	37.2	2.4
	광주/전라/제주	468	2.5	10.0	36.3	39.9	11.4
	부산/울산/경남	555	6.6	8.5	30.1	50.0	4.8
	대구/경북	448	1.6	15.0	45.8	35.4	2.2
학력	고졸이하	1,098	5.6	14.5	39.0	37.8	3.1
	대학/대학원 재학	898	3.4	8.6	36.7	43.2	8.1
	대졸이상	1,524	3.3	8.7	34.0	46.5	7.5
주거형태	동거	2,194	4.3	10.8	36.8	41.5	6.7
	비동거/독립	1,326	3.5	9.7	34.9	46.1	5.7

261)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청년들이 인식하는 정치적 효능감 중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37.6%가 '그렇다'(그렇다 32.7%+매우 그렇다 4.9%)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 24.2%(전혀 그렇지 않다 7.6%+그렇지 않다 16.7%) 대비 높게 나타남

○ 2019년 대비 동의 비율(29.1%)이 8.5%p 상승, 비동의 비율(31.4%)이 7.2%p 하락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동의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29.8%)의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I-261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7	2,714	3.8	19.8	43.4	29.7	3.3
2018	3,133	4.7	20.6	43.7	27.3	3.7
2019	3,530	7.8	23.6	39.4	25.0	4.1
2020	3,520	7.6	16.7	38.2	32.7	4.9

표 II-261-1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520	7.6	16.7	38.2	32.7	4.9
성별	남자	1,855	7.6	16.0	38.7	32.9	4.7
	여자	1,665	7.5	17.4	37.7	32.4	5.1
연령	만18~19세	477	8.7	17.9	39.1	31.0	3.3
	만20~24세	1,095	8.1	16.4	39.1	32.7	3.7
	만25~29세	1,050	6.2	16.6	40.6	31.8	4.8
	만30~34세	898	8.1	16.6	34.4	34.1	6.7
지역	서울	676	5.7	12.5	35.6	37.7	8.4
	인천/경기	824	8.7	20.4	37.5	29.3	4.2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10.5	15.3	44.9	27.9	1.4
	광주/전라/제주	468	8.7	14.1	31.3	35.7	10.1
	부산/울산/경남	555	6.9	15.3	37.7	36.9	3.2
	대구/경북	448	2.9	20.5	45.2	30.2	1.1
학력	고졸이하	1,098	9.8	20.4	40.0	26.9	2.9
	대학/대학원 재학	898	5.3	15.6	38.9	35.7	4.5
	대졸이상	1,524	7.3	14.8	36.7	34.8	6.3
주거형태	동거	2,194	7.6	16.4	38.8	32.4	4.9
	비동거/독립	1,326	7.5	17.2	37.2	33.2	4.9

262) 청년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

○ 청년들의 사회·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 '청년들의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을 응답한 비율이 22.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청년기본법 시행 및 제도 활성화'(12.7%),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청년참여 활동비 지원'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청년들의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에 대한 응답은 경기/인천 지역(18.1%)에서 다른 지역 대비 비교적 낮은 편임

표 II-262 청년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1순위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019	2,948	18.3	12.1	5.9	7.3	10.0	7.2	12.5	17.7	7.9	1.1
2020	3,520	12.7	11.8	4.2	5.5	9.2	9.7	9.8	22.6	10.8	3.7

* 주 1) 2019년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020년 전체 응답

2) ①청년기본법 시행 및 제도 활성화 ②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 ③청년정책 전담부처 구성 ④청년참여 공간 확대 ⑤청년참여 활동비 지원 ⑥청년참여 지원정책의 예산 확대 ⑦청년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⑧청년들의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 ⑨청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⑩청년 할당제 도입

표 Ⅱ-262-1 청년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1순위(상위 5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청년들의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	청년기본법 시행 및 제도 활성화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	청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청년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전체		3,520	22.6	12.7	11.8	10.8	9.8
성별	남자	1,855	23.3	12.7	11.7	10.4	9.0
	여자	1,665	21.7	12.6	11.9	11.2	10.7
연령	만 18~19세	477	18.9	16.3	14.2	7.2	10.4
	만 20~24세	1,095	20.3	12.2	9.7	11.3	9.9
	만 25~29세	1,050	24.9	13.5	12.3	10.9	10.4
	만 30~34세	898	23.5	11.0	12.7	11.3	9.0
지역	서울	676	24.6	10.6	11.9	11.8	9.1
	인천/경기	824	18.1	14.7	13.6	12.2	9.8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25.9	10.6	10.1	9.4	9.3
	광주/전라/제주	468	25.3	15.6	11.8	10.2	9.0
	부산/울산/경남	555	22.3	11.9	10.7	10.1	11.1
	대구/경북	448	25.6	11.4	10.1	6.8	11.2
학력	고졸이하	1,098	22.6	12.1	10.7	9.2	10.4
	대학/대학원 재학	898	19.8	12.5	13.0	9.7	10.7
	대졸이상	1,524	23.8	13.1	11.9	12.3	9.0
주거형태	동거	2,194	22.2	12.8	12.3	10.7	10.1
	비동거/독립	1,326	23.1	12.5	11.0	10.8	9.4

표 Ⅱ-262-2 청년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1+2+3순위(상위 5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청년들의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	청년기본법 시행 및 제도 활성화	청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청년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전체		3,520	48.9	38.5	35.6	34.1	33.1
성별	남자	1,855	48.9	38.2	34.8	34.4	32.7
	여자	1,665	48.9	38.8	36.4	33.8	33.6
연령	만18~19세	477	46.9	38.3	37.9	30.4	34.9
	만20~24세	1,095	48.5	36.2	34.5	34.8	32.3
	만25~29세	1,050	49.6	39.3	35.0	34.5	31.8
	만30~34세	898	49.3	39.9	36.5	34.3	34.8
지역	서울	676	50.9	39.3	34.1	34.8	30.8
	인천/경기	824	44.3	35.9	39.3	37.0	32.6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52.9	38.0	32.0	36.1	31.3
	광주/전라/제주	468	46.4	45.3	36.6	30.6	36.0
	부산/울산/경남	555	48.8	40.0	34.2	30.9	34.1
	대구/경북	448	57.4	36.5	31.9	28.2	38.7
학력	고졸이하	1,098	49.5	36.9	34.2	31.3	32.7
	대학/대학원 재학	898	46.7	38.6	34.2	34.3	35.6
	대졸이상	1,524	49.6	39.4	37.1	35.8	32.2
주거형태	동거	2,194	48.3	39.0	34.6	34.4	32.7
	비동거/독립	1,326	49.9	37.7	37.3	33.6	33.9

263)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

○ 청년들에게 정책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고용’을 응답한 비율이 30.7%로 가장 높고, 이어서 ‘주거’(14.5%), ‘인구 및 가족’(11.6%), ‘경제’(11.6%) 등의 순임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 ‘진로 및 훈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음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고용’ 관련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47.2%로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263-1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1순위(상위 5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고용	주거	인구 및 가족	경제	진로 및 훈련
전체		3,520	30.7	14.5	11.6	11.6	10.7
성별	남자	1,855	31.3	14.6	11.1	12.2	11.2
	여자	1,665	30.0	14.3	12.3	10.9	10.1
연령	만18~19세	477	29.4	10.2	10.1	8.8	14.7
	만20~24세	1,095	31.0	11.2	9.8	13.9	11.7
	만25~29세	1,050	32.8	14.8	12.0	11.3	9.8
	만30~34세	898	28.3	18.8	13.6	10.4	9.3
지역	서울	676	30.6	17.5	9.7	12.7	9.2
	인천/경기	824	27.7	12.8	12.7	10.5	11.6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25.8	18.2	15.9	14.0	10.4
	광주/전라/제주	468	47.2	11.7	6.9	10.2	10.0
	부산/울산/경남	555	32.4	11.8	13.9	8.2	12.1
	대구/경북	448	27.8	14.8	7.5	15.6	9.8
학력	고졸이하	1,098	30.6	14.2	12.6	10.5	11.5
	대학/대학원 재학	898	28.7	10.9	9.7	15.3	11.2
	대졸이상	1,524	31.6	16.4	12.0	10.4	9.8
주거형태	동거	2,194	32.3	12.2	9.3	11.6	11.5
	비동거/독립	1,326	27.7	18.5	15.8	11.5	9.2

표 Ⅱ-263-2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1+2+3순위(상위 5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고용	주거	경제	진로 및 훈련	인구 및 가족
전체		3,520	64.4	55.8	41.8	34.4	31.8
성별	남자	1,855	63.5	56.3	42.2	35.2	31.7
	여자	1,665	65.5	55.2	41.3	33.5	32.0
연령	만18~19세	477	63.8	46.6	32.3	41.2	26.5
	만20~24세	1,095	65.8	53.8	43.7	36.3	27.2
	만25~29세	1,050	64.1	56.9	43.5	34.3	32.2
	만30~34세	898	63.7	59.7	41.3	30.3	37.8
지역	서울	676	67.2	60.3	43.9	35.4	27.8
	인천/경기	824	60.7	49.8	40.5	39.0	32.9
	대전/충청/세종/강원	549	64.3	57.7	43.9	29.0	36.7
	광주/전라/제주	468	74.9	59.2	37.1	32.3	28.4
	부산/울산/경남	555	61.1	54.0	41.6	32.6	36.9
	대구/경북	448	65.1	62.6	44.0	29.2	25.9
학력	고졸이하	1,098	61.9	54.0	40.9	35.1	33.8
	대학/대학원 재학	898	64.6	52.6	43.1	35.1	26.2
	대졸이상	1,524	65.9	58.5	41.8	33.6	33.3
주거형태	동거	2,194	64.8	53.2	40.8	37.2	28.2
	비동거/독립	1,326	63.8	60.4	43.6	29.5	38.3

부 록

1.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항목
2.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주요항목 상대표준편차
3.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
4.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지침서
5.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응답자 안내서

1.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항목

표 부록-1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항목

조사내용		문항번호	신규문항 여부
1. 인구와 가족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문1	
	원가정으로부터 독립 필요성 및 적정 독립 시기	문2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문3	
	자녀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	문4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양육 대책	문5	
	결혼 여부	문6	
	결혼 준비 경험 여부	문7	
	결혼 준비 시 망설인 경험	문7-1	
	결혼을 망설인 이유	문7-2	
	맞벌이 유무	문8	
	현재 자녀 존재 유무	문9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문10	
	2025년 출산율 전망	문11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문12	
	해위이주를 고려한 이유	문12-1	
2. 교육과 훈련	2025년 입시경쟁 전망	문13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	문14(1)~(3)	
	대학(교) 진학 경험 여부	문15	
	대학(교) 유형, 소재지, 전공계열, 졸업여부, 학년, 입학 및 졸업연월	문15(1)~(7)	
	대학 등록금을 마련한 방법	문16	신규
	학자금 대출 금액	문16-1	신규
	학자금 대출 상환 예상 시기	문16-2	신규
	졸업 요건 이수 후 유예 경험	문17	
	졸업 유예 위해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문18	
	졸업 유예 사유 및 미이수 사유	문19	
	대학교육 만족도	문20	
	향후 대학원 진학 의향	문21	

조사내용		문항번호	신규문항 여부
	대학원 학위과정	문21-1	신규
	대학원 재학상태	문21-2	
	대학 미진학 사유	문22	
	향후 대학 진학 의향	문23	
	고등학교 재학 경험	문24	
	고등학교 유형	문24-1	
	고등학교 재학 시 학교로부터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 제공 경험	문24-2	
	제공받은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문24-2-1	
	취업 준비 여부	문25	
	취업 준비 기간	문25-1	
	취업 준비 방법별 경험 여부	문26	
	취업 준비 지원 대상별 도움 여부	문27	
	취업 준비 지원 대상별 도움 정도	문27-1	
	취업 준비 지원 대상별 도움 내용	문27-2	
	도움을 받은 사설기관 월 이용 비용	문27-3	
	사설기관 외 취업준비 관련 월 이용 비용	문27-4	
	평일 기준 취업 준비 투자 시간	문27-5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문28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문29	
	향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교육 대책	문30	신규
3. 경제와 고용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문31	
	2021년 적정 최저 임금	문32	
	한달 본인 생활비(용돈) 정도	문33	
	한달 본인 생활비(용돈)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문33-1	
	갚아야 할 채무 여부	문34	
	채무 발생 사유	문34-1	
	대출을 받은 기관	문34-2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	문35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	문36	

조사내용		문항번호	신규문항 여부
	중소기업 취업 의향	문37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문37-1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문38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문39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문39-1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문39-2	
	중소기업 일자리 선호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점	문39-3	신규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문40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문41	
	지난주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	문42	
	항목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해당 여부	문43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중 가장 주된 이유	문43-1	
	학업,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 지속 기간	문44	
	구직활동을 한 기간	문45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문46	
	현재 본인의 월 평균 소득	문47(1)	
	본인이 원하는 월 평균 소득	문47(2)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문47(3)	
	지난주 더 많은 일 및 시간을 할 수 있는 직장 내에서 업무 가능 여부	문47-3-1	
	지난 4주 내 현재 일을 더 찾아보거나 다른 일(직장)을 찾아본 경험 여부	문47-3-2	
	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	문47(4)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문48	
	이직 의향	문49	
	이직 희망 사유	문49-1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경험 여부	문50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작)년도	문50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인지 및 참여 의향	문51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구직활동에 도움을 준 정도	문52	신규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경험 여부	문53	신규

조사내용		문항번호	신규문항 여부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시작)년도	문53	신규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인지 및 참여 의향	문54	신규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가 안정적 직장생활에 도움을 준 정도	문55	신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경험 여부	문56	신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인지 및 참여 의향	문57	신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구직활동에 도움을 준 정도	문58	신규
	이전 취업 경험	문59	신규
	이전 직정 채용 과정의 공정성	문60	신규
	취업 후 퇴사 및 해고 경험 여부	문61	
	가장 최근 일자리를 그만 둔 시기	문61-1	신규
	가장 최근 그만 둔 일은 몇 번째 일자리인지 여부	문61-2	신규
	가장 최근 그만 둔 일은 스스로 원해서 그만둔 것인지 여부	문61-3	신규
	(가장 최근 그만둔 일 기준) 그만둔 이유	문61-4	신규
	(가장 최근 그만둔 일 기준) 그만 둔 후 가장 어려웠던 점	문61-5	신규
	실업급여 인지 여부	문62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63	
	실업급여 미수급 이유	문63-1	
	직장내 괴롭힘 및 산업안전 관련 경험	문64	신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 및 대응 절차 유무	문65	신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고충처리 담당자 또는 담당 창구 유무	문66	신규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 또는 고충 처리 절차의 작동 여부	문67	신규
	직정 내 업무 관련 결정에 참여 또는 영향력 행사 여부	문68	신규
	직장 내 노사협의, 업무제안, 조직적응 제도 유무	문69	신규
4. 주거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문70	
	자가 소유에 대한 필요성	문71	
	자가 소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문71-1	신규

조사내용		문항번호	신규문항 여부
	자가 소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문71-2	신규
	지금의 집 값 수준에 대한 적정성	문72	
	부모 도움 없이 내 집 마련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12]	문73	
	공동주거 경험 여부	문74	
	공동주거 거주 의향	문75	
	부모 동거 여부	문76	
	미혼 혼자 거주 여부	문77	
	현재 주거 형태	문78	
	현재 거주 주택의 점유형태	문78-1	신규
	주거비용(주택구입비, 전세금) 마련 주체	문79	신규
	월세비용 마련 주체	문80	신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선택한 이유	문81	신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의 의미	문82	신규
	향후 주거 마련에 있어서 가장 고려하는 사항	문83	신규
	청년 주거 정책 관련 인지	문84(1)~(4)	신규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청년 주거 정책	문85	신규
5. 건강	주관적인 신체건강에 대한 인식	문86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문87	
	건강검진 수검 여부	문88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	문89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문90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	문91(1)~(5)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	문92(1)~(11)	
	규칙적인 운동 여부	문93	
	규칙적인 운동 빈도	문93-1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문94	
	성형수술 경험	문95	
	성형수술 목적	문95-1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문95-2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건강관련 정책	문96	신규

조사내용		문항번호	신규문항 여부
6. 가치관	가치 항목별 선호도	문97(1)~(4)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문98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문99	
7. 관계 및 참여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유무 및 수	문100	
	평소 외출 정도	문101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문101-1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문101-2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점심 기준)	문102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저녁 기준)	문103	
	기성세대 및 노인에 대한 생각	문104(1)~(7)	
	사회·정치 문제 의견 표명 행동별 참여 경험	문105(1)~(5)	
	사회·정치 문제 의견 표명 행동별 참여 의향	문106(1)~(5)	
	정치적 효능감	문107(1)~(3)	
	청년들의 사회·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문108	
	청년들에게 정책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	문109	신규

12) 2019년 이전년도까지는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의 부정문 형태로 질문하였으나 2020년도 조사 시에는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긍정문 형태로 질문함

2.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주요항목 상대표준편차

○ 본 조사의 목표 허용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2.9%p임

○ 아래는 주요 항목별 추정치의 전체 및 권역별 표준오차 및 상대표준편차(CV)를 설계효과 3.17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임

표 부록-2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주요항목 상대표준편차

문항 (단위)	분석 단위(권역)	추정값	모집단(명)	표준편차	표준오차	상대 표준편차 (CV)
아동 나이 최소 (세)	전체	4.219	11,400,350	2.252	0.001	0.028
	서울	4.482	2,426,385	2.014	0.002	0.051
	인천/경기	4.182	3,645,160	2.287	0.002	0.051
	대전/충청/세종/강원	3.966	1,580,752	2.286	0.003	0.082
	광주/전라/제주	4.059	1,135,746	2.318	0.004	0.095
	부산/울산/경남	4.167	1,584,693	2.468	0.003	0.084
	대구/경북	4.377	1,027,614	2.107	0.004	0.085
아동 나이 최대 (세)	전체	11.222	11,400,350	2.109	0.001	0.010
	서울	11.110	2,426,385	2.085	0.002	0.021
	인천/경기	11.384	3,645,160	2.057	0.002	0.017
	대전/충청/세종/강원	10.770	1,580,752	2.365	0.003	0.031
	광주/전라/제주	11.286	1,135,746	2.113	0.004	0.031
	부산/울산/경남	11.200	1,584,693	2.150	0.003	0.027
	대구/경북	11.571	1,027,614	1.684	0.003	0.026

문항 (단위)	분석 단위(권역)	추정값	모집단(명)	표준편차	표준오차	상대 표준편차 (CV)
청소년 나이 최소 (세)	전체	12.447	11,400,350	1.943	0.001	0.008
	서울	12.580	2,426,385	1.742	0.002	0.016
	인천/경기	12.594	3,645,160	1.873	0.002	0.014
	대전/충청/세종/강원	11.924	1,580,752	2.272	0.003	0.027
	광주/전라/제주	12.526	1,135,746	1.929	0.003	0.026
	부산/울산/경남	12.265	1,584,693	2.131	0.003	0.025
	대구/경북	12.614	1,027,614	1.608	0.003	0.022
청소년 나이 최대 (세)	전체	18.565	11,400,350	1.471	0.001	0.004
	서울	18.460	2,426,385	1.313	0.002	0.008
	인천/경기	18.613	3,645,160	1.453	0.001	0.007
	대전/충청/세종/강원	18.508	1,580,752	1.069	0.002	0.008
	광주/전라/제주	18.281	1,135,746	1.019	0.002	0.009
	부산/울산/경남	18.987	1,584,693	2.357	0.003	0.018
	대구/경북	18.388	1,027,614	0.744	0.001	0.007
청년 나이 최소 (세)	전체	19.605	11,400,350	1.492	0.001	0.004
	서울	19.532	2,426,385	1.341	0.002	0.008
	인천/경기	19.643	3,645,160	1.449	0.001	0.007
	대전/충청/세종/강원	19.579	1,580,752	1.166	0.002	0.008
	광주/전라/제주	19.301	1,135,746	1.041	0.002	0.009
	부산/울산/경남	20.008	1,584,693	2.388	0.003	0.017
	대구/경북	19.395	1,027,614	0.721	0.001	0.007

문항 (단위)	분석 단위(권역)	추정값	모집단(명)	표준편차	표준오차	상대 표준편차 (CV)
청년 나이 최대 (세)	전체	32.306	11,400,350	4.344	0.002	0.007
	서울	32.560	2,426,385	4.075	0.005	0.014
	인천/경기	32.244	3,645,160	4.688	0.004	0.014
	대전/충청/세종/강원	32.783	1,580,752	4.734	0.007	0.020
	광주/전라/제주	31.954	1,135,746	4.434	0.007	0.023
	부산/울산/경남	31.923	1,584,693	3.809	0.005	0.017
	대구/경북	32.170	1,027,614	3.569	0.006	0.019
가정으로부터 독립 적정 연령 (세)	전체	26.126	5,514,072	3.913	0.003	0.011
	서울	26.804	1,017,999	3.954	0.007	0.026
	인천/경기	26.602	1,717,512	3.733	0.005	0.019
	대전/충청/세종/강원	24.317	890,378	3.723	0.007	0.029
	광주/전라/제주	25.938	531,560	3.910	0.010	0.037
	부산/울산/경남	26.552	913,365	3.790	0.007	0.027
	대구/경북	25.707	443,259	3.964	0.011	0.041
결혼 적정 연령 (세)	전체	30.672	4,791,907	2.665	0.002	0.007
	서울	31.203	930,568	2.567	0.005	0.015
	인천/경기	30.439	1,529,913	2.733	0.004	0.013
	대전/충청/세종/강원	30.323	648,668	2.898	0.006	0.021
	광주/전라/제주	30.347	528,685	2.602	0.006	0.021
	부산/울산/경남	30.918	751,804	2.341	0.005	0.016
	대구/경북	30.863	402,269	2.628	0.007	0.024

문항 (단위)	분석 단위(권역)	추정값	모집단(명)	표준편차	표준오차	상대 표준편차 (CV)
첫 자녀를 갖는 적정 연령 (세)	전체	31.983	4,766,869	2.659	0.002	0.007
	서울	32.504	927,608	2.467	0.005	0.014
	인천/경기	31.706	1,539,892	2.691	0.004	0.012
	대전/충청/세종/강원	31.733	614,537	3.051	0.007	0.022
	광주/전라/제주	31.681	531,254	2.569	0.006	0.020
	부산/울산/경남	32.314	763,009	2.327	0.005	0.015
	대구/경북	31.996	390,570	2.770	0.008	0.025
2021년 최저 임금 (원)	전체	9346.305	11,400,350	888.925	0.469	0.005
	서울	9273.242	2,426,385	655.200	0.749	0.008
	인천/경기	9465.019	3,645,160	1041.929	0.972	0.010
	대전/충청/세종/강원	9416.648	1,580,752	905.540	1.282	0.014
	광주/전라/제주	9379.549	1,135,746	751.812	1.256	0.013
	부산/울산/경남	9098.138	1,584,693	850.324	1.203	0.013
	대구/경북	9335.465	1,027,614	856.850	1.505	0.016
한달 생활비 (만원)	전체	81.029	11,400,350	55.036	0.029	0.036
	서울	85.838	2,426,385	55.541	0.063	0.074
	인천/경기	84.444	3,645,160	58.993	0.055	0.065
	대전/충청/세종/강원	76.181	1,580,752	51.758	0.073	0.096
	광주/전라/제주	64.252	1,135,746	42.466	0.071	0.110
	부산/울산/경남	82.236	1,584,693	53.209	0.075	0.092
	대구/경북	81.703	1,027,614	55.217	0.097	0.119
어려울 때 의지 하는 지인 수 (명)	전체	4.877	10,999,027	3.250	0.002	0.036
	서울	4.966	2,382,090	3.144	0.004	0.073
	인천/경기	4.813	3,487,539	3.239	0.003	0.064
	대전/충청/세종/강원	4.813	1,509,065	3.241	0.005	0.098
	광주/전라/제주	4.921	1,093,050	3.427	0.006	0.119
	부산/울산/경남	5.127	1,530,750	3.690	0.005	0.104
	대구/경북	4.556	996,532	2.508	0.004	0.098

*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3.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

승인번호
제 402004 호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에 따라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각각의 조사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활실태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조사기준일(2020년 6월 1일) 현재 만18세~만34세(1985년 6월 2일~2002년 6월 1일)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아래 사항은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면접원 ID		면접원 이름		응답자 이름	
조사구 일련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주소(구/동)	시/도 구/시/군 동/읍/면			S.V 최종확인	
응답자 연락처	( ) - ( ) - ( )		생년월일	년 월 일	
주택 유형	1. 단독 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적을 것 : _____)				

구 분	남 성		여 성		합 계	
총 가구원 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가구원 수						
가구당 조사표 부수	조사대상 가구원 수 총 ( )부 중 ( )부 진행					

※ 조사원: 동일 가구인 경우라도 모든 설문지 표지에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미진행 가구원 사유		유치조사 진행 여부 ※ 해당되는 모든 내용에 표시	① 직접 만나서 조사 ② 설문 회수 시 만남 ③ 회수 후 전화로 응답확인 ④ 유치조사

조사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조사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주)한국리서치 / 조사문의 김수진: 02-3014-0982 이동휘: 02-3014-0995 장희숙: 02-3014-0120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귀하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귀하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이해가 되시지 않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면접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하는 방법1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표로 구성된 질문은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표시하는 방법2

숫자를 기입해야 할 때는 박스 안에 한 자리씩 기입해 주세요.

<보기2>

문A.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1 0 명)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3>과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3>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	④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4>

문B.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B-1로 이동** ② 없다 ➡ **문C로 이동**

☞ 나는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어서 '①' 에 표시한 후, <u>문 B-1로 이동해서 응답</u>합니다.

♣ 설명문 반드시 참고

질문 아래 설명문(응답 기준, 용어 설명 등)이 있는 경우, 설명문을 읽고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보기5>

문C.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 **문C-1로 이동** ② 없다 ➡ **문D로 이동**

Ⅰ. 먼저 「인구와 가족」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 동 : 만 [ ][ ] 세 ~ 만 [ ][ ] 세
- 청소년 : 만 [ ][ ] 세 ~ 만 [ ][ ] 세
- 청 년 : 만 [ ][ ] 세 ~ 만 [ ][ ] 세

문2) 귀하는 몇 세부터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만 [ ][ ] 세 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독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3)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만 [ ][ ]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4) 귀하는 몇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만 [ ][ ]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5) 귀하는 다음의 출산·양육 대책 중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 * 아동수당이란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함
* 온종일 돌봄체계란 학교 내 돌봄교실 및 지역사회 다함께 돌봄 등 초등학생 대상 돌봄 수요의 대응체계를 의미함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② 출산 장려금 확대
③ 출산 휴가 장려 및 출산 휴가 급여 보장
④ 육아 휴직 장려 및 육아 휴직 급여 확대
⑤ 임신·출산기 근로시간 단축
⑥ 육아·돌봄기 근로시간 단축(자녀돌봄 휴가 확대)
⑦ 배우자 육아 참여 확대(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확산)
⑧ 아동수당 지원 확대
⑨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
⑩ 가정 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⑪ 온종일 돌봄체계의 안정적 정착(학교, 지역사회)
⑫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⑬ 기타(적을 것 : _____)

문6) (2020년 6월 1일 기준) 귀하는 결혼하셨습니까?

① 배우자 있음
② 사별·이혼
③ 결혼하지 않음

문7) (2020년 6월 1일 기준) 귀하는 결혼을 준비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8로 이동**

문7-1)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망설인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8로 이동**

문7-2) 결혼을 망설인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결혼비용 때문에(주택마련, 혼수비용) ②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
③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④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⑤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⑥ 기타( )

문8) (2020년 6월 1일 기준) 귀하의 가정은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있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맞벌이) ② 아니오(외벌이)

문9) (2020년 6월 1일 기준)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있다면 자녀가 몇 명입니까? [ ][ ]명) ② 아니오

문10) 귀하는 자녀를 가지실 의향이 있습니까?

☞ 이미 자녀가 있으신 경우, 향후에 추가로 자녀를 가지실 의향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 **문11로 이동** ② 아니오

문10-1) 위 문10)에서 ②아니오라고 답하신 경우, 자녀를 가지실 의향이 없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이미 계획한 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② 불임, 난임 등 임신의 어려움 때문에
③ 맞벌이로 인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④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⑤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때문에
⑥ 자녀가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⑦ 기타 ( )

문11) 귀하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② 출산율이 유지될 것이다　③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

문12)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교육 및 훈련」영역(문13)으로 이동**

문12-1) 해외이주를 고려하셨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자기계발을 위해서　②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③ 행복한 삶을 위해서　④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⑤ 취업이 어려워서　⑥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⑦ 빈부격차가 커서　⑧ 집값이 너무 비싸서
⑨ 안보가 불안해서　⑩ 기타(적을 것 : _____)

II. 다음은 「교육 및 훈련」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3) 귀하는 우리나라 입시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14) 귀하는 다음 우리 사회의 교육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15) 귀하는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습니까?(대학교 졸업, 중퇴, 재학, 휴학이신 경우 모두 '① 있다' 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다 ② 없다 ➡ **문22로 이동**

문15-1) **가장 최근에 진학한 2-3년제 및 4-6년제 대학(대학원은 포함되지 않음)**의 학교유형, 소재지, 전공계열, 입학년월, 졸업여부, 학년, 졸업년월을 응답해 주십시오.

학교유형	학교 소재지 (• 보기1 참조)	전공계열 (• 보기2 참조)	(편)입학년월	졸업여부	학년 (4학년 이상인 경우, 4학년에 응답)	졸업년월 (졸업한 경우 응답)
① 전문대 (2-3년제) ② 대학교 (4-6년제)			년 월	① 졸업 ➡ 졸업년월 ② 재학 ➡ 학년 ③ 휴학 ➡ 학년 ④ 중퇴 ➡ **문16**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년 월

• 보기1(소재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⑱ 기타(해외 등)

• 보기2(전공계열)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경상계열 제외) ③ 경상계열 ④ 자연계열 ⑤ 공학계열
⑥ 의/약학계열 ⑦ 교육계열 ⑧ 예체능계열 ⑨ 사관학교, 경찰대 ⑩ 기타

문16) 귀하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한 가장 주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 "대학 등록금"은 문15)에서 응답한 전문대(2-3년제) 또는 대학교(4-6년제)를 다니기 위해 지불한 등록금을 의미하며, 대학원은 포함되지 않음
☞ "학자금 대출"은 생활비, 주택 등을 위한 대출은 제외하고 "학자금 대출"이라는 이름이 붙는 금융상품의 이용뿐만 아니라, 학자금의 지불을 위하여 각종 기관 및 개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를 모두 포함

① 국가 장학금 ➡ 문17로 이동
② 민간 장학금 ➡ 문17로 이동
③ 학자금 대출 ➡ 문16-1로 이동
④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의 지원 ➡ 문17로 이동
⑤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스스로 마련 ➡ 문17로 이동
⑥ 기타 ( ) ➡ 문17로 이동

➡ ※ 위 문16에서 '③ 학자금 대출'을 선택한 분들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16-1) 귀하의 총 학자금 대출 금액은 얼마입니까?

( )만원

문16-2) 귀하는 학자금 대출을 언제쯤 모두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① 이미 모두 상환했다. ② 향후 1년 이내
③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④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⑤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⑥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⑦ 향후 10년 이상 ⑧ 상환하지 못할 것 같다.

※ 다음(문17~문21-2)은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거나 다니시는 분들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17) 대학 시절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춘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18) 대학 시절 졸업을 늦추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17과 문18 모두 '② 아니오' 인 응답자는 문20으로 이동**

문19) (문17에 ① 또는 문18에 ① 응답자만) 대학 시절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추거나 졸업을 늦추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
②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③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
④ 경제적으로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⑤ 문화 및 여가생활을 누리기 위해
⑥ 기타(적을 것: _____)

문20)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학교육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가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21) 귀하는 추후 대학원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 대학원에 진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 '③대학원에 진학을 하였다' 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 **문24로 이동** ② 아니오 ➡ **문24로 이동** ③ 대학원에 진학을 하였다

문21-1) 대학원에 진학하셨다면 최종 또는 현재 학위과정은 무엇입니까?

① 석사과정 ② 박사과정 ③ 석·박사 통합과정

문21-2)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십니까?

※ 대학원을 중퇴한 경우에는 '② 휴학' 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재학 ② 휴학 ③ 수료 ④ 졸업

➡ **응답 후 문24로 이동**

※ 다음(문22~문23)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분(고졸 이하 및 재수생 등 비진학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22) 귀하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②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③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④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⑤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⑥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23) 귀하는 추후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24) 귀하는 고등학교를 다니셨습니까?(혹은 다니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문25로 이동**

문24-1) 다니셨던(혹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일반고　　② 자율형고
③ 특성화고(공고, 상고, 실업고, 전문계고 등)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특목고)
⑤ 과학/영재고(특목고)　　⑥ 외국어/국제고(특목고)
⑦ 예술/체육고(특목고)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24-2) 고등학교 재학 시 다음의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찾아 개인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문24-2-1)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 항	문24-2)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험	문24-2-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로, 직업, 취업 상담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2) 진로와 직업 수업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3) 진로, 직업 체험(현장 견학, 현장 직업체험, 직업실무 체험, 캠프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4) 학과, 전공 체험(대학교 방문, 학과 및 전공 체험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 진로, 직업 특강강의 및 설명회박람회 참석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6) 취업처 연계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 다음(문25~문30)은 모든 대상자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25) 귀하는 지난주(2020년 5월25일~5월31일)에 주로 취업준비를 하셨습니까?

☞ 취업준비란 구직, 이직, 창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탐색 이상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준비, 취업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도 취업준비에 포함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28로 이동**

문25-1) 귀하는 취업을 얼마동안 준비하셨습니까?

( ) 년 ( )개월 (예: 6개월 일 경우 0년 6개월)

문26) 귀하는 취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였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문 항	취업준비 경험	
(1)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통학을 통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① 예	② 아니오
(2) 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① 예	② 아니오
(3) 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토익, 토플 등 준비(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4) 해외 연수, 어학 연수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5) 면접 훈련(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6) 자소서 작성 훈련(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7) 취업전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	① 예	② 아니오
(8) 현장실습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9)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① 예	② 아니오
(10) 인턴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1) 봉사활동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2) 동아리, 스터디 활동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3)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① 예	② 아니오

문27)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문27-1)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 항	문27) 도움 받은 경험	문27-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 친구, 선후배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 **문27에서 도움 받은 경험이 모두 ② 아니오 인 경우는 문27-4로 이동**

문27-2)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로부터 주로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
(문27에서 '예' 라고 응답한 항목만 선택하여 응답)

문 항	정보 제공	교육/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기타 (구체적으로)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5) 친구, 선후배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6) 기타 (구체적으로_____)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 **(3) 사설기관 문항에 응답한 자는 문27-3으로 이동, 아닌 경우는 문27-4로 이동**

문27-3) (문27-2에서 (3)번 항목 응답자만) 귀하가 도움을 받은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을 이용하는데 월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셨습니까?

약 [ ][ ][ ][ ][ ] 만원

문27-4)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에 지불한 비용을 제외하고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교재, 도서 구입 등 취업준비를 위해 월 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셨습니까?(중 · 고등학교 및 대학(원)교의 정규 수업료 및 등록금 제외)

약 [ ][ ][ ][ ][ ] 만원

문27-5) 취업 준비를 위해 평일 하루에 투자한 시간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십니까?

1일 평균 약 [ ][ ] 시간

문28)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 ☞ 시험 준비는 학교 재학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시험 준비를 의미하며, 공단(공사) 내부의 진급 시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있다　　② 없다

문29) 귀하는 향후 직업 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 ☞ 직업훈련은 취업 및 창업 준비,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 및 훈련과 인턴 근무 등도 포함합니다. 단순한 취미활동을 위한 학원수강과 정규학교교육과 관련된 학원수강 및 실습(교생실습, 사회복지사 실습, 병원실습 등)은 제외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③ 이미 받고 있다

문30) 귀하는 다음 교육 대책 중 정부가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학 장학금 지원정책(국가장학금 등)
②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정책
③ 청년 진로관련 정책(진로상담, 진로교육 등)
④ 청년 직업교육 정책(취업지원센터, 일학습병행제 등)
⑤ 청년 인재양성 정책(청년인재 집중양성, 이공계 미취업자 산업맞춤 연수 등)
⑥ 기타 (적을 것: _____)

III. 다음은 「경제와 고용」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31)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분위기 좋은 회사
② 급여가 높은 회사
③ 유명한 회사
④ 안정적인 회사
⑤ 퇴근이 빠른 회사
⑥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⑦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⑧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32) 귀하는 2021년도 최저 임금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 실제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 2019년은 8,350원, 2020년은 8,590원이며, 전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청년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2020년도 최저 임금 평균은 9,202원입니다.

시간급 [ ][ ][ ][ ][ ] 원

문33)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을 제외한 본인 생활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 생활비 포함 내용: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오락, 문화생활, 도서구입 등),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도서 등 자료 구입비, 주거비 등

약 [ ][ ][ ][ ][ ] 만원

문33-1) 생활비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약 [ ][ ][ ] %

문34) 귀하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학자금 대출 포함)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35으로 이동**

문34-1)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채무가 발생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

① 학자금 마련　　② 주거비 마련(전·월세자금 대출 등)
③ 생활비 마련(식비, 의료비 등)　　④ 창업 자금 마련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34-2) 귀하는 어느 기관을 통해 돈을 빌리셨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은행　② 제2금융권　③ 대부업체　④ 기타(적을 것: _____)

문35) 귀하는 **지난 1년간(2019년 6월-2020년 5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재 부모님 및 친척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주거비용 및 냉/난방비 지출에 대해 본인이 모를 경우만 (1), (2)에 '⑨ 잘 모름' 에 체크)

구 분	예	아니오	잘 모름
(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①	②	⑨
(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①	②	⑨
(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①	②	
(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①	②	
(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①	②	
(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문36)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사회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기성세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37) 귀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현재 귀하의 취업상태와 상관없이, 귀하가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 **문38로 이동**　　② 아니오

문37-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②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이 부재
③ 고용 불안정　　④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⑤ 낮은 급여 수준　　⑥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⑦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없음　　⑧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 수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38) 창업을 해 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창업을 생각해보았고 실제로 창업을 했다
② 창업을 생각해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 본 적은 없다
③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문39) 귀하는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개인, 교육)과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일자리, 경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노동공급: 교육 및 직업훈련 등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취업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
* 노동수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

① 노동공급(개인, 교육)　　② 노동수요(일자리, 경제)

☞ 문39의 응답 결과와 상관없이 문39-1, 문39-2, 문39-3을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9-1) 노동공급(개인, 교육)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
②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일과 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③ 고학력화로 인한 대졸자 과다 배출 억제
④ 청년들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
⑤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선호도(청년 눈높이) 완화
⑥ 청년들의 능력 향상과 핵심역량 수준 제고
⑦ 미취업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수당, 배당, 급여 지급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39-2) 노동수요(일자리, 경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
② 공공부문 채용 확대
③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④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
⑥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⑦ 해외취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39-3) 청년층의 중소기업 일자리 선호도 개선을 위해 어떤 점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임금수준 향상
② 정규직 고용 확대
③ 유급휴가,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등 복리후생 개선
④ 근로시간 준수
⑤ 민주적 의사소통 문화 정립
⑥ 자기개발 기회 제공
⑦ 기타 (적을 것: _____)

문40) 귀하는 지난주(2020년 5월25일~5월31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셨습니까?

*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 한 경우도 '일을 하였음'입니다.

① 일을 하였음 ➡ **문40-1로 이동**
② 휴가 및 일시 휴직 ➡ **문40-1로 이동**
③ 일을 하지 않았음 ➡ **문41로 이동**

문40-1) 지난 주(2020년 5월25일~5월31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거나 현재 휴가 및 일시 휴직 상태인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취업자: 지난 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가족사업체 및 농장에서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근무, 휴가, 휴직 등의 사유로 직장은 있었지만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취업자에 포함됩니다.

구분	내용	
(1) 종사상 지위	① 임금 근로자	② 비임금 근로자
(2) 고용형태	① 정규직(상용근로자) ②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용역 등)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3) 근로시간 유형	① 전일제 ② 시간제	
(4) 직장 유형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② 외국인회사 ③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기업 ④ (재단, 사단)법인단체 ⑤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⑥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⑦ 기타 (_____)	
(5) 종사자 수 (아래 사업체 기준 참고)	① 1-4인 ③ 10-29인 ⑤ 100-299인 ⑦ 500인 이상	② 5-9인 ④ 30-99인 ⑥ 300-499인
(6) 근속년수 (현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	☐☐ 년 ☐☐ 개월	

(7) 현재 직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의 직무 수준은

(7-1) 나의 교육수준보다	① 낮다	② 유사하다	③ 높다
(7-2) 나의 기술수준보다	① 낮다	② 유사하다	③ 높다
➡ **(7-3)번은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분(문15 '① 있다' 응답)만 응답해 주십시오.**			
(7-3) 나의 전공분야와 (**대학진학 경험자)	① 일치한다	② 불일치한다	

☞ **사업체**란 기업체보다 작은 단위의 개념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부여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일하고 있는 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은행 △△동 지점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체인 ○○은행 전 사원 수 15,000명 기준이 아닌 △△동 지점의 인원 수 20명을 기준으로 응답해야 함

➡ **응답 후 문46으로 이동**

문41) 귀하는 지난4주(2020년 5월 4일~5월 31일) 내에 직장(일자리)을 구해 보았습니까? (창업준비도 포함됩니다.)

① 직장을 구해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 **문45으로 이동**

②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 **문42로 이동**

③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 ➡ **문43으로 이동**

문42) 귀하는 지난주(2020년 5월 25일~5월 31일)에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육아나 돌봄, 출산, 가사 활동으로 인해

②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③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 **문50으로 이동**

④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⑤ 진학 준비 중이어서

⑥ 취업 준비 중이어서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응답 후 문45으로 이동**

문43) 다음의 각 항목이 지난주(2020년 5월 25일~5월 31일)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해당되는지 응답해 주세요.

구 분	예	아니오
(1)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①	②
(2)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①	②
(3) 여행이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위해서	①	②
(4)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①	②
(5)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	①	②
(6)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①	②
(7)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①	②
(8) 입시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①	②
(9)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진학준비 중이어서	①	②
(10)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이어서	①	②
(11)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준비 중이어서	①	②
(12) 군 입대 대기 중이어서	①	②
(13) 학교와 학원 입학 혹은 직업훈련기관 통학 대기 중이어서	①	②
(14)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	①	②
(15)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①	②
(16)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①	②
(17)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문43-1) 위의 항목에서 '예'로 응답한 항목 중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나만 선택)

(　　) 번 ➡ **문43-(7)에 '①예'를 선택한 경우 문50으로 이동, 그 외 번호는 문44로 이동**

문44) 귀하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선택(V)	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
(1) 1개월 미만 (　　)	(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2) 1개월 이상 (　　)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3) 1년 - 2년 미만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4) 2년 이상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2년 6개월)

➡ **응답 후 문50으로 이동**

문45) 귀하가 구직활동을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가장 최근 구직활동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선택(V)	구직활동 기간
(1) 1개월 미만 (　　)	(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2) 1개월 이상 (　　)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3) 1년 - 2년 미만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4) 2년 이상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2년 6개월)

➡ **응답 후 문50으로 이동**

※ 다음(문46~문49-1)은 **취업자 및 지난 1주간(2020년 5월25일-5월31일)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또는 휴가, 일시 휴직 상태인 경우(문40 '① 일을 하였음', '② 휴가 및 일시 휴직'인 경우)** 응답해 주십시오.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자영업,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 사업체 운영, 프리랜서 등) 모두 응답대상에 포함됩니다.

문46) 귀하가 현재(2020년 6월 1일 기준) 종사하고 있는 일은 다음 중 어느 직업에 해당합니까?

☞ 세부 직업에 대한 분류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직업군인
⑪ 기타(자세히 적을 것 : _____)

문47) 현재(2020년 6월 1일 기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실제로 얻는 세후 기준 월 평균 소득과 귀하가 원하는 월 평균 소득, 실제로 일하는 노동시간, 귀하가 원하는 주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1) 현재 본인의 월 평균 소득 : 약 [ ] 만원

(2) 본인이 원하는 월 평균 소득 : 약 [ ] 만원

(3)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 약 [ ] 시간

➡ **주당 35시간 미만일 경우 문 47-3-1로 이동, 35시간 이상일 경우 '(4)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으로 이동**

문47-3-1) 귀하는 지난주(2020년 5월 25일~5월 31일)에 일이 더 주어졌거나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직장)이 주어졌다면 할 수 있었습니까?

① 있었음 ② 없었음

문47-3-2) 귀하는 지난 4주(2020년 5월 4일~5월 31일) 동안 더 많은 시간 일하기 위해 현재 하는 일을 더 찾아보거나 다른 일(직장)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었음 ② 없었음

(4) 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 : 약 [ ] 시간

문48) 직장(일자리)에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② 받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받고 있는 편이다
⑤ 충분히 받고 있다

문49) 현 직장(일자리)을 그만두고 이직할 의향이 있습니까? (창업 준비, 업종 변경 등도 이직 준비에 포함됩니다.)

① 있다 ② 없다 ➡**문50으로 이동**

문49-1)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② 개인발전/승진
③ 더 나은 근무환경(직장상사, 동료, 식대, 출퇴근 시간/거리 등)
④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⑤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⑥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⑦ 개인 사업을 위해서
⑧ 건강상의 이유로
⑨ 집안사정 때문에(육아, 가사부담 등 포함)
⑩ 기타(적을 것 : _____)

※ 다음의 문항들은 전체 대상자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문50) 귀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취업성공패키지는
- **만18-34세 고등학교 이하 졸업 비진학 미취업청년, 대학교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대학교 및 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진단을 포함해 **1년간 단계별로 통합적 취업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 참여기간동안 참여수당(20~25만원)을 지원하며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하고 있다 ➡ 문52으로 이동
②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시작)년도: 년) ➡ 문52으로 이동
③ 참여한 적이 없다

문51) 귀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알고 계시고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참여할 의향은 있었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는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로 응답해 주세요.

①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③ 모른다

➡ 응답 후 문53으로 이동

문52)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는 귀하의 구직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50에서 ① 참여하고 있다와 ② 참여한 적이 있다에 응답한 분들만 응답하세요)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았(는)다
② 별로 도움 되지 않았(는)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도움이 되었(된)다
⑤ 많은 도움이 되었(된)다

문53) 귀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 -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지 6개월 이내인 만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 - 2~3년간 300~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 매칭으로 1,600~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 -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지 6개월이 넘은 청년이** 5년 근속 시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① 참여하고 있다 ➡ **문55로 이동**

②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년도: 년) ➡ **문55로 이동**

③ 참여한 적이 없다

문54) 귀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알고 계시고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참여할 의향은 있었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는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로 응답해 주세요.

①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③ 모른다

➡ **응답 후 문56으로 이동**

문55)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는 귀하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53에서 ① 참여하고 있다와 ② 참여한 적이 있다에 응답한 분들만 응답하세요)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⑤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문56) 귀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습니까?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 - **졸업, 중퇴후 2년 이내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미취업 청년(18~34세)을 대상**으로
>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시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클린카드 포인트(취업준비 관련 업종에서 사용가능)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지원 신청은 고용노동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① 지원받고 있다. ➡ **문58로 이동**
② 지원받은 적이 있다. ➡ **문58로 이동**
③ 지원받은 적이 없다.

문57) 귀하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알고 계시고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참여할 의향은 있었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는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로 응답해 주세요.

①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③ 모른다

➡ **응답 후 문59로 이동**

문58)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귀하의 구직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⑤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문59) (2020년 6월 1일 기준) 귀하는 이전에 취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면 '예' 에 응답)

① 예 ② 아니오 ➡ 「추가」 영역(문70)으로 이동

문59-1) 귀하께서 가장 최근 그만둔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임금근로자 ➡ 문60으로 이동

② 비임금근로자 ➡ 문61로 이동

문60) 귀하는 이전 직장 채용 과정이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
② 공정하지 않은 편이었다
③ 보통이다
④ 공정한 편이었다
⑤ 매우 공정했다

문61) 귀하는 취업 후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②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로 응답 해 주세요.

①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
②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③ 둘 다 경험한 적이 있다
④ 둘 다 경험한 적이 없다 ➡ 「추가」 영역(문70)으로 이동

문61-1) 가장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시기는 언제입니까?

| | | | | 년 | | | 월

➡ 가장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시기가 2017년~2020년 인 경우 문61-1-1로 이동, 그 외 기간인 경우 문61-2로 이동

문61-1-1) **2017~2020년 이내 그만 둔 일자리 중 가장 최근 그만둔 직장(일자리)**에 관해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가족사업체 및 농장에서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일을 했던 일 중 **가장 최근 그만둔 직장**에 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내용	
(1) 그만둔 직장 종사상 지위	① 임금 근로자	② 비임금 근로자
(2) 그만둔 직장의 고용형태	① 정규직(상용근로자) ②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용역 등)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3) 그만둔 직장의 근로시간 유형	① 전일제 ② 시간제	
(4) 그만둔 직장의 유형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② 외국인회사 ③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기업 ④ (재단, 사단)법인단체 ⑤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⑥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⑦ 기타 (_____)	
(5) 그만둔 직장의 종사자 수 (이래 사업체 기준 참고)	① 1-4인 ③ 10-29인 ⑤ 100 299인 ⑦ 500인 이상	② 5-9인 ④ 30-99인 ⑥ 300 499인
(6) 그만둔 직장의 근속년수	□□ 년 □□ 개월	
(7) 그만둔 직장의 주당 근로시간	약 □□ 시간	
(8) 그만둔 직장의 월 소득	약 □□□□□ 만원	
(9) 그만둔 직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의 직무 수준은		
(9-1) 나의 교육수준보다	① 낮다 ② 유사하다 ③ 높다	
(9-2) 나의 기술수준보다	① 낮다 ② 유사하다 ③ 높다	
➡ **(9-3)번은 대학(교)를 졸업한 분(문15-1 대학(교) 졸업여부 ① 졸업)만 응답해 주십시오.**		
(9-3) 나의 전공분야와 (**대학졸업 이상)	① 일치한다 ② 불일치 한다	

☞ **사업체**란 기업체보다 작은 단위의 개념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부여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일하였던 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우리은행 삼성동 지점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체인 우리은행 전 사원 수 15,000명 기준이 아닌 삼성동 지점의 인원 수 20명을 기준으로 응답해야 함

문61-2) 가장 최근 그만둔 일은 몇 번째 일자리였습니까?

① 첫 번째
② 두 번째
③ 세 번째
④ 네 번째 이상

문61-3) 가장 최근 그만둔 일은 스스로 원해서 그만둔 것이었습니까?

☞ 고용계약의 종료, 업체의 폐업, 해고 등은 ② 아니다에 응답 하시면 됩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문 61-5로 이동

문61-4) 그 일을 그만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② 개인발전/승진
③ 더 나은 근무환경(직장상사, 동료, 식대, 출퇴근 시간/거리 등)
④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⑤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⑥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⑦ 개인 사업을 위해서
⑧ 건강상의 이유로
⑨ 집안사정 때문에(육아, 가사부담 등 포함)

문61-5) 그 일을 그만둔 후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웠던 점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비 부족
② 재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의 부족
③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부족
④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기회 부족
⑤ 이전 직장경력으로 인한 재취업 과정에서의 차별
⑥ 창업을 위한 자금조달 등 어려움
⑦ 가족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 부족
⑧ 기타(적을 것 : _____)
⑨ 특별히 없었음

문62) 직장을 그만두었을 당시,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64로 이동**

문63) 귀하는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문64로 이동** ② 아니오

문63-1)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②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③ 절차가 복잡해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④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혜택이 크지 않아서
⑤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문64번~문69번 문항은 **현재(2020년 6월 1일 기준)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문40번의 ①, ② + 문40-1-1번의 ① 응답자) 혹은 2017년~2020년 사이에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임금근로자(문59번의 ① 응답자 + 문61번의 ①, ②, ③ + 문61-1번의 2017~2020년 응답자)**만 응답하는 문항입니다. **아래 표를 참조 하시어 시 확인 후 진행 해 주십시오.**

대상	대상 조건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 (2가지 조건 모두 해당)	문40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험 문항 → ① 일을 하였음 또는 ② 휴가 및 일시 휴직 응답
	문40-1-(1) 현재 일자리 종사상 지위 → ① 임금근로자 응답
2017~2020년 사이에 그만둔 경험이 있는 임금근로자 (3가지 조건 모두 해당)	문59 이전에 취업한 경험 → ① 예 응답
	문61-1 가장 최근에 일자리를 그만둔 시기 → 2017년 ~ 2020년 사이 응답
	문61-1-1-(1) 그만둔 직장 종사상 지위 → ① 임금근로자 응답

➡ **위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문64로 이동,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70으로 이동**

문64) 귀하는 (현재 또는 직전)직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취업자는 현재 직장, 미취업자는 가장 최근 그만둔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근로자의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업무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9)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10)의 '위험한 근로환경', 이란, 기계 등의 진동, 심한 소음,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 실내/실외에 관계없이 낮은 온도, 연기, 먼지(목분진, 광물 분진 등) 등의 흡입, 신너 등 유기용제 증기 흡입, 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 다른 사람이 피는 담배연기, 폐기물, 체액, 실험물질 등 감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취급하거나 직접 접촉하는 경우를 의미함.

	문 항	있다	없다	모르겠다
직장내괴롭힘	(1) 고용주, 직장상사 측은 동료가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떠넘겼다.	①	②	⑨
	(2) 고용주, 직장상사 측은 동료가 나에게 소리치거나 화를 내거나 모욕적인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①	②	⑨
	(3) 고용주, 직장상사가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암묵적·직접적으로 강요하였다.	①	②	⑨
	(4) 고용주, 직장상사 측은 동료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였다.	①	②	⑨
	(5) 교육·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 대우 등에서 나를 다른 동료들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였다	①	②	⑨
	(6)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요구할 수 없도록 암묵적·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내 요구를 무시하였다(병가, 휴가, 휴직, 교육훈련 등)	①	②	⑨
	(7) 나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행동을 했다 (이메일, 메시지, 전화 포함/성적 농담, 성추행 등 포함)	①	②	⑨
	(8) 고용주, 직장상사 측은 동료가 업무 외의 대화나 식사, 모임 등에서 나를 조직적으로 제외하였다.	①	②	⑨
산업안전	(9) 회사로부터 업무수행 중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인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측은 교육을 받았다.	①	②	⑨
	(10) 나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근로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다.	①	②	⑨
	(11) 업무수행 중 업무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다친 적이 있다.	①	②	⑨
	➡ **(11)번에 ①있다 로 응답한 경우 (12)번을 응답, ②없다, ⑨모르겠다로 응답한 경우 문65로 이동**			
	(12) 산업재해보험 급여(병원비,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보상금 등)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⑨

문65) 귀하의 (현재 또는 직전)직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이나 대응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취업자는 현재 직장, 미취업자는 가장 최근 그만둔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① 있다
②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거나 곧 만들 예정이다
③ 관련 정책이나 규정이 없다
④ 모르겠다

문66) 귀하의 (현재 또는 직전)직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상담하거나 고충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담당자 또는 담당 창구가 있(었)습니까?
(취업자는 현재 직장, 미취업자는 가장 최근 그만둔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문67) 귀하의 (현재 또는 직전)직장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의 상담 또는 고충 처리 절차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취업자는 현재 직장, 미취업자는 가장 최근 그만둔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① 나의 직장에서 직장 괴롭힘이 발생한 적이 없다
② 나의 직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한 적은 있지만 직장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③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직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였다
④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⑤ 모르겠다

문68) 귀하는 (현재 또는 직전)직장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취업자는 현재 직장, 미취업자는 가장 최근 그만둔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1) 나의 업무 내용이나 방법	①	②	③	④	⑤	⑨
(2) 나의 업무일정(휴식, 초과근무, 휴가 등)	①	②	③	④	⑤	⑨
(3) 내가 속한 팀(부서, 작업반 등)의 업무 목표	①	②	③	④	⑤	⑨
(4) 내가 속한 팀(부서, 작업반 등)에 필요한 훈련	①	②	③	④	⑤	⑨
(5) 함께 일할 신입사원의 채용	①	②	③	④	⑤	⑨
(6) 나의 임금 인상	①	②	③	④	⑤	⑨
(7) 나의 복리후생	①	②	③	④	⑤	⑨
(8) 사업장의 산업안전 기준의 설정 혹은 관리	①	②	③	④	⑤	⑨

문69) 귀하의 (현재 또는 직전)직장에는 다음과 같은 조직 혹은 제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취업자는 현재 직장, 미취업자는 가장 최근 그만둔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 **노사협의회**란?
노동자 대표와 고용주 대표가 각각 동수로 구성된 기구로, 3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생산성 향상 및 성과배분, 근로자의 채용·배치, 교육훈련, 고충처리, 작업환경개선과 노동자의 건강증진, 인사 및 노무관리 개선,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작업및휴게시간의운용, 임금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등을 협의합니다.

☞ **업무 관련 제안제**도란?
업무혁신과 경영 효율화, 노동자 복리증진 등에 관련하여 직원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제출된 제안에 대해 절차를 거쳐 심사, 포상, 사내규정 재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 **조직적응 프로그램**이란?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 및 조직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문 항	있다	없다	모른다
(1) 노동조합	①	②	③
	➡ **①있다** 응답 시 **문69-(3)**으로 이동	➡ **②없다, ③모른다** 응답 시 **문69-(2)**로 이동	
(2)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1)노동조합 문항에서 ②,③인 경우만 응답)	①	②	③
(3) 업무 관련 제안제도	①	②	③
(4) 조직적응 프로그램	①	②	③

Ⅳ. 다음은 「주거」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70) 귀하는 본인 명의의 집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① 이미 소유하고 있다
② 향후 1년 이내
③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④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⑤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⑥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⑦ 향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⑧ 향후 20년 이후
⑨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 문71~문73은 평소 집에 대해 귀하께서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7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문71-1로 이동
② 그렇지 않다 ➡ 문71-1로 이동
③ 보통이다 ➡ 문72로 이동
④ 그렇다 ➡ 문71-2로 이동
⑤ 매우 그렇다 ➡ 문71-2로 이동

문71-1) 문71)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 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주십시오)

① 높은 집값 때문에
② 자가마련을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③ 자산 증식 및 보전 수단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④ 이사를 자주 해야 할 상황이라서
⑤ 자가 보유 여부보다는 거주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응답 후 문72로 이동

문71-2) 문71)에서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 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주십시오)

①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②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어서
③ 자산 증식 및 보전을 위해서
④ 자가가 있어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⑤ 집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7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7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74) 귀하는 공동주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공동주거(Share house)란 가족이 아닌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방은 따로 쓰고 거실과 욕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함(고시원 및 하숙 거주 경험은 포함하지 않음)

① 예 ② 아니오

문75) 귀하는 공동주거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76)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동기] 현재 같이 살고 있다 ➡ **문86으로 이동**
② [비동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학업, 군복무,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③ [독립]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다(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문77) (문76에서 ②,③ 응답자만) 귀하는 현재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78) 귀하의 현재 주거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원룸(다가구) : 전체 집이 1인 개인 명의로 된 집으로 방 하나가 침실, 거실, 부엌을 겸하도록 설계된 집
② 아파트
③ 다세대/빌라 : 공동주택의 일종, 개별 방마다 소유주가 다른 경우
④ 오피스텔 : 세탁기, TV, 냉장고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관리인이 있는 경우
⑤ 하숙
⑥ 기숙사
⑦ 고시원
⑧ 단독주택
⑨ 기타 : 일반주택의 방 하나만 임대, 지역운영학사 등

문78-1) 귀하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금이 있는 월세
④ 보증금이 없는 월세 ➡ **문80으로 이동**
⑤ 사글세, 연세, 일세 등 ➡ **문80으로 이동**
⑥ 무상 ➡ **문81로 이동**

문79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의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인 경우에만 응답해주세요.

문79) 주거비용 마련은 누가 하였습니까?

☞ ▪ **주거비용**은 자가인 경우 구입 비용, 전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말함.
▪ 금융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출을 누가 갚느냐를 기준으로 응답함.

① 전부 본인 스스로
② 본인이 대부분 마련하고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일부 도움
③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대부분 마련해주시고 본인이 일부 도움
④ 전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마련해 주심
⑤ 기타(적을 것 : _____)

➡ 응답 후 문78-1) 주택 점유형태 응답이 ①자가, ② 전세인 경우 문81로 이동

문80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의 점유형태가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인 경우에만 응답해주세요.

문80) 월세비용 마련은 누가 하였습니까?

① 전부 본인 스스로
② 본인이 대부분 마련하고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일부 도움
③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대부분 마련해주시고 본인이 일부 도움
④ 전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마련해 주심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81)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을 선택한 가장 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우선순위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주거비용(매매가격, 전월세가격 등)
② 주택유형(아파트, 다세대/빌라, 원룸(다가구), 오피스텔 등)
③ 주택상태(주택규모, 노후도, 방의 개수, 인테리어 등)
④ 주택위치(직장/학교와의 거리, 부모님 집과의 거리)
⑤ 주거환경(의료/문화/상업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성, 교통, 교육환경 등)
⑥ 향후 주택 가격 변화(미래 자산가치 상승 기대)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82) 귀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우선순위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
② 휴식의 공간
③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
④ 나만의 사적인 공간
⑤ 생리위생 및 세탁, 식사를 위한 공간
⑥ 자산 증식을 위한 중요한 수단
⑦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주는 공간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83) 향후 주거 마련에 있어서 다음 항목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우선순위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주거비용(매매가격, 전월세가격 등)
② 주택유형(아파트, 다세대/빌라, 원룸(다가구), 오피스텔 등)
③ 주택상태(주택규모, 노후도, 방의 개수, 인테리어 등)
④ 주택위치(직장/학교와의 거리, 부모님과의 거리)
⑤ 주거환경(의료/문화/상업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성, 교통, 교육환경 등)
⑥ 향후 주택 가격 변화(미래 자산가치 상승 기대)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84) 귀하는 다음의 청년 주거 정책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청년 주택공급정책 (청년 행복주택,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청년 공공지원주택 등)**
  - **청년 행복주택**은 19세~39세 미혼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은 19세~39세 미혼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전용85m2 이하 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해 LH 및 지방공사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 **청년 공공지원주택**은 19~39세 무주택자 청년층을 대상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지원을 통해 민간임대사업자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청년 전·월세지원 등)**
  - **청년 전·월세지원**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위하여 전세대출 및 월세대출 조건을 완화하여 저소득 청년의 주거자금 대출한도 상향
- **청년 주거환경 개선정책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
  -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은 역세권 고시원을 청년 쉐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정책 (기숙사형 청년주택, 행복기숙사 등)**
  -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이 밀집한 지역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
  - **행복기숙사**는 공공기금으로 기숙사 신축,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기숙사

	문 항	안다	모른다
(1)	청년 주택공급 정책 (청년 행복주택,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청년 공공지원주택 등)	①	②
(2)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청년 전·월세지원)	①	②
(3)	청년 주거환경 개선 정책(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	①	②
(4)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정책 (기숙사형 청년주택, 행복기숙사 등)	①	②

문85) 귀하는 다음의 청년 주거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청년 주택공급 정책(청년 행복주택,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청년 공공지원주택 등)
②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청년 전·월세지원)
③ 청년 주거환경 개선 정책(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
④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정책(기숙사형 청년주택, 행복기숙사 등)
⑤ 기타(적을 것 : _____)

V. 다음은 「건강」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86) 귀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87) 귀하는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마른 편이다
② 약간 마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비만이다
⑤ 매우 비만이다

문88) 귀하는 **지난 1년간(2019년 6월-2020년 5월)**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 혹은 일반건강검진 모두 해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89) 귀하는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①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 **문91로 이동**
②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 **문90로 이동**
③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 **문90로 이동**
④ 기타(적을 것 : _____) ➡ **문90로 이동**

문90) (문89에서 ②,③,④ 응답자만) 귀하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③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④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⑤ 기타(적을 것 :　　)

문91) 귀하는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다음 각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⓪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⓪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⓪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문92) 귀하는 지난 1주 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문 항	극히 드물다 (일주일에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에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5일 이상)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⓪	①	②	③
(2) 비교적 잘 지냈다	⓪	①	②	③
(3) 상당히 우울했다	⓪	①	②	③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⓪	①	②	③
(5)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⓪	①	②	③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⓪	①	②	③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⓪	①	②	③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⓪	①	②	③
(9) 마음이 슬펐다	⓪	①	②	③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⓪	①	②	③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⓪	①	②	③

문93)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94로 이동**

문93-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① 일주일에 1번　② 일주일에 2번
③ 일주일에 3번　④ 일주일에 4번
⑤ 일주일에 5번　⑥ 일주일에 6번
⑦ 매일

문94) 귀하는 우리 인생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문95) 귀하는 성형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목적과 미용(보톡스 등) 목적을 모두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 문96으로 이동

문95-1) 귀하가 하신 성형수술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 문96으로 이동
② 미용(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 문95-2로 이동

문95-2) (문95-1에서 ② 응답자만)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②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③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
④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
⑤ 자기만족을 위해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96) 귀하는 다음의 건강관련 정책 중 정부가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청년 건강검진 지원 정책
②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 정책
③ 생활 체육시설 확대 정책
④ 청년 주요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
⑤ 출산지원 정책
⑥ 기타 (적을 것: _____)

VI. 다음은 「가치관」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97)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양 쪽의 표현을 보고, 귀하가 더 선호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 선호 정도 →							항 목
(1) 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여가 중시
(2) 현실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상 중시
(3) 결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과정 중시
(4) 개인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집단 중시

문98)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재산 · 경제력
② 화목한 가정
③ 자아성취
④ 건강
⑤ 감사 · 긍정적 태도
⑥ 종교생활
⑦ 직업 · 직장
⑧ 연인(이성관계 등)
⑨ 친구 · 대인관계
⑩ 꿈 · 목표의식
⑪ 기타(적을 것 : _____)

문99)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Ⅶ. 다음은 「관계 및 참여」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00)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명)

문101)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문102로 이동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문101-1로 이동

문101-1) (문101에서 ⑤,⑥,⑦,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⑤ 5년 이상 ~ 7년 미만　　⑥ 7년 이상

문101-2) (문101에서 ⑤,⑥,⑦,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②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③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④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⑤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⑥ 기타(　　)

문102) 귀하는 지난주에 점심기준으로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일주일에 _____회) (최소 1회 ~ 최대 7회)

문103) 귀하는 지난주에 저녁기준으로 혼자 술을 마신 경우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일주일에 _____회) (최소 1회 ~ 최대 7회)

문104) 다음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는 40대, 50대 / 노인은 70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성세대 (40,50대)	(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노인 (70세 이상)	(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문105) 사회 · 정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 항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①	②	③	④	⑤
(3) (온 · 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5) 항의 전화하기	①	②	③	④	⑤

문106) 사회 · 정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 귀하가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 항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임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①	②	③	④	⑤
(3) (온 · 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5) 항의 전화하기	①	②	③	④	⑤

문107)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108) 귀하는 청년들의 사회·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 *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청년기본법 시행 및 제도 활성화
②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
③ 청년정책 전담부처 구성
④ 청년참여 공간(시설, 온라인 포털) 확대
⑤ 청년참여 활동비 지원
⑥ 청년참여 지원정책의 예산 확대
⑦ 청년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⑧ 청년들의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
⑨ 청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⑩ 청년 할당제 도입(정당 비례대표, 지자체 위원회 등)
⑪ 기타(적을 것: _____)

문109) 귀하는 청년들에게 정책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인구 및 가족 (출산 휴가, 출산 장려금, 육아 휴직, 아동수당 등)
② 교육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 등)
③ 진로 및 훈련 (진로상담, 진로교육, 직업훈련 등)
④ 고용 (구직활동 지원, 일자리 확대, 일자리의 질 개선 등)
⑤ 경제 (채무부담 경감, 생활비 지원 등)
⑥ 주거 (청년 주택공급, 주거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⑦ 건강 (청년 건강검진 지원, 심리지원 서비스, 체육시설 확대 등)
⑧ 관계 및 정치·사회 참여 (청년정책 활성화, 청년 정책참여 보장, 청년 공간 확대 등)
⑨ 기타 (적을 것: _____)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경문항 1)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가족배경] 귀하의 부모님 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최하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최상

배경문항 3) [교육]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구분	학교 안 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 · 박사)	잘 모르겠음
(1) 본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지침서

CONTENTS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 3
2. 조사연혁 ····· 3
3. 조사기준 및 기간 ····· 4
4. 조사주기 ····· 4
5. 조사대상 ····· 4
6. 조사표 구성 ····· 4
7. 조사항목 ····· 5
8. 조사방법 ····· 8
9. 조사체계 ····· 8

Ⅱ. 조사 진행 요령

1. 면접원의 기본자세 ····· 11
2. 조사대상 선정 요령 ····· 14
3. 현장조사 요령 ····· 18
4. 본 조사의 특징 ····· 21
5. 예상 질문과 응답 방법 ····· 23

Ⅲ. 조사표 작성 요령

1.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 27
2. 조사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 28
3.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 36

2020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지침서

CHAPTER

I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연혁
3. 조사기준 및 기간
4. 조사주기
5. 조사대상
6. 조사표 구성
7. 조사항목
8. 조사방법
9. 조사체계

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 청년 문제는 청년 세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결혼, 출산 등 전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구조적인 문제로 발전되고 있음
-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취업 위주의 정책에서 보다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청년의 실제 삶에 기반한 청년문제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청년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2020년 2월 4일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의거하여 청년 기본계획 및 효율적인 정책수립방향 설정과 정책수립을 위한 법정조사로 진행

청년기본법(법률 : 제16956호)	
목적	청년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기본이념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한 권리 보장
조사 근거	**청년기본법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정부는 기본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조사연혁

- 2013년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연구용역 과제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연구용역 실시
- 2016년 : 본원 5개년(2016-2020)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청년들의 생활전반에 대한 핵심지표개발 및 2016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실시
- 2017년 : 통계청 승인통계절차를 거쳐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활용한 국가승인통계로 조사 진행
- 2018년 : 통계청 승인통계절차를 거쳐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활용한 국가승인통계로 조사 진행
- 2019년 : 통계청 승인통계절차를 거쳐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활용한 국가승인통계로 조사 진행

- 2020년 : 통계청 승인통계절차를 거쳐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활용한 국가승인통계로 조사 진행 예정, 2020년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의거하여 조사대상을 만18-34세로 변경

3 조사기준 및 기간

- 조사 기준일 : 2020년 6월 1일
- 조사 기간
  - 예비조사 : 2020년 5월
  - 본조사 : 2020년 6월~7월

4 조사주기

- 작성주기 : 1년
- 통계작성 기준시점 : 조사기준년도 6월

5 조사대상

- 조사대상: 전국 조사구 내 선정 가구에 거주하는 **만 18~34세(조사 기준일 기준 1985년 6월 2일 ~ 2002년 6월 1일생)**의 남녀 가구원

6 조사표 구성

- 2019년도까지는 중고등학생용(만15~18세), 청년용(만19~39세) 조사표로 구반하여 조사
- **2020년부터는 만 18~34세 조사표 1종으로 통합하여 조사 실시**

7 조사항목

대분류	기본 조사항목
Ⅰ. 「인구와 가족」	•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범위 • 독립/결혼/첫 자녀를 가지는 적정한 연령 •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양육 대책** • 혼인 여부 • 결혼 준비 여부 • 결혼 망설임 경험 및 결혼 망설임 이유 • 맞벌이 여부 • 자녀 유무 및 자녀수 • 향후 자녀 계획 및 **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는 이유** • 현재 대비 2025년 우리나라 출산율 변화에 대한 생각 • 해외이주 고려 경험과 이유
Ⅱ. 「교육과 훈련」	• 현재 대비 2025년 우리나라 입시경쟁 변화에 대한 생각 • 우리 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인식 • 대학(교) 진학 경험 • [대학 진학자] 학교유형, 소재지, 전공계열, 입학년월, 졸업여부, 학년, 졸업년월 • **등록금 마련 방법 및 학자금 대출 금액, 상환 기대 시기** • 졸업유예 경험 여부, 졸업을 늦추기 위해 졸업 요건 미이수 경험 및 이유 •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 도움정도 및 전공 적합도 • 추후 대학원 진학 의사 • [대학원 진학자] 최종 또는 현재 학위과정 • [대학 비진학자] 대학 비진학 이유, 추후 대학 진학 의사 • 졸업(현재) 고등학교 유형,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 제공 여부 및 도움 정도 • 지난주 취업준비 여부 및 준비 기간 • 취업준비 활동별 경험 •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 향후 직업훈련 참여의향 • **정부의 교육 대책 중 가장 먼저 확대가 필요한 분야**

대분류	기본 조사항목
Ⅲ. 「경제와 고용」	• 선호 일자리 유형 •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2021년 최저임금 • 한 달 본인 생활비 액수 및 부모님, 친지 지원 비율 • 채무 여부 및 채무 발생 사유, 대출 기관 • 물질적 박탈감 정도 • 고졸/대졸 청년세대에 대한 대우 및 지원 • 중소기업 취업 의향 및 이유 • 창업에 대한 생각 • 청년 고용위기 해법(노동공급, 노동수요) 중요도 및 그에 대한 생각 • **청년층 중소기업 일자리 선호도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 • 현재 경제활동 상태(수입 목적 일, 구직 경험 유무) •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상세 이유 • [비경활자 및 비교육자] 지난 주 한 일, 비교육 및 미취업 지속기간, 구직활동 지속기간 • [취업자] 직업, 현재 및 희망 월평균 소득, 현재 및 희망 주당 노동시간, 더 많은 일을 위한 이직 의향 및 탐색 경험, 희망 노동시간, 직장에서의 대우에 대한 생각, 이직의향 및 이유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경험 및 향후 참여의향, **구직활동의 도움정도** •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 경험 및 향후 참여의향, 직장생활의 도움정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경험 및 향후 참여의향, 구직활동의 도움정도** • **이전 취업 경험** • **직장 채용 과정의 공정성** • 퇴사 및 해고 경험 • **가장 최근 그만둔 일자리 시기 , 그만둔 일자리의 횟수, 그만둔 회사의 강제성 여부, 그만둔 이유, 그만둔 후 어려웠던 점** • 퇴사 당시 실업급여 인지 • 실업급여 수급 경험 및 미수급 사유 • **직장 내 괴롭힘, 산업안전에 대한 경험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이나 대응 절차 마련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상담 혹은 고충 처리 담당자, 창구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 혹은 고충 처리 절차의 적절성 여부** • **직장에서의 결정권 및 영향력 행사 여부** • **직장 내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업무 관련 제안제도, 조직적응 프로그램 조직 혹은 제도 설치 여부**

대분류	기본 조사항목
Ⅳ. 「주거」	• 본인 명의의 집 마련 기대 시기 • 집 소유 등에 대한 인식 • 공동주거 경험 여부 및 의향 • 부모 동거여부 • [비동거 및 독립한 경우] 현재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는지 여부, 주거형태, **점유형태** • **[점유형태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경우] 주거비용 마련 주체자** • **[점유형태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 경우] 월세 마련 주체자** • **현재 거주 집 선택 이유** •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의 의미** • **향후 주거 마련을 위한 고려사항** • **청년 주거 정책 관련 인지여부** • **청년 주거 정책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정책**
Ⅴ. 「건강」	• 신체 건강에 대한 평가 • 본인 체형에 대한 평가 • 지난 1년간 건강검진 경험 • 아플 때 조치 방법 및 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 • 일상생활 행복정도 • 일상생활 우울정도 • 규칙적 운동 여부 및 빈도 • 외모 중요성에 대한 생각 • 성형수술 여부 및 목적, 미용 목적 성형 이유 • **건강관련 정책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정책**
Ⅵ. 「가치관」	• 가치항목별 선호도 •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 및 충분성 정도
Ⅶ. 「관계 및 정치·사회참여」	•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지인 • 평소 외출 정도, 비외출 상태 지속 기간 및 계기 • 지난 주 혼밥/혼술 경험 및 횟수 • 기성세대 및 노인에 대한 인식 • 사회·정치 문제 의견 제시 방법별 참여 경험, 참여 의향,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인식 • 청년들의 사회·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청년들에게 정책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
배경문항	• 성별 • 부모의 경제적 수준 / 본인 및 부모 최종학력 • [취업자, **취업 경험자**]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근로시간 유형, 직장유형, 종사자 수, 근속년수, **직무 수준**

* 기본 조사항목 내 Bold 처리된 항목은 2020년 신규문항임

8 조사방법

- 예비조사 - 종이설문을 이용한 대면면접 조사
- 본 조 사 -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태블릿PC를 이용하는 대면면접조사 (TAPI, Tablet pc Aided Personal Interview) 조사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유치가 필요할 경우, 혹은 응답자가 희망하는 경우 인쇄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유치/조사를 진행함

9 조사체계

담당 역할	기관명
조사기획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현장조사	한국리서치
자료처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리서치
결과분석 및 공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CHAPTER

II 조사 진행 요령

1. 면접원의 기본자세
2. 조사대상 선정 요령
3. 현장조사 요령
4. 본 조사의 특징
5. 예상 질문과 응답 방법

II. 조사 진행 요령

1 면접원의 기본자세

가. 면접원의 마음가짐

- 면접원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및 조사회사의 대표자로서 공손하고, 유쾌하며 자신감 있어야 하고 잘 준비되어야 한다.
- 조사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뿐 아니라 응답자에게 그들의 참여가 가치있고 필수적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나. 면접원의 태도

- 단정한 복장과 겸손한 태도로 응답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조사지침을 반드시 숙지함으로써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응답자에게 신뢰감을 주도록 한다.
- 면접과정에서 편향된 질문으로 응답을 유도하거나 상식 등 주관적인 판단으로 조사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 자신이 직접 판단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사례는 조사표에 구체적으로 메모 해 두고, 반드시 조사관리자나 담당직원과 상의한 후 기입하도록 한다.

다. 면접원의 의무

- 조사기간 중에는 반드시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조사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한다.
- 조사는 반드시 교육받은 당사자가 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에게 대리 조사 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모든 내용은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통계법 제33조, 제34조)
  -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통계법 제39조)
- 실사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조사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유치 조사된 조사표는 리뷰 후 즉시 태블릿PC에 입력하도록 함
- 특별한 사유(질병 등)로 조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실사연구원에게 알려야 한다.

☞ **통계법(법률 제14467호 2016.12.27.일부개정) 관련 조문**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4.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5.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

라. 면접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

- 조사기간 중, 판매 등 영업활동은 절대 금지됩니다.
- 조사는 반드시 교육받은 당사자가 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대리 조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통계법(제33조)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조사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설문지 응답을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
- 검증과정을 통해 밝혀질 경우 해당 면접원의 설문은 전량 폐기됩니다.
  폐기된 설문의 보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 면접원이 반드시 해야 할 일

- 질병 등 특별한 사유로 조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사연구원이나 담당 팀장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 담당 실사 연구원 및 실사 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매일 조사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종료된 설문지는 바로 전송하여 담당 실사연구원이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외에는 태블릿PC로 조사를 진행하며 유치 설문은 회수 즉시 리뷰 후 입력합니다.

바. 면접원 안전수칙

- 조사 중 불의의 사고로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 부득이 야간에 조사해야 할 경우, 면접원 2인이 함께 다니거나 가족, 친지, 실사연구원 등과 연락하여 동행하도록 합니다.
- 조사 당일의 일정을 가족에게 알려줍니다.
- 조사 수행 시 사고나 부상 시는 즉시 가족, 실사연구원에 연락합니다.

2 조사대상 선정 요령

가. 조사구 경계 확인

- 조사구란?
  조사대상 지역에 대하여 식별이 확실한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지도상에서 일정한 가구 수가 포함되도록 분할한 조사담당구역
-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를 직접 방문하여, 배부된 명부의 거처와 일치하는지 파악한다.
- 조사구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유지한다.
  - 조사구 내 위험이나 조사장애가 생겨 조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조사구 교체

- 정해진 조사구에서 최선을 다해 7샘플을 확보하되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조사구 대체 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구 교체 상황	조사구 교체 방법
조사구 멸실 및 재개발 등에 의해 조사구내 50% 이상이 다른 주택형태로 바뀌거나 없어진 경우	해당 조사구는 조사하지 말고 실사 슈퍼바이저에게 보고 후 새로운 대체조사구로 교체후 조사 진행
정해진 방법에 의해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구 전체를 조사하여도 1개 조사구에서 7부 미만의 샘플이 확보될 경우	실사 슈퍼바이저에게 보고 후 지시한 대로 수행 (비슷한 유형의 대체조사구로 7샘플 확보 (기존+대체))

다. 조사가구 선정 및 대체

- 조사구내 가구수 /7=X, X번째 가구부터 X번씩 건너뛰어 7개 가구까지가 조사대상 가구임.
  (예: 조사구가 70가구이면 일련번호 10번째 가구가 시작가구로, 이후 10번째 가구씩 건너뛰어 조사 진행)

- 순서대로 조사하여 조사구 끝번까지 갔으나 조사완료 가구가 7개가 안되면 다시 일련번호 앞으로 돌아가 조사 진행
  (예: 10->20... 70가구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7가구 진행이 완료되지 않으면 11->21->31... 순으로 조사를 진행)

〈예시 1. 시작번호 3〉

순번	키값	조사구번호	조사구특성	거처번호	가구번호	시도명	시군구명	읍면동명	법정동리	반지	도로명	건물번호명	통행정리	주택명칭	동	호수	성명	가구수	가구외종류	거처외종류
1	0991	099	1	001	001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중림동	355				브라운스톤	101	402	김복자		일반가구	다세대
2	0991	099	1	002	001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중림동	355				브라운스톤	101	410	박병복		외국인가구	다세대
v3		099	1	003	001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중림동	355				브라운스톤	101	411	이지하		일반가구	다세대
4		099	1	004	001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중림동	355				브라운스톤	101	419	김구라		일반가구	다세대
5		099	1	005	001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중림동	355				브라운스톤	101	406	유재석		일반가구	다세대
v6		099	1	006	001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중림동	355				브라운스톤	101	426	박명수		일반가구	다세대
7		099	1	007	001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중림동	355				브라운스톤	101	427	최 구		일반가구	다세대
8		099	1	008	001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중림동	355				브라운스톤	101	429			일반가구	다세대
v9		099	1	009	001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중림동	355				브라운스톤	101	432	이 진		일반가구	다세대
10		099	1	010	001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중림동	355				브라운스톤	101	413	김 석		일반가구	다세대
		099	1	011	001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중림동	355				브라운스톤	101	425			외국인가구	다세대

표본조사구 내 가구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표본명부에 기재된 시작가구에서 규칙 대로 (조사구 가구수/7) 건너뛰어 총 가구를 조사한다

- 제공된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명부를 조사구 확정 후 조사원에게 제공한다.
  - 「가구명부」에서 시작번호 가구부터 7번째 가구까지가 조사대상 가구이다.
  - 조사대상가구의 대체 사유가 발생 시에는 실사 슈퍼바이저에게 요청한 후 처리한다.
  - 조사원은 실지조사에 활용하면서 변동사항은 빨간색 펜으로 수정(두줄 그음)하며 수정 시에는 해당 사유를 비고란에 기입한다.
  - 가구명부가 없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실사 슈퍼바이저의 지도를 받아 작성한다.

- 조사구별 가구 일련번호 부여
  - 명부 가구순서에 의거 가구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첫번째 가구(예시 이후)의 번호가 1이 되며 이 후 가구마다 1씩 증가하여 번호를 부여한다. ('빈집'도 번호를 부여함)

- 조사대상 선정
  - 해당 조사구의 시작번호가 3일 경우 가구번호가 3인 가구부터 시작하여 7가구를 순차적으로 조사하면 된다.
  - 시작번호가 가부명부 상의 전체 가구 수보다 클 경우, 명부상 1번 가구를 시작 가구로 해서 순차적으로 7가구를 조사한다.

〈예시 2. 시작 번호 3〉

[예시] 법정동 주소는 우편물에 사용하는 주소로 기입하며, 농가, 임가, 어가에 동시에 해당되면 해당하는 곳 모두 ○표 합니다.

첫번째가구		008	001	둔산동	3	908-1	통계청 빌라	가동 302호	김통계	2	1	1	○					○				○				
	1			빈집																						
시작가구	2	001	001	노은동	5통	107-1			김복지	5	3	2	○			○										
	3		002	노은동	5통	209-1			박행복	4	2	2	○			○										1
		002	001	노은동	5통	209-1			이새롬	1	1	0	○			○										2

○ 조사대상 가구 선정 시 주의할 점

- '①'의 경우 : 가구명부 상 존재하지 않지만, 준비조사 시 실제로 가구가 존재할 경우 새로운 가구번호를 부여하고 조사대상 가구로 선정한다.
- '②'의 경우 : 가구명부 상 '빈집'이지만, 준비조사 시 실제로 사람이 가구에 거주할 경우 새로운 가구번호를 부여하고 조사대상 가구로 선정한다.

〈예시 3 〉

002	001	노은동	5통	209-1			이새롬	1	1	0	○			○										1
	002	노은동	5통	209-1			김구라	4	2	2	○			○										2
	003	노은동	5통	209-1			유재석	2	1	1	○			○										3
003	001	노은동	5통	209-1			박명수	4	2	2	○			○										4
004	001	노은동	5통	209-1			최 구	2	0	2	○			○										5
005	001	노은동	5통	209-1			이재상	1	1	0	○			○										6
①	002																							7
006	001	노은동	5통	209-1			강바다	5	2	3	○			○										8
007	001	노은동	5통	209-1			이성용	3	1	2	○			○										9
	002	노은동	5통	209-2			강인호	3	2	1	○			○										10
②	003	노은동	5통	209-2																			○	11
008	001	노은동	5통	209-2			위 성	1	1	0	○			○										12
	002	노은동	5통	209-2			윤지숙	2	1	1	○			○										13
009	001	노은동	5통	209-2			남상곤	1	1	0	○			○										14
010	001	노은동	5통	209-2			조우승	2	1	1	○			○										15
	002	노은동	5통	316-5			최상현	2	2	0	○			○										
	003	노은동	5통	316-5			변 효	2	1	1	○			○										
011	001	노은동	5통	316-5			홍사범	3	1	2	○			○										

○ 가구/조사구 대체

- '불응가구', '불능가구', '빈집' 등이 존재하여 부득이하게 시작가구로부터 10가구를 조사하지 못할 경우, 연이어 다음 가구를 조사한다.

○ 조사대상 가구 찾기

- 가구명부 상의 주소와 현재 주소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여, 조사대상 가구인지를 결정한다.
- 가구명부 상 기재된 가구주 성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가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3 현장조사 요령

가. 면접조사 요령

1) 가구를 방문하기 전

- 조사표의 구성 및 순서, 항목별 지침을 충분히 숙지한다.
-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한다.
  - 조사원증, 가구명부, 조사구요도, 태블릿PC, 유치조사용 설문지, 방문안내장, 조사안내 팜플렛, 조사지침서, 유치조사 안내서, 답례품 및 지급명부, 사무용품 등 휴대

2) 가구를 방문할 때

① 조사지역에 도착하면 누구에게나 공손히 대한다.

- 조사대상자가 조사지역에서 생업에 종사는 경우가 있고 빈번히 왕래하기 때문에 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조사대상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
- 단정한 복장과 바른 언행은 지역주민들에게 신뢰감과 좋은 인상을 줌

② 방문시간은 언제라도 좋으나 이른 아침이나 한밤중은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③ 대문을 두세 번 두드리거나 벨이 있을 때는 약간 동안만 눌러야 한다.

- 특히, 아파트는 복도나 문 앞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다른 가구에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선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은 뒤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음

3) 가구원을 만났을 때

① 먼저 방문목적과 자신에 대해 소개한다.

② 이 조사는 통계청에서 승인한 공식통계조사이며, 응답내용은 통계 작성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고, 법으로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다.

③ 태블릿PC를 가지고 TAPI 조사를 시작한다. 소득이나 부채, 결혼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감한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모든 질문을 할 때 같은 어조로 물음으로써 응답자가 편안하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있게 한다.

④ 조사 대상 응답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다른 가구원에게 팸플릿 등 자료를 전달, 조사 내용을 설명하여 협조를 구한 후 해당 대상자에게 전달을 요청한다.

⑤ 설문 회수 시간은 엄수하도록 하며, 유치 설문을 회수 할 때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기입내용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게 작성되었는지, 항목 간에 상충된 내용은 없는지 그 자리에서 꼼꼼히 확인한다.

⑥ 조사표를 완성한 가구에 답례품을 지급하고, 가구를 떠날 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정중히 인사한다.

☞ 면접조사 시 유의사항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5조(면접조사 시 유의사항) 면접원은 면접조사 시 응답자의 응답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접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2. 처음 조사 시에 협조공문 제시
3. 가능한 응답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
4. 불필요한 질문이나 행동 금지
5. 기타 응답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행동 금지

나. 조사 불응, 장기 부재 등에 대한 대응 방법

- 조사 불응 : 면접 거부나 응답기피 등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조사관리자 의 동행으로 설득한다.
- 장기 부재 : 가구원 모두 부재중인 경우, 3일 이상(하루 1회 이상) 방문

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진행 시 대응 방안

- 실사 담당자는 일별로 면접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므로 면접원은 이에 대해 적극 협조 해야 합니다.
-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가구를 방문하는 본 조사 특성상 감염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면접원은 다음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를 중단하고 실사 담당자에게 보고 후 조치를 받습니다.

- 37.5도 이상의 발열 / 마른 기침 / 피로감
- 인후통(목 안이 아픈 증상) / 호흡곤란 / 오한 / 근육통 / 두통
- 후각 및 미각 감소

- 조사 업무 진행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며, 자주 손을 씻고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세요.
- 알코올 솜 등을 활용하여 태블릿PC 표면도 자주 닦아 주세요.
- 응답자의 대면 거부감이 높다면 유치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 할 수 있음을 설명드리고 조사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본 조사의 특징

가. TAPI 조사와 종이설문 조사(유치조사)를 병행하는 조사

- 주요 조사 방법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조사이나 조사대상 특성을 고려하여 종이설문을 통한 유치조사를 병행함
- 유치조사는 응답자 접촉이 어려울 경우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며 기본적인 조사 형태는 TAPI 조사임

1) 유치조사 진행 시

- 설문지와 함께 입력 지침서를 전달하여 응답 시 가이드 내용을 보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유치조사 설문을 받으면 면접원은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설문을 TAPI 설문에 입력해야 함. 이는 종이설문 응답값 중 오류 사항을 빠르게 발견하여 바로 잡기 위함임

나. 응답자 동의서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 필요

- TAPI 및 종이설문을 이용한 조사 모두 연구 참여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함
- 설문조사 시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중:
2. **<u>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u>**: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u>설문조사</u>**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제3조(기본 원칙)
② 연구대상자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③ 연구대상자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연구 참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예시〉

연구 참여 동의서

1. 본인은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V'를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추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본인에게 없음을 이해합니다. 또한,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로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본인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식별정보가 익명화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된 **동의서 사본을 1부** 받아야 합니다.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 방안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목적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연구참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
-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택 유형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연구대상자 성명 _____ (서명)

5 예상 질문과 응답 방법

1) 이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리서치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연구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해 국가의 청소년 정책 수립의 기초 및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외 국가들의 청년 연구동향을 점검하고 청년 정책자료를 수집 및 분석, 청년 연구 교류협력 증진, 공동사업 및 정책과제 발굴 활성화를 통하여 청년 연구의 교두보와 허브(Hub) 연구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 조사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 2020년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청년들의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 **청년기본법 제12조(청년정책 연구사업)**
>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본 조사 결과는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의 기본 자료 및 향후 정책 수립 방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4) 조사대상 가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조사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가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뽑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정렬하고,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표본으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가구가 표본으로 뽑힐지 모릅니다.
- 응답자의 가구가 이 통계에서 전국 가구를 대표하도록 선정된 것입니다.

5) 개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 조사 내용은 엄격하게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남에게 누설되지 않으니 안심하십시오.
- 조사된 내용은 이름을 제외하고 모두 전산 처리되어 어느 집의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식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름을 작성하는 이유는 나중에 조사가 정확하지 않을 때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6) 소득 등 조사된 자료가 과세자료 등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나요?

- 본 조사는 통계승인을 받은 정부공식 통계로써 통계 목적 이외에는 과세자료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통계법으로 엄격히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통계법 제34조, 제39조).

>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통계법 제39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3.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7) (조사 연령대) 대상 및 자녀가 집에 없어서 조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우선 해당 연령대가 집에 있는 시간대를 확인하여 이후 방문 시에도 접촉이 어려운지 확인 합니다.
- 본 조사는 해당 연령대 응답자분께서 스스로 진행 하실 수도 있음을 설명드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협조 공문, 팸플릿, 조사 설문지, 작성 방법이 담긴 자료 전달 한 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합니다.
- 설문이 완료되면 면접원이 다시 방문하여 수거할 수 있도록 설명 드립니다.

2020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지침서

CHAPTER

Ⅲ 조사표 작성 요령

1.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2. 조사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3.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4. 응답 전 확인 필요 문항

Ⅲ. 조사표 작성 요령

1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1) 조사표 작성 대상 및 기준

- 본 조사의 조사대상은 '개인'이며, 해당 가구 내 만 18~34세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응답을 받는다.
  - 따라서 기본적으로 조사문항에 대한 응답은 '본인(개인)'을 기준으로 한다.
  - 단, '가구소득' 등 가구에 대한 질문의 경우 가구를 기준으로 응답 받는다.

2) 조사표 작성 방법

- 조사단위 금액이 원단위(최저임금), 만원단위(월평균 소득 등)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단위에 주의하며, 만원단위 응답 시 만원 미만 액수는 반올림한다.
- TAPI 조사 시 문항과 보기를 면접원이 직접 설명하고 응답을 기입해야 하며 태블릿 PC를 응답자에게 맡겨 조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에 "0"으로 표시하지 말고, 공란으로 남겨 둠
  - "0"으로 표시하는 경우 예시 : 실제 용돈이 없어서 0원인 경우, 가족 지인으로부터의 용돈 지원금액이 없어서 0%인 경우 등
- 종이설문에 의한 조사표 작성 시 검정색 또는 청색펜을 사용함
- 종이설문에 의한 조사표 작성 중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정사항은 수정액이나 테이프를 사용하지 말고 빨간펜으로 두 줄을 그은 후 아래에 기입함

2 조사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 가구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주민등록상 세대 : 주민등록상 세대는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포함하는 가구와 개념이 다르다.
- 가족 :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이나, 가구는 혈연관계와는 상관없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이다.

○ 가구주

가구주란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가구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 가구원

가구원이란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한다.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더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즉 가족이라도 군복무, 취업, 교육 때문에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이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된다. 먼 친척, 친구, 가정부, 종업원 등 가족이 아닌 사람도 함께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한다. 임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상시거주자로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되었고 현재도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구원으로 포함한다.

○ (가정으로부터의) 분가 및 독립

가정으로부터 분가, 독립의 의미는 학업, 군대 등의 이유로 일시적 비동거 상태가 아닌 부모 및 친지의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는 경제독립체로서의 독립**의 의미한다.

○ 경제활동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이 있는 일을 행함을 의미한다.

☞ 수입이 있더라도 다음의 활동은 경제활동으로 보지 않음

① 법률에 위배되는 비생산적인 활동(예: 도박, 매춘 등)

② 법률에 의한 강제노역 및 봉사활동

③ 경마, 경륜, 증권, 선물 등 투자활동

○ 일하였음

임금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일한 사람과 가족(동일 가구내에 거주하는 배우자, 혈연, 혼인 또는 양자에 의한 친·인척)이 경영하는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한 사람

☞ 무급으로 동일 가구내 비혈연 가구원의 일 또는 혈연관계라 하더라도 생활근거를 달리하는 가족의 일을 돕는 것은 무급가족종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함

- 일한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식사, 주거 또는 곡물제공)을 받는 경우 : 현금 급료나 봉급을 받고 하는 일, 현물 급료(주거제공과 식사제공 및 곡류포함)를 받고 하는 일과 팁을 받고 하는 일도 포함
- 원재료를 제공한 사업체가 마련한 장소에서 작업을 행하여 일한 분량대로 돈을 받는 일의 경우
- 원재료를 제공받아 개인의 가정에서 가공활동을 하고 완료한 일의 분량에 따라 돈을 받는 일의 경우
- 자기 자신의 사업장이나 농장을 가지고 이윤을 목적으로 일을 한 경우 또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경우
  예) 식당 운영, 미장원 운영, 법률사무소 운영, 농사짓는 일, 양계장 운영 등
- 소득의 적자 여부를 불문하고 조사대상 주간에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지는 못했으나 계속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시간을 보낸 경우
- 농림어업 사업체를 가진 사람이 파종, 비료살포, 살균, 어획활동 등 실질적인 농림어업활동을 하지 못했으나 농기구 손질, 수선 등으로 시간을 보낸 경우
- 서로 노동력을 교환하는 형식의 활동인 품앗이(주로 농가에서 이루어짐)

○ 취업자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실업자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 비경제활동인구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자, 즉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함

○ 자기사업장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자기 영업소를 유지하고 있거나, 상당한 가치를 가진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를 가진 경우를 말하며, 소속이 없더라도 개별 활동을 하는 경우도 해당

예) 작가, 화가, 배우 등

○ 자기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

- 사무실, 상점 또는 자기 영업장소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전화서비스, 광고물 설치 등을 통해 사업광고를 하는 경우
- 자기 장비를 가지고 가내수공업을 하는 경우
- 성수기(해당계절)에 경작지, 스키임대 매장, 물놀이 시설 등이 있는 경우

○ 자기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집에서 하는 가사서비스 활동을 하는 경우
- 사업장비가 없이 가구를 상대로 단순노동을 제공하고 일당을 받는 경우
- 목수 등이 가구를 상대로 하는 소규모 수리활동

○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아래의 사유(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①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전공, 경력, 임금수준, 근로조건, 주변)

② 지난4주간 이전에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③ 자격이 부족하여(교육, 기술 경험 부족,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 소득

근로소득(일을 해서 얻은 소득) + 사업소득(자영자나 고용주의 지위에서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총수입에서 재료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익 중 가계에 들어온 금액) + 이전소득(국가에서 연금형태로 지급해 준 일체의 지원금과 생활비로 타 가구원, 부모,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소득)

○ 가사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가정에서 가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가사를 돌볼 책임이 있었다고 한 사람의 경우 여기에 해당

○ 종사상지위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하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구분

○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친 개념. 이때 고용원의 구분은 임금 지급 여부로 결정하며, 다음의 경우에도 자영업자에 해당

- 일정한 사업장 없이 장사를 하는 행상, 노점상
- 가내 작업자 중 원료 자체를 직접 구입하여 가정에서 작업하는 경우
- 전문적인 일(예: 과외, 통번역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신만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의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사장이라 하더라도 개인 기업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이나, 법인기업이면 임금근로자로 분류

○ 무급가족종사자

자기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정상근로시간의 1/3이상) 일한 가족이라도 일정한 봉급을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함. 가구를 달리하는 가족 또는 친척의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일할 경우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아니며,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함

○ 임금근로자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통상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됨

○ 정규직(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함. 여기에서의 분류는 직업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고용계약기간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함

-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 고용계약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
- 단 해당 채용절차를 거쳤더라도 일정한 사업 완료의 필요기간동안 또는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자는 상용직 근로자가 아님

○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용역 등)

임금근로자 중 상용이 아닌 자로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일당제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됨

- 일정한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하여 고용된 자(사업완료가 1년 미만)
- 단순 업무 보조원으로서 상여금 등 제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 등

○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형태의 근로자에 해당

○ 직업훈련

직업훈련은 취업, 창업 또는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말함. 직업훈련에는 직장연수, 학원 수강, 직업훈련 등을 포함

- 통신강좌와 교양 강좌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포함되지만 단순한 취미 활동은 제외됨
- 정규학교교육이나 학업과 관련한 학원수강 및 과외도 제외됨

○ 주택(주거형태) 형태

주택이란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②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음
③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춤

○ 다세대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인 경우

○ 오피스텔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건축물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

○ 다가구단독주택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
- 전체 층이 3층 이하이고, 전체층(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인 경우

○ 아파트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 받은 건물, 주상복합아파트는 아파트에 해당

○ 거주형태 중 하숙

일정한 세와 식비를 내고 남의 집에 머물면서 숙식을 하는 것을 말함

○ 고시원

보통 1개의 방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함

○ 사글세

월세계약의 한 종류로, 계약 시 계약기간의 보증금과 월세액을 전부 일시불 선납하는 것

○ 경제민주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회를 빼앗아 부를 축적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제가 많음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 특정 사업에 대기업 진출을 원천봉쇄하는 제도
- 금산분리 : 일반 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켜 은행 사유화를 막음
- 순환출자 금지 : 회사 간 주식을 매입하여 대기업 소유주가 적은 자본으로 많은 회사를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

○ 임금피크제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지속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은 2020년 2월 제정되어 8월 시행 예정인 법안으로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 제도별, 조례별,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던 '청년' 연령에 대한 정의
- 국가, 지자체는 청년정책 수립, 홍보, 지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님
- 매 5년마다 정년정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의 고용, 주거, 교육, 문화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
- 고용, 창업, 주거, 복지, 문화활동 등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을 법조문화 함

등의 내용과 같이 청년의 사회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할 책무로 규정하는 법임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의 특성에 따른 '진단,취업경로 설정(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 '의욕,능력증진(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지원수당 지급)' → '집중 취업알선(동행면접 실시 등)'의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 프로그램

○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기간 동안(2년 또는 3년형)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근속할 시 기업과 정부에서도 해당 기간 동안 지원금을 적립하여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년형 제도를 예로 들면

- 청년 취업자는 매달 12.5만원씩 X 24개월, 총 300만원을 적립
- 기업에서는 2년간 총 5번에 걸쳐 총액 400만원을 적립
- 정부에서는 2년간 총 5번에 걸쳐 총액 900만원을 적립 하여 2년간 근속 시 청년 취업자는 총 1,600만원+이자를 받을 수 있음

3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인구와 가족

문1) 귀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 동 : 만 ☐☐ 세 ~ 만 ☐☐ 세
- 청소년 : 만 ☐☐ 세 ~ 만 ☐☐ 세
- 청 년 : 만 ☐☐ 세 ~ 만 ☐☐ 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범위

-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각각 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생각하는 지 응답
- 연령 범위가 중복되지 않아야 함

문2) 귀하는 몇 세부터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만 ☐☐ 세 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3)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만 ☐☐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4) 귀하는 몇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만 ☐☐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으로부터의 분가 및 독립

- 가정으로부터 분가 독립의 의미는 학업, 군대 등의 이유로 일시적 비동거인 상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모와 친지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경제독립체로서의 독립을 의미함

분가, 결혼, 첫 자녀 출산 연령

- 분가, 결혼, 첫 자녀 출산에 대한 응답 연령이 너무 낮거나 첫 자녀 출산 연령이 분가 및 결혼 연령보다 낮은 경우에는 응답자에게 다시 한 번 올바른 값인지를 확인해야 함

  예) 문2) 가정 분가 연령을 10세로 응답한 경우
  문3) 결혼 연령을 20세로 응답하고 문4) 출산 연령을 15세로 응답한 경우

문6) 귀하는 결혼하셨습니까?

① 배우자 있음

② 사별·이혼

③ 결혼하지 않음

문7) 귀하는 결혼을 준비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8로 이동**

혼인상태 및 결혼준비 경험

- 결혼 준비 중으로 곧 결혼을 앞둔 경우라도 "③ 결혼하지 않음"으로 응답
- 결혼식 또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① 배우자 있음 "으로 응답
- 결혼하지 않음 - 결혼 준비 경험 있음(곧 결혼 예정 또는 파혼)
  배우자 있음, 사별 · 이혼 - 결혼 준비 경험 없음(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는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나 현장에서 응답자에게 응답 오류는 아닌지 정도만 확인함(민감한 사항이므로 세세하게 묻지 않음)

문8) 귀하의 가정은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있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맞벌이) ② 아니오(외벌이)

맞벌이 기준

- 부부가 모두 6월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소득이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경우 "① 예(맞벌이)" 로 응답함
- 6월 기준 휴가, 무급휴직,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일자리로 출근을 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인이 배우자와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여, 가정 내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것은 본 문항에서 해당되지 않음

교육과 훈련

문15-1) **가장 최근에 진학한 2-3년제 및 4-6년제 대학(대학원은 포함되지 않음)**의 학교유형, 소재지, 전공계열, 입학년월, 졸업여부, 학년, 졸업년월을 응답해 주십시오.

학교유형	학교 소재지 (* 보기1 참조)	전공계열 (* 보기2 참조)	(편)입학년월	졸업여부	학년 (4학년 이상인 경우, 4학년에 응답)	졸업년월 (졸업한 경우 응답)
① 전문대 (2-3년제) ② 대학교 (4-6년제)			년 월	① 졸업 ➡ 졸업년월 ② 재학 ➡ 학년 ③ 휴학 ➡ 학년 ④ 중퇴 ➡ 문16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년 월

대학(교) 진학 경험 세부내용

- 졸업, 중퇴, 재학, 휴학을 모두 포함하여 대학(교)에 진학해 본 경험이 있는 대상으로 한 설문임
- 학교유형, 학교소재지(지역), 전공계열, 입학년월까지는 공통적으로 응답 후 재학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답
  - 졸업 : 학년은 응답하지 않고 졸업년월만 응답 후 다음 문항으로 이동
  - 재학/휴학 : 학년 응답 후 다음문항으로 이동
  - 중퇴 : 다음문항으로 이동
-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력 취득 내용도 인정(예: 2년제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4년제 학력을 취득한 경우 4년제 학력 기준 응답)
- 편입, 재수 등으로 학교를 여러 곳 다닌 경우, 가장 최근에 다닌 학교를 기준, 대학(교)를 2개 이상 졸업한 경우에는 고학력을 기준으로 응답
- 캠퍼스가 나누어져 있는 경우 소재지는 본교가 아니라 캠퍼스 기준으로 응답
- 2020년 6월이 조사 기준년도이므로 졸업시기는 "2020년 6월" 이후일 수 없음
- 해외에서 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제외하고 졸업월은 대부분 2월 또는 8월로 응답되어야 함. 이외 경우는 재확인 필요
- 최종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입학년도와 졸업년도를 비교, 학기(6개월을 한 학기로 봄)를 모두 이수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4년제 대학을 3년 만에 졸업한 경우 조기졸업 등을 한 경우인지를 면접원이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문16) 귀하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한 가장 주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 **전문대(2-3년제) 또는 대학교(4-6년제)를 다니기 위해 지불한 등록금만을 포함하며 대학원 등록금은 제외**하고 응답 해 주십시오.

☞ "학자금 대출"은 생활비, 주택 등을 위한 대출은 제외하고 "학자금 대출"이라는 이름이 붙는 금융 상품의 이용뿐만 아니라, 학자금의 지불을 위하여 각종 기관 및 개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를 모두 포함

① 국가 장학금 ➡ 문17로 이동
② 민간 장학금 ➡ 문17로 이동
③ 학자금 대출 ➡ 문16-1로 이동
④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의 지원 ➡ 문17로 이동
⑤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스스로 마련 ➡ 문17로 이동
⑥ 기타 ( ) ➡ 문17로 이동

장학금 종류

- 대학원 등록금은 제외한 대학(교) 등록금만을 기준으로 생활비, 주택 자금 대출을 제외한 학자금 관련 대출만 응답함
- 국가 장학금에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Ⅰ, Ⅱ 유형), 국가보훈처의 보훈장학(국가유공자 배우자 및 자녀 대상), 군 가산복무 지원금(군장학생) 등이 해당됨
- 민간 장학금은 기업에서 주는 장학금(예: 삼성장학금), 각 대학별 특성화 장학금(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대학 입학 또는 특정 전형 입학 시 대학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교회 장학금 등이 이에 해당

문17) 대학 시절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춘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18) 대학 시절 졸업을 늦추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졸업 유예 구분

- 졸업 유예 제도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정규 학기 이수, 전공 학점, 토익 및 토플, 졸업논문심사 등)을 모두 만족한 상태에서 학생이 별도로 학교 측에 신청, 졸업을 연기하는 제도를 말함
- 학점 미충족, 졸업인증 미제출 등 본인 의도 하에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문17. ② 아니오 -> 문18. ① 예 로 응답해야 함

졸업년도/입학년도 졸업유예

-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입학년도와 졸업년도를 비교, 학기(6개월을 한 학기로 봄)를 모두 이수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필요 이수학기와 같거나 적은 경우 인데 졸업 유예 경험에 대해 "① 예" 라고 응답한 경우 입학 및 졸업년도를 틀리게 응답한 것을 아닌지 확인이 필요함

문21) 귀하는 추후 대학원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 대학원에 진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 '③대학원에 진학을 하였다' 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 **문24로 이동** ② 아니오 ➡ **문24로 이동** ③ 대학원에 진학을 하였다

문21-2)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십니까?

※ 대학원을 중퇴한 경우에는 '② 휴학' 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재학 ② 휴학 ③ 수료 ④ 졸업

대학원 진학

- 대학원에 진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재학, 휴학, 중퇴, 졸업 모두 포함)에는 '③대학원에 진학을 하였다' 로 응답함
- 대학원을 다니다 중퇴한 경우 문21-2에서는 '② 휴학' 으로 응답함

문24) 귀하는 고등학교를 다니셨습니까?(혹은 다니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문25로 이동**

문24-1) 다니셨던 고등학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일반고	② 자율형고
③ 특성화고(공고, 상고, 실업고, 전문계고 등)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특목고)
⑤ 과학/영재고(특목고)	⑥ 외국어/국제고(특목고)
⑦ 예술/체육고(특목고)	⑧ 기타(적을 것 : _____)

고등학교 유형

-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한 경우도 문24에서 '① 그렇다'로 응답함(문24-1 다녔던 고등학교 유형은 '⑧ 기타 : 검정고시'로 응답)

- 고등학교별 특성은 다음과 같음
  - ② 자율형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로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과정 결정, 수업 일수 조정, 무학년제 운영 등을 결정할 수 있음
  - ③ 특성화고: 특목고(마이스터고)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공업고, 농림업고, 상업고, 수산고, 실업고, 해양고 등
  - ④ 마이스터고: 전문적인 직업교육 발전을 위하여 미디어, 에너지, 로봇, 플랜트, 해양, 식품, 반도체, 항공, 조선 등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특목고 중 ③⑤⑥⑦에 해당되지 않는 공업고, 농림업고, 상업고, 수산고, 실업고, 해양고 포함

-> 특성화고의 경우 1학년부터 진학과 취업 진로 중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마이스터고의 경우 특정 분야의 기술장인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니 만큼 일반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한 수업 위주로 진행됨

문24-2) 고등학교 재학 시 다음의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찾아 개인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문24-2-1)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 항	문24-2)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험	문24-2-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로, 직업, 취업 상담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2) 진로와 직업 수업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3) 진로, 직업 체험(현장 견학, 현장 직업체험, 직업실무 체험, 캠프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4) 학과, 전공 체험(대학교 방문, 학과 및 전공 체험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 진로, 직업 특강강의 및 설명회·박람회 참석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6) 취업처 연계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학교로부터의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 제공

- 고등학교 재학 시 본인이 직접 관련 프로그램을 찾아본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에 대해서만 응답**함
- 6개의 프로그램별로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만 문24-2)에서 ① 예 응답 후 문24-2-1)에서 해당 내용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① 전혀 그렇지 않다(전혀 도움이 안 됨)부터 ⑤ 매우 그렇다(매우 도움이 된다) 중 1가지로 응답함

문25) 귀하는 지난주에 주로 취업준비를 하셨습니까?

☞ 취업준비란 구직, 이직, 창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탐색 이상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준비, 취업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도 취업준비에 포함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28로 이동

문25-1) 귀하는 취업을 얼마동안 준비하셨습니까?

( ) 년 ( )개월 (예: 6개월 일 경우 0년 6개월)

취업 준비 경험 및 기간

- 취업준비는 구직, 이직, 창업과 관련하여 실제 행동(이력서 작성, 면접, 사업자 등록 등) 외에도 관련 활동을 위한 정보탐색 과정도 포함.

  예) 공무원 시험의 경우 시험을 위한 강의 수강, 모의고사, 스터디 활동 뿐만 아니라 학원 검색, 공무원 시험 관련 커뮤니티 정보 검색 등 시험 준비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포함됨

- 취업 준비 기간은 준비 시작과 끝 사이의 기간이 아닌 실제로 최소한의 정보 탐색 이상의 활동을 한 기간을 기준으로 응답함

  예) 2019년 2월 졸업 후부터 2020년 1월까지 12개월동안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그 사이에 1개월 간 해외여행, 1개월간 아파서 쉰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10개월로 응답 해야 함

문27)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문27-1)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 항	문27) 도움 받은 경험	문27-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 친구, 선후배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취업 준비 관련 도움을 받은 대상

- 5개 대상별로 취업 준비 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문27)에서 ① 예 응답 후 문27-1)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① 전혀 그렇지 않다(전혀 도움이 안 됨)부터 ⑤ 매우 그렇다(매우 도움이 된다) 중 1가지로 응답함

문27-2)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로부터 주로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문27에서 '예' 라고 응답한 항목만 선택하여 응답)

문 항	정보 제공	교육/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기타 (구체적으로)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5) 친구, 선후배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6) 기타 (구체적으로)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대상별 도움 내용

- 문27에서 도움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만 문27-2에서 응답함
  예) 취업 준비 관련해서 학교와 친구, 선후배에게 도움을 받은 경우
  문27-2에서 (1) 학교, (5) 친구, 선후배 항목에만 응답하며 나머지는 응답하지 않음

- 대상 별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것 1가지만 응답함

문27-3) (문27-2에서 (3)번 항목 응답자만) 귀하가 도움을 받은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을 이용하는데 월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셨습니까?

약 [ ][ ][ ][ ][ ] 만원

문27-4)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에 지불한 비용을 제외하고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교재, 도서 구입 등 취업준비를 위해 월 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셨습니까?

약 [ ][ ][ ][ ][ ] 만원

문27-5) 취업 준비를 위해 평일 하루에 투자한 시간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십니까?

1일 평균 약 [ ][ ] 시간

취업 준비 관련 비용 지불 및 투자 시간

- 문27-3)은 사설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만 응답함
- 문27-3), 문27-4) 지불 비용은 만원 단위로 응답하며, 기간이 길어도 1개월당 지불한 비용으로 응답함
  예) 토익 학원에 3개월 수강과정 패키지를 45만원으로 등록한 경우
  월 평균 비용은 45 / 3 = 15만원임
- 문27-4) 사설기관을 제외한, 취업준비를 위한 비용에는
  교통비, 식비와 정규교육기관 수업비(대학교 등록금)은 포함하지 않음
  단, 학교 내에서 정규 수업 과정 외의 어학, 자격증 강좌 등을 수강한 것은 장소만 학교인 것일 뿐이므로 포함됨
- 문27-5) 투자 시간 기준은 1일 평균임. 10시간 이상으로 과다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응답자에게 확인이 필요함(순수하게 투자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식사, 휴식 등의 시간은 제외해야 함)

문28)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 시험 준비는 학교 재학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시험 준비를 의미하며, 공단(공사) 내부의 진급 시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있다 ② 없다

공무원, 공단, 국가전문자격시험 및 교원임용시험 예시

- 공무원, 공단(공사) 및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예는 다음과 같음

  - 공무원 : 5급, 7급, 8급(국회직, 간호직) 9급 공무원 등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경찰, 소방, 사회복지, 군무원, 기상직, 연구직 등 직렬이 포함됨
  - 공단(공사) :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기관 산하 특정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을 의미함
  - 국가전문자격시험 :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보육교사, 경비지도사 등

- 국가전문자격시험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시험과는 다른 자격시험이므로 주의해야 함

- 교원임용시험은 전국 교육대학 및 초등교육과 졸업 대상 시험(초등교사임용) 및 시도교육청 임용시험(중등교사임용)을 의미함

문29) 귀하는 향후 직업 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 직업훈련은 취업 및 창업 준비,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 및 훈련과 인턴 근무 등도 포함합니다. 단순한 취미활동을 위한 학원수강과 정규학교교육과 관련된 학원수강 및 실습(교생실습, 사회복지사 실습, 병원실습 등)은 제외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③ 이미 받고 있다

직업 훈련 계획

- 직업 훈련은 취, 창업 준비 및 본인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모든 교육, 훈련이 포함되며 취미를 위한 훈련은 해당되지 않음

  - 인턴 근무(스펙 목적) : (O) 취업 준비를 위한 스펙 마련 차원에서의 인턴쉽은 직업 훈련에 해당
  - 인턴 근무(학점 획득) : (X) 해당 전공 학점 취득이 주 목적인 경우에는 직업 훈련에 해당되지 않음(대학교 방학 인턴 등이 이에 해당됨)
  - 대학 재학중의 실습 : (X) 간호학과에서의 병원 실습, 사범대 교생 실습 등 정규 학교교육 내에의 실습은 본 문항에서의 의미하는 직업 훈련에 해당되지 않음

- 오프라인, 온라인 등 매체에 상관 없이 업무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이라면 직업 훈련에 해당됨

- 단, 예외적으로 행정고시, 회계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위한 학원 수강은 직업 훈련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

문30) 귀하는 다음 교육 대책 중 정부가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학 장학금 지원정책(국가장학금 등)
②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정책
③ 청년 진로관련 정책(진로상담, 진로교육 등)
④ 청년 직업교육 정책(취업지원센터, 일학습병행제 등)
⑤ 청년 인재양성 정책(청년인재 집중양성, 이공계 미취업자 산업맞춤 연수 등)
⑥ 기타 (적을 것: _____)

교육 대책

-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정책에는 저금리의 학금대출로 전환, 대출 상환 유예 등이 포함됨

경 제

문32) 귀하는 2021년도 최저 임금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 실제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 2019년은 8,350원, 2020년은 8,590원이며, 전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청년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2020년도 최저 임금 평균은 9,202원입니다.

시간급 [ ][ ][ ][ ][ ] 원

최저 임금

- 최저 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하며 '원' 단위로 응답
- 2020년도 최저임금(8,590원) 또는 전년도 조사 결과값(2020년도 희망 최저 임금 9,202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응답자에게 다시 한 번 올바른 값인지를 확인함(기준 액수보다 적어도 응답값이 틀린 것은 아니나 확인 필요)

문33)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을 제외한 본인 생활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 생활비 포함 내용: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오락, 문화생활, 도서구입 등),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도서 등 자료 구입비, 주거비 등

약 [ ][ ][ ][ ][ ] 만원

한 달 평균 생활비

- 한 달 생활비는 가구가 아닌 본인 생활비 기준, 월평균 '만원' 단위 금액으로 응답(문32 최저 임금 문항과 금액 단위가 다르므로 주의)
- 한 달 생활비에는 학원수강료, 응시료 등이 전부 포함되므로 문27-3 사설기관 이용 비용, 문27-4 사설기관 외 이용 비용 값보다 커야 함
- 특히, 응답자 본인이 가구 경제권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예: 맞벌이 가정의 아내(또는 남편)가 부부합산 소득 전체를 관리, 전업주부가 남편의 소득으로 가구 경제를 관리) 가족을 위한 전체 생활비가 아닌, 본인을 위한 생활비(식비, 여가비 등) 개념으로 응답 받아야 함
  - 예) 전업주부 응답자인 경우, 가족 생활을 위한 지출(장 보기, 자녀 학비 등)이 아닌, 본인을 위한 지출 비용(자녀를 등원/등교 시킨 후 친구와 식사 등)으로 응답함
- 정해진 월/주/일별 용돈 금액 없이 필요시 수시로 지출하는 응답자(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대략적인 월 총액을 환산하여 응답 받음

문33-1) 생활비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약 [ ][ ][ ] %

한 달 생활비 중 부모,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 한 달 생활비 총액을 100%로 보았을 때 지원 받는 비율을 기재
- 본 응답도 문33)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가족 생활비 전체가 아닌, 본인을 위한 생활비(용돈, 여가비 개념) 총액을 100%로 삼고 응답해야 함
- 경제권을 공유하는 부부 사이는 본 질문에서 언급한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에 해당하지 않음
  - 남편(또는 아내)인 응답자가 한달 생활비(용돈)로 50만원을 전액 아내(또는 남편)로부터 받는 경우, "0%" 로 응답함
  - 남편(또는 아내)인 응답자가 한달 생활비(용돈)로 100만원을 사용, 이 중 아내(또는 남편)로부터 50만원, 부모님으로부터 50만원을 받는다면 "50%" 로 응답함
- "0" 은 가능하나(용돈 전액을 본인이 벌어 쓰는 경우 해당) "100" 을 초과할 수는 없음

문34) 귀하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갚아야할 채무(학자금 대출 포함)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34-1)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채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학자금 마련 ② 주거비 마련(전·월세자금 대출 등)
③ 생활비 마련(식비, 의료비 등) ④ 창업 자금 마련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34-2) 귀하는 어느 기관을 통해 돈을 빌리셨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은행 ② 제2금융권 ③ 대부업체 ④기타(적을 것 :____)

채무 발생 이유

- 채무 발생 이유가 여럿인 경우(예: 전월세 자금 대출과 창업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가장 비용이 큰 한 가지를 기준으로 응답 받음
- 문16-1 학자금 대출 금액값과 본 문항 응답 내용이 일치하는 지 확인 필요

문36)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사회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기성세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청년 지원 주체

- 각 세부문항별 주체에 주의요망
  - (1), (2)는 '우리사회 전반'이, (3), (4)는 '기성세대'가, (5), (6)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청년 세대에게 행하는 대우와 배려에 대해 평가 받는 문항임

문37) 귀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현재 귀하의 취업상태와 상관없이, 귀하가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 **문38로 이동**　　② 아니오

문37-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②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이 부재
③ 고용 불안정
④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⑤ 낮은 급여 수준
⑥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⑦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없음
⑧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 수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중소기업 취업 의향

- 문37, 문37-1 중소기업 취업 의향 응답 시에는 본인의 현재 취업 상태에 상관없이 구직자일 때를 가정하여 응답함(따라서 본인이 대기업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어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적절하지 않음)

문39) 귀하는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개인, 교육)과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일자리, 경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노동공급: 교육 및 직업훈련 등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취업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
* 노동수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

① 노동공급(개인, 교육) ② 노동수요(일자리, 경제)

노동공급, 노동수요 용어 설명

- 노동공급
  - 정부보조금, 무료 강좌 등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 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함
- 노동수요
  - 기업이 사람을 채용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줌(예, 청년추가고용 지원금, 내일채움공제 등의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제도)

문39-1) 노동공급(개인, 교육)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②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일과 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문39-2) 노동수요(일자리, 경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④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⑥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고용위기 해법 용어 설명

- '독일, 스위스식의 일 · 학습 병행제도' 는 주당 1~2일은 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나머지 3~4일은 기업에서 실무교육 및 고숙련 훈련과정을 거친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임
- '경제민주화' 란 대기업 등에 편중된 부를 공정거래법 등의 법안, 소득 분배, 재벌개혁 등을 통해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취지의 내용임
- '임금피크제' 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임

문40) 귀하는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셨습니까?

*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 한 경우도 '일을 하였음'입니다.

① 일을 하였음 ➡ **문40-1로 이동**
② 휴가 및 일시 휴직 ➡ **문40-1로 이동**
③ 일을 하지 않았음 ➡ **문41로 이동**

경활상태

-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에 관계 없이 수입을 목적으로 지난 주에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① 일을 하였음으로 응답함

- 현재 소속된 직장, 업장 등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중단(휴가, 휴직)한 경우에는 ② 휴가 및 일시 휴직으로 응답함
  - 퇴사 후 쉬면서 다른 일을 찾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 중단이 아니므로 ③ 일을 하지 않았음이 올바른 응답임

- 무급가족종사자(보수를 받지 않고 주당 18시간 이상 일을 하는 대상자)도 ① 일을 하였음으로 응답함
  - 단 무급 업무를 하는 것은 가족 및 친지의 일을 돕는 것으로 한정되며 불특정 인원을 위한 무급 업무(봉사활동)는 일이 아님

문40-1)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거나 현재 휴가 및 일시 휴직 상태인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취업자: 지난 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가족사업체 및 농장에서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근무, 휴가, 휴직 등의 사유로 직장은 있었지만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취업자에 포함됩니다.

구분	내용	
(1) 종사상 지위	① 임금 근로자	② 비임금 근로자
(2) 고용형태	① 정규직(상용근로자) ②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용역 등)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3) 근로시간 유형	① 전일제 ② 시간제	
(4) 직장 유형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② 외국인회사 ③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기업 ④ (재단, 사단)법인단체 ⑤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⑥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⑦ 기타 (_____)	
(5) 종사자 수 (사업체 기준)	① 1-4인 ② 5-9인 ③ 10-29인 ④ 30-99인 ⑤ 100-299인 ⑥ 300-499인 ⑦ 500인 이상	
(6) 근속년수 (현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	☐☐ 년 ☐☐ 개월	
(7) 현재 직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의 직무 수준은		
(7-1) 나의 교육수준보다	① 낮다 ② 유사하다 ③ 높다	
(7-2) 나의 기술수준보다	① 낮다 ② 유사하다 ③ 높다	
(7-3) 나의 전공분야와 (**대학진학 경험자)	① 일치한다 ② 불일치한다	

임금근로자

-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통상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됨

비임금근로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규모가 작더라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 고용원을 두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 혼자 일하거나, 돈을 받지 않고 일을 도와주는 사람(무급가족 종사자)이 있는 경우를 말함.

	다음의 경우도 자영업자에 해당됨 – 일정한 사업장 없이 장사를 하는 행상, 노점상 – 가내 작업자 중 원료 자체를 직접 구입하여 가정에서 작업하는 경우 –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자 예) 과외(소속 사업체 없이 혼자 수행하는 경우), 통·번역 등 • 무급가족종사자 : 자신과 같은 집에 사는 가족(친척) 중의 한 사람이 경영 하는 사업체에서 아무런 보수 없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 혈연관계에 있으나 가구를 달리하는 가족 또는 친척의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일할 경우는 취업자라 볼 수 없으며, 또한 무급가족종사자로 볼 수 없음 (이 경우에는 일한 대가에 대한 제공여부를 재확인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
정규직(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함. 여기에서의 분류는 직업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고용계약기간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함 –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하여 입사하여 소속회사의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직원. 단,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하여 입사한 사람이라도 일정한 사업 완료의 필요기간동안 또는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자는 제외 –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퇴직금 및 상여금 등 각종 수당 수혜자. 단, 몇 년을 동일사업체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이 임시 또는 일용인 자는 제외
비정규직 (기간제,파견, 용역 등)	• 임금근로자 중 상용이 아닌 자로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일당제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 • 일정한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하여 고용된 자(사업완료가 1년 미만) • 단순 업무 보조원으로서 상여금 등 제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 등
근로시간 유형	• 다음의 시간제 근로조건에 1개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일제' 임 –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정규 시간동안 일하거나 –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종사자수	• 종사자수 응답은 사업체를 기준으로 함 • 사업체란 기업체보다 작은 단위의 개념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부여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일하고 있는 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우리은행 삼성동 지점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체인 우리은행 전 사원 수15,000명 기준이 아닌 삼성동 지점의 인원 수 20명을 기준으로 응답해야 함 • 본인을 포함하며, 정규직 및 비정규직 종사자를 모두 합친 수임 • 고용주는 자신을 포함한 사업체내의 전 종사자수를, 자영업자는 가족종사자가 있는 경우 자신을 포함한 전 종사자수를 기입. 작은 개인 사업체의 경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
직무 수준	• 문40-1-7-3은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본인의 전공분야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문15 대학(교) 진학 경험 여부 '① 있다' 응답) 만 응답하고 고졸 이하 학력자는 응답하지 않고 비워둠

문44) 귀하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선택(V)	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
(1) 1개월 미만 (　　)	(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2) 1개월 이상 (　　)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3) 1년 - 2년 미만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4) 2년 이상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2년 6개월)

비경제활동 기간

- 학교 등 정규교육기관에 다니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지속시기를 묻는 문항으로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 2년 미만, 2년 이상 중 해당하는 기간을 하나만 고르고 기간을 일(1개월 미만일 경우), 개월(1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년 개월(1년 이상/2년 이상일 경우)로 응답함

- 1년 - 2년 미만 선택 시에는 1년 0개월 ~ 1년 11개월 사이 응답만 가능함

문45) 귀하가 구직활동을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가장 최근 구직활동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선택(V)	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
(1) 1개월 미만 (　　)	(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2) 1개월 이상 (　　)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3) 1년 - 2년 미만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4) 2년 이상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2년 6개월)

구직활동 기간

- 구직활동 지속시기를 묻는 문항으로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 2년 미만, 2년 이상 중 해당하는 기간을 하나만 고르고 기간을 일(1개월 미만일 경우), 개월(1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년 개월(1년 이상/2년 이상일 경우)로 응답함

- 1년 - 2년 미만 선택 시에는 1년 0개월 ~ 1년 11개월 사이 응답만 입력하도록 함

- 구직활동이 잠시 중단되었더라도 취업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함
  예) 구직활동 6개월 후 취업, 퇴사 후 3개월 간 구직활동 중 –> 3개월
  구직활동 6개월 후 사고로 잠시 쉰 후 3개월 간 구직활동 중 –> 9개월

문47)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실제로 얻는 세후 기준 월 평균 소득과 귀하가 원하는 월 평균 소득, 실제로 일하는 노동시간, 귀하가 원하는 주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1) 현재 본인의 월 평균 소득 : 약 [ ] 만원

(2) 본인이 원하는 월 평균 소득 : 약 [ ] 만원

(3)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 약 [ ] 시간

➡ **주당 35시간 미만일 경우 문 47-3-1로 이동, 35시간 이상일 경우 "(4)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 으로 이동**

문47-3-1) 귀하는 지난주에 일이 더 주어졌거나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직장)이 주어졌다면 할 수 있었습니까?

① 있었음 ② 없었음

문47-3-2) 귀하는 지난 4주 동안 더 많은 시간 일하기 위해 현재 하는 일을 더 찾아보거나 다른 일(직장)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었음 ② 없었음

(4) 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 : 약 [ ] 시간

현재 소득, 노동시간 및 본인이 희망하는 소득, 노동시간

- 문47-(1), (3)은 현재의 월평균소득, 주당 노동시간을 묻는 문항이며 문47-(2), (4)는 본인이 원하는 월소득, 주당 노동시간을 묻는 문항임.
- **월 금액(만원), 주당 시간**으로 기준 및 단위가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
  예) 평일 5일 근무, 아침 9시 – 저녁 6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포함) 근무 한다고 하면 주당 노동시간은 5일 X 8시간(점심시간 제외) = 40시간임
- 주당 노동시간에는 정규 근로시간 외에 야근, 잔업, 특근 등 초과 근로 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함
- 문47-(1) 〉 문47-(2) 인 경우(현재보다 적은 소득을 원하는 경우)는 면접원이 반드시 현장에서 해당 사유를 확인해야 함
- 문47-3 응답값이 35 미만일 경우 문47-3-1, 문47-3-2로 이동하여 응답 후 문 47-4 응답

문50) 귀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취업성공패키지는
- **만18-34세 고등학교 이하 졸업 비진학 미취업청년, 대학교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대학교 및 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진단을 포함해 **1년간 단계별로 통합적 취업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 참여기간동안 참여수당(20~25만원)을 지원하며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하고 있다 ➡ 문52으로 이동
②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시작)년도: 년) ➡ 문52으로 이동
③ 참여한 적이 없다

문51) 귀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알고 계시고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참여할 의향은 있었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는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로 응답해 주세요.

①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③ 모른다
➡ 응답 후 문53으로 이동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 취업성공패키지는 만18-34세 고등학교 이하 졸업 비진학 미취업청년, 대학교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대학교 및 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상담, 적성검사, 직업훈련 등의 단계별로 1년간 취업지원을 하는 사업임

-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노동부에서 2010년부터 시행한 제도이므로 문50에 참여(시작)년도 응답값이 2009년 이전인 경우 오류임. 2009 이하일 경우 다른 취업 프로그램으로 오인한 것인지 확인 필요

- 본인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알고는 있었으나 연령, 학력 등 사업 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참여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로 응답함

문53) 귀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지 6개월 이내인 만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 2~3년간 300~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 매칭으로 1,600~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① 참여하고 있다 ➡ 문55로 이동
②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년도: 년) ➡ 문55로 이동
③ 참여한 적이 없다

문54) 귀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알고 계시고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참여할 의향은 있었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는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로 응답해 주세요.

①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③ 모른다
➡ 응답 후 문56으로 이동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

-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지 6개월 이내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단 군필자는 최고 39세까지 인정)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하며 300~600만원을 납부하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하여 1,600~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임

-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문53에 참여(시작)년도가 2015년 이전인 응답인 경우 오류임

-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여러건이므로 혼동되지 않게 주의해야 함(본 설문에서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만 해당됨)
  - **청년 내일채움공제(2016년 7월 시행) :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6개월 이내 만15~34세 근로자 대상. 본인+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2018년 6월 시행) :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15~34세 근로자 대상. 본인+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내일채움공제(2014년 8월 시행) :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근로자(연령 제한 없음) 대상. 본인+기업이 함께 적립

- 본인이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알고는 있었으나 취업 기간, 연령 등 사업 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참여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로 응답함

문56) 귀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습니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 **졸업, 중퇴후 2년 이내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미취업 청년(18~34세)을 대상**으로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시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클린카드 포인트(취업준비 관련 업종에서 사용가능)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신청은 고용노동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① 지원받고 있다. ➡ 문58로 이동
② 지원받은 적이 있다. ➡ 문58로 이동
③ 지원받은 적이 없다.

문57) 귀하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알고 계시고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참여할 의향은 있었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는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로 응답해 주세요.
①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③ 모른다
➡ 응답 후 문59로 이동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참여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569만원 이하)의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인 청년이 자기주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임 • 본인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음 사업을 알고는 있었으나 미취업 기간, 연령, 중위소득 등 사업 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참여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로 응답함

※ 문64번~문69번 문항은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문40번의 ①, ② + 문40-1-1번의 ① 응답자) 혹은 2017년~2020년 사이에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임금근로자(문59번의 ① 응답자 + 문61번의 ①, ②, ③ + 문61-1번의 2017~2020년 응답자)**만 응답하는 문항입니다. **아래 표를 참조 하시어 시 확인 후 진행해 주십시오.**

대상	대상 조건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 (2가지 조건 모두 해당)	문40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험 문항 → ① 일을 하였음 또는 ② 휴가 및 일시 휴직 응답
	문40-1-(1) 현재 일자리 종사상 지위 → ① 임금근로자 응답
2017~2020년 사이에 그만둔 경험이 있는 임금근로자 (3가지 조건 모두 해당)	문59 이전에 취업한 경험 → ① 예 응답
	문61-1 가장 최근에 일자리를 그만둔 시기 → 2017년 ~ 2020년 사이 응답
	문61-1-1-(1) 그만둔 직장 종사상 지위 → ① 임금근로자 응답

➡ **위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문64로 이동,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70으로 이동**

직장 내 경험 관련 문항

- 문64~문69번 문항은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 또는 2017~2020년 사이에 임금근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항임

문64) 귀하는 (현재 또는 직전)직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취업자는 현재 직장, 미취업자는 가장 최근 그만둔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산업안전	(9) 회사로부터 업무수행 중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인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혹은 교육을 받았다.	①	②	⑨
	(10) 나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근로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다.	①	②	⑨
	(11) 업무수행 중 업무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다친 적이 있다.	①	②	⑨
	➡ (11)번에 ①있다 로 응답한 경우 (12)번을 응답, ②없다, ⑨모르겠다로 응답한 경우 문65로 이동			
	(12) 산업재해보험 급여(병원비,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보상금 등)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⑨

직장 내 산업안전 관련 경험

- 문64-(12) 산업재해보험 급여 수령 경험은 문64-(11)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친 적이 있는 응답자('① 있다')만 응답하고, 부상당한 경험이 없거나 모르겠는 경우(②없다, ⑨모르겠다 응답)에는 응답하지 않고 비워 놓음

문67) 귀하의 (현재 또는 직전)직장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의 상담 또는 고충 처리 절차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취업자는 현재 직장, 미취업자는 가장 최근 그만둔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① 나의 직장에서 직장 괴롭힘이 발생한 적이 없다
② 나의 직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한 적은 있지만 직장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③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직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였다
④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⑤ 모르겠다

직장내 괴롭힘 고충 처리 절차	• 현재 취업자의 경우에는 현재 직장,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현재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다닌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함 • 본인의 피해 경험이 아닌, 다니고 있는(다녔던) 직장 전체를 기준으로 응답함

문69) 귀하의 (현재 또는 직전)직장에는 다음과 같은 조직 측은 제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취업자는 현재 직장, 미취업자는 가장 최근 그만둔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문 항	있다	없다	모른다
(1) 노동조합	①	②	③
	➡ **①있다** 응답 시 **문69-(3)**으로 이동	➡ **②없다, ③모른다** 응답 시 **문69-(2)**로 이동	
(2)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1)노동조합 문항에서 ②,③인 경우만 응답)	①	②	③
(3) 업무 관련 제안제도	①	②	③
(4) 조직적응 프로그램	①	②	③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결체인 반면 노사협의회는 생산성 향상, 근로복지 증진 등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는 단체로 노동조합에 비해 단체교섭, 피업 등 쟁의행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현재 또는 직전 직장에 (1) 노동조합 이 ① 있다 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2) 노사협의회 문항을 응답 하지 않고 (3) 업무 관련 제안제도 문항으로 넘어가서 응답함

- 반면 (1) 노동조합 이 ② 없다 또는 ③ 모른다 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2) 노사협의회 문항에 응답 해야 함

주 거

문74) 귀하는 공동주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공동주거(Share house)란 가족이 아닌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방은 따로 쓰고 거실과 욕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함(고시원 및 하숙 거주 경험은 포함하지 않음)

① 예 ② 아니오

공동 주거

- 본 조사에서 다루는 '공동주거'란 집의 출입구(대문, 현관 등)는 하나인 공간에서 여러 가족 및 개인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의미함
  - 대문과 현관이 별도인 단독주택 형태인 경우, 대문이 하나이면서 거주공간에 출입하는 현관도 하나이고, 하나의 거주공간 내의 각 방에 각각의 가족 및 개인이 거주하며 이들이 거실과 욕실 등 공용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
    (대문은 하나이나 현관이 여럿이고 각 현관을 통해 독립된 거주공간, 거실, 욕실을 소유하는 경우는 공동주거가 아님
  - 대문이 곧 현관인 형태의 주택인 경우, 현관이 하나이면서 각 방에 각각의 가족 및 개인이 거주하고 이들이 거실과 욕실 등 공용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

문76)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동거] 현재 같이 살고 있다 ➡ **문96으로 이동**

② [비동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학업,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③ [독립]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다(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부모 동거 및 독립

- '② 비동거'와 '③ 독립'을 혼동하여 오응답 받지 않도록 주의
  - ② 비동거 예시 : 지방 거주자가 대학 재학을 위해 '부모의 경제적 도움' 하에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는 경우
  - ③ 독립 예시 : 지방 거주자가 서울로 취업, 서울에 거주하며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없이 생활 대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문77) (문76에서 ②,③ 응답자만) 귀하는 현재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78) 귀하의 현재 주거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원룸(다가구) : 전체 집이 1인 개인 명의로 된 집으로 방 하나가 침실, 거실, 부엌을 겸하도록 설계된 집
② 아파트
③ 다세대/빌라 : 공동주택의 일종, 개별 방마다 소유주가 다른 경우
④ 오피스텔 : 세탁기, TV, 냉장고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관리인이 있는 경우
⑤ 하숙
⑥ 기숙사
⑦ 고시원
⑧ 단독주택
⑨ 기타 : 일반주택의 방 하나만 임대, 지역운영학사 등

미혼자 주거형태

- 주거 형태별 설명
  - 다세대/빌라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
  - 오피스텔 :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었으나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
  - 하숙 : 일정한 세와 식비를 내고 남의 집에 머물면서 숙식을 하는 것
  - 고시원 : 보통 1개의 방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
  - 아파트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 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으로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 받았으면 아파트에 해당됨(응답자의 판단 하에 응답함)

문79) 주거비용 마련은 누가 하셨습니까?

- **주거비용**은 자가인 경우 구입 비용, 전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말함.
- 금융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출을 누가 갚느냐를 기준으로 응답함.

① 전부 본인 스스로
② 본인이 대부분 마련하고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일부 도움
③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대부분 마련해주시고 본인이 일부 도움
④ 전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마련해 주심
⑤ 기타(적을 것 : _____)

주거비용 마련

- 문79에서 의미하는 '주거비용'은 전세금, 보증금 등 목돈을 의미함
- 따라서 월세의 경우 주거비용은 매달 내는 월세가 아닌 '보증금'만 해당됨

건강

문89) 귀하는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①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 **문91로 이동**
②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 **문90로 이동**
③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 **문90로 이동**
④ 기타(적을 것 : _____) ➡ **문90로 이동**

아플 때 조치 방법

- 여러 가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평소 본인이 주로 하는 행동을 기준으로 응답함
  예) 감기에 걸렸을 때 보통은 며칠 약만 사 먹다가 그래도 낫지 않으면 병원에 가 진료를 받음
  –〉 평소 약 복용 후 호전되기를 기다리는 편이므로
  ②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으로 응답함

문93)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94로 이동**

문70-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① 일주일에 1번 ② 일주일에 2번
③ 일주일에 3번 ④ 일주일에 4번
⑤ 일주일에 5번 ⑥ 일주일에 6번
⑦ 매일

규칙적인 운동 횟수

-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 하루에 여러번 했더라도 1일 1회를 기준으로 응답함
  예) 응답자가 보통 월, 수, 금요일에 아침에는 조깅, 저녁에는 수영을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 일 수를 기준으로 주당 3회이므로 ③ 일주일에 3번으로 응답함

문95) 귀하는 성형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목적과 미용(보톡스 등) 목적을 모두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문96으로 이동

문95-1) 귀하가 하신 성형수술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 문96으로 이동

② 미용(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 문95-2로 이동

용어 설명	• 안검하수 :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위쪽 눈꺼풀을 올렸다 아래로 내렸다 하는 근육의 힘이 약해서 위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으로, 수술적 치료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임
성형수술 목적	• 의료목적의 수술을 하면서 '이왕 하는' 미용 수술을 겸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된 수술의 목적과 계기가 '의료' 목적인 경우 "① 의료"로 응답 받음

관계 및 참여

문100)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명)

친구의 범위

-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을 포함하여 응답하도록 함

문101)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문102로 이동**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문101-1로 이동**

평소 외출정도

- 격일제 근무, 교대 근무 등으로 출근일이 반드시 주중이 아니지만 주 5일 이상 외출하는 경우에는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로 응답함

문105) 사회 · 정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 항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①	②	③	④	⑤
(3) (온 · 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5) 항의 전화하기	①	②	③	④	⑤

문106) 사회 · 정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 귀하가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 항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임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①	②	③	④	⑤
(3) (온 · 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5) 항의 전화하기	①	②	③	④	⑤

사회, 정치 문제 의견 제시 방법별 경험 및 향후 의향

- 문105, 문106은 (1) SNS 의견 제시 ~ (5) 항의 전화하기 총 5개의 의견 제시 방법에 대해
  - 지난 1년 간 참여 경험이 있는지(문105)
  - 향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문106)

  를 묻는 문항으로 동일 의견 제시 방법에 대해 이전에 참여 경험이 있어도 향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

문108) 귀하는 청년들의 사회 ·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 *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청년기본법*제정 및 제도 활성화
②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
③ 청년정책 전담부처 구성
④ 청년참여 공간(시설, 온라인 포털) 확대
⑤ 청년참여 활동비 지원
⑥ 청년참여 지원정책의 예산 확대
⑦ 청년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⑧ 청년들의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
⑨ 청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⑩ 청년 할당제 도입(정당 비례대표, 지자체 위원회 등)
⑪ 기타(적을 것: _____)

청년의 사회,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 청년의 사회,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소를 3순위까지 응답함
- 보기①의 청년기본법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방단체의 청년 관련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조정, 고용 뿐 아니라 능력개발, 주거, 금융, 문화생활 등 다방면의 청년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 법령임

기본사항

배경문항 2) [가족배경] 귀하의 부모님 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최하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최상

소득 수준 = 경제적 수준

- 부모님의 소득 수준 응답 시에는 근로소득, 임대료 등 정기적인 소득 외에도 부동산 소유 등 전체적인 부의 수준을 고려하여 응답함
  예) 부모님이 은퇴하셔서 정기적인 소득은 없으나 건물 소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본인의 판단 하에 상위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음

배경문항 3) [교육]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구분	학교 안 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 · 박사)	잘 모르겠음
(1) 본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최종학력

-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경우는 졸업이 아님
  예) 아버지가 2-3년제 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을 중퇴한 경우
  "④ 고등학교 졸업" 으로 응답
- 대학을 두 개 이상 졸업한 경우는 고학력을 기준으로 응답
  예) 어머니가 2-3년제와 4년제 대학을 모두 다니고 졸업한 경우
  "⑥ 4년제 대학 졸업" 으로 응답
-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거나 돌아가셨어도 응답함

5.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응답자 안내서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응답자 안내서

조사 대상자께서는 **설문지에 응답하기 전, 반드시** 본 안내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응답 보기 옆이나 하단에 특정 문항 안내 번호가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이동 해 주세요.

이동 지시문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바로 아래 문항으로 이동합니다.
문95에서 [① 예]를 응답했다면 지시문이 없으므로 바로 아래 문항인 문95-1로 이동하며,
문95-1에서 [① 의료]를 선택했다면 이동 지시문을 따라 문96으로 이동 합니다

문95) 귀하는 성형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목적과 미용(보톡스 등) 목적을 모두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 문96으로 이동

문95-1) 귀하가 하신 성형수술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 문96으로 이동
② 미용(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 문95-2로 이동

문95-2) (문95-1에서 ② 응답자만)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②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③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 ④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
⑤ 자기만족을 위해 ⑥ 기타(적을 것 : _____)

2 문항에 모두 고르라는 말이 없는 경우, 1개의 응답만 선택해주세요.

아래 문항처럼 모두 선택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문항만 여러 개의 응답 선택이 가능합니다.

문34-2) 귀하는 어느 기관을 통해 돈을 빌리셨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은행 ✓ ② 제2금융권 ✓ ③ 대부업체 ④ 기타(적을 것: _____)

3 선택한 보기에 추가 입력칸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 해 주십시오.

보기 [② 참여한 적이 있다]를 선택한 경우만 참여(시작)년도 값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문50) 귀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취업성공패키지는
- **만18-34세 고등학교 이하 졸업 비진학 미취업청년, 대학교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대학교 및 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진단을 포함해 **1년간 단계별로 통합적 취업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 참여기간동안 참여수당(20~25만원)을 지원하며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하고 있다 ➡ 문52으로 이동
②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시작)년도: 2018 년 ➡ 문52으로 이동
③ 참여한 적이 없다

4 박스 안 설명, 강조표시가 있는 설명문은 반드시 읽고 응답 해 주세요.

박스나 문항 아래 설명문에는 해당 문항 대상 기준이나 응답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반드시 읽고 응답 해 주세요..

문56) 귀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습니까?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 - 졸업, 중퇴후 2년 이내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미취업 청년(18~34세)을 대상으로
>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시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클린카드 포인트(취업준비 관련 업종에서 사용가능)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지원 신청은 고용노동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문57) 귀하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알고 계시고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 참여할 의향은 있었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는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로 응답해 주세요.

응답 방법

5 표 형태의 복합 문항은 응답값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 해 주세요.

표 형태의 복합 문항(매트릭스 문항)은 각 항목마다 모두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 누락 주의)
문 27과 같이 '제공받은 경험'에 대해 ① 예 로 응답한 경우에만 '도움이 되는 정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설기관의 도움 받은 경험이 '있다' 로 응답한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정도'에 응답해야 합니다.

문27)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문27-1)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 항	문27) 도움 받은 경험	문27-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예 ➡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예 ➡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 ④	⑤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예 ➡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 친구, 선후배	① 예 ➡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① 예 ➡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6 종사상 지위 응답 시 세부 고용형태를 꼭 작성 해 주세요.

임금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응답 시 세부 고용형태도 응답 해 주세요.

구분	내용	
(1) 종사상 지위	① 임금 근로자	✓ ② 비임금 근로자
(2) 고용형태	① 정규직(상용근로자) ②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용역 등)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③ 무급가족종사자

7 금액 및 시간 응답 시 단위를 주의 해 주세요.

금액, 시간을 입력하는 문항의 경우 단위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문항에 있는 단위를 확인 후 정확하게 응답 해 주세요
예를 들어 희망 최저임금 응답 시에는 금액이 원 단위이며 월소득 응답 시에는 만원 단위 로 차이가 있습니다.

문32) 귀하는 2021년도 최저 임금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 실제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 2019년은 8,350원, 2020년은 8,590원이며, 전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청년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2020년도 최저 임금 평균은 9,202원입니다.

시간급 [ ][ ][ ][ ][ ] 원 **시급 단위는 (원)**

문47)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실제로 얻는 세후 기준 월 평균 소득과 귀하가 원하는 월 평균 소득, 실제로 일하는 노동시간, 귀하가 원하는 주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1) 현재 본인의 월 평균 소득 : 약 [ ][ ][ ][ ][ ] 만원

(2) 본인이 원하는 월 평균 소득 : 약 [ ][ ][ ][ ][ ] 만원

소득 단위는 (만원)

8 문 15-1 대학(교) 소재지와 전공계열은 아래 보기에서 응답값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학교 소재지는 *보기1(소재지)에서 전공계열은 *보기2(전공계열)에서 확인 후 숫자를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OO대학교 부산캠퍼스, 인문계열일 경우 ②, ①을 각각 응답 합니다

문15-1) **가장 최근에 진학한 2-3년제 및 4-6년제 대학(대학원은 포함되지 않음)**의 학교유형, 소재지, 전공계열, 입학년월, 졸업여부, 학년, 졸업년월을 응답해 주십시오.

학교유형	학교 소재지 (* 보기1 참조)	전공계열 (* 보기2 참조)	(편)입학년월	졸업여부	학년 (4학년 이상인 경우, 4학년에 응답)	졸업년월 (졸업한 경우 응답)
① 전문대 (2-3년제) ✓ 대학교 (4-6년제)	2	1	년 월	① 졸업 ➡ 졸업년월 ② 재학 ➡ 학년 ③ 휴학 ➡ 학년 ④ 중퇴 ➡ 문16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년 월

* 보기1(소재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⑱ 기타(해외 등)

* 보기2(전공계열)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경상계열 제외) ③ 경상계열 ④ 자연계열 ⑤ 공학계열
⑥ 의/약학계열 ⑦ 교육계열 ⑧ 예체능계열 ⑨ 사관학교, 경찰대 ⑩ 기타

설문지 작성이 끝나면
응답을 빠트린 문항이 없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연관성이 있거나 문항 응답 시 주의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설문지 작성 후 해당 문항들의 값을 확인하며 오류가 없는지 확인 해 주십시오.

대상 문항	응답	관련 문항	응답
문1) 아동, 청소년, 청년 대상 연령	연령 입력	문2,3,4) 독립, 결혼, 자녀 출산 적정 연령	연령 입력
- 이전 단계와 연령이 겹치는 것은 오류입니다. (예: 아동 만 6~15세, 청소년 만 12~18세 응답은 12~15세가 겹치므로 오류) - 문2,3,4에서 적정 연령을 응답하신 경우 문1에서의 연령대 응답과 비교하여 연령 값이 어느정도 비슷한지 확인합니다.			
문6) 결혼 여부	③ 결혼하지 않음	문8) 맞벌이 여부	① 예(맞벌이)
- 사실혼 관계라 결혼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문6번에 **① 배우자 있음 으로 응답 해 주십시오.**			
문15-1) 대학(교) 학교유형	① 전문대(2~3년제)	문21) 추후 대학원 진학 의사	③ 대학원 진학
- 4년제 학사학위가 없는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바로 대학원 진학이 불가능하므로 위에 해당 되는 경우 응답값을 확인 해 주십시오. - 학점은행제를 통해 4년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문15-1 대학(교) 학교유형을 ② 대학교(4~6년제)로 응답 해 주십시오.			
문24) 고등학교 재학 경험	② 아니다	문15) 대학(교) 진학 경험	① 있다
- 검정고시 등의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고졸학력 취득이 필요합니다. 해당 케이스의 경우 확인 해 주십시오. - 검정고시를 통한 고등학교 학력 취득의 경우 문24 고등학교 재학 경험에 ① 그렇다, 문24-1 다녔던 고등학교 유형에 ⑨ 기타에 검정고시 라고 응답 해 주십시오.			
문25-1) 취업 준비기간	기간 입력	문45) 구직활동 기간	기간 입력
- 취업준비 기간은 순수하게 구직, 이직, 창업을 위한 준비 기간을 의미합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교과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문25-1 취업 준비기간과 문45) 구직활동 기간 응답값을 비교하여 특정 값이 없거나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지 확인 해 주십시오.			
문27) 취업 준비 관련 도움을 받은 대상	① 예	문27-1, 문27-2) 대상별 도움 정도, 내용	객관식 응답
- 문27에서 도움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만 문27-1, 문27-2에서 응답하며 나머지는 비워놓으면 됩니다.			
문27-3, 문27-4) 사설기관 및 그 외 지불	금액 입력	문33) 한달 생활비	금액 입력
- 한달 생활비에는 학원수강비 등 취업준비 관련 비용도 포함이 되므로 문2-3, 문27-4 금액도 문33 생활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40-1-1) 종사상 지위	② 비임금근로자	문40-1-4) 직장유형 문40-1-5) 사업체 종사자 수	① 민간회사 이외 값 ① 1-4인 이외 값
문59-1) 최근에 그만둔 일자리 종사상 지위	② 비임금근로자	문61-1-1-4) 최근 그만둔 일자리 직장유형 문60-1-1-5) 최근 그만둔 일자리 종사자 수	① 민간회사 이외 값 ① 1-4인 이외 값
-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민간회사 소속이며, 특히 고용원이 없는 사업체의 경우 종사자수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 해 주십시오.			
문50)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여부 문53)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 여부	② 참여한 적이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작)년도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시작)년도	2009 이하 값 2015 이하 값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는 2010년부터 시작된 지원 사업이며,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 특히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유사한 사업이 많으므로 확인 해 주십시오.			
문61-1.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시기	2016년 이전	문61-1-1. 그만둔 일자리 상세 내용	객관식 응답
- 문61-1-1-X 문항은 2017~2020년 사이에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대상만 응답하는 문항입니다.			
문40)지난주 일자리 여부 + 문40-1-1) 종사상 지위	① 일 함 또는 ② 휴가, 휴직 + ① 임금근로자		문64. (현재 또는 이전) 직장 내 경험
문59-1) 최근에 그만둔 일자리 종사상 지위 + 문61) 취업 후 퇴사 또는 해고 경험 + 문61-1) 일자리를 그만둔 시기	① 임금근로자 + ① 자진 퇴사 또는 ② 해고 또는 ③들다 경험 + 2017~2020년 사이 그만둠		
- 문64~문69문항은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일시 휴직, 휴가 중인 임금근로자 또는 2017~2020년 사이에 자진 퇴사 또는 해고 형태로 임금근로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항입니다.			
배경문항3) 본인 최종학력	학력 응답	문15-1-5) 대학(교) 졸업여부 문21-2) 대학원 재학여부 문24) 고등학교 재학여부	재학/졸업 상태
- 배경문항3 응답시 앞에서 응답한 학력 관련 문항 응답과 내용이 일치하는 지 확인 해 주십시오.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20-R01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김영한·이유진·조아미·임성택

20-R02 청소년·청년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유민상·최정원·이수정·장혜림

20-R03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 오해섭·문호영

20-R04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 최용환·성유리·박윤수·김보경

20-R05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방안 연구 Ⅱ: 청소년상담사를 중심으로 / 최창욱·좌동훈·이종원·남화성·정지희

20-R06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20-R06-1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연구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20-R06-2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20-R07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Ⅲ / 김경준·김정숙·윤철경

20-R08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서정아·성윤숙·송태민

20-R08-1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1_청소년 비만에 대한 비정형 빅데이터 연구 / 송태민

20-R08-2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2_청소년 행복 결정요인에 대한 정형 빅데이터 연구 / 홍성효

20-R09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승경·임세희·최은영

20-R1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김영지·황세영·최홍일·이민희·김진호

20-R10-1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 박환보·주경필

20-R10-2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황세영·최홍일

20-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Ⅱ / 최인재·강경균·송민경·조윤정·김가희

20-R12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20-R12-1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황영식

20-R13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20-R13-1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 1기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20-R13-2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 2기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Ⅲ: 질적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장근영·이동훈·윤철경 (자체번호 20-R1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Ⅲ: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 오은진·장희영 (자체번호 20-R14-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Ⅲ: 청년 이직자 - 총괄보고서 / 김기헌·신동훈·변금선·고혜진·신인철 (자체번호 20-R1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Ⅲ: 청년 이직자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헌·신동훈·고혜진·신인철 (자체번호 20-R15-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Ⅱ: 위기청소년 / 백혜정·임희진·송미경·김양희 (자체번호 20-R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Ⅱ: 위기청소년-국내·외 주요 법령 및 건강정책 분석 / 류정희·이상정·박선영·전민경 (자체번호 20-R1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Ⅱ: 위기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백혜정·임희진 (자체번호 20-R16-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Ⅰ: 초등학생 / 배상률·이창호·이정림 (자체번호 20-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Ⅰ: 초등학생 - 해외사례 조사 / 정현선·심우민·윤지원·김광희·최원석 (자체번호 20-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Ⅰ: 초등학생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 (자체번호 20-R17-2)

연구개발적립금

20-R24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 황여정·이정민

20-R24-1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예비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황여정·이정민·김수혜

20-R25 10대 청소년 포럼 운영 / 모상현

20-R26 코로나 19 확산 및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대응방안 / 김현철

수 시 과 제

20-R18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 강화 방안 연구 / 이정민·이종원

20-R19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배정희·김기헌

20-R20 가출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연구 / 황진구·김지연

20-R21 선거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정책 및 활동 지원 방안 연구 / 이창호

20-R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개편 방안 연구 / 김경준·이종원·박정배

20-R2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 / 김희진·백혜정

수 탁 과 제

20-R27 청소년 비즈쿨 활성화를 위한 고교교육 정책 연계방안 연구 / 강경균·안재영·황은희

20-R28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 김기헌·유민상·변금선·배정희

20-R29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 / 김영한

20-R29-1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요약본) / 김영한

20-R30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양미석

20-R3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5종)

20-R31-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1~2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20-R31-2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3~4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20-R31-3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5~6학년용)/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20-R31-4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중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20-R31-5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고등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20-R32 2019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양미석

20-R33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적용방안: 회복적 생활교육을 중심으로 / 성윤숙·양미석

20-R34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

20-R34-1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초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20-R34-2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중학교) / 성윤숙·이윤소

20-R34-3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고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20-R35 교육과정 기반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성윤숙·이윤소

20-R36 어울림 자유학기 프로그램(5종)

20-R36-1 어울림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놀러와! 어울림 세상)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선보라·이혜옥·이윤소

20-R36-2 자유학기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 성윤숙·배은정·이윤소

20-R36-3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사회) / 성윤숙·선보라·이윤소

20-R36-4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도덕) / 성윤숙·이혜옥·이윤소

20-R36-5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국어)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이윤소

20-R37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동향 / 성윤숙

20-R38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 개선 용역 / 김형주·김혁진·김정주

20-R39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기헌·유민상·변금선·배정희

20-R40 학교 안·밖 청소년정책 협력체계 구성 및 연계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남화성

20-R41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유진

20-R41-1 꿈과 친구사이: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매뉴얼 / 이유진

20-R42 청소년 주도적인 활동지원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 연구 / 최창욱·문호영

20-R43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사례관리사 및 자립업무종사자 직무분석 연구 / 김지연·백혜정·이상정

20-R44 2020년도 청소년 인터넷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유홍식·김동일

20-R45 청소년 교육.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지자체-교육청 협력 강화 방안 / 김영지·황세영·손진희·박명선·박종원·조기영

20-R46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연구 / 최창욱·좌동훈

20-R47 농업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농촌 청소년 실태조사 / 오해섭·최홍일

20-R48 성남시 청소년시설 확충 및 개선 연구 / 황진구·남화성

20-R49 다함께돌봄센터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연구 / 황진구·좌동훈

20-R50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최창욱

20-R51 지역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방안 / 최용환·곽창규·이성규

20-R52 수원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용환·김보경

20-R53 20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20-R54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연구 / 최인재·송원일·박지원

20-R55 2020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실태조사 연구 / 최인재·송원일·배수인

20-R56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의 성장관리 및 성과측정 방안 연구 / 이정민·성유리·김혜원

20-R57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20-R57-1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위기청소년 결과 분석)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20-R57-2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20-R58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직업계고 혁신 지원 방안 연구 - 특성화고 혁신지원 운영모형 개발 / 강경균·김영만·김용성

20-R59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20 / 김희진·임희진·정윤미

20-R60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 개발 / 연보라·최정원·김성은

20-R61 학업중단 현황 및 지원 방안 / 김성은·박하나·김현수

20-R62 환경 변화에 따른 후기청소년 정책 발전 방향 연구 / 장근영·김기헌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20-S01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30)

20-S0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성과보고회(1.31)

20-S03 2020년 제28회 청소년정책포럼: 학교밖 청소년 취업 및 자립지원 방안(1.22)

20-S04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1.31)

20-S05 제25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강원국 교수의 매력적인 글쓰기 특강(4.23)

20-S06 제26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김병완 작가의 퀀텀 독서법 및 책쓰기 특강 (4.21)

20-S07 2020년 제29회 청소년정책포럼: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방안(6.19)

20-S08 2020년 제30회 청소년정책포럼: 18세 선거권 이후 청소년 정치교육의 방향 및 과제(7.17)

20-S09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실무 역량 강화 연수(초등, 중등, 고등)(7.28)

20-S10 2020년 제31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7.28)

20-S11 제3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플랫폼 노동의 미래를 묻다 〈별점 인생〉(8.5)

20-S12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1)

20-S13 제3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Z세대의 SNS 마켓에서의 소비자사회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인스타마켓을 중심으로(8.26)

20-S14 2020년 제32회 청소년정책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의 방향(8.18)

20-S15 청소년 이슈 관련 네트워크 분석(8.25)

20-S16 2020년 제33회 청소년정책포럼: 학교 안밖 청소년 협력체계 구성 연계 방안(9.23)

20-S17 제3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방안(10.6)

20-S18 2020년 대안학교 관리자 협의회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10.5)

20-S19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10.5)

20-S20 2020년 제34회 청소년정책포럼: 코로나 시대 청소년 성장지원의 방향(10.21)

20-S21 2020 유로필로조피 서울 대회(11.12~13)

20-S22 2020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온라인 워크숍(11.13)

20-S23 제35차 청소년정책포럼: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11.18)

20-S24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 사이버폭력 정책 동향 및 국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방향 모색)(12.18)

20-S25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11.28)

20-S26 제9회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11.20)

20-S27 제36차 청소년정책포럼: 우리나라 한국아동·청소년의 삶은 어떠한가?(12.1)

20-S28 제37차 청소년정책포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 체계의 과제와 방향(12.8)

20-S29 제1차 10대청소년목소리포럼: 코로나로 세겨진 우울의 시대 우리의 꿈과 이상을 쏘다 -동고동락, 각양각색 청소년의 희망이야기(12.5)

20-S30 제38차 청소년정책포럼: 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12.17)

20-S31 제39차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주요 결과와 과제(12.22)

20-S32 진로위기학생 유형별 진로교육 실천과제 성과보고회 자료집(11.27)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제9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2호(통권 제9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3호(통권 제9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4호(통권 제99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9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질 제고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0호: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학교 졸업예정자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1호: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 및 발전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2호: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3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지원방안 모색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4호: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5호: 미래지향적 청소년관계법 정비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6호: 「청년기본법」제정 전·후 정책형성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7호: 청년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의 적정성 검토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8호: 청년종합실태조사(안) 시행을 위한 조사 설계 방향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9호: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정책참여 현황과 과제

NYPI Bluenote 통계 49호: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NYPI Bluenote 통계 50호: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NYPI Bluenote 통계 51호: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관련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52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연구보고 20-R06-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V
- 기초분석보고서

인 쇄 2020년 12월 31일
발 행 2020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삼일기획 전화 044)866-3011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 · 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71-1 94330
979-11-5654-268-1 (세트)